

용역보고서 2025-14

발간등록번호
11-1352000-100261-01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심층분석 연구

이상정
김수진·류정희·이주연·이혜정·김시아·강현주



■ 연구진

| | | |
|-------|---------------|-----------------|
| 연구책임자 | 이상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 공동연구진 | 김수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 | 류정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 | 이주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 | 이혜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 | 김시아 | 서울장신대학교 객원교수 |
| 강현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 |

제출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부와 용역계약(2024.10.30.)한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심층분석」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5년 3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신영석



| | |
|--|-----------|
| 제1장 서론 | 1 |
| 제1절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심층분석 연구 배경 및 목적 | 3 |
|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7 |
| 제2장 아동의 신체활동 및 생활방식과 주관적 건강상태 | 9 |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1 |
| 제2절 선행연구 분석 | 12 |
| 제3절 통계분석 방법 및 결과 | 20 |
| 제4절 소결(정책적 함의) | 28 |
| 제3장 미디어 환경과 정신건강 및 웰빙 | 33 |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35 |
| 제2절 선행연구 분석 | 37 |
| 제3절 통계분석 방법 및 결과 | 47 |
| 제4절 소결(정책적 함의) | 57 |
| 제4장 학교생활만족도와 영향 요인 | 59 |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61 |
| 제2절 선행연구 분석 | 62 |
| 제3절 통계분석 방법 및 결과 | 73 |
| 제4절 소결(정책적 함의) | 80 |
| 제5장 아동-부모의 관계와 아동학대 | 85 |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87 |
| 제2절 선행연구 분석 | 90 |
| 제3절 통계분석 방법 및 결과 | 98 |

| | |
|---------------------------------------|------------|
| 제4절 소결(정책적 함의) | 112 |
| 제6장 아동의 다차원적 결핍 유형과 영향요인 | 113 |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15 |
| 제2절 선행연구 분석 | 117 |
| 제3절 통계분석 방법 및 결과 | 133 |
| 제4절 소결(정책적 함의) | 149 |
| 제7장 아동 권리와 참여 | 153 |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55 |
| 제2절 선행연구 분석 | 157 |
| 제3절 통계분석 방법 및 결과 | 167 |
| 제4절 소결(정책적 함의) | 179 |
| 제8장 결론 및 제언 | 183 |
| 제1절 심층분석 결과 및 정책 제언 | 185 |
| 제2절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언 | 193 |
| 참고문헌 | 197 |
| 부록 | 205 |
| [부록 1]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표준오차_아동용 | 205 |
| [부록 2]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표준오차_보호자용 | 231 |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 |
|--|----|
| 〈표 2-1〉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 18 |
| 〈표 2-2〉 비만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 19 |
| 〈표 2-3〉 연구 모형 | 20 |
| 〈표 2-4〉 주요 변인의 구성 및 측정 | 22 |
| 〈표 2-5〉 종속변수: 주관적 건강상태 분포 | 23 |
| 〈표 2-6〉 독립변수: 수면시간 및 운동시간 분포 | 23 |
| 〈표 2-7〉 독립변수: 식습관 및 비만정도 분포 | 23 |
| 〈표 2-8〉 통제변수: 성별, 연령대 등의 분포 | 24 |
| 〈표 2-9〉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평균 수면시간 분포 | 25 |
| 〈표 2-10〉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평균 운동시간 분포 | 25 |
| 〈표 2-11〉 주관적 건강상태와 식습관에 대한 분포 | 25 |
| 〈표 2-12〉 주관적 건강상태와 비만정도에 대한 분포 | 26 |
| 〈표 2-13〉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영향 요인 이항로지스틱회귀모형 분석 결과 | 27 |
| 〈표 2-14〉 아동의 아침식사, 점심 또는 저녁식사 결식 이유 | 28 |
| 〈표 2-15〉 아동의 수면부족여부 | 29 |
| 〈표 2-16〉 아동의 수면부족 이유(1순위) | 29 |
| 〈표 2-17〉 비만율에 대한 평균 운동시간 분포 | 30 |
| 〈표 3-1〉 9-17세 아동의 평상시 스트레스 인지도(빈도) | 37 |
| 〈표 3-2〉 9-18세 아동의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 경험률-청소년종합실태조사 | 38 |
| 〈표 3-3〉 9-17세 아동의 정신건강 수준(우울 및 불안, 공격성) | 38 |
| 〈표 3-4〉 9-17세 아동의 우울감 | 39 |
| 〈표 3-5〉 9-17세 아동의 불안감 | 39 |
| 〈표 3-6〉 소아 및 청소년에서 불안장애 비율-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2022) | 40 |
| 〈표 3-7〉 9-17세 아동의 자살생각, 계획, 시도 여부 | 40 |
| 〈표 3-8〉 소아 및 청소년에서 자살시도 비율-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2022) | 41 |
| 〈표 3-9〉 삶의 만족도 | 41 |
| 〈표 3-10〉 9-18세 아동의 삶의 만족도-청소년종합실태조사 | 42 |
| 〈표 3-11〉 9-17세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성 측정 문항별 빈도 | 42 |
| 〈표 3-12〉 9-17세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 | 43 |
| 〈표 3-13〉 유아동 및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스마트폰 과의존실태조사 결과 | 43 |
| 〈표 3-14〉 연구 모형 | 48 |

| | |
|---|-----|
| 〈표 3-15〉 기초통계량 | 49 |
| 〈표 3-16〉 스마트폰 과의존 점수 선형회귀 분석결과 | 51 |
| 〈표 3-17〉 아동의 스트레스 영향 요인: 매개요인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점수를 이용한 분석 결과 | 54 |
| 〈표 3-18〉 아동의 우울 및 불안 영향 요인: 매개요인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점수를 이용한 분석 결과 | 55 |
| 〈표 3-19〉 아동의 공격성 영향 요인: 매개요인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점수를 이용한 분석 결과 | 56 |
| 〈표 4-1〉 2013년 9-17세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 | 63 |
| 〈표 4-2〉 2018년과 2023년의 아동종합실태조사 통합 비교표-학교생활만족도 | 64 |
| 〈표 4-3〉 학교생활만족도_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 66 |
| 〈표 4-4〉 2017-2023년 학교생활만족도 평균(9-18세) | 68 |
| 〈표 4-5〉 아동 특성 | 75 |
| 〈표 4-6〉 일반적 특성과 학교생활만족도 | 76 |
| 〈표 4-7〉 교급별 학교생활 | 77 |
| 〈표 4-8〉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종속: 학교생활만족도) | 79 |
| 〈표 4-9〉 학교생활만족도 요인 | 82 |
| 〈표 4-10〉 동네 만족도 | 84 |
| 〈표 5-1〉 공공화 이후 아동학대 신고사례와 판단사례(2020-2023) | 87 |
| 〈표 5-2〉 아동연령대별 아동학대경험률 | 97 |
| 〈표 5-3〉 주요변수의 구성 및 측정 | 99 |
| 〈표 5-4〉 축약형 가족관계척도(가족건강성) | 100 |
| 〈표 5-5〉 아동방임 및 학대 척도 | 101 |
| 〈표 5-6〉 보호자와 아동의 아동방임 및 학대경험률 차이 | 101 |
| 〈표 5-7〉 아동보고 성학대 피해경험률 | 102 |
| 〈표 5-8〉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 103 |
| 〈표 5-9〉 가족건강성 | 104 |
| 〈표 5-10〉 부모보고 아동학대 유형별 가해 경험률 | 105 |
| 〈표 5-11〉 아동학대 가해경험률 | 105 |
| 〈표 5-12〉 부모보고 아동학대 가해경험률 | 106 |
| 〈표 5-13〉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 107 |
| 〈표 5-14〉 아동연령별 아동학대 가해경험률 | 107 |
| 〈표 5-15〉 가족건강성이 아동학대 가해 경험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로짓모형 (Logistic regression) 1 | 108 |



| | |
|---|-----|
| 〈표 5-16〉 가족건강성이 아동학대 가해 경험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로짓모형 (Logistic regression) 2 | 109 |
| 〈표 5-17〉 가족건강성이 아동학대 가해 경험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로짓모형 (Logistic regression) 3 | 111 |
| 〈표 6-1〉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활용한 아동의 결핍수준 조사 항목(아동용) | 120 |
| 〈표 6-2〉 아동의 결핍수준 추이: 연도별 비교 | 121 |
| 〈표 6-3〉 세부항목별 아동 결핍수준 추이: 연도별 비교 | 122 |
| 〈표 6-4〉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아동의 결핍지수: 연도별 비교 | 123 |
| 〈표 6-5〉 2022 아동보호통합패널 양육자응답 양육환경 결핍지수 | 125 |
| 〈표 6-6〉 Martorano et al.(2013)이 OECD 29개국 비교에 활용한 아동의 물질적 결핍 지표와 지표별 해당 아동의 연령 | 126 |
| 〈표 6-7〉 OECD 29개국의 2개 이상 아동결핍비율 | 127 |
| 〈표 6-8〉 EU-SILC의 아동결핍 문항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포함여부 | 129 |
| 〈표 6-9〉 EU-27개국 아동결핍수준: 2021년 기준 | 130 |
| 〈표 6-10〉 분석변수의 구성 및 측정 | 135 |
| 〈표 6-11〉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36 |
| 〈표 6-12〉 아동의 물질적 결핍 세부항목별 결핍비율 | 137 |
| 〈표 6-13〉 영역별 아동의 물질적 결핍 수준 | 138 |
| 〈표 6-14〉 영역별 아동의 물질적 결핍 중복비율 | 139 |
| 〈표 6-15〉 응답자 특성에 따른 아동의 물질적 결핍 평균 총점 | 140 |
| 〈표 6-16〉 물질적 결핍 세부항목에 따른 잠재집단 분류별 모형적합도 | 142 |
| 〈표 6-17〉 물질적 결핍 세부항목에 따른 잠재집단 분류를 위한 검증결과 | 143 |
| 〈표 6-18〉 잠재집단별 아동의 물질적 결핍 수준 | 145 |
| 〈표 6-19〉 물질적 결핍 잠재집단별 특성 | 146 |
| 〈표 6-20〉 결핍수준 최저집단과 최저집단간 영향요인에 대한 다항 로지스틱 모형 (기준집단=결핍수준 최저집단) | 147 |
| 〈표 6-21〉 여가-관계 중심 결핍집단과 결핍수준 최저집단 간 영향요인에 대한 다항 로지스틱 모형 (기준집단=결핍수준 최저집단) | 148 |
| 〈표 7-1〉 방과 후 희망활동 | 160 |
| 〈표 7-2〉 아동권리 및 참여경험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 163 |
| 〈표 7-3〉 놀이 및 여가활동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 165 |



| | |
|---|-----|
| 〈표 7-4〉 주요 변인의 구성 및 측정 | 168 |
| 〈표 7-5〉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N=2,815) | 170 |
| 〈표 7-6〉 주요 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 | 170 |
| 〈표 7-7〉 삶의 만족도 및 행복감과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 171 |
| 〈표 7-8〉 회귀분석 모형 적합도 및 공선성 진단 | 172 |
| 〈표 7-9〉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다중회귀 분석 결과 | 172 |
| 〈표 7-10〉 회귀분석 모형 적합도 및 공선성 진단 | 173 |
| 〈표 7-11〉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다중회귀 분석 결과 | 174 |
| 〈표 7-12〉 참여경험-유형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175 |
| 〈표 7-13〉 참여경험-유형별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 175 |
| 〈표 7-14〉 조절효과 분석을 위한 회귀모형 요약 | 176 |
| 〈표 7-15〉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조절효과 분석 결과 | 177 |
| | |
| 〈부표 1-1〉 아동이 평가한 주관적 건강상태 | 205 |
| 〈부표 1-2〉 9~17세 비만율 | 206 |
| 〈부표 1-3〉 건강검진 수검 여부 | 207 |
| 〈부표 1-4〉 학생 수면시간 | 208 |
| 〈부표 1-5〉 비학생 수면시간 | 209 |
| 〈부표 1-6〉 아침, 점심, 저녁 식습관 | 210 |
| 〈부표 1-7〉 중등도 운동실천율 | 211 |
| 〈부표 1-8〉 고강도 운동실천율 | 212 |
| 〈부표 1-9〉 중강도 운동실천율 | 213 |
| 〈부표 1-10〉 9-17세 아동의 평상시 스트레스 인지도(빈도) | 214 |
| 〈부표 1-11〉 9-17세 아동의 우울감 | 215 |
| 〈부표 1-12〉 9-17세 아동의 불안감 | 216 |
| 〈부표 1-13〉 9-17세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 | 217 |
| 〈부표 1-14〉 학교생활 만족도 | 218 |
| 〈부표 1-15〉 공부부담(평균) | 219 |
| 〈부표 1-16〉 친구관계 | 220 |
| 〈부표 1-17〉 선생님과의 관계 | 220 |
| 〈부표 1-18〉 가족관계(주양육자와의 관계) 합산점수 | 221 |



| | |
|---|-----|
| 〈부표 1-19〉 긍정적·부정적 또래 관계(아동의 친구애착 및 친구일탈 정도) | 222 |
| 〈부표 1-20〉 사회활동 참여 비율(9-17세) | 223 |
| 〈부표 1-20〉 사회활동 참여 비율(9-17세) | 225 |
| 〈부표 1-21〉 학교폭력 피해 | 227 |
| 〈부표 1-22〉 학교폭력 가해 | 227 |
| 〈부표 1-23〉 아동방임(문항별) | 228 |
| 〈부표 1-24〉 신체적 학대(문항별) | 228 |
| 〈부표 1-25〉 정서학대(문항별) | 229 |
| 〈부표 1-26〉 아동의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수준의 평균 비교 | 229 |
| 〈부표 1-27〉 아동의 빈곤에 대한 걱정도 | 230 |
| 〈부표 2-1〉 건강검진 수검 여부 | 231 |
| 〈부표 2-2〉 가족건강성(평균점수) | 232 |
| 〈부표 2-3〉 매체 이용/시청시간 제한(1, 2) | 233 |
| 〈부표 2-4〉 매체 이용/시청시간 제한(3, 4) | 234 |
| 〈부표 2-5〉 아동방임 | 235 |
| 〈부표 2-6〉 신체학대 | 236 |
| 〈부표 2-7〉 정서학대 | 237 |
| 〈부표 2-8〉 가구처분가능소득 | 238 |
| 〈부표 2-9〉 박탈지수 | 239 |
| 〈부표 2-10〉 아동의 결핍지수 | 240 |
| 〈부표 2-11〉 거주 주택의 점유형태 | 241 |

그림 목차

| | |
|--|-----|
| [그림 1-1] 합계출산율 | 3 |
| [그림 1-2] 아동 인구 | 4 |
| [그림 2-1]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 2018년과 2023년 조사 결과 | 13 |
| [그림 2-2] 9-17세 아동의 비만율: 2018년과 2023년 조사 결과 | 14 |
| [그림 2-3] 9-17세 아동의 일 평균 수면시간 | 15 |
| [그림 2-4] 9-17세 아동의 아침 결식을 | 15 |
| [그림 2-5] 9-17세 아동의 운동실천율 | 16 |
| [그림 2-6] 9-17세 아동의 주중 및 주말 앉아있는 시간 | 17 |
| [그림 4-1] 연도별 추이: 학교생활만족도_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 65 |
| [그림 4-2] 연도별 추이: 학교생활만족도 | 67 |
| [그림 4-3] 분석 모델 | 74 |
| [그림 5-1] 공공화 이후 아동학대 신고사례와 판단사례(2020~2023) | 88 |
| [그림 5-2] 아동학대유형별 발생현황(2019~2023) | 88 |
| [그림 5-3] 아동연령대별 아동학대발생건수(2023) | 96 |
| [그림 5-4] 연구모형 | 98 |
| [그림 6-1] 연구모형 | 134 |
| [그림 6-2] 아동의 물질적 결핍의 교육-여가-사회적관계참여 영역 간 중복비율 | 139 |
| [그림 6-3] 물질적 결핍수준별 해당 아동 비율 | 141 |
| [그림 6-4] 잠재집단 수별 AIC, BIC, ABIC 값의 스크리도표 | 143 |
| [그림 6-5] 잠재집단별 아동의 물질적 결핍 양상 | 144 |
| [그림 7-1]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율 | 158 |
| [그림 7-2] 아동 4대 권리 인지율 | 158 |
| [그림 7-3] 아동의 참여경험 정도 | 159 |
| [그림 7-4] 우리사회가 아동청소년 인권을 존중해주는 정도 | 162 |
| [그림 7-5] 분석 모델 | 168 |
| [그림 8-1] OECD 국가 아동 행복도 비교 | 193 |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서론

제1절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심층분석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 1 장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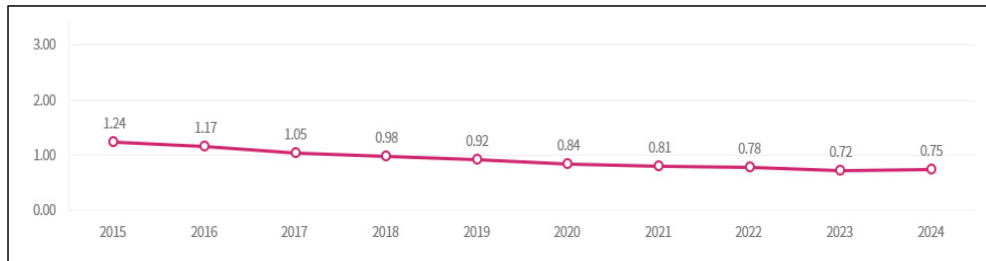
제1절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심층분석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이후 1명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그림 1-1] 참조)¹⁾. 2024년 기준 0.75명으로, 2023년 0.72명 대비 0.03명 반등했지만 OECD 39개국 합계출산율 평균 1.51명(2022년 기준)²⁾의 1/2 수준보다 여전히 낮다 ([그림 1-1] 참조).

[그림 1-1] 합계출산율

(단위: 점)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5061>(2025년 2월 25일 인출).

영아 출생률이 감소하면서 아동 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 기준 0-17세 이하의 아동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6,876,330명)에 불과하다([그림 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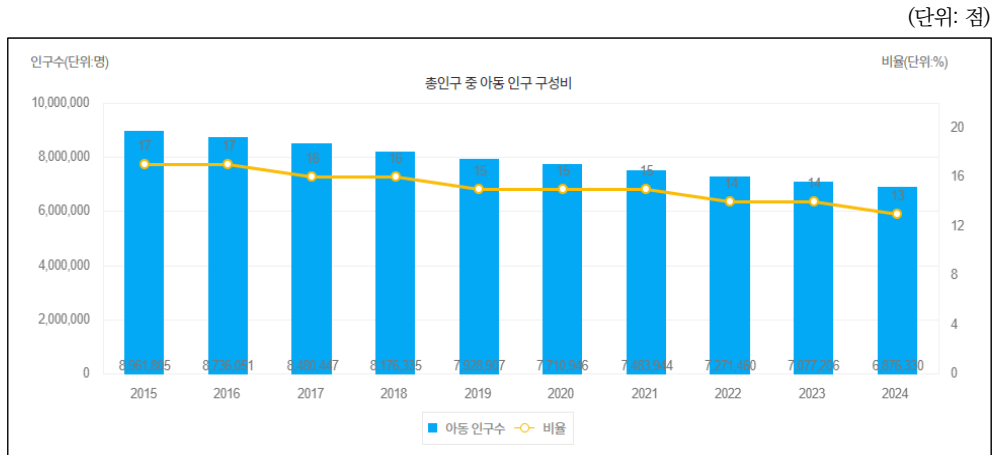
1)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5061>(2025년 2월 25일 인출).

2) Society at a Glance 2024 - Country Notes: 대한민국 https://www.oecd.org/ko/publications/2024/06/society-at-a-glance-2024-country-notes_d98f4d80/korea_5c43a214.html(2025년 2월 25일 인출).

4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심층분석 연구

저출생시대 아동인구의 급격한 감소 추세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대응으로써, 보편적인 아동복지정책 수립과 시행은 매우 중요하다. 보편적 아동복지정책 수립을 통한 적극적이고 선제적 정책 개입을 통해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제공하여 아동 삶의 전반적인 질 제고가 필요하다.

[그림 1-2] 아동 인구



출처: 주민등록인구통계.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53#\(2025년 2월 25일 인출\)](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53#(2025년 2월 25일 인출)).

이에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법 제7조」에 따라 5개년의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통해 아동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국가 단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14-19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이라는 비전 아래, ‘아동 행복도 증진’과 ‘아동 최우선의 원칙 실현기반 조성’을 핵심 목표로 정책과제를 수행했다. 「20-24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또한 ‘아동이 행복한 나라’로 비전을 정하고, ‘아동권리의 존중 및 실현’, ‘아동이 현재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핵심 목표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이어 우리나라 아동의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 주관적 행복감)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23년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질 수준은 7.14점으로 지난 10년(2013년 6.10점, 2018년 6.57점) 동안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국가적 정책 추진을 통한 아동 행복도 제고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질 수준은 OECD 국가들의 평균 점수보다 여전히 낮다. OECD 국가들의 아동 평균 삶의 질 수준은 7.04점(2018년 기준)³⁾으로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의 결과(6.87점)는 이보다 낮다. 따라서 2025년부터 시행될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서도 아동의 주관적 웰빙과 삶의 질 제고를 정책 목표로 정하고, 행복도 수준을 보다 높이기 위한 과제 추진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 아동 삶의 주요 지표와 각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심층 분석하여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정책 마련과 추진이 필요하다.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는 18세 미만의 우리나라 아동 삶의 실태를 파악한 대표성이 있는 전국 단위의 조사로 우리나라 아동의 다양한 삶의 지표와 각 지표에 대한 영향 요인을 파악하는 심층분석 자료로 활용도가 높고, 과학적인 근거자료 산출이 가능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자료를 심층 분석하여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정책 마련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 근거기반(evidence-based)의 아동 복지정책 수립,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아동 삶의 주요 지표에 대한 타 실태조사 비교 분석, 아동종합실태조사 2차 자료 분석을 통해 아동의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도 제고를 위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2.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⁴⁾

심층분석에 활용된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전국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로, 2008년 시작하여 2013년, 2018년에 이어 네 번째로 실시된 조사이다.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자료는 전국의 0세부터 18세 미만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2023년 9월 11일부터 같은 해 12월 15일까지 총 14주간 수행되었다. 0-8세 이하의 아동가구는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아동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9세 이상 18세 미만

3) 캔트릴의 사다리(Cantril's ladder) 척도(0-10점)로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고, 15세 아동의 평균 점수를 비교함.

4) 이상정 외. (2023).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고서**. 보건복지부의 일부를 정리하여 제시함.

의 아동가구는 아동과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쌍체조사로 수행되었고, 아동 현황 및 실태에 대해 아동이 직접 응답하였다.

조사대상은 일반가구 내 아동과 저소득층 가구 내 아동 조사로 구분되며, 일반가구 내 아동 4,500명, 저소득층 가구 내 아동 1,000명을 배분하여 표본을 설계하였다. 본 조사에서 저소득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근거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중 최소 1개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있는 가구로 제한하여, 2023년 6월 30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표본조사구의 추출은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 리스트를 기반으로 조사구 내의 가구 수에 비례하는 확률비례계통추출법에 의해 추출하였다. 표본으로 추출된 조사구에서 가구를 계통 추출하여 '적격가구원(0-18세 미만의 아동)이 1명이라도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실사를 진행하였다. 저소득 가구 아동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표본 추출틀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내 아동 리스트를 이용하였고, 여러 제약으로 인해 동/읍면을 1차 추출 단위로, 아동을 2차 추출단위로 하는 층화2단집락추출법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각 층에 배분된 표본크기에 따라 각 동/읍면별 저소득층 가구에 해당하는 0-18세 미만의 아동 수에 비례하는 확률비례계통추출법에 따라 표본 동/읍면을 추출하고, 표본으로 선정된 조사구에서 0-18세 미만 아동 리스트를 작성하여 계통추출법을 적용하여 추출한 후 실사를 진행하였다. 표본 추출 과정에서 층화2단확률비례계통추출법을 적용하여 조사구 내의 가구별 추출확률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설계가중치를 산정하여 분석하였다.

조사표는 기본적으로 보호자용과 아동용으로 구분되었다. 보호자용 조사표는 가구 일반사항, 건강, 발달 및 교육, 관계, 양육 및 돌봄, 여가 및 활동, 안전 및 위험행동, 지역사회환경, 물질적 환경 총 9개 영역 97개의 항목(연령별 차이가 있음, 부가 문항 제외)로 구성되었고, 아동용 조사표는 응답자 일반사항, 건강, 발달 및 교육, 관계, 여가 및 활동, 안전 및 위험행동, 지역사회환경, 물질적환경, 주관적웰빙의 총 9개 영역 94개 항목(연령별 차이가 있음, 부가 문항 제외)로 구성되었다.

조사는 가구 방문을 통한 TAPI(Tablet Assisted Personal Interview)를 주 조사 방법으로 하되, 12세-18세 아동에 대해 기숙사 혹은 집단시설에 별도 거주하거나, 9시 이후 늦은 시간 귀가 등으로 만남이 어려운 경우에 제한적으로 CAMI(Computer Assisted Web/Mobile Interview) 방식을 활용하였다. 최종 표본수는 5,753가구이

며, 이 중 9세 이상의 자가 응답 가능한 아동의 조사 건수는 2,815명(표준화 가중치 부여 후 3,334건)이다. 한편, 영역별로 사용된 심층분석 지표와 분석 모델에 따라 표본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주관적 웰빙은 한 개인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긍정적 감정은 많이 느끼고 부정적 감정은 적게 느끼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 삶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이다. 한편, 성인과 달리, 아동의 행복은 돌봄을 제공하는 어른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아동의 주관적 웰빙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동의 주관적 웰빙은 아동 개인의 특성, 가족 역학, 사회적 관계 및 학교 환경, 지역사회, 미디어 환경과 같이 광범위한 환경적 영향을 포함하여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의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지표와 각 지표의 다차원적 요인이 파악될 수 있도록 심층분석 영역을 구성하였다. 제2장에서부터 제7장까지 각 영역별로 심층분석이 필요한 지표를 중요도, 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아동 특성 및 가구 특성별 지표의 변화 분석, 타 조사와의 비교, 영향 요인 분석 등을 통해 해당 지표를 심층 분석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신체활동 및 생활방식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항로지스틱회귀모형을 활용하여 식습관, 수면시간, 운동시간, 비만율과 주관적 건강상태의 관계를 파악했다. 제3장에서는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및 성장 환경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다중회귀분석과 매개분석을 통해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 개인, 가족, 사회 환경요인을 파악하고, 스마트폰 사용을 포함하여 아동 개인, 가족, 사회환경 요인이 아동의 정신건강과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 실태를 살펴보고,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분석했다.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의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영역의 요인을 파악하였다. 제5장에서는 아동, 부모와의 관계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가

죽건강성과 아동학대 간의 관계를 분석했다. 특히, 가족 건강성의 아동학대 경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서 아동 연령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여 연령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가족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제6장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의 물질적 결핍 수준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그 영향 요인을 분석했다.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아동의 물질적 결핍 특성을 파악하고,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특성 집단별 물질적 결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했다. 제7장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보장과 참여 경험 현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경험이 아동의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회귀분석을 통해 아동권리, 참여경험, 여가활동이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의 조절효과를 검증했다. 마지막으로 제8장에서는 이러한 심층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우리나라 아동정책수립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제2장

아동의 신체활동 및 생활방식과 주관적 건강상태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선행연구 분석

제3절 통계분석 방법 및 결과

제4절 소결(정책적 함의)

제 2 장

아동의 신체활동 및 생활방식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주관적 건강상태는 본인이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스스로 평가하는 것으로, 질병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이 생각하는 건강수준이며 건강 관련 삶의 질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신체적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신체적 요인은 운동 습관, 영양 상태, 수면 패턴이, 심리적 요인은 스트레스, 우울,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요인은 가정환경, 학교생활, 친구 관계가 해당된다.

아침식사 빈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이 거의 선형 관계라는 결과를 통해 아동기 아침식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López-Gil 외, 2024).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 영양불량을 초래하여 아동의 사고능력이 저하될 수 있고, 아침 식사를 하는 경우 학업성적이 상당히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Simeon, 1989; Dunlop, 1986).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동안 아침식사의 결식 증가와 비만 증가는 서로 관련성이 있다고 밝혔다(Nermer, 2006). WHO(2020)의 신체활동 및 좌식행동에 대한 지침(Guidelines on physical activity and sedentary behaviour)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은 주당 최소 60분의 중등도에서 고강도의 신체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p.25). 이러한 활동은 근력 및 골격, 심혈관 등의 신체 건강, 학업성취도를 증진시키며, 비만과 우울증을 감소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신체적 건강 문제는 활동 참여를 제한하여 아동의 심리정서, 행복에 영향을 미치고, 신체 활동은 불안을 줄이며 아동의 전반적인 행복에 기여한다. 이렇듯 건강한 식단,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과 같은 생활방식은 삶의 질,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체활동과 생활방식은 주관적 건강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2021년 기준 자기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아동의 비율은 한국이 26.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OECD 평균: 13.6%).⁵⁾ 2023년 아동중

합실태조사에서도 9-17세 아동이 자신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해 5점 만점 기준 평균 4.24점으로 2018년(4.45점)에 비해 0.21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상정 외, 2023). 또한,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성과지표인 주관적 건강에서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019년 70.0%에서 2023년 64.4%로 5.6%p 하락하였다(2023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이러한 현상은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성과지표에 따른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 호전되지 않았다.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향후 건강 행동, 학업 성취, 사회적 관계 형성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를 향상될 수 있도록 정책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신체활동과 생활방식의 행태, 즉 신체적 요인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각적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아동이 본인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함과 더불어 건강상태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신체활동과 생활방식을 모두 고려한다는 점에서 기존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진다. 이때 신체활동은 중증도, 고강도, 중강도에 대한 운동실천율을, 생활방식은 수면시간과 식습관을 활용하고자 한다.

제2절 선행연구 분석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의 9-17세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비만율, 신체활동과 생활방식을 살펴보고, 2018년 조사 결과도 함께 비교하였다. 그리고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아동의 비만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신체활동과 생활방식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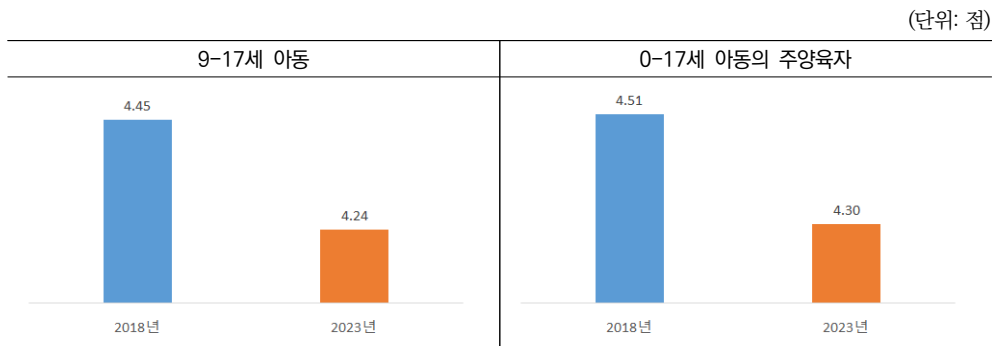
5)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조사결과보고서(2021).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p.71

1.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의 지표 변화 추이

가.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9-17세 아동이 자신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해 5점 만점 기준 평균 4.24점으로 2018년(4.45점)에 비해 0.21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1) 참조). 또한, 2021년 기준 자기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아동의 비율도 한국이 26.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OECD 평균: 13.6%)⁶⁾. 한편, 0-17세 아동의 주양육자가 생각하는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도 2023년 4.30점으로 2018년(4.51점)에 비해 0.21점 감소하였다.

[그림 2-1]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 2018년과 2023년 조사 결과



출처: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이상정 외, 2023, p.112-113 <표 4-1>, <표 4-2> 재구성하여 작성함.

나. 아동의 비만을

아동의 비만율은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소아과학회에서 펴낸 ‘201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를 기준으로 하여 저체중, 정상, 과체중, 비만으로 구분하였다(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2023), pp.123).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소아과학회에서는 연령별 체중이 5백분위수 미만인 경우 저체중으로 정의하며 2-18세에서 연령별 체질량지수 85백분위수 이상이면서 95백분위수 미만의 경우 과체중, 95백분위수 이상은 비만으로 정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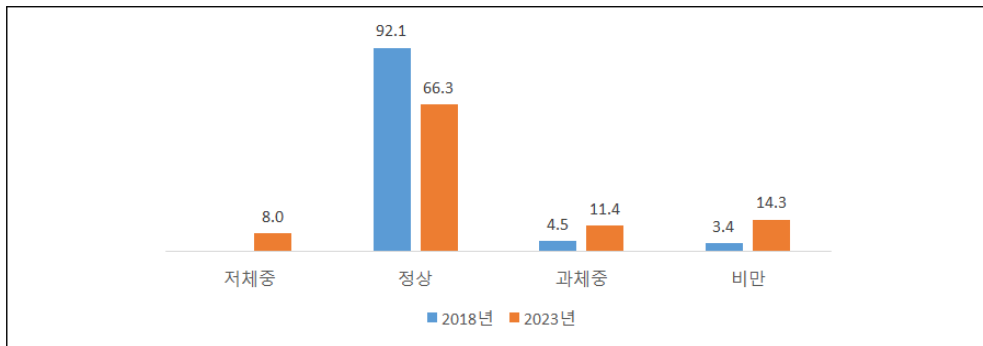
6)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조사결과보고서(2021).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p.71

다(질병관리본부와 대한소아과학회, 2017). 이 연구에서도 이 기준을 적용하였는데, 신장과 체중은 측정치가 아닌 응답에 의한 것이므로 정확성이 저하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8세 이하는 부모 응답으로, 9세 이상 아동은 자신의 신장과 체중을 인지할 수 있으므로 부모 응답과 아동의 직접 응답을 모두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과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아동의 비만율은 [그림 2-2]와 같다. 정상의 경우 2023년 66.3%로 2018년 92.1%에 비해 25.8%p 감소하였다. 반면에 과체중과 비만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체중의 경우 2023년 11.4%로 6.9%p 증가(2018년 4.5%)하였고, 비만의 경우 2023년 14.3%로 10.9%p 증가(2018년 3.4%)하였다.

[그림 2-2] 9-17세 아동의 비만율: 2018년과 2023년 조사 결과

(단위: %)



출처: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이상정 외, 2023, p. 126 <표 4-12> 재구성하여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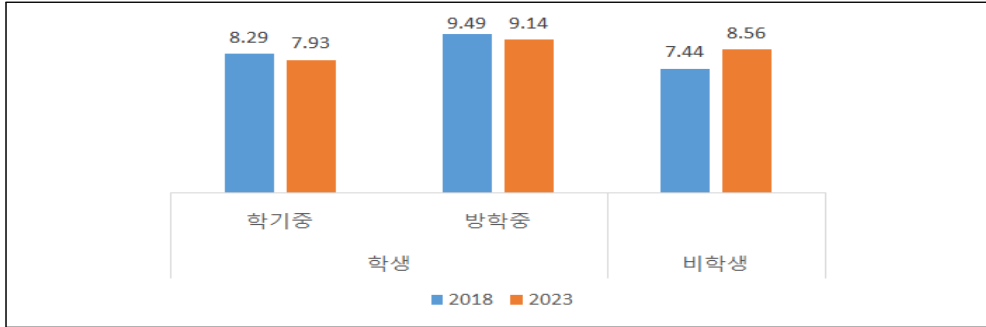
다. 아동의 신체활동 및 생활방식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9-17세 아동의 신체활동 및 생활방식에 대해 2018년 조사 결과와 함께 살펴보았다.

[그림 2-3]은 일평균 수면시간으로, 학생의 경우 2023년 일평균 수면시간이 2018년에 비해 모두 감소하였다. 2023년 학기 중 일평균 수면시간은 7.93시간이고 방학 중 일평균 수면시간은 9.14시간인데 반해, 2018년은 각각 8.29시간, 9.49시간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비학생은 2023년 일평균 수면시간이 8.56시간으로 2018년(7.44시간)에 비해 증가하였다.

[그림 2-3] 9-17세 아동의 일 평균 수면시간

(단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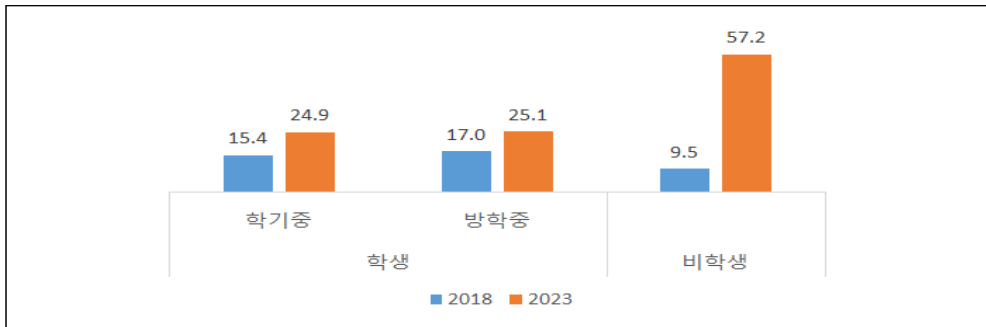


출처: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이상정 외, 2023, p. 144 <표 4-27> 재구성하여 작성함

다음은 9-17세 아동의 식습관 중에서 아침 결식률⁷⁾에 대해 살펴보았다. 학생의 경우 2023년 아침 결식률이 2018년에 비해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가졌다([그림 2-4] 참조). 2023년 학기 중 아침 결식률은 24.9%이고, 방학 중 아침 결식률은 25.1%로 나타나, 2018년 결과에 비해 각각 9.5%p, 8.1%p 증가하였다. 특히, 비학생은 2023년 아침 결식률이 57.2%로 2018년(9.5%)에 비해 47.7%p로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그림 2-4] 9-17세 아동의 아침 결식률

(단위: %)



출처: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이상정 외, 2023, p. 144 <표 4-27> 재구성하여 작성함.

9-17세 아동의 운동실천율을 중등도, 고강도, 중강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그림 2-5] 참조). 먼저, 중등도 운동실천율은 최근 7일 동안 한번에 운동⁸⁾을 30분 이상 한

7) 아침을 거의 먹지 않는다고 응답한 아동을 결식으로 간주하여 아침 결식률을 계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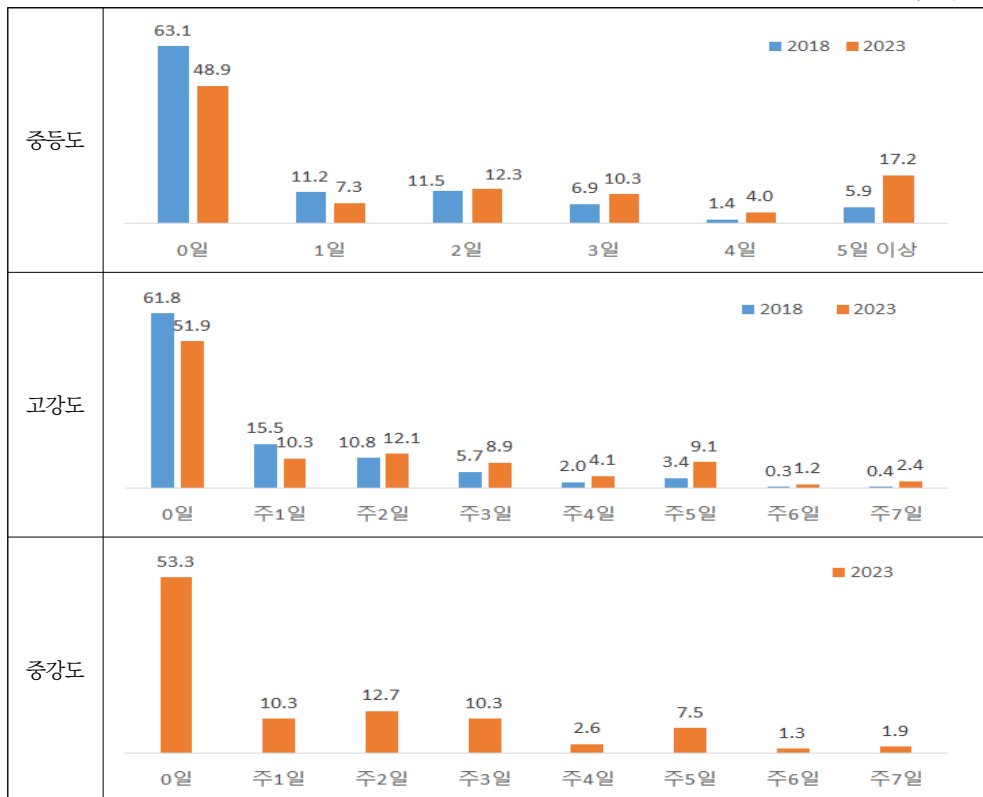
8) 탁구, 수영, 배구, 배드민턴, 빠르게 걷기, 야구, 축구, 농구, 테니스, 골프 등 격렬하거나 중등도의 신체

날로 측정된 결과로, 하루도 없었다는 응답이 2023년 경우 48.9%로 가장 높았다. 이는 2018년 63.1%에 비해 14.2%p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보면 2023년이 2018년에 비해 중등도 운동을 하는 아동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가졌다. 특히 5일 이상인 경우가 2023년 17.2%로 2018년(17.2%)에 비해 11.3%p 상승하였다.

고강도 운동실천율⁹⁾을 보면 최근 7일 동안 고강도 운동을 한 적이 하루도 없었다는 응답이 2023년 51.9%로 2018년(61.8%)에 비해 9.9%p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보면 2023년이 2018년에 비해 고강도 운동을 하는 아동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가

[그림 2-5] 9-17세 아동의 운동실천율

(단위: %)



출처: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이상정 외, 2023, pp. 155~158 (표 4-39), (표 4-40), (표 4-42) 재구성하여 작성함.

9) 고강도 운동실천율은 최근 7일 동안, 숨이 많이 차거나 몸에 땀이 날 정도의 고강도 신체활동을 한 날로 측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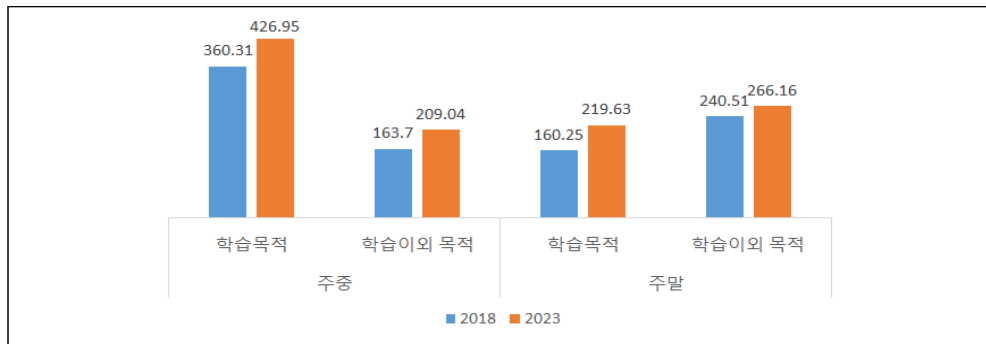
졌다. 중강도 운동실천율¹⁰⁾을 보면 최근 7일 동안 중강도 운동을 한 적이 하루도 없었던 응답이 2023년 53.3%로 절반을 상회하였다. 다음으로 중강도 운동을 2일을 한 경우가 12.7%로 가장 높았고, 1일(10.3%)과 3일(10.3%)인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최근 7일 동안 앉아서 보낸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주말과 주중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그림 2-6〕 참조). 이때 학습¹¹⁾이 목적인 경우와 학습이외¹²⁾의 목적인 경우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주중 앉아있는 시간을 보면 2023년 학습목적의 경우 하루 평균 426.95분이고, 학습이외 목적의 경우 하루 평균 209.04분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에 비해 학습목적(360.31분)과 학습이외 목적(163.70분)으로 앉아있는 하루 평균 시간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말 앉아있는 시간의 경우도 주중과 동일하게 2023년이 2018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6〕 9-17세 아동의 주중 및 주말 앉아있는 시간

(단위: 분)



출처: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이상정 외, 2023, p. 144 <표 4-27> 재구성하여 작성함.

이렇듯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의 9-17세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2018년과 비교했을 때 본인이 생각하는 주관적 건강상태는 소폭이지만 감소하였고, 9-17세 아동의 비만율은 과체중과 비만인 비율이 모두 상승하여 부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17세 아동의 평균 수면시간, 아침 결식률, 최근 7일 동안 앉아서 보

10) 중강도 운동실천율은 최근 7일 동안, 평상시보다 숨이 약간 차는 정도의 중강도 운동을 한 날로 측정함

11) 숙제나 공부를 하기 위해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사용한 것, 교육 방송 시청(EBS 등 포함), 학교 및 학원 수업을 의미함

12) TV 보기, 게임, 인터넷, 수다떨기 등을 포함함

낸 시간 등도 2023년 조사 결과가 2018년에 비해 모두 부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반면에 운동실천율은 2023년 조사 결과가 2018년에 비해 긍정적인 변화로 나타나 복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9-17세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비만율에 따른 요인을 신체활동 및 생활방식을 통해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선행연구 고찰

가. 주관적 건강상태

〈표 2-1〉을 보면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신체활동이 많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는 결과를 가졌다(박철용 외, 2023, 손남국 외, 2022). 그리고 적절한 수면시간은 주관적 건강상태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박철용 외, 2023, 남형경, 2022), 이자형 외, 2015).

〈표 2-1〉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 구분 | 미치는 영향 | 선행연구 |
|------|----------------------------|---|
| 신체활동 | • 신체활동이 많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 양호함 | 박철용 외(2023) 손남국 외(2022) |
| 생활방식 | • 적절한 수면시간은 주관적 건강상태에 긍정적임 | 박철용 외(2023) 남형경(2022) 이자형 외(2015) |

주: 저자 작성

나. 비만율

〈표 2-2〉를 보면 비만율의 경우, 비만 아동청소년은 적극적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편으로 나타났다(임희진 외, 2009). 수면시간이 적을수록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고, 비만 아동청소년은 정상체중에 비해 편식하지 않으며 식사속도가 빠르고 한꺼번에 많이 먹는 편이라는 결과를 가졌다(이자형 외, 2015), 임희진 외, 2009). 한편, 주관적 건강상태와 비만 유병은 부(-)적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손남국 외, 2022; 박소연, 2019).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보면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비만 가

능성이 높고, 고등학생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만일 가능성이 높으며,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비만일 가능성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보였다(박소연, 2019; 임희진 외, 2009).

〈표 2-2〉 비만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 구분 | 미치는 영향 | 선행연구 |
|-----------|--|----------------------------|
| 신체활동 | • 비만 아동청소년은 적극적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편임 | 임희진 외(2009) |
| 생활방식 | • 수면시간이 적을수록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음 • 비만 아동청소년은 정상체중에 비해 편식하지 않으며 식사속도가 빠르고 한꺼번에 많이 먹는 편임 | 이자형 외(2015) 임희진 외(2009) |
| 주관적 건강상태 | • 주관적 건강상태와 비만 유병과의 연관성은 부적임 | 손남국 외(2022) 박소연(2019) |
| 인구사회학적 특성 | •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비만 가능성이 높음 • 고등학생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만일 가능성이 높음 •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의 학력인 높을수록 비만 가능성이 감소함 | 박소연(2019) 임희진 외(2009) |

주: 저자 작성

3. 선행연구 분석 결과

선행연구 분석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박철용 외(2023) 연구에서는 2021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분석을 통해 신체활동이 많을수록 주관적 건강이 양호하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수면 부족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체활동은 주관적 건강상태에 가장 강력한 독립 변인이었다. 또한, 목형균 외(2016)에서도 2013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분석을 통해 남학생과 여학생의 신체활동과 주관적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신체활동 참여 횟수와 체육시간 참여 횟수가 많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의 교차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생활방식에 따른 건강행태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로 김예성 외(2021)는 2018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남학생에서는 아침식사와 수면이, 여학생에서는 아침식사와 신체활동이 스트레스와 삶의 질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형경(2022)은 2019~2021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분석을 통해 적절한 수면 시간이 청소년의 전반적인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났다. 조영은 외(2021)는 2017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분석 결과 여자 청소년의 건강위험행동 군집유형별 정신건강 상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제3절 통계분석 방법 및 결과

1. 연구방법

가. 연구모형과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신체활동과 생활방식을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아동의 건강상태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아동의 신체활동과 생활방식은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앞선 연구문제 및 선행연구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2가지 연구 모형을 <표 2-3>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모형1에서는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아동의 신체활동과 생활방식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모형2에서는 모형1에서 아동의 비만율을 추가하여,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아동의 신체활동, 생활방식 및 비만정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아동의 성별과 연령대, 거주 지역, 소득 수준, 맞벌이 여부는 통제변수로 활용한다.

<표 2-3> 연구 모형

| 독립변수 | | | | 종속변수 |
|---|-----|------|-----------------|---------------------|
| 모형1 | 모형2 | 신체활동 | • 운동시간 | → •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 |
| | | 생활방식 | • 식습관 • 수면시간 | |
| | | 비만정도 | • 비만율 | |
| 통제변수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성별, 연령대 • 거주 지역, 소득 수준 • 맞벌이여부 | | | | |

주: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아동종합실태조사(2023)의 가용한 변수를 고려하여 구성함.

선행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식습관, 수면시간, 운동시간, 비만율과 주관적 건강상태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분석 방법은 이항로지스틱회귀모형을 활용한다. 한편, 아동의 신체활동과 생활방식 등에 대한 기초분석을 살펴보는 경우는 t-검정, 분산분석 등의 통계적 방법론을 활용한다.

분석 대상은 만9-17세 아동 중에서 표준, 과체중, 비만인 만9-17세 아동으로, 저체중 아동은 분석대상수가 작아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평상 시(학기 중)의 활동 상태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표 2-4〉를 보면 종속변수인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음(매우 좋다, 좋다)과 그 외(보통, 나쁘다, 매우 나쁘다)로 2개 범주로 정의하였다.

독립변수인 신체활동, 생활방식, 비만정도의 변수 및 통제변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신체활동인 운동시간은 고강도 운동시간과 중강도 운동시간을 기반으로 운동시간 산출하였고, 식은 아래와 같다. 보통 고강도 운동시간은 중강도 운동시간의 2배에 해당하여, 이를 반영하였고 고강도와 중강도 운동시간에 대한 정보가 모두 있어서 활용하였다.

$$\text{운동시간} = (\text{고강도 운동시간} \times 2) + \text{중강도 운동시간}$$

생활방식은 식습관과 수면시간이 해당하며, 식습관은 2개 범주(세 끼 모두 먹음/세 끼 중 한 끼 이상 먹음)로 재구성하였다. 이때 응답 중에서 모름과 세 끼 모두 안 먹는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수면시간은 기상 시간과 취침 시간을 기반으로 수면시간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비만정도를 나타내는 비만율은 2개 범주인 표준과 과체중/비만으로 재구성하였다.

통제변수인 개인요인인 성별과 연령대를 포함하였으며, 이때 연령대는 2개 범주인 만9-11세와 만12-17세로 구분하였다. 가족 환경에 해당하는 거주 지역, 소득 수준, 맞벌이 여부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거주 지역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3개 범주로, 소득 수준은 4개 범주(중위소득 50% 미만, 50~100% 미만, 100~150% 미만/ 4 150% 이상)로, 맞벌이 여부는 3개 범주(외벌이, 맞벌이, 기타)로 고려하였다.

한편, 해당 분석 내용은 표준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이다.

〈표 2-4〉 주요 변인의 구성 및 측정

| 구분 | 변수명 | 변수 설명 | 변수값 | 형태 |
|------|----------|---|--|----|
| 종속변수 | 주관적 건강상태 |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 1=매우 나쁘다, 2=나쁘다, 3=보통이다, 4=좋다, 5=매우 좋다 (생성변수) 1= 좋음, 0=그 외 | 범주 |
| 독립변수 | 운동시간 | 하루 평균 고강도 신체활동 시간(시간) | (생성변수) (고강도 운동시간×2)+중강도 운동시간 (단위: 분) | 연속 |
| | | 하루 평균 고강도 신체활동 시간(분) | | |
| | | 하루 평균 중강도 신체활동 시간(시간) | | |
| | | 하루 평균 중강도 신체활동 시간(분) | | |
| | 수면시간 | 재학중 기상시간(학기중) 휴학/중퇴 기상시간 | (생성변수) 수면시간 (단위: 시간) | 연속 |
| | | 재학중 취침시간(학기중) 휴학/중퇴 취침시간 | | |
| | 식습관 | 재학중 아침식사 빈도(학기중) 휴학/중퇴 아침식사 빈도 | 1=거의 먹지 않는다, 2=먹는 편이다, 3=항상 먹는다, 9=모른다 (생성변수) 1=세 끼 모두 먹음, 2=세 끼 중 한 끼 이상 먹음 | 범주 |
| | | 재학중 점심식사 빈도(학기중) 휴학/중퇴 점심식사 빈도 | | |
| | | 재학중 점심식사 빈도(학기중) 휴학/중퇴 저녁식사 빈도 | | |
| | 비만정도 | 키 | (생성변수) 비만을 1=표준, 2=과체중/비만 | 범주 |
| 몸무게 | | | | |
| 통제변수 | 성별 | 1=남성, 2=여성 | | 범주 |
| | 연령대 | 1=만9~11세, 2=만12~17세 | | 범주 |
| | 거주 지역 | 1=대도시, 2=중소도시, 3=농어촌 | | 범주 |
| | 소득 수준 | 1=중위소득 50% 미만, 2=중위소득 50~100% 미만, 3=중위소득 100~150% 미만, 4=중위소득 150% 이상 | | 범주 |
| | 맞벌이 여부 | 1=외벌이, 2=맞벌이, 3=기타 | | 범주 |

나.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대상은 2,652명(표준화 가중치 적용 후 사례수는 3,137명)이고 기초통계 분석 결과는 <표 2-5>와 같다. 주관적 건강상태를 보면 아동의 89.3%가 좋음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2-5> 종속변수: 주관적 건강상태 분포

| 구분 | 변수명 | 변수 설명 | 빈도(명) | 비율(%) |
|------|----------|-------|-------|-------|
| 종속변수 | 주관적 건강상태 | 좋음 | 2,801 | 89.3 |
| | | 그외 | 336 | 10.7 |
| 전체 | | | 3,137 | 100.0 |

평균 수면시간은 7.9시간이고, 평균 운동시간은 101.2분(1시간 41분)으로 나타났다(<표 2-6> 참조).

<표 2-6> 독립변수: 수면시간 및 운동시간 분포

| 구분 | 변수명 | 최솟값 | 최대값 | 평균 | 표준편차 |
|------|----------|-----|-------|-------|-------|
| 독립변수 | 수면시간(시간) | 3 | 15 | 7.9 | 1.5 |
| | 운동시간(분) | 0 | 1,440 | 101.2 | 145.7 |

세 끼 모두 먹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44.6%로 세 끼 중 한 끼 이상 먹음(55.4%)에 비해 10.8%p 낮았다. 비만정도의 경우, 대부분의 아동이 표준(78.5%)이었고 과체중/비만인 아동은 21.5%이었다(<표 2-7> 참조).

<표 2-7> 독립변수: 식습관 및 비만정도 분포

| 구분 | 변수명 | 변수 설명 | 빈도(명) | 비율(%) |
|------|------|-----------------|-------|-------|
| 독립변수 | 식습관 | 세 끼 모두 먹음 | 1,400 | 44.6 |
| | | 세 끼 중 한 끼 이상 먹음 | 1,737 | 55.4 |
| | 비만정도 | 표준 | 2,463 | 78.5 |
| | | 과체중/비만 | 673 | 21.5 |
| 전체 | | | 3,137 | 100.0 |

주: 비만정도의 빈도수와 전체수의 불일치는 사사오입의 영향임.

다음 <표 2-8>은 아동의 성별, 연령대 등의 통제변수에 대한 분포를 살펴본 결과표이다. 아동의 성별은 남성이 52.7%로 여성(47.3%)에 비해 5.3%p 높았고, 연령대는 만12~17세 아동이 69.2%로 만9~11세(30.8%)에 비해 꽤 높았다. 거주 지역은 대도시(45.7%)와 중소도시(48.2%)의 비율이 비슷했으며 농어촌은 6.2%로 낮은 편에 속하였다. 소득 수준은 중위소득 100~150% 미만(31.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위소득 50~100% 미만(29.3%), 중위소득 150% 이상(28.6%), 중위소득 50% 미만(10.5%)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맞벌이 여부는 외벌이가 52.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맞벌이가 44.4%를 차지하였다.

<표 2-8> 통제변수: 성별, 연령대 등의 분포

| 구분 | 변수명 | 변수 설명 | 빈도(명) | 비율(%) |
|----------|--------|------------------|-------|-------|
| 통제 변수 | 성별 | 남성 | 1,652 | 52.7 |
| | | 여성 | 1,485 | 47.3 |
| | 연령대 | 만9~11세 | 965 | 30.8 |
| | | 만12~17세 | 2,171 | 69.2 |
| | 거주 지역 | 대도시 | 1,432 | 45.7 |
| | | 중소도시 | 1,512 | 48.2 |
| | | 농어촌 | 193 | 6.2 |
| | 소득 수준 | 중위소득 50% 미만 | 329 | 10.5 |
| | | 중위소득 50~100% 미만 | 920 | 29.3 |
| | | 중위소득 100~150% 미만 | 992 | 31.6 |
| | | 중위소득 150% 이상 | 896 | 28.6 |
| | 맞벌이 여부 | 외벌이 | 1,631 | 52.0 |
| | | 맞벌이 | 1,393 | 44.4 |
| | | 기타 | 112 | 3.6 |
| | 전체 | | | 3,137 |

주: 연령대, 맞벌이 여부의 빈도수와 전체수의 불일치는 사사오입의 영향임

다음은 주관적 건강상태를 2개 집단(좋음, 그 외)으로 구분하여, 2개 집단별 수면시간, 운동시간, 식습관, 비만정도가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표 2-9>를 보면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음과 그 외 집단 간 평균 수면시간 분포는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음 집단의 평균 수면시간이 8.0시간으로 그 외 집단(7.1시간)에 비해 1시간 정도 많았다.

〈표 2-9〉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평균 수면시간 분포

(단위: 시간)

| 구분 | 평균 | 표준편차 | pr> t |
|-----|-----|------|-------------|
| 좋음 | 8.0 | 1.5 | <.0001(***) |
| 그 외 | 7.1 | 1.6 | |

주 : *** p<.001, ** p<.01, *p<.05

〈표 2-10〉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음과 그 외 집단 간 평균 운동시간 분포를 보면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음 집단의 평균 운동시간이 100.9분(1시간 40분)으로 그 외 집단(103.3분, 1시간 43분)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표 2-10〉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평균 운동시간 분포

(단위: 분)

| 구분 | 평균 | 표준편차 | pr> t |
|-----|-------|-------|--------|
| 좋음 | 100.9 | 148.6 | 0.7368 |
| 그 외 | 103.3 | 120.2 | |

주 : *** p<.001, ** p<.01, *p<.05

〈표 2-11〉을 보면 식습관은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음과 그 외 집단 간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1〉 주관적 건강상태와 식습관에 대한 분포

(단위: 명, %, 명)

| 구분 | 세 끼 모두 먹음 | 세 끼 중 한 끼 이상 먹음 | 전체 |
|-----|-----------|-----------------|-------|
| 좋음 | 1,324 | 1,477 | 2,801 |
| 그 외 | 76 | 260 | 336 |
| 전체 | 1,400 | 1,737 | 3,137 |

 $\chi^2 < .0001$ (***)

주 : *** p<.001, ** p<.01, *p<.05

또한, 비만정도도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음과 그 외 집단 간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12〉 참조).

〈표 2-12〉 주관적 건강상태와 비만정도에 대한 분포

(단위: 명, %, 명)

| 구분 | 표준 | 과체중/비만 | 전체 |
|-----|-----|--------|-------|
| 좋음 | 561 | 2,241 | 2,801 |
| 그 외 | 113 | 223 | 336 |
| 전체 | 673 | 2,463 | 3,137 |

$\chi^2 < .0001$ (***)

주: 1) *** p<.001, ** p<.01, *p<.05

2) 전체수의 불일치는 사사오입의 영향임.

2. 주요 통계분석 결과

이 장의 연구문제인 아동의 신체활동과 생활방식은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2개 집단을 종속변수로 하여 이항로지스틱회귀모형을 분석하였다. 준거집단은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음인 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모형1은 식습관, 수면시간, 운동시간을 독립변수로, 모형2는 모형1에 비만정도를 추가하여 함께 살펴보았으며, 분석 결과는 〈표 2-13〉과 같다.

모형1을 보면,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음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그 외 집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보면 식습관과 수면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세 끼 모두 식사를 하는 아동(준거변수: 한 끼 이상 식사)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음 집단일 가능성(오즈)이 2.339배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의 수면시간이 증가할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음 집단일 가능성도 1.539배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의 운동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인 소득 수준은 중위 소득 50~100% 미만인 아동(준거변수: 중위소득 150% 이상)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음 집단일 가능성이 0.599배 감소하고, 맞벌이 여부는 부모가 외벌이인 아동(준거변수: 맞벌이)의 경우 1.262배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 모형2를 보면 모형1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세 끼 모두 식사를 하는 아동(준거변수: 한 끼 이상 식사)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음 집단일 가능성(오즈)이 2.3배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의 수면시간이 증가할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음 집단일 가능성도 1.532배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의 운동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에 추가한 변수인, 비만율은 표준인 아동(준거변수: 과

체중/비만)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음 집단일 가능성이 2.101배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통제변수인 소득 수준은 중위소득 50~100% 미만인 아동(준거변수: 중위소득 150% 이상)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음 집단일 가능성이 0.609배 감소하고, 맞벌이 여부는 부모가 외벌이인 아동(준거변수: 맞벌이)의 경우 1.29배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표 2-13〉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영향 요인 이항로지스틱회귀모형 분석 결과

| 변수 | 모형1 | | | 모형2 | | |
|--------------------|---------------|--------|------------|---------------|--------|------------|
| | coefficient | se | odds ratio | coefficient | se | odds ratio |
| Intercept | -1.2711 (***) | 0.4778 | | -1.7250 (***) | 0.4883 | |
| 아동의 성별: 여자 | -0.0949 | 0.1266 | 0.909 | -0.2058 | 0.1291 | 0.814 |
| 남자(ref.) | | | | | | |
| 아동의 연령대: 만12~17세 | 0.0533 | 0.1715 | 1.055 | -0.0056 | 0.1728 | 0.994 |
| 만9~11세(ref.) | | | | | | |
| 거주 지역: 중소도시 | 0.0207 | 0.1240 | 1.021 | 0.0154 | 0.1248 | 1.016 |
| 농어촌 | 0.1953 | 0.2846 | 1.216 | 0.2132 | 0.2863 | 1.238 |
| 대도시(ref.) | | | | | | |
| 소득 수준: 중위소득 50% 미만 | -0.1887 | 0.2227 | 0.828 | -0.0898 | 0.2249 | 0.914 |
| 중위소득 50~100% 미만 | -0.5120 (***) | 0.1691 | 0.599 | -0.4959 (***) | 0.1697 | 0.609 |
| 중위소득 100~150% 미만 | -0.1518 | 0.1706 | 0.859 | -0.0863 | 0.1717 | 0.917 |
| 중위소득 150% 이상(ref.) | | | | | | |
| 맞벌이 여부: 외벌이 | 0.2329 (*) | 0.1265 | 1.262 | 0.2543 (**) | 0.1273 | 1.290 |
| 기타 | -0.0790 | 0.2886 | 0.924 | 0.0224 | 0.2931 | 1.023 |
| 맞벌이(ref.) | | | | | | |
| 식습관: 세 끼 모두 식사 | 0.8498 (***) | 0.1418 | 2.339 | 0.8327 (***) | 0.1421 | 2.300 |
| 한 끼 이상 식사(ref.) | | | | | | |
| 수면시간 | 0.4310 (***) | 0.0494 | 1.539 | 0.4263 (***) | 0.0497 | 1.532 |
| 운동시간 | -0.0005 | 0.0004 | 0.999 | -0.0005 | 0.0004 | 0.999 |
| 비만율: 표준 | | | | 0.7422 (***) | 0.1338 | 2.101 |
| 과체중, 비만(ref.) | | | | | | |

주: *** p<.001, ** p<.01, *p<.05

제4절 소결(정책적 함의)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의 신체활동 및 생활방식의 형태가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만9~17세 아동은 세 끼 모두 식사를 하는 경우가 한 끼 이상 식사를 하는 것에 비해, 수면시간이 길수록, 비만율이 표준인 경우가 과체중/비만에 비해 주관적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만율을 추가 변수로 넣고 분석한 모형2의 결과를 보면 비만율의 추정치와 오즈비가 큰 값으로 나타나,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은 규칙적인 식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연간 영양 및 식사습관 교육 경험률은 증가하고 있어 교육의 영향이라기보다는 다른 원인으로 인한 식생활 악화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 2025 발간 예정). 이는 <표 2-14>의 아동이 식사를 결식하는 이유를 보면 배고프지 않아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아침식사의 경우 늦게 일어나서 시간이 없어서가 38.5%로, 점심 또는 저녁식사의 경우 늦게 일어나서 시간이 없어서가 18.6%이고 살빼기 위해서가 14.2%를 차지하였다. 학교 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더불어 보육시설 및 학교급식 제공 시 식품보장성(food security) 강화, 균형있는 식습관 조성을 위한 아동 대상 식생활캠페인 및 영양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 2025 발간 예정).

<표 2-14> 아동의 아침식사, 점심 또는 저녁식사 결식 이유

| | 아침식사 | | 점심 또는 저녁식사 | |
|-----------------|-------|-------|------------|-------|
| | 빈도(명) | 비율(%) | 빈도(명) | 비율(%) |
| 밥을 챙겨줄 사람이 없어서 | 8 | 0.8 | 0 | 0.4 |
| 배고프지 않아서 | 545 | 55.0 | 33 | 42.0 |
| 늦게 일어나서 시간이 없어서 | 382 | 38.5 | 15 | 18.6 |
| 살빼기 위해서 | 19 | 1.9 | 11 | 14.2 |
| 먹을 양식이 없어서 | 0 | 0.0 | 4 | 5.3 |
| 기타 | 38 | 3.8 | 15 | 19.6 |
| 전체 | 993 | 100.0 | 78 | 100.0 |

둘째, 아동은 충분한 수면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표 2-15>를 보면 아동의 34.9%가 충분한 수면시간을 가지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2-15> 아동의 수면부족여부

| | 빈도(명) | 비율(%) |
|------------|-------|-------|
| 매우 충분하다 | 451 | 14.4 |
| 충분하다 | 1,591 | 50.7 |
| 그저 그렇다 | 691 | 22.0 |
| 충분하지 않다 | 339 | 10.8 |
| 전혀 충분하지 않다 | 66 | 2.1 |
| 전체 | 3,137 | 100.0 |

아동의 수면부족 이유(1순위)로는 학업이 60.4%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다(<표 2-16> 참조). 이는 앞서 살펴본 식사를 결식하는 이유로도 꼽히고 있으며, 아동의 수면부족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은 대학교 입시에 따른 학업 부담의 가중으로 학업 시간은 길어지고 수면시간은 짧아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2024년 아동행복지수 생활시간조사 결과에서도 공부압박을 받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수면시간이 21분 짧았고, 학업시간은 45분 더 길었으며 특히 학교수업 외 학습시간이 36분 더 길어서 학교 외 학습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24년 아동행복지수 생활시간조사 결과, pp.54~55). 아동의 과중한 학업이 완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동이 학교생활을 즐기면서 학업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의 개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2-16> 아동의 수면부족 이유(1순위)

| | 빈도(명) | 비율(%) |
|--|-------|-------|
| 야간 자율학습 | 44 | 10.8 |
| 학원, 과외 | 139 | 34.3 |
| 가정학습(숙제, 인터넷 강의) | 62 | 15.2 |
| 게임(인터넷 게임, 휴대전화 게임 포함) | 57 | 14.1 |
| SNS(인스타그램, 틱톡 등), 채팅, 문자 메시지 등 휴대전화 사용 | 63 | 15.5 |
|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서 성인물(동영상, 만화, 잡지 등) 이용 | 4 | 1.1 |
| 드라마, 영화 시청, 음악 청취 등 | 21 | 5.1 |
| 기타 | 15 | 3.8 |
| 전체 | 405 | 100 |

주: 비만정도의 빈도수와 전체수의 불일치는 사사오입의 영향임.

셋째, 과체중/비만인 아동은 비만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동 비만예방사업으로 ‘건강한 돌봄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이 방과후 돌봄서비스 및 기타 아동복지시설 이용 초등학교 1~2학년인데, 참여기관¹³⁾과 사업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학교 기반 비만 예방 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라인¹⁴⁾ 배포하고, 학교가 실천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운동시간의 경우, 모형1과 모형2에서 추정치가 거의 0의 값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가졌다.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에서 살펴보았듯이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음과 그 외 집단 간 평균 운동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만율이 표준과 과체중/비만 집단 간 평균 운동시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17〉 참조). 표준 집단이 98.4분(1시간 38분)으로 과체중/비만 집단(111분, 1시간 51분) 보다 운동하는 시간이 더 작은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2023년 조사(단면조사)만을 사용한, 즉 특정 하나 시점에 대한 분석 결과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2-17〉 비만율에 대한 평균 운동시간 분포

(단위: 분)

| | 평균 | 표준편차 | p> t |
|---------|-------|-------|------------|
| 표준 | 98.4 | 144.8 | 0.0467(**) |
| 과체중, 비만 | 111.0 | 148.4 | |

주: *** p<.001, ** p<.01, *p<.05

한편, WHO는 오래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¹⁵⁾을 미치며 ‘의자병’이라고 명명했으며¹⁶⁾,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서는 국민의 경우 하루 평균 8.6시간을, 청소년의 경우 하루 평균 11시간 안팎을 앉아서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¹⁷⁾.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의 경우도 최근 7일 동안 하루 평균 앉아서 보

13) 2024년 기준 건강한 돌봄놀이터 참여기관수는 493개임.

14) 학교기반 비만 예방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강북삼성병원, 2021)

15) 근골격계질환, 당뇨병, 심혈관 등 대사 질환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16) 2002년 WHO에서 사망의 주요 위험 요인 중 4위로 발표함(<https://knnews.kyungnam.ac.kr/news/articleView.html?idxno=2777#> 2025.3.23. 인출).

내는 시간(학습목적, 학습목적 이외 포함)이 주중 기준 637분(10시간 37분), 주말 기준(487분, 8시간 7분)으로 나타나 유사한 결과를 가졌다. 또한, 2018년에 비해 하루 평균 앞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였다([그림 2-6] 참조). 이렇듯 전반적으로 좌식 생활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아동은 과도한 좌식 생활을 줄이고 신체 활동과 시간을 보장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동 특성 맞춤형 체육활동 지원 강화, 학교 교육과정 내 신체 활동 시간 확보 여건 및 프로그램 마련, 지역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 아동을 위한 여건 조성 및 지역사회 연계 지원 활성화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 2025 발간 예정). 예를 들면,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쉬는 시간 주 1회 이상 확보, 초등학교 1~2학년의 신체 활동 시간 확대, 즐거운 생활에 포함된 신체활동 영역을 체육 교과로 별도 분리 방안,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추진 시 체육 필수이수학점 운영 내실화, 읍면지역 거주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 및 바우처 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 2025 발간 예정).

아동기의 생활 습관은 주관적 건강상태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성인기의 건강행태로 이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어릴 때부터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국가 차원에서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제3장

미디어 환경과 정신건강 및 웰빙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선행연구 분석

제3절 통계분석 방법 및 결과

제4절 소결(정책적 함의)

제3장 미디어 환경과 정신건강 및 웰빙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아동 및 청소년에서 스마트폰이 널리 사용되면서 배우고, 소통하고, 주변 환경과 교류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디지털 기술은 수많은 교육 및 발달 기회를 제공하지만,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Buctot et al., 2020, Ting & Chen; 2020, Bae, 2024). 이러한 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커짐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과 웰빙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신체 활동 감소, 수면 장애, 학업 성취도 저하, 불안 및 우울증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부정적인 결과와 관련이 있었다(Park & Park, 2014; Cho & Lee, 2017; Buctot et al., 2020; Chang et al., 2022). 이러한 문제들은 발달 단계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에서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은 고립되어 발생하지 않고 지역 환경, 가족 환경(Park & Park, 2014; Kim et al., 2018; Park & Park, 2021; Uddin & Hasan, 2023; Bae, 2024) 및 사회 활동(Kim et al., 2018; Jo & Bang, 2022)과 같은 더 광범위한 맥락적 요인과 깊이 얽혀 있다. 예를 들어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 비율은 비빈곤 가구에서 42.1%인 반면 빈곤 가구에서 60.7%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한 야외 공간이나 사회적 기회가 부족한 지역 사회의 아동 및 청소년은 스마트폰을 주요 오락 및 참여의 원천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과 제한적인 감독은 아동 및 청소년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 위험을 증폭시킬 수 있다(Cho & Lee, 2017; Chaibal & Chaiyakul, 2022; Gong et al., 2022).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아동 및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영향은 식단, 신체 활동 또는 의료 서비스 접근성과 같은 다른 건강 결정 요인에 비해 덜 주목받아 왔

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의 해로운 영향에 대한 보고가 증가함에 따라 이 문제를 시급한 공중 보건 우선순위로 다룰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은 성인조차도 화면 시간을 조절하기 어렵게 만드는데 자기 조절 능력이 아직 발달 중인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위험이 두드러질 수 있고(Ting & Chen, 2020; Park & Park, 2021) 이러한 사용 패턴은 되돌리기 어려운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스마트폰은 아동 및 청소년을 고립되고 화면 중심적인 행동으로 이끌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스마트폰에 장시간 노출되면 종종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성장의 중요한 기간에 잠재적인 위해가 증폭될 수 있다(Park & Park, 2014; Ting & Chen, 2020). 또한 스마트폰의 본질적인 중독성과 결합되어 지역 및 가족 환경과 같은 외부적 영향은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과 전반적인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과 웰빙은 보다 악화될 수 있다.

아동 및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다면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디지털 시대의 건강과 웰빙이라는 더 광범위한 맥락에서 이 문제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개별 화면 습관과 지역 사회 및 가족의 영향과 같은 더 큰 환경 요인 간의 상호 작용을 조사함으로써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위험을 완화하고 균형 잡힌 사용을 장려하며 건강한 발달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타겟팅된 전략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에 미치는 가족 및 성장 환경과 그 상호작용을 조사하는 것과 함께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이 아동의 정신건강과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이 정신건강 및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정책 개발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우선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 개인, 가족, 사회 환경요인을 파악한다. 다음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포함하여 아동 개인, 가족, 사회환경 요인이 아동의 정신건강과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절 선행연구 분석

1. 아동종합실태조사 및 유사 조사 자료로 본 주요 특성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정신건강, 삶의 만족도, 스마트폰 이용 문제 행동 관련 추이를 살펴보았으며 또한 유사한 방식으로 조사된 타 조사 자료에서 각 지표들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가. 정신건강

우리나라 아동에게 평상 시 스트레스를 얼마나 느끼고 있는 지 질문한 결과, 대단히 많이 느낀다 혹은 많이 느낀다 혹은 조금 느낀다고 응답한 아동은 전체 아동의 56.7%였다. 남아보다 여아에서 높았고, 12-17세에서 62%로 9-11세의 45.1%보다 높았다.

〈표 3-1〉 9-17세 아동의 평상시 스트레스 인지도(빈도)

(단위: %, 명)

| 구분 | | 대단히 많이 느낀다 | 많이 느낀다 | 조금 느낀다 | 별로 느끼지 않는다 | 전혀 느끼지 않는다 | 사례수 |
|-----------|--------|------------|--------|--------|------------|------------|-------|
| 2018 [전체] | | 0.9 | 15.1 | 49.4 | 30.2 | 4.3 | 2,510 |
| 2023 [전체] | | 1.2 | 12.0 | 43.5 | 38.0 | 5.2 | 3,334 |
| 성별 | 남자 | 1.0 | 12.3 | 41.7 | 38.9 | 6.1 | 1,735 |
| | 여자 | 1.5 | 11.7 | 45.4 | 37.1 | 4.3 | 1,599 |
| 연령 | 9-11세 | 1.0 | 7.0 | 37.1 | 47.2 | 7.6 | 1,034 |
| | 12-17세 | 1.3 | 14.3 | 46.4 | 33.9 | 4.2 | 2,300 |

주: 평상 시 스트레스를 얼마나 느끼고 있는 지에 대해 대단히 많이 느낀다, 많이 느낀다, 조금 느낀다, 별로 느끼지 않는다,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측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경험률을 조사한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수치를 살펴본 결과, 아동의 스트레스 경험률은 최근으로 올수록, 연령이 증가할수록 커지는 추이를 보였다. 2023년 조사에서 9-12세 아동은 56.4%, 13-18세는 78.9%가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아동종합실태조사보다 높은 수치이나 설문 문항이 다르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주의가 필요하다.

〈표 3-2〉 9-18세 아동의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 경험률 -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단위: %, 명)

| 구분 | 9-12세 | 13-18세 | 19-24세 | 사례수 |
|------|-------|--------|--------|-------|
| 2017 | 33.9 | 55.5 | 61.3 | 7,676 |
| 2020 | 34.2 | 53.0 | 60.5 | 7,170 |
| 2023 | 56.4 | 78.9 | 81.2 | 7,423 |

주: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얼마나 느끼고 있는 지에 대해 자주 경험했다, 가끔 경험했다, 별로 경험하지 않았다,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 중 경험한 비율임.

K-CBCL로 측정된 아동의 우울 및 불안 수준은 평균 1.77점으로 나타났으며, 우울 및 불안 점수는 여아에서, 12-17세 아동에서 높았다. 또한, K-CBCL로 측정된 아동의 공격성 수준은 평균 1.59점으로 나타나며, 우울 및 불안과는 반대로 남아에서 여아보다 높았고 9-11세가 12-17세보다 높았다.

〈표 3-3〉 9-17세 아동의 정신건강 수준(우울 및 불안, 공격성)

(단위: 점, 명)

| 구분 | 우울 및 불안 | | 공격성 | | 사례수 | |
|-----------|---------|------|------|------|-------|-------|
| | 평균 | SD | 평균 | SD | | |
| 2018 [전체] | 1.88 | 2.73 | 1.96 | 3.19 | 2,510 | |
| 2023 [전체] | 1.77 | 3.13 | 1.59 | 3.10 | 3,334 | |
| 성별 | 남자 | 1.50 | 2.69 | 1.67 | 3.18 | 1,735 |
| | 여자 | 2.06 | 3.53 | 1.50 | 3.02 | 1,599 |
| 연령 | 9-11세 | 1.61 | 2.74 | 1.65 | 2.99 | 1,034 |
| | 12-17세 | 1.84 | 3.29 | 1.56 | 3.15 | 2,300 |

주: 1) Achenbach와 Edelbrock(1983)이 개발하고 오경자 등 (1997)이 번역한 K-CBCL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K-CBCL은 아동의 문제행동을 측정하는데 활용되는 척도로 아동의 외현화된 문제행동인 공격성과 더불어 내면화된 정신건강 문제를 파악하는데 자주 활용됨.
 2) 우울 및 불안의 평균 값은 13개 문항(B16-1)의 합의 평균을 의미하며, 공격성의 평균값은 19개 문항(B16-2)의 합의 평균을 의미함.
 3) 오경자(1997)에서 제안된 것에 따라 각 문항은 원래 1~3점 값을 갖도록 되어 있으나 0~2점의 값으로 재코딩

우울감 경험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측정된 경우, 아동의 4.9%가 있다고 우울감이 있다고 응답함. 여아와 12-17세 아동에서 그 비율이 높았다.

〈표 3-4〉 9-17세 아동의 우울감

(단위: %, 명)

| 구분 | | 없음 | 있음 | 사례수 |
|-----------|--------|------|-----|-------|
| 2023 [전체] | | 95.1 | 4.9 | 3,334 |
| 성별 | 남자 | 96.6 | 3.4 | 1,735 |
| | 여자 | 93.6 | 6.4 | 1,599 |
| 연령 | 9-11세 | 95.5 | 4.5 | 1,034 |
| | 12-17세 | 95.0 | 5.0 | 2,300 |

주: 1)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었는지 여부로 측정

불안감을 범불안장애 선별도구(GAD-7)로 측정한 경우, 아동의 대다수인 93.4%는 불안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아동은 0.7%로 나타나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아동의 비율은 여아에서, 12-17세에서 높았다.

〈표 3-5〉 9-17세 아동의 불안감

(단위: %, 명)

| 구분 | | 불안감 없음 | 경미 | 중간 | 심각 | 사례수 |
|-----------|--------|--------|-----|-----|-----|-------|
| 2023 [전체] | | 93.4 | 4.7 | 1.3 | 0.7 | 3,334 |
| 성별 | 남자 | 94.6 | 3.9 | 1.0 | 0.4 | 1,735 |
| | 여자 | 91.9 | 5.5 | 1.5 | 1.0 | 1,599 |
| 연령 | 9-11세 | 95.5 | 3.4 | 0.6 | 0.6 | 1,034 |
| | 12-17세 | 92.4 | 5.3 | 1.6 | 0.7 | 2,300 |

주: 1) 범불안장애 선별도구(GAD-7)의 총합계로 “불안감 없음(0~4점)”, “경미(5~9점)”, “중간(10~14점)”, “심각(15~32점)”으로 분류

2) 7개 문항은 모두 1~4점의 값을 갖도록 되어 있으며 0~3점의 값으로 재코딩하여 산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는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사용한 범불안장애 선별도구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정신장애 진단도구(KSADS-COMP)를 이용하여 범불안장애를 측정했다. 남아는 0.4%, 여아는 0.6%로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심각한 불안감을 가지는 아동의 비율보다 조금 낮은 편이다.

〈표 3-6〉 소아 및 청소년에서 불안장애 비율 -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2022)

(단위: %)

| 구분 | | 전체 | 소아 (만 6-11세) | 청소년 (만 12-17세) |
|----|----|-----|-----------------|-------------------|
| 성별 | 남자 | 0.4 | 0.2 | 0.5 |
| | 여자 | 0.6 | 0.6 | 0.5 |

주 :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분리불안장애, 사회불안장애, 특정공포증, 발불안장애, 선택적 함구증을 포함하는 정신장애 진단도구(KSDAS-COMP)로 측정된 불안장애의 비율임.
출처: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2022).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 보고서 - 소아·청소년.

지난 1년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아동은 2.0%로 나타났으며, 그 비율은 여아에서 조금 더 높았다. 조사에 참여한 아동의 0.8%가 자살계획을 세운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동일하게 0.8%의 아동이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자살계획 및 자살시도는 남아인 경우, 9-11세인 경우 조금 더 높았다.

〈표 3-7〉 9-17세 아동의 자살생각, 계획, 시도 여부

(단위: %, 명)

| 구분 | 자살 생각 | | 자살 계획 | | 자살 시도 | | 사례수 | |
|-----------|--------|-----|-------|-----|-------|-----|------|-------|
|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 |
| 2018 [전체] | | 1.3 | 98.7 | 0.5 | 99.5 | 0.4 | 99.6 | |
| 2023 [전체] | | 2.0 | 98.0 | 0.8 | 99.2 | 0.8 | 99.2 | 3,334 |
| 성별 | 남자 | 1.8 | 98.2 | 1.0 | 99.0 | 0.9 | 99.1 | 1,735 |
| | 여자 | 2.2 | 97.8 | 0.7 | 99.3 | 0.7 | 99.3 | 1,599 |
| 연령 | 9-11세 | 2.0 | 98.0 | 1.1 | 98.9 | 1.0 | 99.0 | 1,034 |
| | 12-17세 | 2.0 | 98.0 | 0.8 | 99.2 | 0.7 | 99.3 | 2,300 |

주: 지난 1년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하거나 계획하거나 시도한 적이 있는지 여부로 측정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는 최근 2주 동안 및 평생 동안의 자살 관련 행동을 질문한다. 보고서의 수치를 살펴보면 소아에서 남아는 0%, 여아는 최근과 평생 모두 0.1%였다. 청소년에서는 이보다 높았는데 최근 경험 기준으로 남아는 0.5%, 여아는 0.3%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보다는 낮은 수치이다.

〈표 3-8〉 소아 및 청소년에서 자살시도 비율 -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2022)

(단위: %)

| 구분 | | 소아 (만 6-11세) | | 청소년 (만 12-17세) | |
|----|----|-----------------|-----|-------------------|-----|
| | | 현재 | 평생 | 현재 | 평생 |
| 성별 | 남자 | - | - | 0.5 | 0.8 |
| | 여자 | 0.1 | 0.1 | 0.3 | 0.7 |

주: 지난 2주 동안의 경험(현재)과 평생 경험을 질문함.

출처: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2022).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 보고서 - 소아청소년.

나. 아동웰빙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이란 주로 한 개인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긍정적 감정은 많이 느끼고 부정적 감정은 적게 느끼고 있는 상태를 의미 한다(류정희 외, 2018; 유민상 외, 2019). 칸트릴의 사다리(Cantril's ladder) 척도를 이용하여 아동 본인이 응답한 삶의 만족도는 평균 7.14점이었고 남아에서 높았고 9-11세에서 높았다.

〈표 3-9〉 삶의 만족도

(단위: 점, 명)

| 구분 | | 평균 | SD | 사례수 |
|-----------|--------|------|------|-------|
| 2013 [전체] | | 6.10 | 1.59 | - |
| 2018 [전체] | | 6.57 | 1.32 | - |
| 2023 [전체] | | 7.14 | 1.64 | 3,334 |
| 성별 | 남자 | 7.20 | 1.61 | 1,735 |
| | 여자 | 7.09 | 1.67 | 1,599 |
| 연령 | 9-11세 | 7.47 | 1.53 | 1,034 |
| | 12-17세 | 7.00 | 1.66 | 2,300 |

주: 칸트릴의 사다리 척도로 측정. 11점 척도 단일방향으로, 0점(가장 나쁜 삶)부터 10점(가장 좋은 삶)까지 응답

청소년종합실태조사는 아동종합실태조사와 유사하게 0~10점으로 삶의 만족도를 평가한다. 삶의 만족도 점수는 2020년에 2017년 대비 감소했다고 2023년에 회복하는 추이를 보였다. 또한 9-12세 아동에서 13-18세 아동보다 높았다.

〈표 3-10〉 9-18세 아동의 삶의 만족도 -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단위: 점, 명)

| 구분 | 9-12세 | 13-18세 | 19-24세 | 사례수 |
|------|-------|--------|--------|-------|
| 2017 | 7.39 | 6.77 | 6.46 | 7,676 |
| 2020 | 6.99 | 6.67 | 6.35 | 7,170 |
| 2023 | 7.19 | 6.72 | 6.81 | 7,423 |

주: '요즘 자신의 삶(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0~10점으로 응답한 평균인.
출처: 김지경, 송현주, 김균희, 윤현솔 (2023).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다. 스마트폰 이용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조절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에 포함된 문항별 빈도를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11〉 9-17세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성 측정 문항별 빈도

(단위: %, 명)

| 요인 | 구분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사례수 |
|--------|-----------------|-----------|--------|------|--------|-------|
| 조절 실패 | 이용시간 조절 실패 | 25.0 | 44.3 | 28.6 | 2.0 | 3,334 |
| | 이용시간 조절이 어려움 | 27.8 | 39.9 | 29.1 | 3.3 | 3,334 |
| | 이용시간 지키는 것이 어려움 | 27.0 | 38.0 | 31.7 | 3.3 | 3,334 |
| 현저성 | 다른 일에 집중이 어려움 | 32.0 | 41.4 | 23.6 | 3.0 | 3,334 |
| | 계속 생각남 | 39.7 | 47.2 | 11.5 | 1.6 | 3,334 |
| | 하고 싶은 충동 | 33.4 | 42.5 | 22.5 | 1.6 | 3,334 |
| 문제적 결과 | 건강 문제가 생김 | 48.1 | 42.4 | 8.9 | 0.7 | 3,334 |
| | 가족과 다툼 | 43.2 | 39.2 | 16.2 | 1.4 | 3,334 |
| | 사회적 관계에서 갈등 | 52.1 | 40.5 | 6.3 | 1.0 | 3,334 |
| | 업무(학업) 수행 어려움 | 46.6 | 42.6 | 10.1 | 0.7 | 3,334 |

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함.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을 보면, 전체 아동의 2.0%가 고위험군으로 21.8%가 잠재적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2018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고위험군 및 잠재적 위험군인 아동의 비율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 9-17세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

(단위: %, 명)

| 구분 | | 고위험군 | 잠재적 위험군 | 일반 사용자군 | 사례수 |
|-----------|--------|------------|-------------|-------------|-------|
| 2018 [전체] | | 5.8 | 27.9 | 66.3 | 2,510 |
| 2023 [전체] | | 2.0 | 21.8 | 76.2 | 3,334 |
| 아동 성별 | 남자 | 2.3 | 22.5 | 75.1 | 1,735 |
| | 여자 | 1.7 | 21.0 | 77.3 | 1,599 |
| 아동 연령 | 9-11세 | 1.3 | 19.9 | 78.8 | 1,034 |
| | 12-17세 | 2.4 | 22.6 | 75.0 | 2,300 |

주: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의 총합계로 “일반사용자군(23점 미만)”, “잠재적 위험군(23~30점)”, “고위험군(31점이상)”으로 분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대비 2023년에 유·아동의 과의존 위험군(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 포함)은 25.0%로 1.7% 감소했고 청소년의 과의존 위험군은 40.1%로 동일했다.

〈표 3-13〉 유아동 및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 - 스마트폰 과의존실태조사 결과

(단위: %)

| 구분 | 고위험군 | 잠재적 위험군 | 일반 사용자군 |
|---------------|------|---------|---------|
| 유아동(만 3-9세) | | | |
| 2021 | 4.3 | 24.1 | 71.6 |
| 2022 | 3.5 | 23.2 | 73.3 |
| 2023 | 3.6 | 21.4 | 75.0 |
| 남자 | 2.7 | 22.5 | 74.8 |
| 여자 | 4.7 | 20.0 | 75.3 |
| 청소년(만 10-19세) | | | |
| 2021 | 5.7 | 31.3 | 63.0 |
| 2022 | 5.2 | 34.9 | 59.9 |
| 2023 | 5.2 | 34.9 | 59.9 |
| 남자 | 5.3 | 35.2 | 59.5 |
| 여자 | 5.0 | 34.6 | 60.4 |

주: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의 총합계로 “일반사용자군(23점 미만)”, “잠재적 위험군(23~30점)”, “고위험군(31점이상)”으로 분류

2. 선행연구 고찰

연구 모형 설계를 위해 아동의 웰빙 및 정신건강 영향 요인, 스마트폰 과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고 특히 스마트폰 이용이 아동의 웰빙 및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살펴보았다.

가. 아동의 웰빙 및 정신건강 영향 요인

생물학적 요인: 정신 건강 상태에 대한 유전적 요인, 신체 건강 상태(예: 만성 질환, 수면의 질, 영양)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Gili et al., 2019). 감정적 및 인지적 발달: 자존감, 감정 조절 및 회복력, 인지적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및 적응력이 해당한다(Wu et al. 2013; Eoh et al, 2019; Santos et al, 2021). 디지털 참여 및 미디어 노출: 화면을 보는 시간과 소셜 미디어 상호 작용은 자기 이미지와 감정 조절에 영향을 미친다. 유해한 콘텐츠, 사이버 괴롭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긍정적인 교육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다(Basu & Banerjee, 2020; Stiglic & Viner, 2019).

부모와의 애착은 감정적 발달을 지원한다. 권위적이거나 방치하는 양육 방식(Basu & Banerjee, 2020; Baldwin et al., 2023), 가족 갈등과 가정 폭력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Basu & Banerjee, 2020; WHO, 2020) 가정의 안정성, 부모의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은 아동의 웰빙에 영향을 미친다((Wlodarczyj et al., 2017; Basu & Banerjee, 2020; Barrett et al., 2023). 재정적 안정성은 보건의료, 교육 및 영양에 대한 접근성에 영향을 미친다. 주택 및 거주 환경 등은 아동의 정서적 웰빙에 영향을 미친다(Reiss, 2013; Basu & Banerjee, 2020).

지원적인 교사와 학교 환경은 정서적 안정을 강화한다. 학업으로 인한 압박, 시험 스트레스 등은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Arun & Chavan, 2009; Donzella et al, 2009; Basu & Banerjee, 2020). 또한, 긍정적인 친구 관계는 자신감과 사회적 기술을 구축하는 반면 괴롭힘, 사회적 배제는 불안과 우울에 기여한다(Basu & Banerjee, 2020). 친구와의 놀이, 운동, 사회 모임 등 에 참여하면 자존감과 회복력이 촉진된다(Arun & Chavan, 2009).

공원, 도서관 및 여가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있는 안전하고 풍요로운 환경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범죄율이 높거나 경제적으로 불리한 지역은 스트레스 수준을 높일 수 있다(Sellstrom & Bremberg, 2006; Basu & Banerjee, 2020). 아동 복지 서비스, 정신 건강 서비스의 가용성, 심리적 고통의 위험이 있는 아동을 위한 조기 개입 서비스 등은 아동의 웰빙 및 정신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Bor et al., 2014). 마지막으로 가족의 재정적 안정, 사회적 안전망 등을 지원하는 국가 정책은 아동의 정신건강과 웰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Basu & Banerjee, 2020, Reiss, 2013).

나. 스마트폰 이용 영향요인

자기 통제력이 낮고 충동성이 높은 경우와 스트레스, 불안 또는 우울증 수준이 높으면 대처 메커니즘으로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자존감이 낮으면 확인을 위해 소셜 미디어를 과도하게 사용할 수 있다(Kim et al. 2018; Ting & Chen, 2020). 또한, 아동의 뇌 발달은 중독과 같은 행동에 더 취약하며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도파민 주도 보상 주기를 유발하여 강박적 참여를 강화할 수 있다(Ting & Chen, 2020).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부모를 자녀가 모방할 수 있으며(Cho & Lee, 2017; Gong et al, 2022) 허용적 및 방치적인 디지털 양육 스타일 또한 영향을 줄 수 있다(Park & Park, 2014; Kim et al., 2018; Bae, 2024). 일관되지 않거나 화면 시간 규정이 없으면 통제되지 않은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Park & Park, 2014; Ting & Chen, 2020).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이 부족하면 자녀가 사회적 성취를 위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가족의 스트레스, 갈등 또는 정서적 지원 부족으로 인해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질 수 있다(Park & Park, 2014; Kim et al., 2018).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친구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 사회적 참여를 위해 온라인에 머물 수 있다. 특히 친구 관계의 질이 좋지 않다면 이러한 영향은 더 클 수 있다(Kim et al., 2018; Zhu et al., 2019; Jo & Bang, 2022). 도시화와 안전한 놀이 공간 감소는 아동의 디지털 콘텐츠 사용을 촉진한다(Uddin & Hasan, 2023). 또한, 학교 관련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아동이 스마트폰을 도피처로 사용할 수 있다(Park

& Park, 2014).

다. 스마트폰 이용의 건강 영향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은 아동이 가족 및 친구와 연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 외로움을 줄이고(Studer et al., 2022; Thorisdottir et al., 2019; Rudolf & Kim, 2024), 화상 통화 및 메시징 앱은 아동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Studer et al., 2022; Rudolf & Kim, 2024). 또한, 스마트폰은 정신 건강 앱 등의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Bauer et al., 2020). 학습 앱, 언어 도구 등의 콘텐츠는 인지 발달을 강화하며 외딴 지역이나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어린이, 특수한 요구가 있는 아동을 지원할 수도 있다(Woo et al., 2021).

그러나 밤늦게 화면을 사용하면 멜라토닌 생성이 감소하여 수면 부족이 발생한다. 수면의 질이 좋지 않으면 피로, 집중력 저하 및 기분 문제가 발생한다(Abi-Jaoude et al., 2020; Tamura et al., 2017; Buctot et al., 2020). 또한, 화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야외 놀이와 운동이 줄어들어 비만에 기여한다(Kim et al., 2015; Buctot et al., 2020).

소셜 미디어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부정적인 자기 비교와 자존감 저하로 이어지고 사이버 괴롭힘에 노출되면 정서적 고통과 사회적 불안이 증가한다(Abi-Jaoude et al., 2020, Verduyn et al., 2017; Valkenburg et al., 2022; Rudolf & Kim 2024).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의존성이 생겨 충동 조절과 집중력이 저하될 수도 있다(Cha & Seo, 2018; Buctot et al., 2020).

과도한 디지털 참여는 실제 사회 기술과 관계를 제한할 수 있으며(Abi-Jaoude et al., 2020), 끊임없는 알림과 멀티태스킹으로 집중력이 저하된다. 시간 관리와 자기 훈련에 어려움을 겪으며 학업 성취도가 저하될 수 있다(Bian & Leung, 2015; Buctot et al., 2020).

3. 선행연구 소결

아동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스마트폰 이용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개

인요인, 가족환경, 학교환경, 사회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웰빙에 부정적 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 문제는 상호 연결된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스마트폰 사용은 빈도, 기간, 목적 및 부모의 지도에 따라 어린이의 웰빙에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및 인지적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지기도 한다. 많이 사용하는 것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 모두 정신건강 및 웰빙에 부정적일 수 있다(Studer et al., 2022). 사용 목적에 있어 능동적(active), 수동적(passive) 목적인지, 사회적 목적인지, 비사회적 목적인지 등에 따라 영향이 다를 수 있다. 즉, 능동적이며 사회적 목적은 아동의 정신건강과 웰빙에 긍정적일 수 있으나 수동적, 비사회적 목적의 이용은 부정적일 수 있다(Rudolf & Kim, 2024). 또한, 이러한 영향은 성별로 다를 수 있다(Ting & Chen, 2020; Rudolf & Kim, 2024).

제3절 통계분석 방법 및 결과

1. 선행연구 분석 결과에 기반한 통계분석 모형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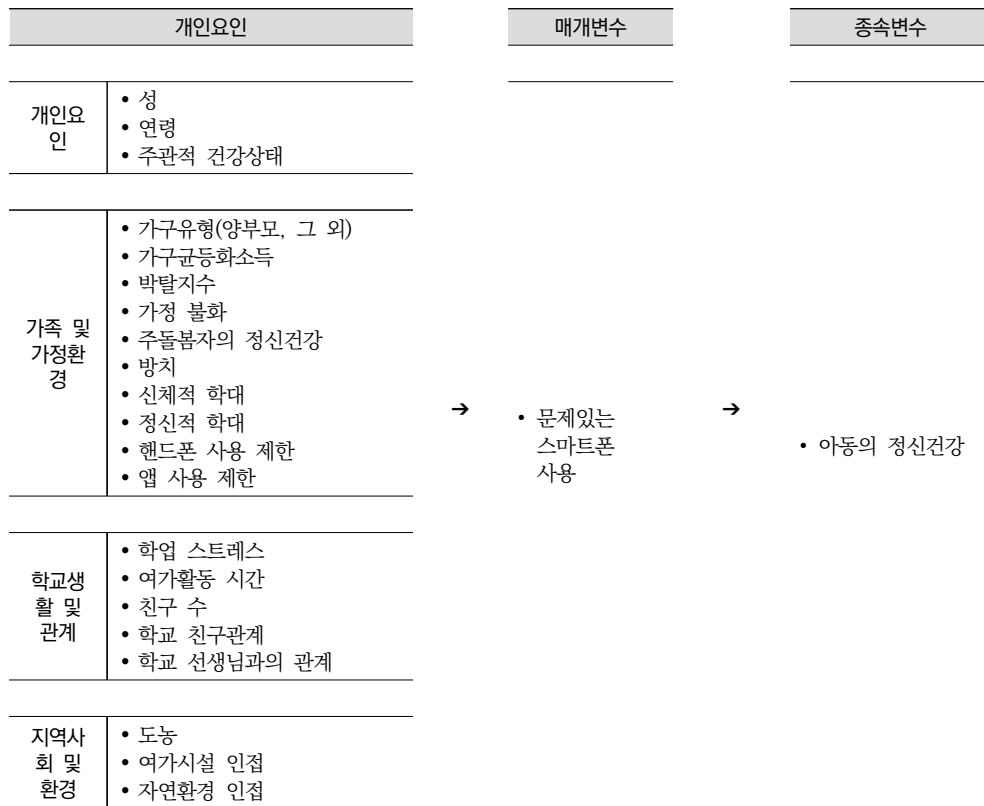
본 연구의 통계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종속변수로 우울 및 불안(K-CBCL 연속변수), 공격성(K-CBCL 연속변수), 우울감(없음, 있음), 불안감(GAD-7), 자살생각(없음, 있음), 스트레스(많이 느낌, 그 외), 삶의 만족도가 각각 사용되었다.

독립변수는 스마트폰 사용 및 과의존 척도가 사용되었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문제있는 스마트폰 사용과 정신건강 및 웰빙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를 조사하므로 해당 지표를 활용하였다. 지표는 조절 실패(3개 문항), 현저성(3개 문항), 문제적 결과(4개 문항)의 3가지 하위 척도가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개 문항의 합을 산출하여 고위험군(총점 31점 이상), 잠재적 위험군(23~30점), 일반사용자군(3점 미만)으로 범주화하였다.

그 외 아동의 정신건강 및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 연령, 아동의 건강상태 등의 개인요인, 사회경제적 수준, 부모의 양육 방식, 가정 불화, 스마트폰 사용 관리와 같은 가족 및 가정환경 요인, 친구 관계(친구 수, 만족도 등), 여가 및 문화시설 등 지역사회 환경 요인이 포함되었다.

관련 주요 특성별 차이와 상관관계 확인하기 위해 기초통계 분석을 수행했다. 다음으로 다중회귀분석 및 매개 분석을 활용하여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한편, 아동종합실태조사는 단면조사로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한 정신건강 및 웰빙 문제와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을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분석 결과는 이를 염두에 두고 해석해야 한다.

〈표 3-14〉 연구 모형



주: 선행연구에 기반해 아동종합실태조사(2023)의 가용한 변수를 고려하여 구성함.

2. 분석 결과

가. 기초분석

아동의 특성 및 가구특성, 친구 관계 및 학교생활, 거주지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는 아래 표에 제시되었다. 아동의 특성 중 성별 및 연령에 따른 과의존 비율은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으나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유의하게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가구 특성 중 가구유형 및 가구균등화소득, 가족관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박탈상태, 보호자의 정신건강과 아동 방치 및 신체적, 정신적 학대에 따라 유의하게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친구관계 및 학교 생활과 관련해 친구수가 적은 경우 유의하게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가 높았고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가 높았다. 거주지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은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이러한 관계는 각 변수들의 영향을 보정하는 경우 달라질 수 있다.

〈표 3-15〉 기초통계량

| 변수 | | 설문문항 | 전체 (%) | 일반사용자 (%) | 잠재 위험군 (%) | 고위험군 (%) | |
|----------|--------|--------------|-------------|-------------|------------|----------|-----|
| 성별 | 남 | child_gender | 1470 (52.0) | 1125 (75.1) | 313 (22.5) | 32 (2.3) | |
| | 여 | - | 1345 (48.0) | 1074 (77.3) | 249 (21.0) | 22 (1.7) | |
| 연령(연속변수) | | age3 | 13.28 | 13.28 | 13.23 | 13.85 | |
| 주관적 건강상태 | 나쁨 | - | 39 (1.5) | 23 (68.4) | 14 (13.1) | 2 (18.5) | *** |
| | 보통 | 아동(b2) | 289 (9.7) | 213 (75.8) | 68 (22.0) | 8 (2.3) | |
| | 좋음 | - | 2487 (88.8) | 1963 (76.4) | 480 (21.9) | 44 (1.7) | |
| 가구유형 | 그외 | gagu_type | 2116 (87.2) | 1666 (75.7) | 413 (22.3) | 37 (2.0) | |
| | 한부모/조손 | - | 699 (12.8) | 533 (79.3) | 149 (18.2) | 17 (2.5) | |
| 가구균등화소득 | 하위 25% | 부모(i3_4) | 724 (18.8) | 543 (76.4) | 163 (21.2) | 18 (2.4) | |
| | 25-50% | - | 672 (22.3) | 523 (76.5) | 134 (21.4) | 15 (2.1) | |
| | 20-75% | - | 703 (29.8) | 547 (74.1) | 149 (25.1) | 7 (0.7) | |
| | 상위 25% | - | 714 (29.0) | 585 (78.2) | 115 (18.7) | 14 (3.1) | |

| 변수 | | 설문문항 | 전체 (%) | 일반사용자 (%) | 잠재 위험군 (%) | 고위험군 (%) | |
|-------------|--------|---------------|-------------|-------------|------------|----------|-----|
| 박탈상태 | 그 외 | 부모(i7)/아동(h1) | 1635 (63.5) | 1335 (79.2) | 275 (19.0) | 25 (1.7) | ** |
| | 2개 이상 | | 1180 (36.5) | 864 (70.9) | 287 (26.5) | 29 (2.6) | |
| 가족관계 | 나쁨 | 부모(d3) | 1002 (35.3) | 726 (72.9) | 253 (24.3) | 23 (2.8) | |
| | 보통 | - | 936 (33.7) | 728 (74.5) | 192 (23.3) | 16 (2.2) | |
| | 좋음 | | 877 (31.0) | 745 (81.8) | 117 (17.2) | 15 (1.0) | |
| 보호자 정신건강 | 좋음 | 부모(b9) | 2389 (88.9) | 1897 (76.8) | 459 (21.9) | 33 (1.3) | *** |
| | 나쁨 | | 426 (11.1) | 302 (71.6) | 103 (20.8) | 21 (7.6) | |
| 아동 방치 | 없음 | 부모(g6) | 1875 (64.8) | 1526 (78.6) | 316 (19.4) | 33 (2.0) | * |
| | 해당 | | 940 (35.2) | 673 (71.7) | 246 (26.1) | 21 (2.2) | |
| 아동 신체적 학대 | 없음 | 부모(g7) | 2437 (86.9) | 1939 (77.5) | 455 (20.5) | 43 (2.0) | ** |
| | 해당 | | 378 (13.1) | 260 (67.7) | 107 (30.5) | 11 (1.9) | |
| 아동 정신적 학대 | 없음 | 부모(g8) | 1731 (62.2) | 1407 (79.6) | 292 (18.5) | 32 (1.9) | ** |
| | 해당 | | 1084 (37.8) | 792 (70.5) | 270 (27.2) | 22 (2.3) | |
| 스마트폰 등 사용시간 | 제한 | 부모(f13_3) | 1503 (53.4) | 1138 (74.0) | 339 (24.4) | 26 (1.6) | * |
| | 안함 | | 1312 (46.6) | 1061 (78.7) | 223 (18.8) | 28 (2.5) | |
| 스마트폰 등 이용범위 | 제한 | 부모(f13_4) | 1566 (54.0) | 1198 (75.0) | 341 (23.7) | 27 (1.3) | * |
| | 안함 | | 1249 (46.0) | 1001 (77.6) | 221 (19.5) | 27 (2.9) | |
| 학업 부담감 | 없음 | 아동(c8) | 2373 (83.0) | 1886 (76.9) | 449 (21.2) | 38 (1.9) | |
| | 있음 | | 429 (17.0) | 305 (72.5) | 108 (25.0) | 16 (2.6) | |
| 취미/여가 시간 | 있음 | 아동(e1_1_12) | 1105 (39.4) | 854 (75.8) | 225 (21.6) | 26 (2.6) | |
| | 없음 | | 1710 (60.6) | 1345 (76.4) | 337 (21.9) | 28 (1.6) | |
| 친구수 | 0-2명 | 아동(d2) | 238 (6.5) | 176 (68.0) | 57 (29.0) | 5 (3.0) | * |
| | 3-9명 | | 1871 (68.5) | 1444 (74.9) | 388 (22.7) | 39 (2.4) | |
| | 10명 이상 | | 706 (25.0) | 579 (82.0) | 117 (17.3) | 10 (0.7) | |
| 교우관계 | 좋음 | 아동(c9) | 2665 (95.0) | 2098 (76.5) | 520 (21.6) | 47 (1.9) | |
| | 아님 | | 150 (5.0) | 101 (69.9) | 42 (25.3) | 7 (4.8) | |
| 선생님과의 관계 | 좋음 | 아동(c10) | 2669 (94.1) | 2102 (76.8) | 527 (21.6) | 40 (1.6) | *** |
| | 아님 | | 146 (5.9) | 97 (66.5) | 35 (24.5) | 14 (9.0) | |
| 거주지 | 대도시 | | 1210 (46.4) | 914 (74.0) | 264 (23.7) | 32 (2.3) | |
| | 중소도시 | area1 | 1350 (47.4) | 1078 (78.0) | 250 (20.0) | 22 (2.0) | |
| | 농어촌 | | 255 (6.1) | 207 (79.3) | 48 (20.7) | 0 (0.0) | |
| 문화체육시설 | 인접 | 부모(h1_1) | 2047 (75.1) | 1610 (76.7) | 395 (21.4) | 42 (1.9) | |
| | 먼편 | | 768 (24.9) | 589 (74.7) | 167 (22.9) | 12 (2.4) | |
| 자연환경 먼 편 | 인접 | 부모(h1_8) | 2345 (84.7) | 1836 (76.3) | 466 (21.8) | 43 (1.9) | |
| | 먼편 | | 470 (15.3) | 363 (75.7) | 96 (21.8) | 11 (2.5) | |

주: *** p<.001, ** p<.01, *p<.05

나. 스마트폰 과의존 영향 요인(매개분석 결과)

아동의 특성 중 여자인 경우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는 낮았으며 주관적 건강상태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가구 특성을 살펴보면 가구 유형 및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박탈상태가 2개 이상인 경우 유의하게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관계가 좋은 경우보다 보통이거나 나쁜 경우 유의하게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가 증가했으며 보호자가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 아동을 방치하거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경우에도 유의하게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가 증가했다. 반면 스마트폰 등 사용 시간 제한은 스마트폰 과의존과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아동의 친구 및 학교 생활과 관련해 학업부담감이 큰 경우, 친구 수가 적은 경우,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에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가 증가했다. 반면 취미/여가 시간 여부나 교우관계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아동의 거주환경 중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대도시 거주 아동보다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가 유의하게 낮았고 근거리의 문화체육시설이나 자연환경은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표 3-16〉 스마트폰 과의존 점수 선형회귀 분석결과

| 변수 | 설문문항 | 회귀계수 | p-value (유의수준 포함) | 95% 신뢰구간 (하위, 상위) |
|---------------------------|----------------|--------|----------------------|----------------------|
| 성별: 여 | child_gender | -0.777 | <0.001 | *** -1.191 -0.363 |
| 연령 | | 1.418 | 0.003 | ** 0.486 2.349 |
| 연령의 제곱 | - | -0.058 | 0.002 | ** -0.093 -0.022 |
| 주관적 건강상태: 나쁨(ref. 좋음) | 아동(b2) | 0.944 | 0.317 | -0.904 2.792 |
| 주관적 건강상태: 보통(ref. 좋음) | - | 0.042 | 0.906 | -0.654 0.738 |
| 가구유형: 한부모, 조손(ref. 그외) | gagu_type | -0.367 | 0.187 | -0.913 0.178 |
| 소득 하위 25%(ref. 상위 25%) | 부모(i3_4) | -0.042 | 0.898 | -0.691 0.606 |
| 소득 하위 25-50%(ref. 상위 25%) | - | -0.342 | 0.279 | -0.960 0.276 |
| 소득 상위 25-50%(ref. 상위 25%) | - | -0.376 | 0.211 | -0.967 0.214 |
| 박탈상태: 2개 이상(ref. 그 외) | 부모(i7), 아동(h1) | 1.147 | <0.001 | *** 0.699 1.594 |
| 가족관계 나쁨(ref. 좋음) | 부모(d3) | 2.063 | <0.001 | *** 1.526 2.599 |
| 가족관계 보통(ref. 좋음) | - | 1.521 | <0.001 | *** 1.001 2.041 |
| 보호자의 정신건강 문제(ref. 좋음) | 부모(b9) | 0.679 | 0.034 | * 0.051 1.307 |
| 아동 방치(ref. 해당없음) | 부모(g6) | 0.898 | <0.001 | *** 0.431 1.364 |
| 아동 신체적 학대(ref. 해당없음) | 부모(g7) | 0.773 | 0.022 | * 0.112 1.434 |

| 변수 | 설문문항 | 회귀계수 | p-value (유의수준 포함) | | 95% 신뢰구간 (하위, 상위) | |
|------------------------|-------------|--------|----------------------|-----|----------------------|--------|
| 아동 정신적 학대(ref. 해당없음) | 부모(g8) | 1.211 | <0.001 | *** | 0.739 | 1.684 |
| 스마트폰 등 사용 시간 제한 | 부모(f13_3) | -0.442 | 0.215 | | -1.140 | 0.257 |
| 스마트폰 등 이용 범위 제한 | 부모(f13_4) | -0.197 | 0.587 | | -0.908 | 0.514 |
| 학업 부담감 | 아동(c8) | 0.669 | 0.027 | * | 0.078 | 1.260 |
| 취미/여가 시간 없음(ref. 있음) | 아동(e1_1_12) | 0.050 | 0.821 | | -0.380 | 0.479 |
| 친구수: 0~2명(ref. 10명 이상) | 아동(d2) | 1.756 | <0.001 | *** | 0.911 | 2.601 |
| 친구수: 3~9명(ref. 10명 이상) | | 1.834 | <0.001 | *** | 1.336 | 2.331 |
| 교우관계 좋지 않음 | 아동(c9) | 0.766 | 0.125 | | -0.212 | 1.743 |
| 선생님과의 관계 좋지 않음 | 아동(c10) | 1.712 | 0.001 | ** | 0.746 | 2.679 |
| 중소도시(ref. 대도시) | areal | -0.467 | 0.036 | * | -0.904 | -0.030 |
| 농어촌(ref. 대도시) | | 0.056 | 0.886 | | -0.703 | 0.814 |
| 문화체육시설 먼 편(ref. 인접) | 부모(h1_1) | 0.162 | 0.522 | | -0.334 | 0.658 |
| 자연환경 먼 편(ref. 인접) | 부모(h1_8) | -0.128 | 0.671 | | -0.721 | 0.464 |

주: 1) 종속변수로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의 총합계 점수를 이용함. 소득은 가구 균등화 소득이며 박탈 상태는 부모 혹은 아동의 응답을 조합하여 2개 이상인 경우로 정의함. 가족관계는 전반적인 가족관계를 묻는 15개 문항(부모 설문 D3문항)의 합으로 분포를 고려해 0~56은 나쁨, 57~63은 보통, 64점 이상은 좋음으로 구분함. 보호자의 정신건강의 CES-D 점수로 척도 정의에 따라 20/11을 곱한 후 16 이상인 경우로 정의함. 아동방치, 신체적 학대, 정신적 학대는 지난 1년 간 한 번이라도 있는 경우임. 학업 부담감은 꽤 느낀다 혹은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경우로 비교 집단은 전혀 느끼지 않거나 약간 느끼는 경우임. 교우관계 및 선생님과의 관계는 각 문항에 대해 하나라도 전혀 그렇지 않다 혹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로 정의함.

2) *** p<.001, ** p<.01, *p<.05

다, 정신건강 영향 요인

정신건강 영향 요인 분석의 일환으로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점수를 매개요인으로 분석했다. 우선 아동의 스트레스와 관련해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도 유의하게 증가한다. 그 외 변수들의 직접효과와 총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등 전반적으로 직접효과는 총효과에 비해 절대적인 영향이 작은 편이다. 특히 가족관계 및 선생님과의 관계가 미치는 직접 효과가 총효과보다 작았다. 즉, 이는 스마트폰 과의존이 더 많이 이러한 변수들이 아동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한다는 의미이다.

직접 효과에서 유의한 관계가 있는 변수들은 주관적 건강상태가 보통이거나 좋지 않은 경우, 학업부담감을 느끼는 경우, 교우관계 및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한 경우,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문화체육시설이 먼 경우에 유의하게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우울 및 불안과 관련해서도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점수가 높을수록 범불안 장애선별도구로 측정된 우울 및 불안점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변수들의 직접효과와 총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관적 건강상태, 가구유형, 박탈상태, 가족관계 등의 변수들에서 직접효과는 총효과에 비해 절대적인 영향이 작은 편이었다. 특히 가족관계 및 친구수, 선생님과 관계가 미치는 직접 효과가 총효과보다 작았다. 이는 스마트폰 과의존이 더 많이 이러한 변수들의 영향을 매개한다는 의미이다.

직접 효과에서 유의한 관계가 있는 변수들은 여자인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보통이거나 좋지 않은 경우, 박탈된 가구의 아동인 경우, 보호자가 정신건강문제가 있는 경우, 아동 방치 경험이 있는 경우, 아동이 학업부담감이 크거나, 교우관계, 선생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 우울 및 불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공격성도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점수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변수들의 직접효과와 총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탈된 가구의 아동인 경우, 가족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 아동이 정신적 학대를 경험한 경우, 선생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 등에서 직접효과는 총효과에 비해 절대적인 영향이 작은 편이었다. 이는 스마트폰 과의존이 이러한 변수들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한다는 의미이다.

직접 효과에서 유의한 관계가 있는 변수들은 주관적 건강상태가 보통이거나 좋지 않은 경우였다. 또한 박탈된 가구의 아동인 경우, 보호자가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경험한 경우 공격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학업부담감을 느끼는 경우, 교우관계 및 선생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 문화체육시설이 먼 경우에 아동의 공격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7〉 아동의 스트레스 영향 요인: 매개요인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점수를 이용한 분석 결과

| 변수 | 직접효과 | | | | 총효과 | | | |
|---------------------------|--------|---------|----------|--------|--------|---------|----------|--------|
| | 회귀계수 | p-value | 95% 신뢰구간 | | 회귀계수 | p-value | 95% 신뢰구간 | |
| 스마트폰 과의존 점수 | 0.005 | <0.001 | 0.003 | 0.008 | 0.005 | 0.000 | 0.003 | 0.008 |
| 성별: 여 | -0.002 | 0.864 | -0.025 | 0.021 | -0.006 | 0.598 | -0.030 | 0.017 |
| 연령 | -0.043 | 0.113 | -0.095 | 0.010 | -0.035 | 0.197 | -0.088 | 0.018 |
| 연령의 제곱 | 0.002 | 0.033 | 0.000 | 0.004 | 0.002 | 0.068 | 0.000 | 0.004 |
| 주관적 건강상태: 나쁨(ref. 좋음) | 0.323 | <0.001 | 0.219 | 0.427 | 0.328 | 0.000 | 0.224 | 0.433 |
| 주관적 건강상태: 보통(ref. 좋음) | 0.100 | <0.001 | 0.061 | 0.139 | 0.100 | 0.000 | 0.061 | 0.139 |
| 가구유형: 한부모, 조손(ref. 그외) | -0.014 | 0.371 | -0.045 | 0.017 | -0.016 | 0.308 | -0.047 | 0.015 |
| 소득 하위 25%(ref. 상위 25%) | -0.004 | 0.835 | -0.040 | 0.033 | -0.004 | 0.826 | -0.041 | 0.033 |
| 소득 하위 25-50%(ref. 상위 25%) | -0.033 | 0.062 | -0.068 | 0.002 | -0.035 | 0.049 | -0.070 | 0.000 |
| 소득 상위 25-50%(ref. 상위 25%) | -0.002 | 0.906 | -0.035 | 0.031 | -0.004 | 0.811 | -0.037 | 0.029 |
| 박탈상태: 2개 이상(ref. 그 외) | -0.012 | 0.356 | -0.037 | 0.013 | -0.006 | 0.662 | -0.031 | 0.020 |
| 가족관계 나쁨(ref. 좋음) | 0.029 | 0.065 | -0.002 | 0.059 | 0.040 | 0.010 | 0.010 | 0.070 |
| 가족관계 보통(ref. 좋음) | 0.003 | 0.856 | -0.027 | 0.032 | 0.011 | 0.461 | -0.018 | 0.040 |
| 보호자의 정신건강 문제(ref. 좋음) | 0.021 | 0.245 | -0.014 | 0.056 | 0.025 | 0.173 | -0.011 | 0.060 |
| 아동 방치(ref. 해당없음) | 0.017 | 0.202 | -0.009 | 0.044 | 0.022 | 0.101 | -0.004 | 0.049 |
| 아동 신체적 학대(ref. 해당없음) | 0.004 | 0.843 | -0.034 | 0.041 | 0.008 | 0.675 | -0.029 | 0.045 |
| 아동 정신적 학대(ref. 해당없음) | -0.015 | 0.277 | -0.042 | 0.012 | -0.008 | 0.549 | -0.035 | 0.019 |
| 스마트폰 등 사용 시간 제한 | -0.007 | 0.714 | -0.047 | 0.032 | -0.010 | 0.628 | -0.049 | 0.030 |
| 스마트폰 등 이용 범위 제한 | -0.010 | 0.623 | -0.050 | 0.030 | -0.011 | 0.588 | -0.051 | 0.029 |
| 학업 부담감 | 0.155 | <0.001 | 0.121 | 0.188 | 0.158 | 0.000 | 0.125 | 0.192 |
| 취미/여가 시간 없음(ref. 있음) | -0.048 | <0.001 | -0.072 | -0.024 | -0.048 | 0.000 | -0.072 | -0.023 |
| 친구수: 0-2명(ref. 10명 이상) | -0.002 | 0.947 | -0.049 | 0.046 | 0.008 | 0.743 | -0.040 | 0.056 |
| 친구수: 3-9명(ref. 10명 이상) | -0.010 | 0.508 | -0.038 | 0.019 | 0.000 | 0.973 | -0.028 | 0.029 |
| 교우관계 좋지 않음 | 0.151 | <0.001 | 0.096 | 0.206 | 0.155 | 0.000 | 0.100 | 0.211 |
| 선생님과의 관계 좋지 않음 | 0.067 | 0.017 | 0.012 | 0.121 | 0.076 | 0.006 | 0.021 | 0.131 |
| 중소도시(ref. 대도시) | 0.033 | 0.009 | 0.008 | 0.057 | 0.030 | 0.017 | 0.005 | 0.055 |
| 농어촌(ref. 대도시) | 0.010 | 0.660 | -0.033 | 0.052 | 0.010 | 0.651 | -0.033 | 0.053 |
| 문화체육시설 먼 편(ref. 인접) | 0.034 | 0.018 | 0.006 | 0.062 | 0.035 | 0.016 | 0.006 | 0.063 |
| 자연환경 먼 편(ref. 인접) | 0.010 | 0.576 | -0.024 | 0.043 | 0.009 | 0.606 | -0.025 | 0.042 |

주: 아동의 스트레스는 이분형 변수로 대단히 많이 혹은 많이 느끼는 위험을 평가함(그외는 조금, 별로,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 스마트폰 과의존 점수는 총합계 점수를 이용하여며 소득은 가구 균등화 소득이며 박탈 상태는 부모 혹은 아동의 응답을 조합하여 2개 이상인 경우로 정의함. 가족관계는 전반적인 가족관계를 묻는 15개 문항(부모 설문)의 D3문항)의 합으로 분포를 고려해 0~56은 나쁨, 57~63은 보통, 64점 이상은 좋음으로 구분함. 보호자의 정신건강의 CES-D 점수로 척도 정의에 따라 20/11을 곱한 후 16 이상인 경우로 정의함. 아동방치, 신체적 학대, 정신적 학대는 지난 1년간 한 번이라도 있는 경우임. 학업 부담감은 꽤 느낀다 혹은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경우로 비교 집단은 전혀 느끼지 않거나 약간 느끼는 경우임. 교우관계 및 선생님과과의 관계는 각 문항에 대해 하나라도 전혀 그렇지 않다 혹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로 정의함.

〈표 3-18〉 아동의 우울 및 불안 영향 요인: 매개요인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점수를 이용한 분석 결과

| 변수 | 직접효과 | | | | 총효과 | | | |
|---------------------------|--------|---------|----------|--------|--------|---------|----------|--------|
| | 회귀계수 | p-value | 95% 신뢰구간 | | 회귀계수 | p-value | 95% 신뢰구간 | |
| 스마트폰 과의존 점수 | 0.063 | <0.001 | 0.046 | 0.079 | 0.063 | 0.000 | 0.046 | 0.079 |
| 성별: 여 | 0.315 | 0.001 | 0.134 | 0.496 | 0.267 | 0.004 | 0.084 | 0.449 |
| 연령 | -0.258 | 0.214 | -0.664 | 0.149 | -0.169 | 0.419 | -0.579 | 0.241 |
| 연령의 제곱 | 0.011 | 0.171 | -0.005 | 0.026 | 0.007 | 0.364 | -0.008 | 0.023 |
| 주관적 건강상태: 나쁨(ref. 좋음) | 3.376 | <0.001 | 2.571 | 4.181 | 3.435 | 0.000 | 2.622 | 4.248 |
| 주관적 건강상태: 보통(ref. 좋음) | 0.893 | <0.001 | 0.590 | 1.196 | 0.896 | 0.000 | 0.590 | 1.202 |
| 가구유형: 한부모, 조손(ref. 그외) | -0.053 | 0.662 | -0.291 | 0.185 | -0.076 | 0.534 | -0.316 | 0.164 |
| 소득 하위 25%(ref. 상위 25%) | 0.107 | 0.457 | -0.175 | 0.390 | 0.105 | 0.472 | -0.181 | 0.390 |
| 소득 하위 25-50%(ref. 상위 25%) | 0.026 | 0.851 | -0.244 | 0.295 | 0.004 | 0.975 | -0.268 | 0.276 |
| 소득 상위 25-50%(ref. 상위 25%) | -0.062 | 0.639 | -0.319 | 0.196 | -0.085 | 0.521 | -0.345 | 0.175 |
| 박탈상태: 2개 이상(ref. 그 외) | 0.201 | 0.044 | 0.006 | 0.397 | 0.273 | 0.007 | 0.076 | 0.470 |
| 가족관계 나쁨(ref. 좋음) | 0.110 | 0.359 | -0.126 | 0.346 | 0.239 | 0.047 | 0.003 | 0.476 |
| 가족관계 보통(ref. 좋음) | -0.090 | 0.440 | -0.318 | 0.138 | 0.005 | 0.963 | -0.223 | 0.234 |
| 보호자의 정신건강 문제(ref. 좋음) | 0.502 | <0.001 | 0.228 | 0.775 | 0.544 | 0.000 | 0.268 | 0.820 |
| 아동 방치(ref. 해당없음) | 0.212 | 0.042 | 0.008 | 0.416 | 0.268 | 0.010 | 0.063 | 0.474 |
| 아동 신체적 학대(ref. 해당없음) | 0.165 | 0.263 | -0.124 | 0.453 | 0.213 | 0.151 | -0.078 | 0.504 |
| 아동 정신적 학대(ref. 해당없음) | 0.053 | 0.613 | -0.153 | 0.260 | 0.129 | 0.223 | -0.079 | 0.337 |
| 스마트폰 등 사용 시간 제한 | -0.273 | 0.078 | -0.578 | 0.031 | -0.301 | 0.055 | -0.608 | 0.006 |
| 스마트폰 등 이용 범위 제한 | 0.218 | 0.168 | -0.092 | 0.528 | 0.206 | 0.198 | -0.107 | 0.518 |
| 학업 부담감 | 0.890 | <0.001 | 0.633 | 1.148 | 0.932 | 0.000 | 0.672 | 1.192 |
| 취미/여가 시간 없음(ref. 있음) | -0.226 | 0.018 | -0.413 | -0.039 | -0.223 | 0.021 | -0.411 | -0.034 |
| 친구수: 0-2명(ref. 10명 이상) | 0.337 | 0.074 | -0.033 | 0.706 | 0.446 | 0.019 | 0.075 | 0.818 |
| 친구수: 3-9명(ref. 10명 이상) | 0.020 | 0.857 | -0.199 | 0.239 | 0.135 | 0.227 | -0.084 | 0.354 |
| 교우관계 좋지 않음 | 1.702 | <0.001 | 1.276 | 2.128 | 1.750 | 0.000 | 1.320 | 2.180 |
| 선생님과의 관계 좋지 않음 | 1.231 | <0.001 | 0.809 | 1.653 | 1.338 | 0.000 | 0.912 | 1.763 |
| 중소도시(ref. 대도시) | 0.121 | 0.212 | -0.069 | 0.312 | 0.092 | 0.348 | -0.100 | 0.285 |
| 농어촌(ref. 대도시) | -0.181 | 0.284 | -0.511 | 0.150 | -0.177 | 0.298 | -0.511 | 0.157 |
| 문화체육시설 먼 편(ref. 인접) | -0.123 | 0.265 | -0.339 | 0.093 | -0.113 | 0.311 | -0.331 | 0.105 |
| 자연환경 먼 편(ref. 인접) | -0.115 | 0.384 | -0.373 | 0.144 | -0.123 | 0.357 | -0.383 | 0.138 |

주: 아동의 우울 및 불안은 범불안장애 선별도구(GAD-7)의 연속점수로 평가함. 스마트폰 과의존 점수는 총합계 점수를 이용하였으며 소득은 가구 균등화 소득이며 박탈 상태는 부모 혹은 아동의 응답을 조합하여 2개 이상인 경우로 정의함. 가족관계는 전반적인 가족관계를 묻는 15개 문항(부모 설문 3문항, D3문항)의 합으로 분포를 고려해 0~56은 나쁨, 57~63은 보통, 64점 이상은 좋음으로 구분함. 보호자의 정신건강의 CES-D 점수로 척도 정의에 따라 20/11을 곱한 후 16 이상인 경우로 정의함. 아동방치, 신체적 학대, 정신적 학대는 지난 1년 간 한 번이라도 있는 경우임. 학업 부담감은 꽤 느끼다 혹은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경우로 비교 집단은 전혀 느끼지 않거나 약간 느끼는 경우임. 교우관계 및 선생님과의 관계는 각 문항에 대해 하나라도 전혀 그렇지 않다 혹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로 정의함.

〈표 3-19〉 아동의 공격성 영향 요인: 매개요인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점수를 이용한 분석 결과

| 변수 | 직접효과 | | | | 총효과 | | | |
|---------------------------|--------|---------|----------|--------|--------|---------|----------|--------|
| | 회귀계수 | p-value | 95% 신뢰구간 | | 회귀계수 | p-value | 95% 신뢰구간 | |
| 스마트폰 과의존 점수 | 0.097 | <0.001 | 0.079 | 0.116 | 0.097 | 0.000 | 0.079 | 0.116 |
| 성별: 여 | 0.104 | 0.323 | -0.103 | 0.312 | 0.029 | 0.789 | -0.182 | 0.239 |
| 연령 | -0.421 | 0.076 | -0.886 | 0.045 | -0.283 | 0.242 | -0.756 | 0.191 |
| 연령의 제곱 | 0.013 | 0.163 | -0.005 | 0.031 | 0.007 | 0.445 | -0.011 | 0.025 |
| 주관적 건강상태: 나쁨(ref. 좋음) | 3.287 | 0.000 | 2.366 | 4.209 | 3.379 | 0.000 | 2.440 | 4.318 |
| 주관적 건강상태: 보통(ref. 좋음) | 0.881 | 0.000 | 0.534 | 1.228 | 0.885 | 0.000 | 0.531 | 1.238 |
| 가구유형: 한부모, 조손(ref. 그외) | -0.328 | 0.018 | -0.600 | -0.055 | -0.363 | 0.010 | -0.641 | -0.086 |
| 소득 하위 25%(ref. 상위 25%) | -0.183 | 0.267 | -0.507 | 0.140 | -0.187 | 0.265 | -0.517 | 0.142 |
| 소득 하위 25-50%(ref. 상위 25%) | -0.010 | 0.950 | -0.318 | 0.299 | -0.043 | 0.788 | -0.357 | 0.271 |
| 소득 상위 25-50%(ref. 상위 25%) | -0.256 | 0.088 | -0.551 | 0.038 | -0.293 | 0.056 | -0.593 | 0.007 |
| 박탈상태: 2개 이상(ref. 그 외) | 0.523 | 0.000 | 0.299 | 0.747 | 0.635 | 0.000 | 0.408 | 0.862 |
| 가족관계 나쁨(ref. 좋음) | 0.349 | 0.011 | 0.078 | 0.619 | 0.550 | 0.000 | 0.277 | 0.822 |
| 가족관계 보통(ref. 좋음) | -0.210 | 0.114 | -0.471 | 0.051 | -0.062 | 0.646 | -0.326 | 0.202 |
| 보호자의 정신건강 문제(ref. 좋음) | 0.694 | 0.000 | 0.381 | 1.007 | 0.760 | 0.000 | 0.441 | 1.079 |
| 아동 방치(ref. 해당없음) | 0.034 | 0.774 | -0.199 | 0.268 | 0.122 | 0.314 | -0.115 | 0.359 |
| 아동 신체적 학대(ref. 해당없음) | 0.465 | 0.006 | 0.135 | 0.795 | 0.540 | 0.002 | 0.204 | 0.876 |
| 아동 정신적 학대(ref. 해당없음) | 0.554 | 0.000 | 0.318 | 0.791 | 0.672 | 0.000 | 0.432 | 0.912 |
| 스마트폰 등 사용 시간 제한 | 0.236 | 0.184 | -0.112 | 0.584 | 0.193 | 0.286 | -0.162 | 0.548 |
| 스마트폰 등 이용 범위 제한 | -0.233 | 0.198 | -0.587 | 0.122 | -0.252 | 0.171 | -0.613 | 0.109 |
| 학업 부담감 | 0.416 | 0.006 | 0.121 | 0.711 | 0.481 | 0.002 | 0.180 | 0.781 |
| 취미/여가 시간 없음(ref. 있음) | -0.347 | 0.001 | -0.561 | -0.133 | -0.343 | 0.002 | -0.561 | -0.124 |
| 친구수: 0-2명(ref. 10명 이상) | -0.888 | 0.000 | -1.310 | -0.465 | -0.717 | 0.001 | -1.146 | -0.287 |
| 친구수: 3-9명(ref. 10명 이상) | -0.388 | 0.002 | -0.638 | -0.137 | -0.209 | 0.105 | -0.462 | 0.044 |
| 교우관계 좋지 않음 | 1.896 | 0.000 | 1.408 | 2.384 | 1.971 | 0.000 | 1.474 | 2.467 |
| 선생님과의 관계 좋지 않음 | 0.975 | 0.000 | 0.492 | 1.458 | 1.142 | 0.000 | 0.651 | 1.633 |
| 중소도시(ref. 대도시) | -0.141 | 0.205 | -0.359 | 0.077 | -0.187 | 0.100 | -0.409 | 0.036 |
| 농어촌(ref. 대도시) | -0.536 | 0.005 | -0.915 | -0.158 | -0.531 | 0.007 | -0.916 | -0.145 |
| 문화체육시설 먼 편(ref. 인접) | 0.278 | 0.028 | 0.030 | 0.525 | 0.293 | 0.023 | 0.041 | 0.545 |
| 자연환경 먼 편(ref. 인접) | -0.218 | 0.148 | -0.513 | 0.078 | -0.230 | 0.134 | -0.531 | 0.071 |

주: 아동의 공격성은 K-CBCL의 연속점수로 평가함. 스마트폰 과의존 점수는 총합계 점수를 이용하였으며 소득은 가구 균 등화 소득이며 박탈 상태는 부모 혹은 아동의 응답을 조합하여 2개 이상인 경우로 정의함. 가족관계는 전반적인 가족관계를 묻는 15개 문항(부모 설문 D3문항)의 합으로 분포를 고려해 0~56은 나쁨, 57~63은 보통, 64점 이상은 좋음으로 구분함. 보호자의 정신건강의 CES-D 점수로 척도 정의에 따라 20/11을 곱한 후 16 이상인 경우로 정의함. 아동 방치, 신체적 학대, 정신적 학대는 지난 1년 간 한 번이라도 있는 경우임. 학업 부담감은 꽤 느낀다 혹은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경우로 비교 집단은 전혀 느끼지 않거나 약간 느끼는 경우임. 교우관계 및 선생님과의 관계는 각 문항에 대해 하나라도 전혀 그렇지 않다 혹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로 정의함.

제4절 소결(정책적 함의)

분석결과 아동의 스마트폰 과다 의존은 가정, 학교, 지역 사회 환경 전반의 다양한 요인과 관련이 있으며, 정신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관계가 좋지 않고, 학업 부담이 크고, 친구가 적고, 교사와의 관계가 부정적이라고 인식하는 아동에서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았다. 또한 스마트폰에 대한 과다 의존은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빈곤 가정이나 보호자가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가구의 아동이 스트레스, 우울 및 불안, 공격성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 및 체육 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같은 지역 사회 요인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가족 지원 및 학교 기반 개입과 지역 사회 참여에 초점을 둔 정책 접근 방식과 아동의 정신건강 및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는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완화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가구 및 학교 환경, 지역사회 기반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우선 가족 및 보호자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가족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는 가족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구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탈을 경험하는 가구나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부모에게 디지털 리터러시와 균형 잡힌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긍정적인 가족 환경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신 건강 문제를 겪는 보호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 건강 전문가와 지역 사회 자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의 학업 부담을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학교 프로그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마트폰 과의존 및 정신 건강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긍정적인 교사-학생 관계를 강화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아동의 신체, 스포츠, 동아리 등의 활동을 장려하고 사회적 상호 작용 강화를 통해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동에게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여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체계적인 활동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지털 균형과 건강한 스마트폰 습관을 장려하는 지역차원

의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대도시와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서 문화 및 스포츠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여 풍부한 오프라인 활동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디지털 포용 접근과 함께 아동의 책임 있는 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가 디지털 헬스 전략 마련 시, 심리 및 정신 건강 전문가의 참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 과의존을 모니터링하고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함께 개발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 사용이 아동의 정신 건강과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정책적 접근은 무엇보다 가족, 학교, 커뮤니티 전반에 걸쳐 지원적 환경을 조성하고 스마트폰에 대한 과도한 의존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고 아동의 정신 건강과 웰빙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 방식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



제4장

학교생활만족도와 영향 요인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선행연구 분석

제3절 통계분석 방법 및 결과

제4절 소결(정책적 함의)

제4장 학교생활만족도와 영향 요인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아동에게 학교는 단순히 지식과 학습의 장이 아니라 건강하고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에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다. 우선, 학교는 아동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하고, 학교에서의 경험을 통한 학습을 기반으로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등 지적 성장에 필수적인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Dewey, 1916). 학교에서의 다양한 교과목 학습과 활동을 통해 자신의 관심사와 적성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정체성 형성과 자아실현의 기회가 제공된다. 둘째, 학교에서는 친구, 선후배, 선생님 등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갈등 해결 방법을 익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동은 사회적 규범과 가치를 내면화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Parsons, 1959), 사회적 통합과 도덕적 가치를 형성하는 기회를 갖는다(Durkheim, 1922). 그리고 학교 교육을 통한 학문적 성취는 사회적 이동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OECD, 2023). 학교 교육은 인적 자본(human capital)을 증가시켜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기 때문이다(Becker, 1964).

한편, 아동이 학교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건강하고 균형있게 성장, 발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는 과거에 비해 나아지고 있지 않다.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 9-17세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는 7.33점(11점 만점)으로 5년 전의 7.32점(2018년)과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성과지표인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는 아동·청소년의 비율(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은 2019년 76.5%에서 2023년 73.6%로 2.9%p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즉, 우리나라 아동의 26.4%는 학교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비율은 과거보다 악화된 것이다.

우리나라 아동의 97.8%는 평일 하루에 5시간 이상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다(이상정

외, 2023). 집에서 보내는 시간 외에 아동·청소년기의 가장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아동에게 긍정적인 학교 환경을 제공하여 학교생활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및 행복도 제고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과 위험요인(risk factor)을 파악하여 보호요인을 강화하고,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초·중·고의 학교 및 생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교급별로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른 정책적 개입도 달라져야 한다. 초·중·고 급별로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 비교하는 것은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 도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제2절 선행연구 분석

1. 학교생활만족도 실태

가. 아동종합실태조사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우리나라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는 총 9개 문항,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학교생활이 즐겁다’, ‘내가 배우고 있는 대부분의 과목을 좋아한다’, ‘나는 우리학교 선생님을 대부분 존경한다’, ‘나는 수업태도가 좋은 편이다’, ‘숙제나 과제물을 꼬박꼬박 해 가는 편이다’, ‘선생님의 지시를 잘 따른다’의 긍정적인 학교생활을 나타내는 6개 문항과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질 때가 있다’, ‘시험 볼 때 다른 친구의 답안지를 본 적이 있다’, ‘수업이나 자율학습 시간에 허락 없이 교실에서 나간 적이 있다’의 부정적인 학교생활을 나타내는 3개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부정적인 학교생활을 나타내는 문항들은 역코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2013년 우리나라 아동의 평균 학교생활만족도는 3.1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에 비해 여자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 수준이 0.06점 높고, 연령별로는 9-11세의 아동이 12-17세의 아동 보다 0.14점 높아 연령이 낮을수록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른 학교생활만족도는 빈곤가구의 아동이 일반 가구의 아동보다 학교생활만족도가 낮았는데, 기초수급보다 차상위 가구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가 0.06점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보다 농어촌 지역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유형별로는 한부모·조손 가구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가 양부모 가구 아동보다 0.06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2013년 9-17세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

(단위: 점수)

| 구분 | | 2023년 | |
|-------|--------|-------|------|
| | | 평균 | SD |
| 전체 | | 3.09 | 0.42 |
| 아동 성별 | 남자 | 3.06 | 0.43 |
| | 여자 | 3.12 | 0.41 |
| 연령 | 9-11세 | 3.19 | 0.42 |
| | 12-17세 | 3.05 | 0.42 |
| 소득수준1 | 빈곤 | 2.99 | 0.47 |
| | 일반 | 3.10 | 0.42 |
| 소득수준2 | 기초수급 | 3.01 | 0.48 |
| | 차상위 | 2.95 | 0.43 |
| | 일반 | 3.10 | 0.42 |
| 지역 | 대도시 | 3.09 | 0.43 |
| | 중소도시 | 3.10 | 0.42 |
| | 농어촌 | 3.01 | 0.41 |
| 가족유형 | 양부모 | 3.10 | 0.42 |
| | 한부모·조손 | 3.04 | 0.45 |

주: 4점 척도, 최소값=1(전혀 그렇지 않다), 최대값=4(매우 그렇다)

2013년 조사와 대비하여 2018년부터 학교생활만족도 관련 문항은 ‘여러분은 현재 학교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의 1문항으로 수정되었으며, 0점(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에서 10점(매우 만족한다)까지의 11점 척도로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를 측정하였다. 2018년도와 2023년의 학교생활만족도 점수는 각각 7.32점, 7.33점으로 학교생활만족도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한편, 각 집단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남자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는 2018년도에 비해 0.12점 높아졌으나, 그만큼 여자

아동의 점수는 낮아졌다. 연령대별로는 9-11세 아동의 만족도는 0.13점 증가한 반면, 12-17세 아동의 만족도는 감소했다. 또한, 아동가구의 소득이 낮을수록 학교생활만족도가 낮은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중위소득 150% 미만~ 중위소득 150% 미만 이하 가구의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는 감소한 반면, 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에서만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가 증가하였다. 또한,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는 감소한 반면, 대도시에서는 학교생활만족도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 2018년과 2023년의 아동종합실태조사 통합 비교표 - 학교생활만족도

(단위: 점수)

| 구분 | | 2018년 | | 2023년 | | 변화(평균) |
|-----------|----------------|-------|------|-------|------|--------|
| | | 평균 | SD | 평균 | SD | |
| 전체 | | 7.32 | 1.07 | 7.32 | 1.69 | +0.01 |
| 아동 성별 | 남 | 7.28 | 1.11 | 7.40 | 1.65 | +0.12 |
| | 여 | 7.37 | 1.03 | 7.25 | 1.73 | -0.12 |
| 아동 연령 | 9-11 | 7.54 | 1.09 | 7.67 | 1.47 | +0.13 |
| | 12-17 | 7.21 | 1.05 | 7.17 | 1.76 | -0.04 |
| 표본 | 일반 | 7.36 | 1.03 | 7.34 | 1.67 | -0.02 |
| | 수급 | 6.62 | 1.54 | 7.03 | 2.08 | +0.41 |
| 소득 수준 | 중위소득 50% 미만 | 7.02 | 1.38 | 6.84 | 1.95 | -0.18 |
| | 중위소득 50%~100% | 7.29 | 1.11 | 7.19 | 1.62 | -0.10 |
| | 중위소득 100%~150% | 7.38 | 0.95 | 7.35 | 1.60 | -0.03 |
| | 중위소득 150% 이상 | 7.41 | 1.03 | 7.63 | 1.70 | +0.22 |
| | 무응답 | 7.12 | 1.40 | 8.21 | 1.08 | +1.09 |
| 지역 | 대도시 | 7.27 | 1.01 | 7.46 | 1.64 | +0.19 |
| | 중소도시 | 7.35 | 1.12 | 7.22 | 1.71 | -0.13 |
| | 농어촌 | 7.45 | 1.13 | 7.20 | 1.84 | -0.25 |
| 가구유 형 | 양부모 | 7.35 | 1.04 | 7.38 | 1.67 | +0.03 |
| | 한부모·조손 | 7.00 | 1.44 | 6.97 | 1.77 | -0.03 |
| 맞벌이 여부 | 외벌이 | 7.33 | 1.07 | 7.25 | 1.75 | -0.08 |
| | 맞벌이 | 7.33 | 1.05 | 7.43 | 1.61 | +0.10 |
| | 기타 | 6.95 | 1.53 | 6.93 | 1.97 | -0.02 |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세 차례의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측정 척도가 다르기 때문에 제한점은 있으나, 2013년도 학교생활만족도를 11점으로 환산한 점수는 8.49점으로 10년 전에 비해 우리나라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 수준은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수급, 저소득 가구 아동, 농어촌 지역, 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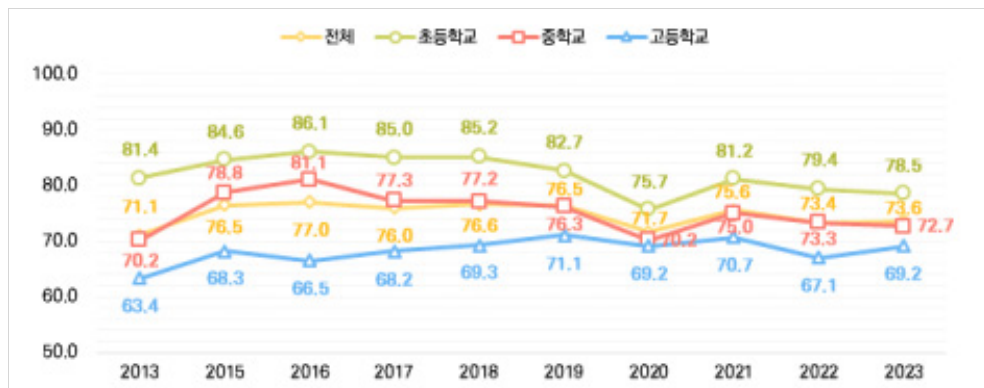
모·조손 가구, 외벌이 가구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 수준이 5년 전, 2018년도에 비해 낮아져 저소득·취약 가구 환경이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나. 타 조사에서의 학교생활만족도

1)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제402001호)로, 조사원이 조사대상 학급을 방문하여 학급 청소년 전체가 직접 자기기입식으로 종이 설문지에 응답하게 하는 학급단위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아동·청소년 인권의 실태와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시계열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에 대한 응답을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측정하고 있으며,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성과지표로 선정, 사용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9년도에 비해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는 아동·청소년의 비율이 2023년도에 감소한 가운데, 특히 초등학교가 4.2%p,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 연도별 추이: 학교생활만족도_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출처: 유민상, 이경상. (2023). 한국청소년정책2023년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연구원. p.334.

한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순으로 학교생활만족도가 낮았고, 이러한 경향은 [그림 4-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난 10년간 동일하다. 또한, 아동종합실태조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도 저소득·취약 가구 환경이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가 낮은 경향이 나타났다. 읍면지역 거주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 평균 점수가 대도시, 중소도시 지역 거주 아동보다 낮았으며, 조손, 한부모, 양부모 가정 순으로 학교생활만족도 점수가 높아졌다. 또한,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학교생활만족도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학교생활만족도_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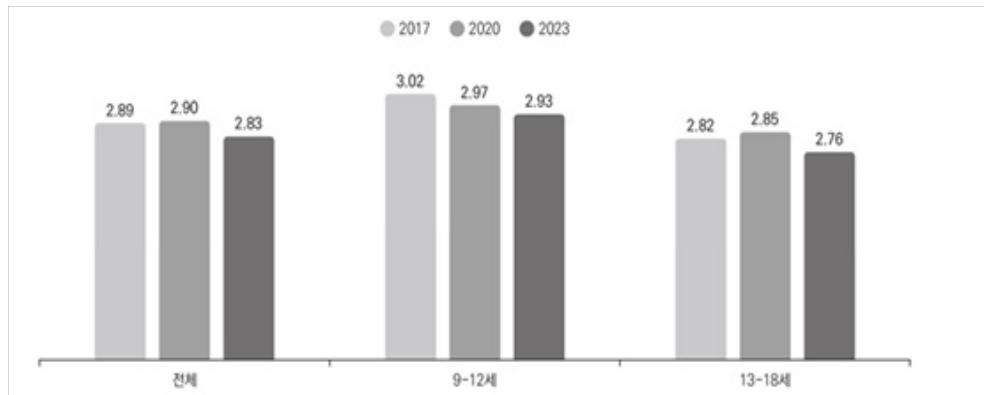
| 구분 | 사례수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평균 (표준편차) | |
|-------------|-------|-----------|------------|--------|--------|------------|------------|
| 2019 | 9,249 | 5.2 | 18.3 | 50.7 | 25.8 | 2.97(0.81) | |
| 2020 | 8,553 | 7.1 | 21.2 | 49.7 | 22.0 | 2.87(0.84) | |
| 2021 | 8,665 | 6.4 | 18.0 | 46.3 | 29.3 | 2.99(0.85) | |
| 2022 | 8,801 | 7.1 | 19.5 | 45.3 | 28.1 | 2.94(0.87) | |
| 2023 | 8,734 | 7.2 | 19.1 | 44.2 | 29.4 | 2.96(0.88) | |
| 성별 | 남자 | 4,489 | 8.3 | 18.2 | 43.8 | 29.8 | 2.95(0.90) |
| | 여자 | 4,245 | 6.2 | 20.2 | 44.7 | 28.9 | 2.96(0.86) |
| 학교급 및 재학 여부 | 초등학교 | 3,023 | 6.0 | 15.4 | 40.4 | 38.1 | 3.11(0.87) |
| | 중학교 | 2,955 | 7.3 | 20.0 | 45.6 | 27.1 | 2.93(0.87) |
| | 고등학교 | 2,757 | 8.6 | 22.3 | 47.0 | 22.2 | 2.83(0.87) |
| 지역 규모 | 대도시 | 3,441 | 7.7 | 22.7 | 46.8 | 22.8 | 2.98(0.88) |
| | 중소도시 | 4,25 | 6.9 | 19.4 | 45.0 | 28.7 | 2.95(0.87) |
| | 읍면지역 | 1,035 | 8.8 | 20.8 | 43.3 | 27.1 | 2.89(0.91) |
| 가족 유형 | 양부모가정 | 7,836 | 7.1 | 18.9 | 44.7 | 29.4 | 2.96(0.87) |
| | 한부모가정 | 648 | 9.7 | 24.2 | 40.9 | 25.3 | 2.82(0.92) |
| | 조손가정 | 31 | 7.7 | 32.2 | 39.7 | 20.5 | 2.73(0.89) |
| | 기타 | 150 | 7.6 | 15.5 | 31.8 | 45.1 | 3.14(0.95) |
| 학업 성적 | 상 | 3,413 | 5.0 | 13.6 | 42.2 | 39.2 | 3.16(0.84) |
| | 중 | 3,348 | 6.4 | 20.5 | 47.8 | 25.3 | 2.92(0.84) |
| | 하 | 1,869 | 12.8 | 27.3 | 41.8 | 18.0 | 2.65(0.92) |
| 경제적 수준 | 상 | 5,391 | 5.9 | 16.1 | 43.9 | 34.1 | 3.06(0.86) |
| | 중 | 2,639 | 8.6 | 23.2 | 46.2 | 22.0 | 2.82(0.87) |
| | 하 | 599 | 13.6 | 30.1 | 39.1 | 17.3 | 2.60(0.93) |

출처: 유민상, 이경상. (2023). 2023년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248.

2)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는 「청소년 기본법」 제 15조의2 제1항에 의해 실시되는 「청소년종합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154013호)로, 9-24세 청소년이 거주하는 전국 5,000가구의 청소년과 주 양육자를 조사 대상으로 하며, 청소년은 9-12세, 13-18세, 19-24세의 3개 연령대로 구분한다. 해당 조사에서 학교생활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나는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우리 학교는 우리들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 ‘우리 학교는 교칙이 엄격하다’, ‘선생님, 친구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생활이 만족스럽다’의 5개 문항으로 질문하였다.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도 9-18세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도는 '17년 2.89점, '20년 2.90점, '23년 2.83점(4점 만점)으로,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 연도별 추이: 학교생활만족도



출처: 김지경 외 (2023).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288.

연령대별로 비교하면 9-12세의 학교생활만족도가 2.93점, 13-18세의 만족도가 평균 2.76점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학교생활만족도가 낮았다. 또한, 초등학교(2.93점)가 가장 높고 중학교(2.80점), 고등학교(2.73점) 순으로 나타나, 학교급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대도시,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에 비해 농산어촌 거주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도가 낮고, 가구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양부모가 구 아동에 비해 한부모 및 조손가구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도 수준이 낮은 경향이 나

타나 저소득·취약 가구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 수준이 아동종합실태조사와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표 4-4〉 2017-2023년 학교생활만족도 평균(9-18세)

(단위: 명, 점)

| 구분 | 사례수 | 전체 | 9-12세 | 13-18세 | |
|-------------|---------------|-------|-------|--------|------|
| 연도별 | 2017 | 4,210 | 2.89 | 3.02 | 2.82 |
| | 2020 | 3,870 | 2.90 | 2.97 | 2.85 |
| | 2023 | 4,191 | 2.83 | 2.93 | 2.76 |
| 성별 | 남자 | 2,161 | 2.82 | 2.92 | 2.76 |
| | 여자 | 2,030 | 2.84 | 2.94 | 2.77 |
| 학교급 및 재학 여부 | 초등학교 | 1,626 | 2.93 | 2.93 | 2.85 |
| | 중학교 | 1,354 | 2.80 | 2.88 | 2.79 |
| | 고등학교 | 1,211 | 2.73 | - | 2.73 |
| 거주지역 | 대도시 | 1,686 | 2.87 | 3.00 | 2.78 |
| | 중소도시 | 1,847 | 2.82 | 2.89 | 2.78 |
| | 농산어촌 | 659 | 2.75 | 2.87 | 2.66 |
| 가구소득 | 200만원 미만 | 100 | 2.75 | 2.90 | 2.66 |
| | 200-400만원 미만 | 846 | 2.77 | 2.90 | 2.66 |
| | 400-600만원 미만 | 2,158 | 2.82 | 2.92 | 2.75 |
| | 600만원 이상 | 1,087 | 2.90 | 2.98 | 2.85 |
| 가구형태 | 양부모 | 4,004 | 2.84 | 2.93 | 2.77 |
| | 한부모 및 조손 가족 등 | 187 | 2.72 | 2.86 | 2.61 |

주: 학교생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개별 문항의 평균은 '나는 수업시간이 재미있다(2.74점)', '우리 학교는 우리들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2.83점)',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2.91점)', '우리 학교는 교칙이 엄격하다(2.72점)', '현재 학교생활이 만족스럽다(2.84점)'으로 나타남.

출처: 김지경 외 (2023).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김기현 외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백혜정 외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학교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아동의 인적, 사회적, 정서적, 도덕적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관으로 많은 국내외의 연구들이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해 왔다.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차원에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개인 요인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전반적인 삶의 만족뿐만 아니라, 학교생활만족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Orth, Robins, & Widaman, 2012; 임정아, 박현숙, 2019). 자신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만족하고(임정아, 박현숙, 2019; 손인봉, 최정아, 2022), 이러한 관계를 학업탄력성이 매개하기도 한다(임정아, 박현숙, 2019).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이 학업 및 교우 관계에서 성공적인 경험을 더 많이 하고 이에 따라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Bandura, 2006). 정희진과 유성경(2020)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아지고, 이러한 정적 관계를 정서지능이 매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내재적 학습 동기(Ryan & Deci, 2000; 이상우, 김미진, 2018)와 정서조절 능력(정미정, 김진숙, 2021; Gross, 2002)이 학교생활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내재적 학습 동기가 높을수록 학업 참여도가 높고, 학교생활에 만족도를 높이며, 정서조절 능력이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학교생활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이다.

우울은 학교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Lardier et al., 2019).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에서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만족도가 감소하는 부적 관계를 보고한 바 있으며(장성화, 오은정, 2009; 주지혁, 2013),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대상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우울과는 학교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으로 보고되었다(Cheon & Lim, 2020).

나. 가족 요인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족 요인은 부모로부터의 지지, 관계성 등 주로 부모와 관련된 요인들이 유의미하게 보고되고 있다. 부모의 관심과 지지는 아동의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의 만족도를 높인다(Grolnick & Bellas, 2009). 부모가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지지할수록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아지고(손인봉, 최정아, 2022),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학교생활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uo & Seligman, 2016). 이는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어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도록 돕기 때문이다(Kim & Lee, 2012).

또한,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이 학교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조영아, 김민정, 2020; Friedrich & McKinney, 2019),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학교에서의 문제 해결과 학교생활 적응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김경은과 김경미(2011)는 부모의 교육 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초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했다.

다. 학교 요인

1) 학업스트레스

우리나라 아동의 학업스트레스는 학교생활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위험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허유성과 김민성은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성취가 낮은 하위 20%를 포함하여 전체 고등학생의 학업생활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라고 보고하고 있으며, 중학생에게도 학업스트레스는 학교적응을 어렵게 하는 위험 요인으로 파악되었다(신성철, 최성열, 2019).

2) 선생님과의 관계

교사의 정서적 지지와 공정한 태도는 아동의 학교 적응력을 높이고(Wentzel, 1998),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학업 성취를 포함한 전반적인 학교생활만족도를 높인다(Roorda et al, 2011). 특히 교사의 친절하고 지지적인 태도는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김덕애, 김선미, 2008),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를 높이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김두환, 김지혜, 2011; 오유경, 김진원, 2023). 반대로 교사로부터의 폭력이나 차별 경험은 학교생활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위험 요인이다. 처벌이나 체벌을 많이 받을 학생일수록 학교생활만족도가 낮고(정인복, 2011; Baker, 1999), 차별 경험이 학교생활만족도 부적 연관성을 가지는 가운데, 교사관계와 정신건강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이자형, 임혜정, 2021).

3) 교우 관계

우정과 소속감을 형성할 수 있는 학교 내 또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학교생활만족도가 증가한다(Hamm & Faircloth, 2005). 오유경과 김지원(2023)은 교우관계가 중학교 1학년 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고유 요인으로 보고하였으며, 박소영과 그의 동료들(20218)도 또래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개인적 위험 요인과 학교생활 적응을 매개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다문화 가정 학생 대상 연구에서도 교우관계와 학교생활만족도는 정적 연관성 가지며, 이러한 관계를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 완전, 또는 부분 매개한다고 보고되었다(박소영, 도광조, 2023). 그러나 친구와의 갈등은 학교생활만족도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친구와의 갈등이 내재화 문제를 통해 학교생활만족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향림, 이진향, 2023). 다른 연구들에서는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학교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래로부터의 괴롭힘(Salmivalli, 2004), 학교폭력 피해 경험(손신, 2018; Ozdemir & Sezgin, 2011)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만족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교내 활동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동아리, 스포츠, 예술 활동 참여가 활발한 학생일수록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음(Eccles et al., 2003)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안지훈과 김재운(2024)은 초등학생들의 운동 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스포츠 사회성이 향상되고, 스포츠 사회성은 학교 내에서 교사 및 교우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것에 영향을 주어 학교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선혁규(2024)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한 중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김명희와 김경미(2024)는 독서치료를 병행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고 보고했다.

라. 지역사회 요인

지역사회는 아동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심리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Bronfenbrenner & Morris, 2006).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 41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역사회를 신뢰하고, 지역사회에서 어른들의 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을수록 아동의 학교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영숙, 최효선, 2017). 또한, 중학생 대상의 패널 분석 연구에서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관계, 공동체 의식, 다문화 수용성과 같이 지역의 사회자본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아동의 학교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찬희, 이숙중, 2021).

3. 선행연구 분석 결과

선행연구 분석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아동종합실태조사, 아동청소년인권 실태조사,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는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 가운데, 아동의 연령 그룹별, 학교급별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학교급이 높을수록 학교생활만족도가 낮았다. 또한,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농어촌 지역일수록, 한부모 또는 조손 가구일수록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가 낮아 저소득·취약 가구 환경이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와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은 개인 영역의 보호요인이지만, 우울은 높을수록 학교생활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위험요인으로 파악되었다. 가족 요인으로는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지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부모의 교육 참여 정도가 학교생활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으로 나타났다. 학교 영역에서는 학업스트레스가 학교생활만족도의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는 학교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 보호요인이거나 반대로 교사로부터의 폭력이나 차별 경험은 위험요인으로 파악되었다. 긍정적 또래관계는 학교생활의 보호요인지만 친구와의 갈등, 또래 괴롭힘은 학교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동아리, 스포츠, 예술 활동 등의 참여는 아동의 학교 내 사회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 학교생활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구

성원과의 관계, 공동체 의식, 다문화 수용성이 학교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지역사회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학교생활만족도에 아동의 연령별·학교급별 차이가 있지만,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는 그동안 연구되지 않았다. 즉, 선행연구들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별도 혹은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생활만족도 요인을 분석해 왔다.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 환경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또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학교급별로 유의미한 요인이 다른지 살펴 보고자 한다.

제3절 통계분석 방법 및 결과

1.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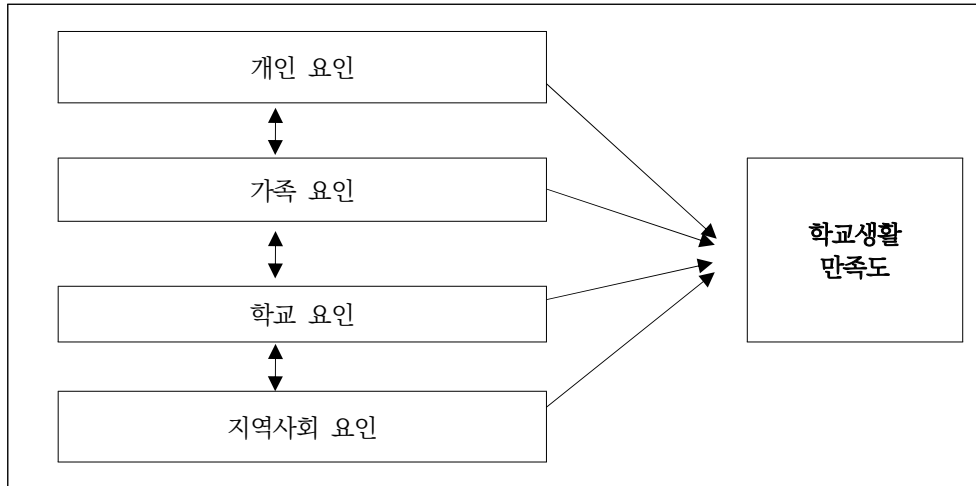
가. 연구모형과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종합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학교급별로 유의미한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분석 모델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우리나라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은 초·중·고급별로 다른가?

[그림 4-3] 분석 모델



학교생활만족도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다. 단계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개인 요인, 가족 요인, 학교 요인, 지역사회 요인을 투입하여 모델핏과 요인의 유의성 변화를 검증하고, 동일 절차에 따른 위계적 회귀분석을 초·중·고 급별로 각각 수행하여 유의미한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비교한다.

2. 통계분석 결과

가. 기초 통계분석 결과표

1) 아동 특성

아동의 특성을 교급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자 아동의 비율은 고등학교에서 53.3%로 가장 많았고, 여자 아동의 비율은 49.1%로 중학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초등학교는 9-11세가 78.7%, 12-17세가 21.3%로 연령 비율이 구분되었으나 중·고등학교에서는 100% 12-17세로 나타났다. 한부모·조손 가구는 고등학교에서 15.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중학교 13.6%, 초등학교 9.5%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과 거주지역은 아동의 교급별로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동의 자아존중감, 우울,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학교참여 정도는 전반적으로 초등학교에서 가장 긍정적인 수준을 나타냈다. 우선 자아존중감은 초등학교에 아동이 3.07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중·고등학교는 각각 2.97점, 2.99점으로 낮았다. 우울 수준은 초등학교 아동이 1.94점으로 가장 낮았고, 중학교 2.49점, 고등학교 2.68점으로 높아졌다. 부모와의 관계 또한 초등학교 아동이 3.37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고등학교는 3.24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부모의 학교참여 수준도 초등학교 아동이 3.37점으로 가장 높고, 중학교 3.18점, 고등학교 2.9점으로 낮아졌다.

〈표 4-5〉 아동 특성

(단위: 점, %)

| 변수 | 초등(n=1,311) | | 중등(n=1,060) | | 고등(n=938) | | F/ χ^2 | |
|----------|------------------|------|-------------|------|-----------|------|-------------|----------|
|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 |
| 성별 | 남자 | 51.9 | 50.9 | 53.3 | | | 1.12 | |
| | 여자 | 48.1 | 49.1 | 46.7 | | | | |
| 연령 | 9-11세 | 78.7 | - | - | | | 2285.63*** | |
| | 12-17세 | 21.3 | 100 | 100 | | | | |
| 가구 유형 | 양부모 | 90.5 | 86.4 | 84.4 | | | 19.81*** | |
| | 한부모·조손 | 9.5 | 13.6 | 15.6 | | | | |
| 가구 소득 | 중위소득 50% 미만 | 10.5 | 11.7 | 11.2 | | | 9.1 | |
| | 중위소득 50~100% 미만 | 31.9 | 27.5 | 28.8 | | | | |
| | 중위소득 100~150% 미만 | 31.6 | 30.5 | 32.4 | | | | |
| | 중위소득 150% 이상 | 26.1 | 30.3 | 27.5 | | | | |
| 거주 지역 | 대도시 | 44.1 | 47.1 | 49.4 | | | 7.24 | |
| | 중소도시 | 49.1 | 47.3 | 45.3 | | | | |
| | 농어촌 | 6.8 | 5.7 | 5.3 | | | | |
| 자아존중감 | | 3.07 | .44 | 2.97 | .46 | 2.99 | .46 | 16.20*** |
| 우울 | | 1.94 | 2.04 | 2.49 | 2.45 | 2.68 | 2.32 | 33.44*** |
| 부모와의 관계 | | 3.37 | .45 | 3.27 | .47 | 3.24 | .51 | 20.56*** |
| 부모의 학교참여 | | 3.37 | .76 | 3.18 | .79 | 2.9 | .83 | 84.59*** |
| 동네 만족도 | | 7.34 | 1.41 | 7.14 | 1.61 | 6.81 | 1.60 | 33.97*** |

주: 1) *** p<.001, ** p<.01, *p<.05

2) 학교생활만족도 수준

(1) 일반적 특성과 학교생활만족도

휴학 또는 중퇴 중인 아동과 소득 수준 무응답을 제외한 분석대상 아동은 3,309명으로 학교생활만족도 평균은 7.32점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 가구유형, 소득수준, 거주지역에 따라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남자 아동은 7.40점으로 여자 아동보다 0.16점 높았고, 9-11세 아동은 7.67점으로 12-17세 아동의 7.17점 보다 0.5점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부모·조소 가구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는 6.97점으로 양부모 가구 아동의 7.37점보다 0.4점 낮았다. 또한, 아동가구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 수준이 낮은 경로 나타나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의 아동은 6.84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거주지역에 따라라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순서로 학교생활만족도가 낮아졌다. 대도시 거주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는 7.45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농어촌 거주 아동은 7.1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일반적 특성과 학교생활만족도

(단위: 점)

| 구분 | | 사례수 | 평균 | SD | t/F |
|----------|------------------|-------|------|------|----------|
| 전체 | | 3,309 | 7.32 | 1.69 | - |
| 아동 성별 | 남자 | 1,719 | 7.40 | 1.65 | 2.62** |
| | 여자 | 1,589 | 7.24 | 1.73 | |
| 아동 연령 | 9-11세 | 1,032 | 7.67 | 1.47 | 8.86*** |
| | 12-17세 | 2,277 | 7.17 | 1.76 | |
| 가구 유형 | 양부모 | 2,894 | 7.37 | 1.67 | 4.33*** |
| | 한부모·조소 | 415 | 6.97 | 1.77 | |
| 소득 수준 | 중위소득 50% 미만 | 367 | 6.84 | 1.95 | 22.70*** |
| | 중위소득 50~100% 미만 | 980 | 7.19 | 1.62 | |
| | 중위소득 100~150% 미만 | 1,041 | 7.34 | 1.59 | |
| | 중위소득 150% 이상 | 921 | 7.63 | 1.70 | |
| 거주 지역 | 대도시 | 1,540 | 7.45 | 1.64 | 8.59*** |
| | 중소도시 | 1,569 | 7.22 | 1.71 | |
| | 농어촌 | 200 | 7.17 | 1.82 | |

주: 1) *** p<.001, ** p<.01, *p<.05

(2) 교급별 학교생활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는 교급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7.64점으로 초등학교 아동이 가장 높은 반면, 중학교 7.20점, 고등학교 7.02점으로 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졌다. 학업스트레스는 교급이 높아질수록 높아져 초등학교 아동은 1.70점으로 가장 낮았고, 중학교 2.07점, 고등학교 2.14점으로 초등학교보다 높았다. 선생님과의 관계, 교우관계는 교급이 높아질수록 점수가 낮아졌다. 선생님과의 관계와 교우관계 모두 초등학교에서 각각 4.00점, 4.03점으로 가장 좋은 반면, 고등학교에서 3.82점, 3.96점으로 가장 좋지 않았다. 학교폭력피해 수준은 중학교에서 7.83점으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 7.70점, 고등학교 7.71점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분석되지 않았다. 한편, 교내동아리 참여 경험은 고등학교 아동이 45.5%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35.8%, 초등학교 21.4%로 나타났다.

〈표 4-7〉 교급별 학교생활

(단위: 점, %)

| 변수 | 초(n=1,311) | | 중(n=1,060) | | 고(n=938) | | F/x ² |
|------------------|------------|------|------------|------|----------|------|------------------|
|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
| 학교생활만족도 | 7.64 | 1.46 | 7.20 | 1.78 | 7.02 | 1.69 | 40.86*** |
| 학업스트레스 | 1.70 | .62 | 2.07 | .70 | 2.14 | .79 | 136.89*** |
| 선생님과의 관계 | 4.00 | .65 | 3.86 | .72 | 3.82 | .71 | 23.08*** |
| 교우 관계 | 4.03 | .58 | 3.99 | .68 | 3.96 | .78 | 3.09* |
| 학교폭력피해 | 7.70 | 1.74 | 7.83 | 2.05 | 7.71 | 2.39 | 1.33 |
| 교내동아리 참여 (있음) | 21.4 | | 35.8 | | 45.5 | | 149.80*** |

주: 1) *** p<.001, ** p<.01, *p<.05

나.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했다. 아동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포함하는 Model1에서부터 단계적으로 개인 요인(Model2), 가족 요인(Model3), 학교 요인(Model4), 지역사회 요인(Model5)을 투입하여 분석 모형의 유의성과 설명력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Model1의 인구사회적 변인은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해 5%의 설명력을 나타낸 가운데, 성별, 연령, 가구소득, 거주

지역이 학교생활만족도의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했을 때, 남자아동에 비해 여자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가 낮았으며, 9-11세 아동에 비해 12-17세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가 낮았다. 또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았고, 대도시에 비해 농어촌과 중소도시 거주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Model1에 아동 개인의 심리정서적 변인을 추가한 Model2의 설명력은 19% 증가했다. 성별, 연령, 가구소득, 거주지역이 여전히 유의미한 가운데 효과 크기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가운데 자아존중감과 우울이 학교생활만족도의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통제했을 때,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아지고, 우울 수준이 낮을수록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3은 Model2에 가족 변인, 부모와의 관계와 부모의 학교참여가 추가되었고, 6%의 설명력이 증가했다. Model2에서 학교생활만족도의 유의미한 요인으로 분석된 성별, 연령, 가구소득, 거주지역, 자아존중감, 우울이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효과 크기 줄어 들고, 부모와의 관계와 부모의 학교참여가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부모의 학교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아졌다, 특히, 부모와의 관계($\beta=.27$)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4는 Model3에 학교급, 학업스트레스, 교우관계, 학교폭력피해 경험, 선생님과 교내 동아리 참여 경험과 같은 학교 변인이 추가되었다. 설명력이 12% 증가한 가운데, 성별과 연령은 더 이상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아동의 인구사회적 요인, 개인 및 가족 요인을 통제했을 때, 추가된 학교 변인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학교생활만족도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중학교 아동에 비해 초등학교의 학교생활만족도가 높고, 고등학교 아동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교생활만족도가 낮아졌다.

〈표 4-8〉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중속: 학교생활만족도)

| 구분 | Model1 | | | Model2 | | | Model3 | | | Model4 | | | Model5 | | |
|-------------------------|-------------------|-------|---------|---------|-------|---------|---------|-------|---------|-------------------|-------|---------|---------|-------|---------|
| | B | 표준 오차 | β | B | 표준 오차 | β | B | 표준 오차 | β | B | 표준 오차 | β | B | 표준 오차 | β |
| 상수 | 8.12*** | .23 | | 4.98*** | .26 | | 2.4*** | .31 | | .42*** | .36 | | .35*** | .34 | |
| 성별(남) | -.15** | .06 | -.04 | -.11* | .05 | -.03 | -.13** | .05 | -.04 | -.07 | .05 | -.02 | .02 | .04 | .01 |
| 연령 (9-11세) | -.52*** | .06 | -.14 | -.32*** | .06 | -.09 | -.23*** | .06 | -.06 | .03 | .09 | .10 | -.02 | .08 | .01 |
| 가구유형 (양부모) | -.18 ⁺ | .09 | -.03 | -.10 | .08 | -.02 | -.02 | .08 | .003 | .02 | .07 | .004 | .02 | .07 | .01 |
| 가구소득 | .23*** | .03 | .14 | .12*** | .03 | .07 | .10*** | .03 | .06 | .10*** | .02 | .06 | .07** | .02 | .04 |
| 거주지역 (대도시) | -.29* | .12 | -.04 | -.27* | .11 | -.04 | -.24* | .11 | -.03 | -.20* | .10 | -.03 | -.16 | .09 | -.02 |
| | -.27*** | .06 | -.08 | -.25*** | .05 | -.08 | -.21*** | .05 | -.06 | -.15** | .05 | -.04 | -.08 | .04 | -.02 |
| 자이존중감 | | | | 1.12*** | .06 | .30 | .74*** | .06 | .20 | .40*** | .06 | .11 | .33*** | .06 | .09 |
| 우울 | | | | -.17*** | .01 | -.23 | -.15*** | .01 | -.20 | -.10*** | .01 | -.14 | -.07*** | .01 | -.09 |
| 부모와의 관계 | | | | | | | .96*** | .06 | .27 | .51*** | .06 | .14 | .32*** | .05 | .09 |
| 부모의 학교참여 | | | | | | | .08* | .03 | .04 | .04 | .03 | .02 | -.03 | .03 | -.01 |
| 학교급 (중등) | | | | | | | | | | .17* | .09 | .05 | .14 | .08 | .04 |
| 고등 | | | | | | | | | | -.11 ⁺ | .06 | -.191 | -.03 | .06 | -.01 |
| 학업스트레스 | | | | | | | | | | -.15*** | .03 | -.06 | -.12*** | .03 | -.05 |
| 교우관계 | | | | | | | | | | .55*** | .04 | .22 | .47*** | .04 | .19 |
| 선생님과의 관계 | | | | | | | | | | .56*** | .04 | .23 | .43*** | .04 | .18 |
| 학교폭력피해 | | | | | | | | | | -.03* | .01 | -.04 | -.03** | .01 | -.04 |
| 교내 동아리 참여 | | | | | | | | | | .10* | .05 | .03 | .04 | .05 | .01 |
| 동네 만족도 | | | | | | | | | | | | | .36*** | .02 | .33 |
| R ² Change | - | | | .19 | | | | .06 | | | .12 | | | .08 | |
| Total R ² | .05 | | | .24 | | | .30 | | | .42 | | | .50 | | |
| Adjusted R ² | .05*** | | | .24*** | | | .30*** | | | .42*** | | | .50*** | | |

주: 1) *** p < .001, ** p < .01, * p < .05, ⁺ p = .05
 2) () 비교 집단

교우관계가 긍정적일수록, 학교폭력피해 경험률이 낮을수록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학교내에서의 동아리 참여 경험이 있을 때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아졌다. 한편, 교우($\beta=.22$), 선생님($\beta=.23$)과의 관계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Model4에 지역사회 변인, 동네 만족도를 추가한 Model5는 8%의 설명력이 증가했다. 거주지역 변인이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은 가운데, 인구사회적 변인, 개인 및 가족, 학교 요인을 통제했을 때 동네 만족도가 학교생활만족도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가구소득, 자아존중감, 우울, 부모와의 관계, 학업스트레스, 학교폭력피해, 선생님과 관계, 동네 만족도가 학교생활만족도를 설명할 수 있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제4절 소결(정책적 함의)

1. 연구결과 요약

가. 교급별 특성 차이

본 연구의 결과, 9-17세 아동의 교급별 특성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전반적으로 초등→중등→고등으로 올라갈수록 아동의 개별, 가족 관련 지표가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초등학교 아동의 평균 점수가 중·고등학교 아동보다 더 높았고, 우울 수준은 초등→중등→고등의 순서로 높아져 고등학교 아동의 우울 수준이 가장 높았다. 부모와의 관계와 부모의 학교참여도 초등학교 아동이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난 반면, 중학교, 고등학교 아동 순으로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관련 지표에서도 고등학교 아동이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 수준이 가장 낮은 가운데 학업스트레스는 초등학교, 중학교 아동보다 높고, 교우 및 선생님과 관계는 초등학교, 중학교 아동보다 좋지 않았다. 한편, 고등학교 아동의 학교 내 동아리 참여 유경험 비율은 초등학교, 중학교 아동보다 높았다.

나. 학교생활만족도 요인

9-17세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리해 보면 <표 0-00>과 같다. 성별과 연령은 Model2와 Mode3에서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남자 아동이 여자 아동에 비해, 9-11세 아동이 12-17세보다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은 Model2에서부터 Mode5에 걸쳐 유의미한 변수로 파악되었다.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학교생활만족도 수준이 낮아져 아동가구의 낮은 소득은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위기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Model2, Mode3, Model4에서 거주지역 또한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농어촌과 중소도시 거주지역 아동은 대도시보다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았다. 학교생활 인프라 수준이 아동의 학교생활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Model2에서부터 Mode5에 개별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이 학교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높은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만족도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우울은 위기 요인으로 학교생활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변인을 추가한 Model3에서 학교생활만족도의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난 부모의 학교참여는 학교와 지역사회 변인을 각각 추가한 Model4와 Model5에서 유의성이 없어졌지만, 부모와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으로 남았다.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았다. 즉, 긍정적인 부모와의 관계는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의 보호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Model4에서 검증한 학교 관련 변인은 모두 학교생활만족도의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낮은 학교급, 학업스트레스와 학교폭력피해 정도는 학교생활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위기 요인이었으며, 교우 및 선생님과의 관계, 교내 동아리 참여 경험은 학교생활만족도를 높이는 보호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우 및 선생님과의 관계는 효과 크기를 고려할 때, 다른 변인들보다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사회 변인, 동네 만족도를 추가한 Model5에서도 교내 동아리 참여 경험을 제외한 학교 변인 모두 학교생활만족도의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남았다. 또한, Model5

에서 동네 만족도가 학교생활만족도의 유의미한 보호 요인으로 나타나 아동이 사는 동네에 만족할수록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Model5에서 거주 지역의 유의성이 지속되지 않고, 동네 만족도의 효과 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나 아동에게 보다 밀접한 지역사회 환경과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4-9〉 학교생활만족도 요인

| 구분 | Model2 | Model3 | Model4 | Model5 |
|---------------|--------|--------|--------|--------|
| 성별(남) | + | + | | |
| 연령(9-11세) | + | + | | |
| 가구유형(양부모) | | | | |
| 가구소득 | - | - | - | - |
| 거주지역 (대도시) | 농어촌 | - | - | |
| | 중소도시 | - | - | |
| 자아존중감 | + | + | + | + |
| 우울 | - | - | - | - |
| 부모와의 관계 | | + | + | + |
| 부모의 학교참여 | | + | | |
| 학교급 (중등) | 초등 | | + | |
| | 고등 | | | |
| 학업스트레스 | | | - | - |
| 교우관계 | | | + | + |
| 선생님과의 관계 | | | + | + |
| 학교폭력피해 | | | - | - |
| 교내 동아리 참여 | | | + | |
| 동네 만족도 | | | | + |

주: + 보호요인, -위험요인

2.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개별, 가족, 학교, 지역사회 영역에서 파악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소득이 낮은 아동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가구소득에 따라 교육급여를 포함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교육비,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 아동가구에 지원되는 이러한 경제적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 아동가구의 발굴을 강화할 필요

성이 있다. 2024년 12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비롯하여 다양한 어려움을 가지고 아동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¹⁸⁾ 저소득 취약 가구의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여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촘촘하게 지원하여 경제적 위기로 인한 아동의 발달적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간의 협업 모델, 정보 연계 방안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지역별로 자원과 서비스에 차이가 있어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진행중인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을 확대하되, 정부는 우수 운영 모델 사례를 발굴하여 전국 확산을 지원하고, 지역별 인력과 서비스를 편차 해소를 위한 예산을 지원할 필요성 있다.

둘째, 우리나라 아동 전체의 학교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고등학교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생활만족도의 영향요인으로 파악된 학업스트레스,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 모두 초·중등학교 아동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발달 과정상 대학 입시를 앞둔 시점으로 초·중등 시기보다 당연히 학업스트레스가 높을 수밖에 없는 시기이지만, 교우 및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교내 동아리 참여 경험이 학교생활만족도를 높이는 보호 요인으로 분석되기도 했는데, 스포츠, 동아리 등 교내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학업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고등학생은 교내 동아리 참여 경험 비율이 초·중등에 비해 높았는데, 대입의 한 유형인 ‘학생부 종합전형’의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즉, 스포츠, 동아리 등 교내에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의 기회 확대시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이 더욱 참여할 수 있는 계기와 동기는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의 욕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동아리, 스포츠 등의 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하고 강사, 예산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과 동네의 만족도 또한 학교생활만족도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도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동네 만족도 수준이 가장 높

18) 교육부. 보도자료.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등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2167&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2025년 3월 29일 인출\)](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2167&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2025년 3월 29일 인출)).

았다. 이는 학교생활 주변의 인프라, 학교 접근성, 교통 편의성 등이 높은 대도시에 살고 있는 아동의 동네 만족도가 높고 이러한 점이 학교생활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표 4-10〉 동네 만족도

| 구분 | 대도시(n=1,540) | | 중소도시(n=1,569) | | 농어촌(n=200) | | 전체(n=3,309) | |
|--------|--------------|------|---------------|------|------------|------|-------------|------|
|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 동네 만족도 | 7.26 | 1.48 | 7.00 | 1.60 | 7.09 | 1.47 | 7.13 | 1.55 |

저출생으로 지역의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은 학령기 아동이 급속히 줄어들면서 폐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아동의 학교생활 주변의 인프라, 학교 접근성 등을 악화시키고, 연쇄적으로 아동의 학교생활 만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저출생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의 학교 및 지역사회 환경을 아동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제5장

아동-부모의 관계와 아동학대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선행연구 분석

제3절 통계분석 방법 및 결과

제4절 소결(정책적 함의)

제 5 장 아동-부모의 관계와 아동학대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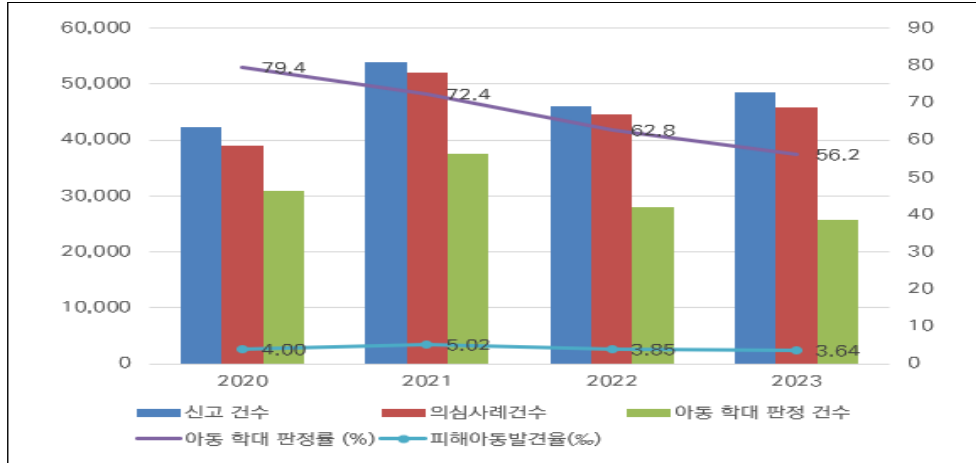
2023년 아동학대 발생률은 3.64%로 코로나-19 직후이자 공공화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1년 5.0%로 가장 높았고 이후 2022년 3.85%, 2023년 3.6%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2021년 53,932건으로 가장 높았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2년 46,103건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48,522건으로 증가했으며, 신고접수건 중 일반상담과 동일신고 등 제외한 아동학대 의심 사례 수도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 의심 사례 건수 중 아동학대로 판단한 건수는 2021년 37,605건을 기록한 이후 2022년 27,921건, 2023년 25,739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이는 아동학대 판단율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결과로 해석된다.

〈표 5-1〉 공공화 이후 아동학대 신고사례와 판단사례(2020-2023)

| | 신고 건수 | 의심사례건수 | 아동학대 판단건수 | 아동학대 판단률(%) | 피해아동발견율(%) |
|------|--------|--------|-----------|-------------|------------|
| 2020 | 42,251 | 38,929 | 30,905 | 79.4 | 4.00 |
| 2021 | 53,932 | 52,083 | 37,605 | 72.4 | 5.02 |
| 2022 | 46,103 | 44,531 | 27,971 | 62.8 | 3.85 |
| 2023 | 48,522 | 45,771 | 25,739 | 56.2 | 3.64 |

출처: 보건복지부(각년도). 아동학대 주요통계,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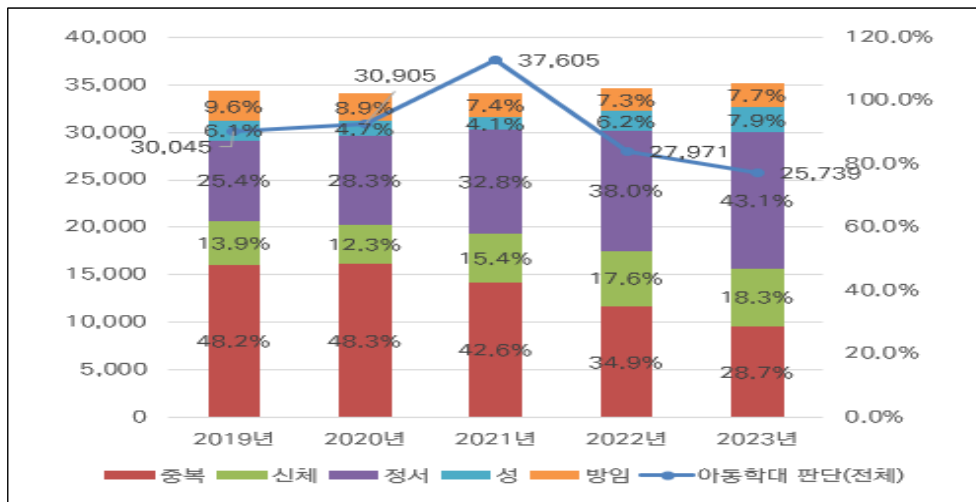
[그림 5-1] 공공화 이후 아동학대 신고사례와 판단사례(2020~2023)



출처: 보건복지부(각년도), 아동학대 주요통계,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이와 같은 아동학대판단율의 감소와 관련하여, 아동학대 조사·판단의 공공화에 따른 판단의 보수성 강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사례특성이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증가한 아동학대 사례들은 정서적 학대가 전체 학대의 43.1%를 차지했으며 이는 2020년 25.4% 대비 크게 증가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2] 아동학대유형별 발생현황(2019~2023)



출처: 보건복지부(각년도), 아동학대 주요통계,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 증가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은 아동 본인의 신고 접수 증가이다. 아동 본인의 신고가 2020년 14.2%에서 2023년 24.9%로 10.7%p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학대피해아동 중 거의 반 정도(48.5%)가 10-15세 아동이라는 피해 아동 연령 분포와도 연관이 있다. 아동 본인의 신고접수 증가, 학대피해아동의 청소년(10-15세) 비중 증가의 배경에는 중고생 청소년들의 부모와의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의 어려움을 학대 신고를 통한 아동보호체계의 개입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아동학대 선행연구는 부부 혹은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 불화, 부정적인 상호작용 등의 가족관계를 아동학대의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제시해왔다. 이러한 위험 요인은 가족 건강성 개념에 의해 측정될 수 있는데, 가족건강성은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정의되어 왔다(양옥경, 김연수, 2007; 이병록, 정선희, 2019; 천수민, 2024). 보편적으로 가족 건강성의 개념은 가족구성원 개인의 성장과 자율성을 지지하고 존중하는 가족 구성원 간 긍정적 상호작용으로 정의될 수 있다.

가족건강성과 아동학대의 관계를 탐색한 선행연구들은 가족건강성이 양육자의 아동학대 인식 및 실제 학대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이병록, 정선희, 2019; 천수민, 2024; 강지영, 2023; 안유나, 2021). 구체적으로, 낮은 수준의 가족건강성은 가족 간 부정적 관계와 역동을 반영하며(노은영, 권현용, 2019; 양옥경, 김연수, 2007; 이병록, 정선희, 2019), 이러한 부정적 가족관계와 역동은 아동학대의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다(김현옥, 김경호, 2011; 여진주, 2010; Tucker & Rodriguez, 2014).

기존 선행연구들은 가족건강성과 아동학대 간의 관계를 분석해왔으나, 이러한 관계에서 아동 연령이 갖는 조절 효과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가족건강성을 아동학대의 예측 변인으로 설정하고, 아동 연령의 조절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자료의 심층분석을 통해 다음의 연구질문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 연령과 학대유형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 특성을 분석한다.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아동학대 경험률에 대한 기술 분석을 통해, 2018년 대비 변화추이, 학대 유형별 특성, 아동 연령별 분포를 파악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 결과를 아동학대발생사례에 대한 행정통계 분석결과인 아동학대 주요통계(보건복지부, 2024)와의 비교분석

을 통해 아동학대 현황과 특성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진단을 시도한다.

둘째, 가족 건강성이 아동학대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본 연구는 가족 간 정서 친밀성과 수용·존중 수준을 측정하는 15개 문항으로 구성된 가족 건강성 척도를 활용한다. 2018년과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자료의 비교분석을 통해 가족 건강성이 아동학대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가족 건강성은 가족관계의 질적 측면을 반영하는 지표로, 분석 과정에서 가족의 박탈지수를 포함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통제 변수로 투입하여 가족 스트레스 요인의 영향을 통제하고자 한다.

셋째, 가족 건강성이 아동학대 경험에 미치는 영향은 아동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본 분석은 가족 건강성의 아동학대 경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서 아동 연령의 조절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긍정적인 가족 상호 관계 강화의 필요성을 정책적 함의로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연령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의 원가정 내 가족 구성원의 갈등 해결 및 개입 등의 아동 가족 지원방안의 필요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선행연구 분석

1. 가족건강성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가. 아동학대 보호요인으로서 긍정적인 가족관계

아동학대와 가족요인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부정적인 가족요인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부 간의 갈등, 좋지 않은 가족관계, 낮은 가족응집력 등 부정적 가족요인들이 학대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옥, 김경호, 2011; 문영숙, 2011; 오승환, 2001; 이재희, 김은영, 2019; Dubowitz et al., 2004; Stith, 2009). 반면, 부모 및 가족 관련 아동학대 보호 요인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특히 가족의 관계, 친밀성 등 가족체계의 긍정적 자원을 아동학대의 보호 요인으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가족의 관계는 아동에게 양육환경 그 자체이며 긍정적인 가족관계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호요인으로서 중요하다. 안선경과 그의 동료들 연구(2012)에서는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 친밀감 등 정서적 유대를 의미하는 가족응집력은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요인으로 확인하였다. 아동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스트레스를 가족 구성원 간의 긍정적인 유대관계를 통해 감소시킴으로써 아동학대의 발생을 막을 수 있을 요인이라고 보았다. 또한, 가족의 긍정적인 기능과 역할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으며, 가족의 위기를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요인임을 강조하고 있다(김민선, 손병덕, 2020; Ezzell et al., 2000; Schoon & Bynner, 2003; Smokowski et al., 1999; Thurston, 2006; Werner & Smith, 1982).

나. 가족건강성과 아동발달

가족건강성은 긍정적 가족관계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개념으로, 긍정적인 가족관계는 가족건강성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며 높은 가족건강성은 가족관계를 더욱 강화한다. 가족건강성은 가족이 본래의 기능을 건강하게 수행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가 긍정적이고 원활하며, 위기 상황에서 가족 체계가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을 때 나타난다(Olson & DeFrain, 2003). 구체적으로, 가족건강성은 구성원 간의 정서적 유대감과 결속력인 가족응집력, 구성원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위기상황에서 가족의 문제해결능력, 구성원간의 상호지지와 신뢰감 등을 핵심적인 요소로서 포함한다.

가족건강성과 아동발달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가족건강성이 높은 가정에서 성장한 아동은 심리적 안정, 정서적 발달, 학업 성취 및 사회적 적응력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정서 발달의 측면에서, 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경우,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적 안정감이 향상되며(강희경, 2005), 가족구성원 간의 유대감과 정서적 교류가 활발할수록 아동의 긍정적인 정서를 발달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형수, 조우홍, 2009). 사회적 발달의 측면에서 건강한 가족 내에서 성장한 아동은 또래 관계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형성하며, 사회적 기술이 발달하는 경향이 있다(박미숙, 김복영, 2018). 부모의 지원과 관심이 높은 가정의 아동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더 나은 능력을 보인다(윤연정, 이미숙, 2007). 또한 학업성취 및 적응의 측면에서 가족건강성이 높은 아동은 학업 성취도가 높고, 학교생활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정혜, 최용민, 2019).

반면, 가족건강성이 낮은 경우, 아동의 정서적·사회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가족건강성이 낮은 가정에서 성장한 아동은 정서적, 불안 및 우울, 사회적 부적응 및 공격성 증가, 학업저하 및 학교부적응 가능성이 높았다. 가족 간 갈등과 낮은 지지가 아동의 우울 및 불안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계연, 이은희, 2007), 부모의 정서적 지원이 부족한 경우, 아동의 자기 효능감(self-efficacy)과 사회적 신뢰감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김경은, 최은희, 2010). 또한, 가족건강성이 낮을수록 아동은 또래관계에서 위축되거나 반대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았다(박민주, 황기아, 2007). 또한, 가족 내 긴장감이 지속될 경우, 아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부적절한 방법(예: 분노 표출, 회피 행동 등)을 사용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정아, 이인수, 2006). 또한, 가족 내 지지가 부족한 아동은 학업 성취도가 낮고, 학교 생활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최용민, 원상숙, 2013).

다. 가족건강성의 영향요인

가족건강성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특히 부모의 특성, 부부관계, 사회적 지지 및 환경적 요인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존 연구들은 가족건강성이 개인과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며, 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먼저, 부모의 특성은 가족건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향상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교육 수준이 높은 부모가 보다 효과적인 양육 방식을 적용하고, 가족 내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강희경, 2005; 박복매, 문혁준, 2008). 또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안정적일수록 가족건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안정성은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을 줄이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며,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가족의 정서적 안정과 관계의 질이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다(설경옥, 문혁준, 2011; 윤연정, 이미숙, 2007).

다음으로, 부부관계는 가족건강성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연구들은 부부 간의 관계가 원만할수록 가족의 전반적인 기능이 향상되며,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더욱 지

지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 부부 간 갈등이 심할 경우 가족 내 긴장감이 증가하고,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이 단절되며, 이로 인해 가족건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홍성례, 유영주, 2000). 또한, 결혼 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이는 부부가 결혼생활에서 정서적 안정과 만족을 느낄수록 가족 전체의 기능성이 증진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어은주, 유영주, 1997). 한편, 부모가 결혼생활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면, 가정 내에서의 역할 수행이 원활해지고, 이러한 과정이 가족건강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확인되었다(Stinnett & Defrain, 1985).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와 환경적 요인 또한 가족건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가족 외부로부터의 사회적 지지(예: 친척, 친구, 지역사회 기관 등)가 많을수록 가족건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회적 지원이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가족 내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우수희, 조규판, 2016; 홍성례, 유영주, 2001). 또한, 경제적·사회적 자원이 풍부한 가정일수록 가족 내 안정성이 높고, 구성원 간의 관계가 원활하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Voydanoff, 1991). 반대로, 경제적 불안정은 가족 내 갈등을 유발하며, 이는 가족건강성을 저하시킬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라. 가족건강성과 아동학대의 관계

가족건강성은 아동학대 예방에도 중요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며, 기존 연구들은 가족건강성의 보호 효과를 크게 가족응집력, 가족의사소통, 가족 내 스트레스 조절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가족응집력(family cohesion)은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결속력을 의미하며, 가족건강성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한다. 가족응집력이 높은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이 원활하며, 부모가 자녀의 정서적 요구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족응집력이 강한 가정에서는 아동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정서적 지지를 통해 건강한 성장 환경이 조성된다(Schoon & Bynner, 2003). 반대로, 가족응집력이 낮은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거리감이 커지고, 부모가 양육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

며, 이는 신체적·정서적 학대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Ezzell et al., 2000; Smokowski et al., 1999). 즉, 가족응집력은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부모의 양육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아동학대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둘째, 가족 구성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중요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한다. 부모가 자녀의 감정과 요구를 이해하며 개방적인 태도로 소통할 경우, 아동은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며 건강한 애착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부모가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감정을 조절하고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제공하면, 아동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경험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Thurston, 2006). 그러나 가족 내 의사소통이 부족하거나, 부모가 자녀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지속될 경우, 아동은 정서적 위축을 경험하며, 이는 학대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Whipple, 1991). 또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가정에서는 부모가 아동의 요구를 이해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훈육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로 인해 신체적 체벌이나 방임의 형태로 나타날 위험이 크다. 따라서, 가족 내 원활한 의사소통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셋째, 가족건강성이 낮은 가정에서는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불안, 가족 내 갈등과 같은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이 증가하며, 이는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신체적 체벌과 방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아동학대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안유나, 2021). 반면, 가족건강성이 높은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지지를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아동학대 발생 위험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다(Werner & Smith, 1982).

2. 아동의 연령과 아동학대경험의 관계

아동학대발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되는 아동학대통계는 아동학대 발생률(행정통계)과 아동학대경험률(조사통계)로 구분된다. 조사통계는 자기보고 방식을 통해 수집되며,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례를 기반으로 한 행정통계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아동학대의 은폐성, 사회적 낙인, 신고의무자의 인식 부족 등에 기인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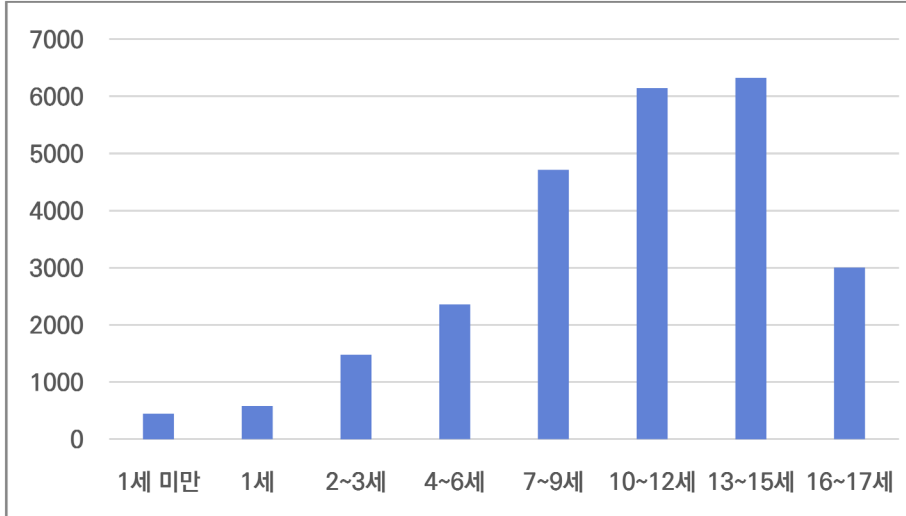
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실제 발생률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행정자료를 함께 활용하여 아동학대 발생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기반한 예방 및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아동학대발생률 관련 행정자료와 조사자료의 차이는 아동학대 발생현황 및 특성에서도 나타난다. 2023년 아동학대 주요현황 통계(보건복지부, 2023)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연령대별로 발생 비율과 학대유형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학대피해아동의 연령대 별로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고학년(10-12세)과 중학생(13-15세) 연령대에서 학대발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영유아기(0-3세)와 학령전기(4-6세)에서는 방임이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신체학대와 성학대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먼저, 영유아기(0-3세) 아동의 학대 발생률은 전체의 8.8%로 나타났으며, 방임이 3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영유아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고, 부모나 보호자의 돌봄 여부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음으로, 학령전기(4-6세)와 초등 저학년(7-9세) 아동의 학대발생률은 각각 12.1%와 18.3%로 증가했다. 이 시기에는 정서학대가 가장 높게 발생하였으며,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는 신체학대의 비율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초등 고학년(10-12세) 아동의 학대 발생률은 전체의 23.9%로 가장 높았다. 신체학대(35.2%)와 정서학대(54.3%)가 주요 학대유형으로 보고되었다.

청소년기(13-17세)의 학대 발생률은 13-15세 연령대에서 24.6%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16-17세에서는 10.7%로 다소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신체학대(41.7%)와 성학대(3.7%)의 비율이 증가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그림 5-3] 아동연령대별 아동학대발생건수(2023)



출처: 보건복지부. (2023). 아동학대 주요통계,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한편, 실태조사를 기초로 하는 아동학대경험률의 아동발달단계별 특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동 연령에 따른 학대 경험률을 학대유형별(방임, 신체학대, 정서학대)로 분석한 결과는 아동학대발생률의 연령분포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신체학대와 정서학대 모두 6~8세 아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신체학대는 3-5세 아동 사이에서 높았고, 정서학대는 9-11세, 12-17세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방임은 아동연령이 증가하면서 증가하였으며 9-11세가 33.4%로 가장 높았으며, 12-17세 청소년기의 방임은 수치상으로 가장 높으나 그 부정적인 영향을 크지 않아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

〈표 5-2〉 아동연령대별 아동학대경험율

(단위: %, 명)

| 구분 | | 보호자 | | | |
|-------|-----------|------|------|------|-------|
| | | 방임 | 신체학대 | 정서학대 | 사례수 |
| 연도별 | 2018 [전체] | 22.4 | 27.1 | 41.9 | 4,039 |
| | 2023 [전체] | 26.5 | 14.5 | 36.5 | 5,753 |
| 성별 | 남자 | 26.1 | 16.1 | 37.3 | 2,958 |
| | 여자 | 26.9 | 12.8 | 35.6 | 2,795 |
| 아동 연령 | 0-2세 | 4.7 | 7.6 | 15.0 | 543 |
| | 3-5세 | 10.8 | 15.5 | 33.5 | 830 |
| | 6-8세 | 22.4 | 21.5 | 45.6 | 1,046 |
| | 9-11세 | 33.4 | 14.5 | 38.2 | 1,034 |
| | 12-17세 | 36.0 | 12.5 | 37.6 | 2,300 |

출처: 이상정 외. (2023).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배화옥과 강지영(2016)의 연구는 아동 발달단계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 특성에 대한 거의 유일한 국내 선행연구이다. 한국복지패널 1차(2006년), 4차(2009년), 7차(2012년) 아동자료를 활용한 잠재집단분석(Latent Class Analysis)결과,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 빈도와 추이에서 신체학대와 언어학대는 전기 청소년기(중학교 시기)에 발생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방임의 경우 초등학교 시기에 가장 높은 발생 비율을 보였으나, 청소년기로 접어들면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연구는 가구유형과 가족 내 갈등이 학대 증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아동 연령별 아동학대 발생의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결과, 아동의 연령과 발달 단계에 따른 학대 경험의 특성과 변화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아동학대의 위험 또는 보호요인들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이 아동발달단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다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해는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아동학대 예방 및 개입 전략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제3절 통계분석 방법 및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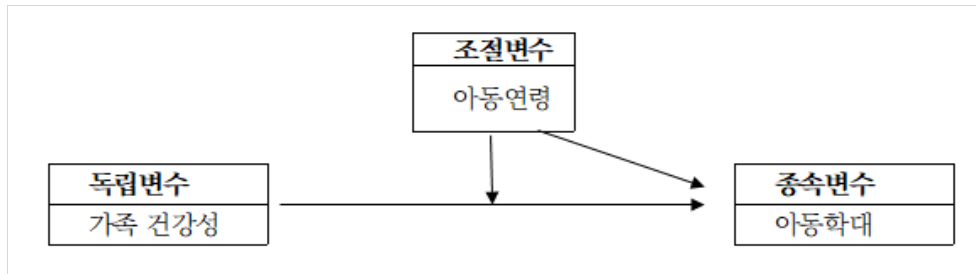
1. 연구방법

가.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건강성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아동연령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독립변수는 가족건강성, 종속변수는 아동학대, 조절변수는 아동의 연령이다. 또한 주요변수들의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검증하기 위해 아동성별, 부모의 경제활동 참여상태, 가구소득, 부모의 교육수준, 가족형태, 가구원 수 등의 통제변수를 포함한다.

[그림 5-4] 연구모형



연구가설

1. 가족건강성은 아동학대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아동나이가 높을수록 아동학대 발생은 증가할 것이다.
3. 가족건강성과 아동학대의 관계는 아동연령에 따라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에 대한 연구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Stata 15를 통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B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때 표준화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 단계에서는 가족건강성이 아동학대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단계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가족건강성의 부정적 영향을 아동연령이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나. 주요변수

주요변수의 구성 및 측정은 다음과 같다.

〈표 5-3〉 주요변수의 구성 및 측정

| 구분 | 변수명 | 측정 | 변수형태 |
|--------|------------------|--|------|
| 독립변수 | 가족건강성 | 가족건강성 척도 문항의 평균값, 높을수록 높은 가족 건강성 | 연속 |
| 종속변수 | 아동학대여부 | 0=최근 1년 내 아동학대 미경험집단, 1=최근 1년 내 아동학대 경험집단 | 범주 |
| 조절변수 | 아동연령 | 아동의 생년 기준 | 연속 |
| 통제변수 | 아동성별 | 0=여성, 1=남성 | 범주 |
| | 아동의 공격성 | 19개 CBCL문항의 응답값 평균 | 연속 |
| | 소득수준 | 가구균등화 중위소득 | 연속 |
| | 기초수급, 한부모차상위 | 0=일반가구, 1=수급가구 | 범주 |
| | 부/모의 교육수준 | 0=고등학교 졸업이하/1=대학 재학 이상 | 범주 |
| | 가족형태 | 0=양부모, 1=한부모조손 | 범주 |
| | 가구원수 | 가구원 수 | 연속 |
| | 부/모의 경제활동상태 | 0=경제활동인구, 1=비경제활동인구 | 범주 |
| 양육스트레스 | 양육스트레스 척도문항의 평균값 | 연속 | |

1) 가족건강성(가족관계척도, 15문항)

본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을 평가하기 위해 양옥경과 김연수(2007)가 개발한 '축약형 가족관계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 도구는 가족관계의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족 기능의 핵심적인 측면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가족 구성원 사이의 정서적 유대감과 상호 인정 및 존중 수준을 측정하는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는 '정서 친밀 영역'과 '수용 존중 영역' 두 개의 주요 영역으로 나뉜다. '정서 친밀 영역'은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유대감, 지지와 격려, 여가시간 공유, 상호 간 도움 요청, 협력적 문제 해결 등의 요소를 측정하는 10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수용 존중 영역'은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 수용과 존중 정도를 측정하는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며, 응답 범주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항상 그렇다)까지 설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관계가 긍정적이고 건강한 상

태를 의미한다. 이 척도는 가족 기능의 핵심적인 측면인 가족관계를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선행연구를 통해 그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표 5-4〉 축약형 가족관계척도(가족건강성)

| 축약형 가족관계척도 | |
|------------|--|
| 정서 친밀 영역 | 1. 우리 가족은 가족끼리 대화가 잘 된다. 2. 우리 가족은 문제를 함께 잘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3. 우리 가족은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4. 우리 가족은 각자의 강점에 대해 가족들에게 마음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다. 5. 우리 가족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서로 도움을 청할 수 있다. 6. 우리 가족은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좋아한다. 7. 우리 가족은 서로 친밀하게 느낀다. 8. 우리 가족은 서로 솔직하고 정직하다. 9. 우리 가족은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준다. 10.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
| 수용 존중 영역 | 11. 우리 가족은 가족의 일을 계획할 때 우리 가족 모두에게 발언권이 있다. 12. 우리 가족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13. 우리 가족은 각각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 14. 우리 가족은 가족들 간의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한다. 15. 우리 가족은 서로의 감정을 존중한다. |

2) 아동학대 및 방임

본 연구에서는 Straus 등(1998)이 개발한 Parent-Child Conflict Scale(CTSPC)을 기반으로 아동방임 및 학대를 측정하였다. 척도의 일부 항목을 한국상황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CTSPC 척도 중 아동방임 관련 6개 문항을 그대로 사용한 반면, 정서적 학대의 경우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한국의 실정에 부적합한 1개 문항을 제외하고 총 4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또한, 경미한 신체적 학대를 측정하는 5개 문항 중 2개 문항을 포함하였으며, 심각한 신체적 학대 관련 4개 문항 중 3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보호자가 직접 응답하는 자기기입식 조사 방식의 특성을 고려하여, CTSPC 척도 중 매우 심각한 신체적 학대를 측정하는 4개 문항은 제외하였다. 모든 응답은 7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응답 범주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한 달에 두세 번”, “한 달에 한 번”, “일 년에 3~5번”, “일 년에 두 번”, “지난 1년간은 없었지만 그 이전에는 경험함”, “평생 경험한 적 없음”으로 구성되었다.

〈표 5-5〉 아동방임 및 학대 척도

| 구분 | 항목 |
|--------|--|
| 방임 | △△(이)가 어른과 함께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든 때에도 △△(이)를 혼자 집에 있게 했다 |
| | △△(이)에게 제대로 끼니를 챙겨주지 못했다(챙겨주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
| | △△(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다(데려가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
| | 술이나 약물에 취해 아이를 돌보는 데 문제가 있었다 |
| | 아동에게 더럽거나 해지거나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을 입혔다 |
| 정서적 학대 | 내 문제에 사로잡혀서 △△(이)에게 애정을 표현하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해줄 수 없었다. |
| | 큰 소리로 비난하거나 꾸짖었다. |
| | 멀리 보내버리거나 집에서 쫓아내겠다고 위협했다 |
| | 아이에게 때리겠다고 위협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때리지는 않았다. |
| 신체적 학대 | 욕을 하거나 저주의 말을 퍼부었다. |
| | 회초리, 머리빗, 벨트와 같은 단단한 물건으로 엉덩이를 때렸다. |
| | 회초리, 머리빗, 벨트와 같은 단단한 물건으로 엉덩이외의 다른 신체 부위를 때렸다. |
| | 맨손으로 아이의 머리, 얼굴, 귀 부위를 때렸다. |
| | 맨손으로 아이의(머리, 얼굴, 귀 이외의) 다른 신체부위를 때렸다. |
| | 내동맹이치거나 밀쳐 넘어뜨렸다. |

아동학대경험에 응답한 연령이 9-17세로 제한되기 때문에, 본 분석은 아동의 전 연령대를 포괄하는 부모응답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아동과 부모의 아동학대 경험률의 응답차이를 분석하면, 보호자가 보고하는 학대가해경험률이 아동이 보고하는 학대피해경험률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아동학대 유형별로 보호자의 응답은 성학대를 제외한 아동방임, 신체학대, 정서학대로 제한되나, 성학대 유형을 제외하고 분석하는 것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성학대 경험에 대한 아동응답의 경우 0.7% 미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가 응답한 아동의 방임, 신체학대, 정서학대 경험률은 각각 26.5%, 14.5%, 36.5%로 아동이 보고한 방임 26.2%, 신체학대 10%, 정서학대 30.6% 보다 높았다. 특히, 신체학대와 정서학대는 보호자와 아동의 응답차가 각각 4.5%p, 5.9%p로 보호자가 자녀의 아동학대 관련 경험을 높게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 보호자와 아동의 아동방임 및 학대경험률 차이

| 구분 | 보호자 | | | | 아동 | | | |
|------|------|------|------|-------|------|------|------|-------|
| | 방임 | 신체학대 | 정서학대 | 사례수 | 방임 | 신체학대 | 정서학대 | 사례수 |
| 2023 | 26.5 | 14.5 | 36.5 | 5,753 | 26.2 | 10.0 | 30.6 | 3,334 |

출처: 이상정 외. (2024).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484 재구성

〈표 5-7〉 아동보고 성학대 피해경험률

| 구분 | 전혀 없음 | 1년간 없음, 그전 있음 | 1년 동안 1번 | 1년간 2번 이상 | 사례수 |
|-----------|-------|------------------|-------------|--------------|-------|
| 2023 [전체] | 99.3 | 0.3 | 0.2 | 0.1 | 3,334 |

출처: 이상정 외. (2024).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484 재구성

3) 조절변수와 통제변수

조절 변수는 아동 연령이 포함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통제변수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아동 성별, 아동의 공격성, 소득수준, 한부모차상위 및 기초생활보장수급 여부, 가족형태, 가구원수, 부/모의 교육수준, 가족형태, 부/모의 경제활동상태 등으로 선정하였다. 아동연령은 연속변수로 처리하였다. 아동의 성별은 여성 '0', 남성 '1'인 더미 변수로 재부호화하였다.

양육스트레스는 부모가 양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Abidin(1990)이 개발한 PSI-SF(Parental Stress Index Short Form)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번안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부모 스트레스 영역의 11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를 의미한다. 11개 문항의 총합을 통해 양육스트레스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최소 11점에서 최대 55점 범위를 가진다.

2. 분석결과

가. 기술분석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의 총 표본 수는 5,753명이며, 아동연령 분포는 0-5세(23.86%), 6-11세(36.17%), 12-14세(16.58%), 15-17세(23.4%)로 초등학교 연령대(6-11세)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성별 분포는 남아 51.42%, 여아 48.58%로 남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보호자 유형을 살펴보면, 어머니(82.48%)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아버지(15.68%)가 뒤를 이었으며, 기타 보호자는 1.85%로 가장 적었다.

조사에 참여한 아동 및 부모의 가구 형태는 양부모 가구가 90.88%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한부모 및 조손 가구는 9.12%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수준의 경우, 중위소득 50~100% 미만이 32.3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위소득 100~150% 미만 (30.06%), 150% 이상 (26.25%), 중위소득 50% 미만 (10.68%) 순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의 비율은 49.55%로, 외벌이 가구(47.40%)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주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상용근로자가 72.1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 종사자가 19.15%, 비취업 4.37%, 임시 및 일용근로자 4.31%로 낮게 나타났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을 분석한 결과, 대학재학/대졸이상의 학력이 56.2%로 가장 높았으며, 고졸 이하가 28.41%로 나타났다.

〈표 5-8〉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 (단위: 명, %) | | | | | |
|------------|------------------|----------|--------|------------------|-------|
| 변수 | 값 | 빈도 | 퍼센트(%) | 평균(SD) | 사례수 |
| 연령 | 0-5세 | 1,372.49 | 23.86 | 9.65 (0.09) | 5,753 |
| | 6-11세 | 2,080.61 | 36.17 | | |
| | 12-14세 | 953.826 | 16.58 | | |
| | 15-17세 | 1,346.07 | 23.4 | | |
| 성별 | 남자 | 2,958.19 | 51.42 | - | 5,753 |
| | 여자 | 2,794.81 | 48.58 | | |
| 아동과의 관계 | 어머니 | 4,744.96 | 82.48 | - | 5,753 |
| | 아버지 | 901.8889 | 15.68 | | |
| | 기타 | 106.1555 | 1.85 | | |
| 가구원수 | 2인 | 126.4774 | 2.2 | 3.95 (0.12) | 5,753 |
| | 3인 | 1,439.41 | 25.02 | | |
| | 4인 | 3,016.74 | 52.44 | | |
| | 5인~12인 | 1,170.38 | 20.34 | | |
| 가구형태 | 양부모 | 5,228.34 | 90.88 | - | 5,753 |
| | 한부모조손 | 524.6573 | 9.12 | | |
| 기초수급여부 | 일반 | 5,563.46 | 96.71 | - | 5,753 |
| | 기초생활보장 | 189.5373 | 3.29 | | |
| 가구소득수준 | 중위소득 50% 미만 | 614.5445 | 10.68 | 388.87 (4.35) | 5,718 |
| | 중위소득 50~100% 미만 | 1,860.02 | 32.33 | | |
| | 중위소득 100~150% 미만 | 1,729.26 | 30.06 | | |
| | 중위소득 150% 이상 | 1,510.14 | 26.25 | | |
| | 무응답 | 39.03347 | 0.68 | | |
| 맞벌이여부 | 외벌이 | 2,732.33 | 47.49 | - | 5,753 |
| | 맞벌이 | 2,850.80 | 49.55 | | |
| | 기타 | 169.875 | 2.95 | | |

| 변수 | 값 | 빈도 | 퍼센트(%) | 평균(SD) | 사례수 |
|----------|-----------|----------|--------|--------|-------|
| 가구주고용형태 | 상용근로자 | 4,151.52 | 72.16 | - | 5,753 |
| | 임시/일용근로자 | 248.2224 | 4.31 | | |
| | 자영업/무급가족 | 1,101.64 | 19.15 | | |
| | 비취업기타 | 251.6108 | 4.37 | | |
| 가구주 교육수준 | 고졸 이하 | 1,634.46 | 28.41 | - | 5,753 |
| | 전문대 졸 이하 | 885.201 | 15.39 | | |
| | 대재/ 대졸 이상 | 3,233.34 | 56.2 | | |
| 양육스트레스 | | - | - | 24.87 | 0.15 |

2) 가족건강성(가족관계척도)

가족건강성(가족관계척도)의 평균 점수는 3.98점(5점 만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가족관계가 긍정적인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부 항목별 분석 결과, 가족 간 친밀감(4.04), 지지와 격려(4.04), 문제 해결 능력(3.99), 솔직한 의사소통(4.00) 등의 항목이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반면, "각자의 강점에 대해 가족들에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다"(3.85) 항목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가족 구성원 간 개인적인 강점 공유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 가족건강성

(N = 5,652)

| 항목 | 평균 | 표준편차 |
|---|-------------|-------------|
| 1. 우리 가족은 가족끼리 대화가 잘 된다. | 3.91 | 0.01 |
| 2. 우리 가족은 문제를 함께 잘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 3.99 | 0.01 |
| 3. 우리 가족은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 3.97 | 0.01 |
| 4. 우리 가족은 각자의 강점에 대해 가족들에게 마음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다. | 3.85 | 0.02 |
| 5. 우리 가족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서로 도움을 청할 수 있다. | 4.02 | 0.01 |
| 6. 우리 가족은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좋아한다. | 3.94 | 0.02 |
| 7. 우리 가족은 서로 친밀하게 느낀다. | 4.04 | 0.01 |
| 8. 우리 가족은 서로 솔직하고 정직하다. | 4.00 | 0.01 |
| 9. 우리 가족은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준다. | 4.04 | 0.01 |
| 10.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 3.99 | 0.01 |
| 11. 우리 가족은 가족의 일을 계획할 때 우리 가족 모두에게 발언권이 있다. | 4.00 | 0.01 |
| 12. 우리 가족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 3.99 | 0.01 |
| 13. 우리 가족은 각각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 | 3.99 | 0.01 |
| 14. 우리 가족은 가족들 간의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한다. | 3.97 | 0.01 |
| 15. 우리 가족은 서로의 감정을 존중한다. | 3.97 | 0.01 |
| 평균 | 3.98 | 0.01 |

3) 아동학대경험

부모 보고 기준 아동학대 경험률은 48.3%로 나타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아동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은 아동학대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정서학대(36.46%)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방임(26.49%), 신체학대(14.47%) 순으로 나타났다. 중복학대를 포함하여 학대경험률을 살펴보면, 단일 학대는 26.21%로 두가지 이상의 학대가 중복된 사례(21.87%)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중복학대의 경우, 방임과 정서학대가 8.38%로 가장 많았고, 신체학대와 정서학대 중복이 6.67%,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의 3개 중복학대도 6.07%로 나타났다.

〈표 5-10〉 부모보고 아동학대 유형별 가해 경험률

(단위: 명, %)

| 학대유형 | 사례수 | 퍼센트(%) | 전체사례수 |
|------|----------|--------|-------|
| 아동방임 | 1,523.82 | 26.49 | 5,753 |
| 신체학대 | 832.43 | 14.47 | |
| 정서학대 | 2,097.73 | 36.46 | |

주: 중복학대 미분류, 표준화가중치 적용

〈표 5-11〉 아동학대 가해경험률

(단위: 명, %)

| 아동학대 | 사례수 | 퍼센트 | |
|---------|-----------------|-------------|------|
| 미발생 | 2,987 | 51.92 | |
| 아동학대 | 2,778.85 | 48.3 | |
| 단일학대 | 1,508 | 26.21 | |
| 2개 중복학대 | 방임+신체학대 | 43 | 0.75 |
| | 방임+정서학대 | 482 | 8.38 |
| | 신체학대+정서학대 | 384 | 6.67 |
| | 소계 | 909 | 15.8 |
| 3개 중복학대 | 349 | 6.07 | |

주: 중복학대 분류, 표준화 가중치 적용

세부적으로 아동학대경험을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빈번하게 보고된 학대 유형은 “큰 소리로 비난하거나 꾸짖음”(33.97%)이었다. 또한, 실제로 때리지

는 않았으나 때리겠다는 위협(13.52%)을 하는 정서적 학대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정서적 학대와 함께, 아동을 혼자 두거나 (20.46%), 제대로 끼니를 챙겨주지 못하는 (14.72%) 물리적 방임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12〉 부모보고 아동학대 가해경험률

(단위: 명, %)

| 구분 | 일주일 한번이상 | 한달에 1-3회 | 일년에 1-5번 | 지난1년간 경험없음 | 사례수 |
|---|------------------|-------------------|--------------------|---------------------------|----------------|
| 혼자두면 안되는 경우에도 혼자 있게 함 | 243.18 (4.23) | 279.07 (4.85) | 654.88 (11.38) | 4575.86 (79.54) | 5,753 (100) |
| 제대로 끼니를 챙겨주지 못함 | 104.86 (1.82) | 229.51 (3.99) | 512.64 (8.91) | 4905.99 (85.28) | 5,753 (100) |
|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 못함 | 44.40 (0.77) | 58.20 (1.01) | 247.08 (4.29) | 5403.32 (93.92) | 5,753 (100) |
| 술이나 약물에 취해 아이 돌봄에 문제가 있었음 | 38.28 (0.67) | 33.25 (0.58) | 100.92 (1.75) | 5580.55 (97) | 5,753 (100) |
| 더럽거나 헤지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입힘 | 27.66 (0.48) | 44.17 (0.77) | 113.07 (1.97) | 5568.10 (96.79) | 5,753 (100) |
| 애정표현이나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지 않음 | 37.30 (0.65) | 109.57 (1.9) | 304.49 (5.29) | 5301.64 (92.15) | 5,753 (100) |
| 회초리, 머리빗, 벨트와 같은 단단한 물건으로 엉덩이를 때림 | 58.79 (1.02) | 51.52 (0.9) | 292.83 (5.09) | 5349.86 (92.99) | 5,753 (100) |
| 회초리, 머리빗, 벨트와 같은 단단한 물건으로 엉덩이 외의 다른 신체부위를 때림 | 64.43 (1.12) | 26.46 (0.46) | 211.53 (3.68) | 5450.59 (94.74) | 5,753 (100) |
| 맨손으로 아이의 머리, 얼굴, 귀 부위를 때림 | 56.83 (0.99) | 26.39 (0.46) | 162.02 (2.82) | 5507.76 (95.74) | 5,753 (100) |
| 맨손으로 아이의 (머리, 얼굴, 귀 이외의) 다른 신체부위를 때림 | 63.82 (1.11) | 86.19 (1.5) | 441.47 (7.67) | 5161.53 (89.72) | 5,753 (100) |
| 내동댕이 치거나 밀쳐 넘어뜨림 | 52.96 (0.92) | 13.48 (0.23) | 78.98 (1.37) | 5607.58 (97.47) | 5,753 (100) |
| 큰소리로 비난하거나 꾸짖음 | 140.32 (2.44) | 640.78 (11.14) | 1173.10 (20.39) | 3798.80 (66.03) | 5,753 (100) |
| 멀리 보내버리거나 집에서 쫓아내겠다고 위협(집 밖 공간에서 버리고 가겠다고 위협한 경우도 포함) | 54.91 (0.95) | 107.14 (1.86) | 303.76 (5.28) | 5287.19 (91.9) | 5,753 (100) |
| 때리겠다고 위협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때리지는 않음 | 69.61 (1.21) | 175.41 (3.05) | 532.86 (9.26) | 4975.12 (86.48) | 5,753 (100) |
| 욕을 하거나 저주의 말을 퍼부음 | 53.32 (0.93) | 50.12 (0.87) | 153.82 (2.67) | 5495.74 (95.53) | 5,753 (100) |

주: 표준화 가중치 적용

나.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1) 가족건강성, 아동학대경험률, 아동연령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주요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족건강성과 아동학대 경험률 간에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0.119, $p < 0.01$)가 나타났다. 이는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아동학대 경험률이 낮아짐을 의미하며, 연구가설 1(가족건강성이 아동학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아동연령과 아동학대 경험률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0.184, $p < 0.01$)가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아동학대 경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13〉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 | 가족건강성 | 아동학대경험률 | 아동연령 |
|---------|-----------|---------|------|
| 가족건강성 | 1 | | |
| 아동학대경험률 | -0.119*** | 1 | |
| 아동연령 | -0.098*** | 0.184** | 1 |

2) 아동학대와 아동연령(학교급별)

아동연령이 증가할수록 아동학대 경험률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대별 아동학대 경험률을 살펴보면, 0-5세 31.12%, 6-11세 54.64%, 12-14세 57.1%, 15-17세 52.9%로 나타났다. Pearson 카이제곱 검정(Pearson chi-square test) 결과 $\chi^2(3) = 265.2307$, $p = 0.000$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아동의 연령과 아동학대경험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14〉 아동연령별 아동학대 가해경험률

(단위: 명, %)

| 구분 | 아동학대경험률 | | 사례수 |
|--------|---------|-------|-------|
| | 없음 | 있음 | |
| 0-5세 | 1,121 | 506 | 1,627 |
| 6-11세 | 1,042 | 1,255 | 2,297 |
| 12-14세 | 385 | 512 | 897 |
| 15-17세 | 439 | 493 | 932 |
| 사례수 | 2,987 | 2,766 | 5,753 |

Pearson $\chi^2(3) = 265.2307$ $p = 0.000$

다.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이 아동학대 가해 경험률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Model 1에서는 가족건강성이 아동학대 경험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R=0.746, $p < 0.001$). 즉, 가족건강성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아동학대발생 가능성이 약 25.4% 감소하게 되며, 가족 간 긍정적인 관계가 아동학대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의미한다. 또한, 한부모 및 조손 가구(OR=1.717, $p < 0.001$), 가구원 수(OR=1.141, $p < 0.001$), 수급 가구 여부(OR=1.527, $p < 0.001$) 등은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한부모 및 조손 가구의 경우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이 양부모 가구 대비 약 71.7% 높으며,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이 14.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수급 가구의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은 일반 가구에 비해 약 52.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은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표 5-15〉 가족건강성이 아동학대 가해 경험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로짓모형(Logistic regression) 1

| Model 1 | Odds Ratio | Std. Err. | z | P>z |
|-------------------------------------|--------------|--------------|--------------|--------------|
| 가족건강성 | 0.746 | 0.036 | -6.11 | 0.000 |
| 아동성별(기준=여성) | 1.128 | 0.062 | 2.19 | 0.028 |
| 한부모조손 가구 (기준=양부모가구) | 1.717 | 0.180 | 5.15 | 0.000 |
| 가구원수 | 1.141 | 0.038 | 3.95 | 0.000 |
| 수급가구(기준=일반가구) | 1.527 | 0.145 | 4.45 | 0.000 |
| 중위소득 50~100% 미만 (기준=중위소득 50% 미만) | 1.036 | 0.094 | 0.39 | 0.695 |
| 중위소득 100~150% 미만 | 1.213 | 0.120 | 1.96 | 0.05 |
| 중위소득 150% 이상 | 1.816 | 0.189 | 5.73 | 0.000 |
| 소득무응답 | 3.934 | 1.583 | 3.40 | 0.001 |
| 맞벌이 가구 (기준=외벌이가구) | 0.717 | 0.044 | -5.39 | 0.000 |
| 기타가구 | 0.507 | 0.101 | -3.41 | 0.001 |
| 임시/일용근로자 (기준=상용근로자) | 1.267 | 0.160 | 1.88 | 0.061 |
| 자영업/무급가족 | 1.045 | 0.077 | 0.59 | 0.554 |

| Model 1 | Odds Ratio | Std. Err. | z | P>z |
|-----------------------|------------|-----------|-------|-------|
| 비취업기타 | 1.255 | 0.207 | 1.38 | 0.168 |
| 전문대 졸 이하 (기준=고졸이하) | 1.424 | 0.127 | 3.97 | 0.000 |
| 대학재학 이상 | 0.938 | 0.066 | -0.91 | 0.361 |
| 양육스트레스 | 1.021 | 0.004 | 5.93 | 0.000 |
| _cons | 0.810 | 0.234 | -0.73 | 0.465 |
| Log likelihood | -3745.6338 | | | |
| N | 5,652 | | | |

아동연령 변수를 추가한 Model 2의 분석결과, 가족건강성의 보호 효과가 다소 감소하였으나(OR=0.851, $p < 0.001$),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가족건강성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이 약 14.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Model 1과 비교하여 감소폭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동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족건강성이 아동학대 예방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Model 2에서는 아동연령(OR=1.072, $p < 0.001$)이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이는 연령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이 약 7.2% 증가함을 의미한다. 즉, 연령이 많아질수록 부모가 보고한 아동학대 가해경험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와의 갈등이 증가하거나 학대에 대한 인식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표 5-16〉 가족건강성이 아동학대 가해 경험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로짓모형(Logistic regression) 2

| Model2 | Odds Ratio | Std. Err. | z | P>z |
|-------------------------------------|--------------|--------------|--------------|--------------|
| 가족건강성 | 0.851 | 0.032 | -4.34 | 0.000 |
| 아동연령 | 1.072 | 0.007 | 11.36 | 0.000 |
| 아동성별(기준=여성) | 1.110 | 0.061 | 1.9 | 0.057 |
| 한부모조손 가구 (기준=양부모가구) | 1.247 | 0.132 | 2.08 | 0.037 |
| 가구원수 | 1.104 | 0.037 | 2.96 | 0.003 |
| 수급가구(기준=일반가구) | 1.458 | 0.137 | 4.02 | 0.000 |
| 중위소득 50~100% 미만 (기준=중위소득 50% 미만) | 1.053 | 0.095 | 0.57 | 0.568 |
| 중위소득 100~150% 미만 | 1.143 | 0.113 | 1.36 | 0.174 |
| 중위소득 150% 이상 | 1.671 | 0.173 | 4.95 | 0.000 |
| 소득무응답 | 4.328 | 1.734 | 3.66 | 0.000 |

| Model2 | Odds Ratio | Std. Err. | z | P>z |
|------------------------|------------|-----------|-------|-------|
| 맞벌이 가구 (기준=외벌이가구) | 0.789 | 0.050 | -3.77 | 0.000 |
| 기타가구 | 0.566 | 0.111 | -2.89 | 0.004 |
| 임시/일용근로자 (기준=상용근로자) | 1.277 | 0.158 | 1.97 | 0.048 |
| 자영업/무급가족 | 1.004 | 0.075 | 0.05 | 0.962 |
| 비취업기타 | 1.239 | 0.203 | 1.31 | 0.19 |
| 전문대 졸 이하 (기준=고졸이하) | 1.452 | 0.129 | 4.2 | 0.000 |
| 대학재학 이상 | 1.024 | 0.072 | 0.34 | 0.733 |
| 양육스트레스 | 1.026 | 0.004 | 7.58 | 0.000 |
| _cons | 0.253 | 0.064 | -5.47 | 0.000 |
| Log likelihood | -3762.6316 | | | |
| N | 5,753 | | | |

Model 3에서는 가족건강성과 아동연령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여, 가족건강성이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아동연령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가족건강성과 아동연령의 상호작용항(OR=0.981, p=0.012)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가족건강성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효과가 아동의 연령 증가에 따라 약 1.9% 감소함을 의미한다. 즉, 가족건강성이 높은 가정에서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이 낮아지는 경향은 유지되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보호 효과가 점진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가족건강성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효과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조절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가족건강성이 저연령 아동에게 더 강한 보호 효과를 제공하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효과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이 가정 외부에서 경험하는 환경적 요인(학교 생활, 또래 관계, 독립성 증가 등)이 가족건강성이 제공하는 보호 효과를 일부 상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5-17〉 가족건강성이 아동학대 가해 경험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로짓모형(Logistic regression) 3

| Model 3 | Odds Ratio | Std. Err. | z | P>z |
|-------------------------------------|--------------|--------------|--------------|--------------|
| 가족건강성 | 0.975 | 0.064 | -0.38 | 0.700 |
| 아동연령 | 1.156 | 0.035 | 4.77 | 0.000 |
| 가족건강성*아동연령 | 0.981 | 0.007 | -2.52 | 0.012 |
| 아동성별(기준=여성) | 1.106 | 0.061 | 1.83 | 0.067 |
| 한부모조손 가구 (기준=양부모가구) | 1.263 | 0.134 | 2.19 | 0.028 |
| 가구원수 | 1.099 | 0.037 | 2.82 | 0.005 |
| 수급가구(기준=일반가구) | 1.466 | 0.138 | 4.06 | 0 |
| 중위소득 50~100% 미만 (기준=중위소득 50% 미만) | 1.057 | 0.095 | 0.61 | 0.543 |
| 중위소득 100~150% 미만 | 1.150 | 0.114 | 1.42 | 0.156 |
| 중위소득 150% 이상 | 1.690 | 0.176 | 5.05 | 0.000 |
| 소득무응답 | 4.398 | 1.760 | 3.7 | 0.000 |
| 맞벌이 가구 (기준=외벌이가구) | 0.789 | 0.050 | -3.78 | 0.000 |
| 기타가구 | 0.568 | 0.112 | -2.87 | 0.004 |
| 임시/일용근로자 (기준=상용근로자) | 1.270 | 0.158 | 1.93 | 0.054 |
| 자영업/무급가족 | 1.006 | 0.075 | 0.08 | 0.937 |
| 비취업기타 | 1.232 | 0.202 | 1.27 | 0.204 |
| 전문대 졸 이하 (기준=고졸이하) | 1.467 | 0.131 | 4.3 | 0.000 |
| 대학재학 이상 | 1.031 | 0.073 | 0.44 | 0.661 |
| 양육스트레스 | 1.025 | 0.004 | 7.23 | 0.000 |
| _cons | 0.154 | 0.049 | -5.85 | 0.000 |
| Log likelihood | -3759.4123 | | | |
| N | 5,753 | | | |

또한, 가족건강성이 낮은 가정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패턴이 확인되었다. 이는 가족 내 보호적 요인이 부족한 경우, 아동이 성장하면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부모와의 갈등 증가, 자율성 확대에 따른 갈등 등)이 학대 위험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4절 소결(정책적 함의)

본 연구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첫째, 가족건강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가족 구성원 간 개방적인 대화와 강점 공유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가 확인되었다. 둘째, 보호자가 보고한 아동학대 경험률은 48.3%¹⁹⁾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정서학대(36.46%)가 가장 빈번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연령이 증가할수록 아동학대 경험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 연령대에서 학대 경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10-12세)과 중학생(13-15세) 연령대에서 학대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 부모와의 관계 변화 및 독립성 증가가 학대 경험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아동학대 경험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가족건강성이 아동학대 예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회귀분석 결과,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며, 아동연령이 증가할수록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건강성이 저연령 아동에게 더 강한 보호 효과를 미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 내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지원을 통한 가족건강성을 강화하는 정책적 개입이 아동학대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족건강성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며,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정책에서 연령별 맞춤형 개입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19) 단일 학대, 중복학대를 포함하는 한 가지 이상의 비율



제6장

아동의 다차원적 결핍 유형과 영향요인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선행연구 분석

제3절 통계분석 방법 및 결과

제4절 소결(정책적 함의)

제 6 장 아동의 다차원적 결핍 유형과 영향요인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정부는 아동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을 해왔다.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아동결핍지수를 보호영역의 주요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아동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빈곤 아동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 드림스타트 서비스 질 개선,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등 지원 강화, 이주배경아동 및 장애아 대상 서비스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20). 뿐만 아니라 '22년 아동수당 대상 확대, '24년 부모급여 지급 금액 인상 등 아동가구에 대한 현금급여정책이 확대되면서, 빈곤을 완화하고 가구의 아동양육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공적 자원 투입 규모를 확충해 왔다.

이와 같은 시기에 아동빈곤의 추이를 살펴보면 아동의 상대빈곤율은 지속적으로 완화('18년 12.3% → '23년 9.9%)되고 있으며, 아동가구의 소득 수준, 박탈 점수, 아동 결핍지수 등도 2018년 대비 2023년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상정 외, 2023). 그러나 여전히 일부 계층, 특히 수급가구, 한부모 및 조손가구에서 아동 결핍지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이상정 외, 2023), OECD 국가 중 양부모가구와 한부모가구 간 아동빈곤을 격차는 일본 다음으로 가장 높다고 보고되었다(김은지 외, 2023).

아동 빈곤과 물질적 결핍은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회적 배제와 빈곤의 대물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Cantillon & Bosch, 2018). 물질적 결핍은 아동의 건강, 교육, 심리적 안정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며, 성인이 된 이후에도 경제적 기회와 사회적 이동성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Blanden & Gibbons, 2016). 특히, 아동기에 경험하는 빈곤은 아동의 인지발달과 신체발달뿐만 아니라 행동문제와도 연관되며, 학령기의 학업성취도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성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Duncan, Brooks-Gunn, & Klebanov 1994; Duncan et al. 1998; Ratcliffe & McKernan 2010).

아동빈곤을 측정하는 데에 있어서, 단순한 가구소득의 결핍으로 해석하는 방식은 한계를 가진다. 빈곤을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구구성원들에게 자원이 동등하게 배분되며, 아동의 욕구가 성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된다는 가정이 필요하다(Chzhen et al., 2016; White et al., 2003). 그러나 아동의 욕구는 성인의 욕구와 상이하며, 가구 내 자원 분배에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de Neubourg et al., 2012). 더구나 아동의 경우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보유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아동의 물질적 결핍을 단순한 경제적 결핍이 아니라, 물질적·사회적·정서적 자원에 접근하지 못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류정희, 2020). 아동결핍의 다차원적 접근방식은 가구 내에서 아동에게 분배되는 자원과 생활여건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차원의 결핍이 중첩되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De Neubourg et al., 2012). 또한, 대응이 필요한 결핍 요소를 정책적으로 점검하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특히 절대적 빈곤 수준이 비교적 낮은 선진국에서는 아동웰빙의 핵심 지표가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건강, 문화 및 사회참여 등 다차원적인 요소가 고려되고 있으며(Guio et al., 2020), UN 및 EU 등 국제사회가 주도적으로 아동의 다차원적 결핍을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활용하여, 전 세계의 아동빈곤을 점검하고 있다(Guio et al., 2020; Gordon et al., 2003).

그러나 국내에서 아동의 물질적 결핍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기존 연구들은 주로 물질적 결핍의 실태를 분석하거나(김은주, 2015; 여유진, 2018; 류정희, 2020), 결핍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유조안, 이상균, 2015), 학교적응(김유미, 황인순, 2022), 혹은 또래관계(채황석, 오채민, 이래혁, 2024) 등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반면, 국외에서는 아동결핍의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주제로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증근거에 기반하여 정책적인 대응방향을 제언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Guio, et al., 2021, Byegon, IK., et al., 2021, Barcena-Martin, 2017). 이는 국내 연구에서도 아동 물질적 결핍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일부 취약계층과 가구유형 중심으로 아동의 결핍수준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최근 아동종합실태조사의 결과를 놓고 볼 때, 아동의 결핍 수준에 대한 영향요인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크다.

본 연구는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아동의 물질적 결

핍 수준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아동의 물질적 결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제2절 선행연구 분석

1. 아동의 빈곤과 물질적 결핍의 다차원성

전통적으로 빈곤은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측정되었으며,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이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되어 왔다(Atkinson, 2019). 그러나 이와 같이 소득을 중심으로 한 빈곤율 지표로는 가구의 욕구충족을 위한 자원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으나, 가구의 자원이 실제로 가구원의 욕구 충족에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Townsend(1987)는 빈곤이 화폐적인 기준으로 측정될 것이 아니라 음식, 의복, 주거, 가재도구, 지역, 사회참여, 여가, 교육 등 다차원적인 영역에서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측정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는 소득 중심의 접근법이 실질적인 생활 여건과 다차원적 결핍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기 때문이다.

다수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절대적 빈곤이 여전히 주요하게 다루어고 있으나, 선진국에서는 상대적 빈곤과 다차원적 물질적 결핍이 더욱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부각되어 왔다(Guio et al., 2020). 선진국에서는 기본적인 생존을 넘어 교육, 건강, 문화, 사회참여 등의 요소가 웰빙의 핵심 지표로 고려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물질적 결핍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의 활용이 선호된다(De Neubourg et al., 2012). 이는 선진국에서는 빈곤율로 측정되어야 하는 절대적 빈곤 상황의 발생이 드물게 관찰되며, 사회참여와 배제의 관점에서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욕구가 충족되었는지 측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소득 자체보다는 소득의 분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김윤태, 서재욱, 2015). 이에 따라 단순한 소득 결핍이 아닌 가구 내 소득의 분배 상황을 평가하는 물질적 결핍 지표가 개발되어 왔으며, 이는 국제적으로 빈곤 측정의 주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UNICEF, 2020).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경우에도 빈곤율이라는 단일한 차원의 지표로 측정하기 보다는 다차원적인 결핍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적합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아동의 경우 경제 활동을 통해 소득을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가구소득만으로 아동의 빈곤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더욱 한계가 많다. 이는 동일한 가구소득 수준이라도 아동이 경험하는 결핍이 가구원 간 자원 배분 방식, 국가정책의 지원 여부, 사회적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Main & Bradshaw, 2016). 아동은 가구 내에서 취약한 가구원으로 간주되곤 하는데, 아동의 욕구는 다른 가구 구성원들 - 특히 성인 - 의 욕구와 상이한 비중을 두고 측정되곤 하며, 이에 따라 가구 내 자원의 분배에 있어서도 차이가 발생한다(De Neubourg et al., 2012). 따라서 아동이 실제로 누리 지 못하는 필수적인 생활요소들을 다차원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결핍지수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물질적 결핍은 빈곤을 가구 내에 물질적 자원의 결핍 그 자체로 간주하기 보다는 빈곤이 아동에게 초래한 결과로 다차원적인 영역에서 아동이 물질적, 사회적, 정서적 자원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류정희, 2020). De Neubourg et al.(2012)은 아동의 물질적 결핍지수를 활용하여 결핍의 영역별로 단독 결핍과 중첩된 결핍 아동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벨기에의 아동은 세 가지 영역에서 모두 중첩된 결핍을 보이는 아동이 1.9%에 그친 반면, 헝가리의 경우, 17.8%가 의복, 교육 및 사회적 영역에서 중첩된 결핍을 보여, 헝가리의 각 차원의 결핍이 대응하는 정책적 영역에 있어서 중첩된 대응방안의 마련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De Neubourg et al., 2012, p.25). 뿐만 아니라 벨기에의 경우 지역사회 관련 영역의 결핍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해당 영역의 투자에 가장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De Neubourg et al., 2012, p.24). 이와 같이 아동결핍의 다차원적 접근방식은 다양한 차원에서의 결핍의 상호 연관성이나 중첩된 결핍 또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측정된 결핍의 차원이 다양하므로 각 차원의 결핍에 대응하고 있는 정책적 영역에 대한 점검과 대응방안 마련이 좀 더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아동결핍지수를 도입하여 측정하였으며, 2018년과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측정하여 그 추이를 비교·분석해왔다. 그러나 그 밖의 국내 선행연구들 중에서 아동의 물질적 결핍을 주제로 한 연구는 많지 않다. 김은주(2015)는 2008년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주거, 식생활·영양, 보건, 교육 등 4개 영역을 기준으로 한 박탈지표를 구성하였다.

소득수준과 박탈수준을 기준으로 아동의 집단을 다차원적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으며, 국내에서 아동 빈곤집단과 취약집단의 비율은 빈곤탈출집단의 비율보다 더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다(김은주, 2015). 또한 농어촌지역, 가구주 교육수준이 중등 이하인 경우, 임시직 및 일용직 임금근로자가 가구주인 경우, 가구주의 연령이 높은 경우, 자녀 수가 많을수록, 한부모 가정일수록 박탈율이 높다고 보고하였다(김은주, 2015). 여유진(2018)은 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빈곤가구 아동의 다차원적 박탈과 결핍 수준은 중산층 아동 대비 매우 열악하며, 한부모가구의 빈곤한 비율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류정희(2020)는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여 여가 및 문화생활에서의 결핍비율이 높았으며, 기초생활수급가구, 저소득 가구, 한부모·조손가구, 가구 내에 경제활동가구원이 없는 경우 일반 가구 대비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다음 소절에서는 아동종합실태조사 및 국내외 조사에서 활용한 아동의 물질적 결핍 수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국내외 아동결핍지수의 활용과 결과

가.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지표의 변화 추이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는 2013년, 2018년, 2023년 조사에서 UNICEF 아동결핍지수(child deprivation index) 지표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아동의 결핍 수준을 측정해 왔다. 각년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아동결핍을 측정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활용한 문항은 다음 <표 6-1>과 같다.

아동결핍지수가 측정하는 결핍의 영역은 크게 음식·영양, 여가, 교육, 주거, 의복, 사회적 관계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음식·영양 영역은 하루에 세끼, 육류·생선, 과일·채소 등의 섭취여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여가영역은 야외활동기구, 실내놀이기구를 보유여부와 정기여가활동 여부를 포함한다. 교육영역은 책, 인터넷 연결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주거영역은 학습공간의 보유여부를 확인한다. 의복영역은 새 옷과 신발의 보유를 그리고 관계영역은 친구초대 기회, 생일파티 기회, 학교 현장학습 참여 가능한 자원이 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이상정 외, 2023).

이상과 같은 14개의 항목은 각각의 지표별로 결핍아동의 비율을 확인하며, 결핍지

수는 총 14개 항목 중 2개 이상 결핍된 아동의 비율로 측정한다. 측정방식은 각 문항별로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 1점을 부여하며, 14개 항목의 총점을 기준으로 측정된 점수가 2점 이상인 아동의 비율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응답대상은 아동과 보호자로, 0-8세는 전체 항목에 대해서 보호자가 대리 응답하였고, 9-17세는 전체 항목에 대해 아동 당사자가 직접 응답하였다(이상정 외, 2023).

〈표 6-1〉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활용한 아동의 결핍수준 조사 항목(아동용)

| 아동의 결핍지수를 구성하는 공통 세부항목 | |
|------------------------|--|
| 1 | 원한다면 하루에 세끼를 먹는다 |
| 2 | 하루 적어도 한번은 육류 또는 생선을 섭취한다(채식인 경우, 콩류 및 두부류 포함) |
| 3 | 원한다면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매일 섭취할 수 있다 |
| 4 | 내 연령과 수준에 맞는 책을 보유하고 있다 (학교 교재 제외) |
| 5 |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다 (자전거, 스쿠터, 롤러스케이트 등) |
| 6 | 정기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수영, 악기, 태권도 등) |
| 7 | 집내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이나 기구들이 있다 (적어도 형제자매 한명 당 한 개씩이 있으며, 교육적인 유아용 장난감, 보드게임, 블록, 컴퓨터 게임 등 포함) |
| 8 | 우리 집은 학교나 보육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 또는 현장학습에 참가하기 위한 돈을 낼 수 있다 |
| 9 | 우리 집은 학교나 보육기관에서 내주는 과제나 책을 읽기 위해 충분한 공간과 적당하게 밝은 조용한 공간이 있다 |
| 10 |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 |
| 11 | 다른 사람에게 물려받지 않은 새 옷이 있다 |
| 12 | 적어도 두 켤레의 신발을 가지고 있다(그 중 한 켤레는 모든 계절에 신을 수 있다) |
| 13 |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놀거나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종종 있다 |
| 14 | 생일파티나 가족행사를 할 기회가 있다 |

연도별 아동 결핍수준을 살펴보면, 2013년에는 11세, 13세 및 15세 아동의 54.8%가 14개 항목 중 2개 이상 결핍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김미숙 외, 2013), 2018년에는 전체 아동의 31.5%(류정희 외, 2019), 2023년에는 전체 아동의 17.6%가 2개 이상 항목에서 결핍을 경험하는 등 결핍지수 수치는 크게 감소해 온 것을 알 수 있다(이상정 외, 2023). 2013년도에 산출된 아동결핍수준은 산출대상연령을 11세, 13세, 15세만으로 제한하여(김미숙 외, 2013), 비교적 아동결핍수준이 높은 연령대인 11세 이상 연령의 아동들만이 분석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후의 수행된 조사결과와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동 기간 동안 우리나라 아동 상대빈곤율의 추이 또한 2013년 16.4%에서 2018년 12.3%, 2023년 9.9%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볼 때(OECD, n.d.), 이와 같은 아동결핍수준의 지속적인 경감은 아동 빈곤율의 완화의 맥락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다만,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의 아동빈곤율은 OECD 평균 미만으로 감소해 온 반면, 아동결핍지수는 여전히 2013년 기준 OECD 평균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이는 소득 중심의 빈곤율 대비, 아동 개인의 다차원적 생활여건이 결핍된 아동이 여전히 많음을 의미하며, 향후 아동의 다차원적 결핍 해소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6-2〉 아동의 결핍수준 추이: 연도별 비교

(단위: %)

| 구분 | | 2013 | 2018 | 2023 |
|---------|---------|--------------------|------|--------------------|
| 아동결핍지수 | 한국 | 54.8 ¹⁾ | 31.5 | 17.6 |
| | OECD 평균 | 13.3 | | |
| 아동상대빈곤율 | 한국 | 16.4 | 12.3 | 9.9 |
| | OECD 평균 | 14.0 | 12.7 | 12.2 ²⁾ |

주: 1) 단, 2013년의 결핍지수는 OECD 국가 간 국제비교를 위해 11세, 13세, 15세 아동의 결핍수준으로 계산되었다고 제시됨(김미숙 외, 2013).

2) OECD 평균 아동상대빈곤율의 가장 최근 취합연도는 2022년이므로, 2022년 기준 수치를 제시함. 다만, 해당 연도의 아동상대빈곤율 수치를 보고하지 않은 국가(호주, 칠레, 덴마크, 독일, 헝가리, 일본, 스위스, 미국 등)는 평균값 환산 시 제외함.

출처: 1) 아동종합실태조사 각 연도

2) OECD(n.d.). Child Well-being, OECD Data Explorer. [https://data-explorer.oecd.org/vis?pg=0&snb=99&vw=tb&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CWB%40DF_CWB&df\[ag\]=OECD.WISE.CWB&df\[vs\]=1.0&dq=.B1_1.&to\[TIME_PERIOD\]=false&tm=education%20and%20care&pd=2013%2C2020](https://data-explorer.oecd.org/vis?pg=0&snb=99&vw=tb&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CWB%40DF_CWB&df[ag]=OECD.WISE.CWB&df[vs]=1.0&dq=.B1_1.&to[TIME_PERIOD]=false&tm=education%20and%20care&pd=2013%2C2020) 로부터 인출

세부항목별로 연도별 아동 결핍수준을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여가영역에 해당하는 정기적 여가활동과 야외활동기구의 결핍비율이 가장 높고, 관계영역에 해당하는 친구초대, 생일파티 등의 결핍비율, 음식·영양 영역의 결핍비율이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나는 경향은 유사하였다. 그러나 2018년-2023년 사이에 9-17세 친구초대기회 항목에서 미미하게(0.3%)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전체 세부 항목에서 연도별 결핍비율 수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류정희 외, 2019; 이상정 외, 2023). 특히 연령별로 비교가능한 2018년-2023년의 측정값을 살펴보면, 해당 기간동안 9-17세의 음식·영양 영역, 인터넷 연결, 생일파티 등의 항목에서 결핍비율이 절반 이상의 수준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류정희 외, 2019; 이상정 외, 2023).

〈표 6-3〉 세부항목별 아동 결핍수준 추이: 연도별 비교

(단위: %)

| | | 11, 13, 15세 | 0-8세 (부모응답) | | 9-17세 (아동응답) | |
|----|---|-------------|-------------|------|--------------|------|
| | | 2013 | 2018 | 2023 | 2018 | 2023 |
| 1 | 원한다면 하루에 세 끼를 먹는다 | 12.1 | 2.5 | 2.4 | 7.5 | 2.9 |
| 2 | 하루 적어도 한 번은 육류 또는 생선을 섭취한다 (채식인 경우, 콩류 및 두부류 포함) | 15.7 | 8.0 | 7.6 | 10.6 | 4.4 |
| 3 | 원한다면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매일 섭취할 수 있다 | 19.7 | 7.8 | 7.2 | 11.3 | 2.9 |
| 4 | 아동의 연령과 발달수준에 맞는 책을 보유하고 있다 (학교 교재 제외) | 14.5 | 8.0 | 7.6 | 8.5 | 6.6 |
| 5 |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다(자전거, 스쿠터, 롤러스케이트 등) | 26.1 | 18.2 | 17.7 | 12.7 | 12.3 |
| 6 | 정기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수영, 악기, 태권도 등) | 52.8 | 27.7 | 27.0 | 24.7 | 21.8 |
| 7 |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이나 기구들이 있다 (적어도 아동 한명 당 한 개씩이 있으며, 교육적인 유아용 장난감, 보드게임, 블록, 컴퓨터 게임 등을 포함) | 14.9 | 10.0 | 9.5 | 8.3 | 7.3 |
| 8 | 학교나 보육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 또는 현장학습에 참가하기 위한 돈을 지불할 수 있다 | 10.8 | 5.5 | 4.9 | 4.8 | 4.4 |
| 9 | 학교나 보육기관에서 내주는 과제나 책을 읽기 위해 충분한 면적과 적당한 채광이 되는 조용한 공간이 있다 | 11.8 | 8.0 | 7.4 | 7.5 | 5.4 |
| 10 |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 | 3.5 | 2.8 | 2.5 | 2.5 | 0.9 |
| 11 | 다른 사람에게 물려받지 않은 새 옷이 있다 | 6.4 | 3.6 | 3.3 | 3.4 | 2.8 |
| 12 | 적어도 두 켤레의 신발을 가지고 있다 (그 중 한 켤레는 모든 계절에 신을 수 있다) | 4.7 | 3.7 | 3.4 | 3.7 | 1.9 |
| 13 |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놀거나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있다 | 21.1 | 15.7 | 14.9 | 14.9 | 15.2 |
| 14 | 생일파티나 가족행사 등을 할 기회가 있다 | 22.4 | 8.4 | 7.3 | 14.5 | 5.9 |

주: 각 문항별로 결핍 상태(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인 것으로 응답한 비율만 제시한 결과임.
출처: 아동종합실태조사 각 년도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아동의 결핍수준을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남아보다 여아가, 아동연령이 3세 미만이거나 12세 이상일수록, 수급가구이거나 저소득가구일수록, 한부모, 조손가구일수록 14개 문항 중 2개 이상이 결핍된 아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경향은 유사하였다. 다만, 2018년에는 도시지역이거나 맞벌이 가정일수록 결핍된 아동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반면, 2023년에는 농어촌지역이거나 외벌이 가정일수록 결핍된 아동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류정희 외, 2019; 이상정 외, 2023).

〈표 6-4〉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아동의 결핍지수: 연도별 비교

(단위: %, 명)

| 구분 | | 2018 | | 2023 | |
|--------|------------------|----------------------|-------|----------------------|-------|
| | | 결핍상태(2개 문항 이상 결핍) 비율 | 사례수 | 결핍상태(2개 문항 이상 결핍) 비율 | 사례수 |
| [전체] | | 31.53 | 4,038 | 17.61 | 5,753 |
| 아동 성별 | 남자 | 30.81 | 2,084 | 16.40 | 2,958 |
| | 여자 | 32.29 | 1,953 | 18.88 | 2,795 |
| 아동 연령 | 0-2세 | 42.34 | 512 | 19.46 | 543 |
| | 3-5세 | 29.29 | 730 | 10.82 | 830 |
| | 6-8세 | 24.20 | 579 | 9.11 | 1,046 |
| | 9-11세 | 27.67 | 741 | 14.78 | 1,034 |
| | 12-17세 | 33.69 | 1,476 | 24.75 | 2,300 |
| 표본 | 일반 | 29.92 | 3,863 | 16.52 | 5,563 |
| | 수급 | 66.96 | 175 | 49.54 | 190 |
| 소득 수준 | 중위소득 50% 미만 | 44.33 | 368 | 24.97 | 615 |
| | 중위소득 50~100% 미만 | 31.19 | 1,541 | 20.01 | 1,860 |
| | 중위소득 100~150% 미만 | 29.68 | 1,562 | 17.41 | 1,730 |
| | 중위소득 150% 이상 | 27.07 | 532 | 11.39 | 1,509 |
| | 무응답 | 61.23 | 36 | 36.28 | 39 |
| 지역 | 대도시 | 29.61 | 1,676 | 19.40 | 2,701 |
| | 중소도시 | 33.52 | 2,106 | 15.35 | 2,731 |
| | 농어촌 | 27.69 | 256 | 21.78 | 320 |
| 가구유형 | 양부모 | 30.11 | 3,787 | 15.87 | 5,228 |
| | 한부모, 조손 | 52.9 | 250 | 34.90 | 525 |
| 맞벌이 여부 | 맞벌이 | 33.04 | 2,201 | 16.56 | 2,732 |
| | 외벌이 | 28.52 | 1,752 | 17.36 | 2,851 |
| | 기타 | 54.22 | 85 | 38.40 | 170 |

주: 1) 결핍지수는 14개의 결핍 문항(17-1~17-14) 중 적어도 2개 이상 결핍(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으로 응답한 비율을 의미함.

2) 0-8세는 보호자의 응답값을, 9-17세는 아동의 응답값을 활용하였음.

출처: 아동종합실태조사 각 연도

나. 국내조사 - 아동보호통합패널을 통해 살펴본 아동결핍 수준

아동종합실태조사 외에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조사 중 아동결핍지수를 포함한 것으로는 ‘아동보호통합패널’ 조사가 있다. 이 조사는 아동복지법 상 아동복지서비스의 이용자를 모집단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입양, 가정위탁,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의 이용자와 보호자 및 자립준비청년 등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2021-2022년에 예비조사가 시행되었으며, 2022년 1차 본조사를 실시하였고,

중단패널조사로 향후 조사가 지속될 예정이다(민소영 외, 2023).

아동보호통합패널 조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결핍지수의 세부문항은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문항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다만, 결핍지수의 산출방식에 있어서 아동종합실태조사와 차이가 있는데,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는 14개 공통항목 중 결핍이 있다고 응답한 문항이 2개 이상인 아동의 비율로 측정하였다면, 아동보호통합패널에서는 2013년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활용한 15개 항목 중 결핍이 있다고 응답한 문항을 1점으로 부여하여 전체 문항에 대한 응답값을 합산한 총점을 평균내는 방식으로 측정하였다(민소영 외, 2023). 따라서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아동결핍지수와 아동보호통합패널의 결핍지수를 직접적인 수치만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통합패널 조사에서 활용한 결핍지수의 측정치를 살펴보는 것은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 특성에 따른 결핍수준(아동보호통합패널)이 일반아동의 특성에 따른 결핍수준(아동종합실태조사)과 어떻게 유사하거나 상이한지 그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동보호통합패널에서 산출한 아동양육환경 결핍지수는 평균 3.3점으로 나타나 전체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이 평균적으로 3개 이상의 항목에서 결핍된 상황임을 알 수 있다(민소영 외, 2023).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2개 이상의 항목에서 결핍된 아동이 17.6%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이상정 외, 2023), 보호대상아동과 지원대상아동의 결핍수준은 일반 아동 대비 비교적 높은 수치일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아동 및 가구 특성별로 아동양육환경 결핍지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아동이 영유아이거나 초등학교 고학년 혹은 중학생일수록 결핍수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보호유형별로는 드림스타트 지원대상일수록 결핍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수급가구이거나, 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한부모와 조손가족에서 아동의 결핍수준이 높게 나타났는데, 가구소득수준이나 가구유형에 따라 아동의 결핍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점은 아동종합실태조사의 결과와도 일관되었다(민소영 외, 2023).

〈표 6-5〉 2022 아동보호통합패널 양육자응답 양육환경 결핍지수

(단위: %)

| 구분 | 사례수(명) | 평균(최대 15점) | 표준편차 | F | |
|--------|--------------|------------|------|-----|----------|
| 전체 | 2,568 | 3.3 | 2.9 | | |
| 아동성별 | 남자 | 1,278 | 3.3 | 2.8 | 0.4 |
| | 여자 | 1,290 | 3.2 | 2.9 | |
| 아동연령 | 영유아 | 324 | 3.5 | 3.1 | 10.1*** |
| | 초등저학년 | 860 | 2.9 | 2.6 | |
| | 초등고학년 | 953 | 3.5 | 3.0 | |
| | 중학생 | 364 | 3.8 | 2.8 | |
| | 고등학생 | 66 | 2.5 | 2.2 | |
| 보호유형 | 지역아동센터 | 1,145 | 2.9 | 2.5 | 173.6*** |
| | 드림스타트 | 1,122 | 4.3 | 3.0 | |
| | 입양 | 301 | 1.2 | 1.5 | |
| 가족구조 | 양부모 | 1,627 | 2.8 | 2.7 | 74.6*** |
| | 한부모 | 873 | 4.3 | 3.0 | |
| | 조손 | 63 | 3.3 | 3.2 | |
| 급여상태 | 수급 | 951 | 4.2 | 3.1 | 98.4*** |
| | 차상위 | 123 | 3.7 | 2.8 | |
| | 수급+차상위 | 248 | 4.1 | 2.9 | |
| | 비수급 | 1,246 | 2.4 | 2.4 | |
| 월평균 소득 | 무소득 | 104 | 5.0 | 2.9 | 75.7*** |
| | 100만원 미만 | 279 | 4.6 | 3.2 | |
| | 100-200만원 미만 | 750 | 4.0 | 3.0 | |
| | 200-300만원 미만 | 568 | 3.4 | 2.7 | |
| | 300-400만원 미만 | 319 | 2.2 | 2.2 | |
| | 400만원 이상 | 547 | 1.8 | 2.0 | |

주: 1) 아동보호통합패널의 양육환경 결핍지수는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활용한 아동의 결핍수준에 대한 15개 세부문항(아동종합실태조사의 14개 공통문항 + 인스틴트 식품 섭취)의 각 항목별로 결핍상태에 있다고 응답한 문항을 1점으로 부여하여 15개 항목별 값을 아동별로 합산한 것을 전체 조사대상아동의 평균치로 산출하였음.

2) *** p<.001

출처: 민소영 외(2023). 2022 아동보호통합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I: 총괄, 〈표 4-4-3-1〉(양육자 응답) 양육환경 결핍 지수, p.162

다. 국외조사 – OECD 국가와의 비교 결과

2013년 유니세프 연구실(UNICEF Office of Research)은 선진국의 아동 웰빙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 국가 중 선진국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OECD 국가들의 아동웰빙 수준을 비교하였는데, 아동웰빙을 구성하는 30개의 세부 지표들 중 하나로서 아동결핍지수가 사용되었다(Bruno et al., 2013). 이 보고서에서 활용한 아동결핍지수는 EU-SILC(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2009 조사에서 최초로 활용하였던 아동결핍지수를 재분석한 자료로, 원 자료는 EU-SILC 조사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스위스, 미국 등 EU-SILC 조사참여국을 제외한 29개 OECD 국가의 자료를 분석하여 비교하였다(Martorano et al., 2013).

분석에 활용한 아동결핍지표는 EU-SILC 2009 조사가 포함했던 19개 아동결핍지표 중 지표를 구성하는 세부항목의 신뢰도를 분석하여 신뢰도가 비교적 낮은 6개 지표를 제외하고, 가구단위 물질적 결핍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인터넷 연결’을 포함하여 구성한 14개 지표이다(De Neubourg et al., 2012). 이 지표는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아동결핍지표 구성 시 번안하여 사용한 것으로 이후 2018년,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도 사용되었다.

아동결핍지수의 산출방식은 14개 세부항목 중 2개 이상에서 부정응답을 한 아동의 비율로 측정하였다. EU-SILC 조사의 아동결핍지표는 만1세 미만 아동 1인을 양육하는 가구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모든 세부항목들은 만1세-만15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세부항목별로 해당이 되는 아동의 연령을 제한하여 분석하였는데, 음식·영양 영역, 여가영역, 의복, 사회적 관계 영역에서 일부 지표들이 만 2세 미만 아동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책은 3세 미만 아동을, 그리고 학교, 숙제 및 인터넷 접속 관련 항목들은 6세 미만을 미포함하였다(De Neubourg et al., 2012).

〈표 6-6〉 Martorano et al.(2013)이 OECD 29개국 비교에 활용한 아동의 물질적 결핍 지표와 지표별 해당 아동의 연령

| 아동의 결핍지수를 구성하는 공통 세부항목 | 아동연령 |
|---|------|
| 1 Three meals a day | 2-16 |
| 2 At least one meal a day with meat, chicken or fish (or a vegetarian equivalent) | 2-16 |
| 3 Fresh Fruit and vegetables every day | 1-16 |
| 4 Books suitable for the child's age and knowledge level | 3-16 |
| 5 Outdoor leisure equipment (bicycle, roller-skates, etc) | 2-16 |
| 6 Regular leisure activities (swimming, playing an instrument, etc.) | 2-16 |
| 7 Indoor games (computer games, etc.) | 1-16 |
| 8 Money to participate in school trips and events | 6-16 |
| 9 A quiet place with enough room and light to do homework | 6-16 |
| 10 An internet connection | 6-16 |
| 11 Some new clothes(i.e. not all second-hand) | 1-16 |
| 12 Two pairs of properly fitting shoes | 2-16 |
| 13 The opportunity, from time to time, to invite friends home to play and eat | 3-16 |
| 14 The opportunity to celebrate special occasions, birthdays, etc. | 1-16 |

출처: Martorano et al.(2013) p.13, De Neubourg et al.(2012) p.9.

OECD 29개국의 2개 이상 아동결핍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OECD-29개국 전체 아동의 평균 13.3%가 2개 이상의 항목에서 결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은 2% 미만의 아동만이,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등은 2%~3% 미만의 아동만이 2개 이상의 항목에서 결핍을 보고하였다. 반면 포르투갈, 폴란드, 라트비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은 20% 이상의 아동들이 2개 이상 항목에서 결핍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특히 불가리아(56.6%)와 루마니아(72.6%)의 결핍 아동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은 비교적 낮은 수준의 아동결핍을 보이고 있으며, 서유럽국가들이 그 다음으로 낮은 결핍을 보였다. 반면, 동유럽과 일부 남유럽 국가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아동결핍 비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Martorano et al., 2013).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이와 같은 유니세프 연구실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조사를 실시하고 14개 항목 중 2개 이상의 항목에서 결핍이 있는 아동의 비율을 제시하였으나, 대상아동의 연령이 상이하여 직접적인 국제비교가 어렵다. OECD 29개국 분석 결과는 EU-SILC 조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조사에서는 만1세 미만 아동 1인을 양육하는 가구는 응답에서 제외하고, 만1세-15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는 11세, 13세, 15세 아동(가구)의 응답값만을 선별하여 분석하였으므로, Martorano et al.(2013) 이 분석한 OECD-29개국의 아동결핍비율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표 6-7〉 OECD 29개국의 2개 이상 아동결핍비율

(단위: %)

| 국가명 | 아동결핍(+2) | 국가명 | 아동결핍(+2) |
|-------|----------|-------|----------|
| 아이슬란드 | 0.9 | 이탈리아 | 13.3 |
| 노르웨이 | 1.9 | 체코 | 8.8 |
| 네덜란드 | 2.7 | 에스토니아 | 12.4 |
| 덴마크 | 2.6 | 그리스 | 17.2 |
| 스웨덴 | 1.3 | 포르투갈 | 27.4 |
| 핀란드 | 2.5 | 폴란드 | 20.9 |
| 룩셈부르크 | 4.4 | 리투아니아 | 19.8 |
| 슬로베니아 | 8.3 | 슬로바키아 | 19.2 |
| 벨기에 | 9.1 | 라트비아 | 31.8 |

| 국가명 | 아동결핍(+2) | 국가명 | 아동결핍(+2) |
|-------|----------|--------------|----------|
| 프랑스 | 10.1 | 헝가리 | 31.9 |
| 아일랜드 | 4.9 | 루마니아 | 72.6 |
| 독일 | 8.8 | 불가리아 | 56.6 |
| 스페인 | 8.1 | 사이프러스 | 7.0 |
| 오스트리아 | 8.7 | 몰타 | 8.9 |
| 영국 | 5.5 | OECD-29개국 평균 | 13.3 |

출처: Martorano et al.(2013) p.14 Table 3. Material Deprivation, Lacking child item, De Neubourg et al.(2012) p11. Table 5. Distribution of items lacking in each country and overall(all results = or < than 1 are omitted).

라. 국외조사 – EU-SILC의 아동결핍지수

EU-SILC는 2009년 19개 아동결핍지수를 시범적으로 포함시켜 조사한 이래로 2014년에 17개 아동결핍지수 항목을 부가조사 모듈로 추가하여 다시 한 번 조사하였고, 2018년에 17개의 아동결핍지수 항목을 구성하여 전체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EU-SILC 조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아동결핍지수의 문항은 12개의 아동 개인 수준의 결핍과 5개의 가구 수준의 결핍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문항 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음식, 의복, 책, 여가, 사회적 관계, 휴일(여행) 등 소유와 기회에 대해서 질문하는 12개 문항이 아동의 개별적인 결핍을 파악하도록 하였으며, 낡은 가구의 교체, (월세 등) 연체, 인터넷 연결, 적절하게 난방이 되는 거주공간(집), 개인적인 활용을 할 수 있는 자동차에의 접근성 등 5개 문항은 아동의 결핍에 영향을 주는 가구단위의 결핍을 파악하도록 하였다(Guio et al., 2020).

우리나라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아동결핍지수는 이와 같은 17개의 EU-SILC 아동결핍지수 세부항목 중 12개 항목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다만,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공통항목으로 포함해 온 ‘우리 집은 학교나 보육기관에서 내 주는 과제나 책을 읽기 위해 충분한 공간과 적당하게 밝은 조용한 공간이 있다’와 ‘원한다면 하루에 세 끼를 먹는다’와 같은 항목은 EU-SILC 조사에 미포함되었다(Guio et al., 2020).

〈표 6-8〉 EU-SILC의 아동결핍 문항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포함여부

| 구분 | 결핍내용 |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포함여부 |
|-------|--|-----------------|
| 아동 문항 | 1 Some new (not second-hand) clothes | ○ |
| | 2 Two pair of property fitting shoes | ○ |
| | 3 Fresh fruit and vegetables daily | ○ |
| | 4 Meat, chicken, fish or vegetarian equivalent daily | ○ |
| | 5 Books at home suitable for the children's age | ○ |
| | 6 Outdoor leisure equipment | ○ |
| | 7 Indoor games | ○ |
| | 8 Regular leisure activities | ○ |
| | 9 Celebrations on special occasions | ○ |
| | 10 Invitation of friends to play and eat from time to time | ○ |
| | 11 Participation in school trips and school events | ○ |
| | 12 Holiday | X |
| 가구 문항 | 13 Replace worn-out furniture | X |
| | 14 Arrears | X |
| | 15 Access to Internet | ○ |
| | 16 Home adequately warm | X |
| | 17 Access to a car for private use | X |

출처: Guio et al.(2020), p.8

EU-SILC의 아동결핍 문항의 응답대상은 만 1-15세 아동이며, 아동결핍 문항 중 ‘학교 현장학습이나 행사의 참여’(Participation in school trips and school events) 항목에 대해서는 취학연령만을 대상으로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Guio et al., 2020). 아동종합실태조사는 0-17세 아동을 대상으로 전체 14개 아동결핍문항에 응답하도록 하고 있어, EU-SILC가 파악한 국가별 아동결핍 수준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2021년도 기준 EU-SILC에 나타난 EU 국가별 아동결핍수준은 전체 27개 국가 평균 13.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슬로베니아가 3.1%로 가장 낮았고, 루마니아가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과 같은 북유럽 국가들과 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서유럽국가들은 10% 미만의 비교적 낮은 결핍비율을 보였다(Guio et al., 2020).

〈표 6-9〉 EU-27개국 아동결핍수준: 2021년 기준

(단위: %)

| 구분 | 아동결핍비율(2개 이상 항목 결핍) | |
|--|---------------------|-------|
| | 1-5세 | 1-15세 |
| European Union - 27 countries(from 2020) | 11.7 | 13.2 |
| Belgium | 12.3 | 13.1 |
| Bulgaria | 32.1 | 36.7 |
| Czechia | 5.8 | 7.0 |
| Denmark | 5.1 | 4.8 |
| Germany | 6.3 | 6.1 |
| Estonia | 3.9 | 3.9 |
| Ireland | 10.6 | 13.0 |
| Greece | 32.1 | 34.3 |
| Spain | 20.4 | 20.2 |
| France | 11.6 | 12.8 |
| Croatia | 3.3 | 5.9 |
| Italy | 13.4 | 13.6 |
| Cyprus | 20.3 | 24.1 |
| Latvia | 7.9 | 9.7 |
| Lithuania | 5.8 | 10.0 |
| Luxembourg | 6.7 | 8.1 |
| Hungary | 28.6 | 25.0 |
| Malta | 12.6 | 10.6 |
| Netherlands | 6.0 | 5.6 |
| Austria | 6.1 | 7.5 |
| Poland | 3.6 | 4.9 |
| Portugal | 11.3 | 14.6 |
| Romania | 35.5 | 42.7 |
| Slovenia | 2.4 | 3.1 |
| Slovakia | 12.6 | 13.7 |
| Finland | 3.9 | 3.6 |
| Sweden | 3.5 | 3.4 |
| Switzerland | 8.4 | 6.5 |

출처: Eurostat(2023), Child specific material deprivation rate by age (children aged less than 16 years), https://ec.europa.eu/eurostat/databrowser/view/ilc_chmd01/default/table?lang=en&category=livcon.ilc.ilc_md.ilc_chmd로부터 인출

3. 아동의 물질적 결핍의 영향요인

선행연구는 아동의 다차원적 결핍은 단순히 경제적 요인에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 구조, 지역 사회의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간 국내에서는 아동의 물질적 결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주제로 한 연구는 전무하였으나, 아동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어 왔다. 선행연구 결과 확인된 주요 요인들은 아동특성, 가구주 특성, 가구특성, 지역특성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아동특성으로는 가구 내 아동자녀의 수가 많을수록(윤홍식, 조막래, 2006; 김미숙, 배화옥, 2007; 배화옥, 2008), 가구주의 특성으로는 가구주가 여성이거나 고연령, 저학력일수록, 직업이 서비스·판매직이나 임시직·일용직에 근무할수록(김미숙, 배화옥, 2007; 배화옥, 2008), 가구 내 아동이 빈곤하였다. 가구특성으로는 한부모 혹은 조손가정일수록, 지역특성으로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할수록 아동빈곤에 처할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김미숙, 배화옥, 2007; 배화옥, 2008).

아동의 물질적 결핍을 주제로 한 국내연구에서는 결핍의 영향요인을 검증한 연구는 없었으나, 아동 및 가구특성에 따라 결핍수준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들이 있었다. 아동 특성에서는 주로 남아 대비 여아가, 아동연령이 초등학교령이거나 아동자녀 수가 많을수록 물질적 결핍 수준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류정희 외, 2019; 이상정 외, 2023; 김은주, 2015; 여유진, 2018). 가구특성으로는 특히 한부모·조손가구이거나, 가구의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저소득, 수급가구), 가구주의 특성으로서 저학력, 고령, 임시직 및 일용직 근무 등의 집단에서 다른 집단과 비교할 때, 물질적 결핍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고하였다(류정희 외, 2019; 이상정 외, 2023; 김은주, 2015; 여유진, 2018).

국외에서는 아동의 물질적 결핍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어 왔다. 다수의 연구에서 미시적 영역에 해당하는 요인들 특히 여성가구주, 한부모가구, 저학력, 실직할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해당 가구 내 아동의 물질적 결핍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영향력 또한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다(Nelson, 2012; Barcena-Martin et al., 2014; De Neubourg et al., 2012). Barcena-Martin et al.(2014)의 연구는 가구소득이 물질적 결핍지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Guio, et al.(2020)은 가구소득 뿐 아니라 주거비용 부담과 부모의 학력수준이 아동의 물질적 결핍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동결핍지수에 영향을 주는 거시적인 요인에 대해 분석한 Guio, et al.(2020)은 국가의 GDP 수준과 중위소득 수준이 국가 차원에서 아동의 결핍수준을 완화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 차원의 부의 수준은 개인 및 가구특성 차원에서의 영향요인 - 예를 들면 가구소득, 부모의 학력, 주거비용 부담 등 -을 경감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Nelson(2012)의 연구결과는 거시적 차원에서 투입된 정부의 현금급여가 물질적 결핍수준을 높이는 개인적 차원의 요인들의 정적 영향력을 완화하는 것으로 밝혀,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급여의 수준 또한 물질적 결핍수준을 완화하는 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다.

4. 선행연구 분석 결과

선행연구 분석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아동의 물질적 결핍 수준은 시계열적으로 볼 때,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세부항목별 분석결과는 여전히 여가, 사회적 관계, 음식 및 영양 영역에서의 결핍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보여주었다. 남아보다 여아가, 연령대가 영유아이거나 중학교 학령 이상일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한부모조손 가구일수록 물질적 결핍지수(14개 문항 중 2개 이상 결핍)가 높은 경향을 보여, 아동의 개인적 특성과 저소득·취약 가구 환경이 아동의 물질적 결핍과 관련되어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아동의 물질적 결핍의 영향요인에 대한 국내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으나, 아동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 개인의 특성과 더불어, 가구특성, 가구주의 특성 그리고 지역사회 특성 등과 아동빈곤이 연관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가구유형이 한부모 혹은 조손이거나, 저소득 및 수급가구, 저학력이나 여성 가구주인 경우, 부모가 실직하였거나 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에 아동의 빈곤 수준을 높이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물질적 결핍의 영향요인을 주제로 한 국외연구에서는 여성가구주이거나, 저학력, 실직할수록 그리고 한부모가구이거나, 자녀수가 많거나,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이 낮거나 혹은 주거비용의 부담이 높은 경우에 아동의 물질적 결핍 수준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아동의 물질적 결핍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아동 및 가구특성에 따라 결핍수준의 차이를 살펴본 국내 연구결과와 아동보호통합 패널의 결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 한부모 및 조손가구 등 특수한 집단에서 일반 아동과 비교할 때, 아동의 물질적 결핍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고하고 있다. 이는 아동의 물질적 결핍 수준을 연구할 때, 보편적 대상이 아닌 선별적 개입이 필요한 집단을 선별하여 살펴볼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국제비교를 통해 살펴보면, 한국 아동의 빈곤율과 물질적 결핍 지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여전히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빈곤율은 OECD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감소해 왔으나, 물질적 결핍 지수는 OECD-29개국 평균(13.3%, 2013년 기준)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21년도 기준 EU-SILC 조사 결과, 27개국 평균 결핍지수(17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의 결핍)가 13.2%이었으나,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14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의 결핍)는 17.1%에 달했다. 두 지표 간 직접 비교는 한계가 있으나, 양 지표가 12개 결핍항목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EU-SILC가 더 많은 항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아동결핍지수가 더 높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EU-SILC 지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 향후 직접적인 국제 비교를 위해서는 비교가능한 지표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제3절 통계분석 방법 및 결과

1. 연구방법

가.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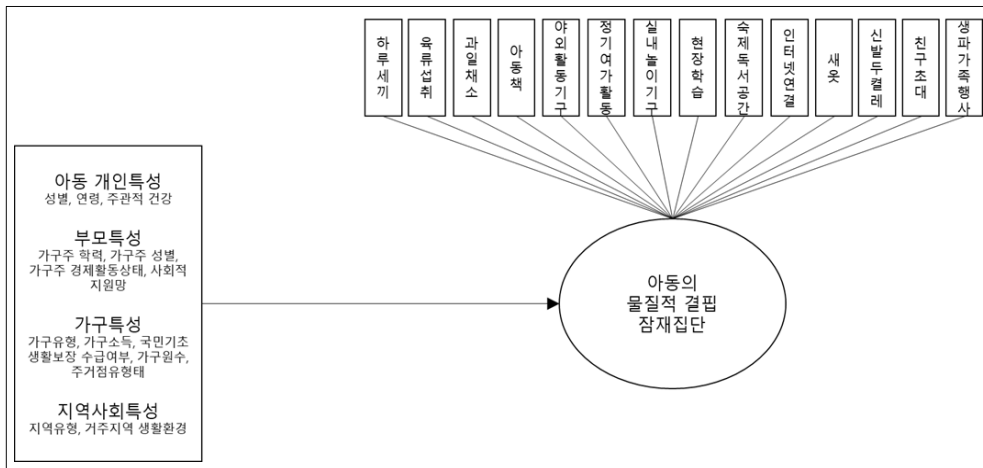
본 연구는 아동의 물질적 결핍수준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 물질적 결핍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의 물질적 결핍수준의 특성을 분석하여 물질적 결핍이 가장 중첩되거나 높은 영역을 파악하였다. 또한 아동의 물질적 결핍의 잠재계층을 구분하여 결핍수준의 특성에 따라 구분된 잠재집단별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영향요인 분석에 활용한 독립변수는 아동의 개인적 특성, 부모 특성, 가구특성 및 지역사회 특성 등 선행연구를 통해 아동의 물질적 결핍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된 변수들 중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데이터에 포함된 변수들로 구성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질문과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아동의 물질적 결핍 수준의 특성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아동의 물질적 결핍은 어떠한 잠재계층으로 구분되는가?
- 연구문제 3. 아동의 물질적 결핍의 잠재집단의 영향요인은 무엇인가?

[그림 6-1] 연구모형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SPSS와 Mplus로 세 단계에 걸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SPSS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아동의 물질적 결핍 수준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Mplus를 활용하여 아동의 물질적 결핍의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잠재집단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아동의 물질적 결핍 잠재집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나. 분석변수

분석에 활용한 변수의 구성 및 측정은 다음 표와 같다.

〈표 6-10〉 분석변수의 구성 및 측정

| 구분 | 변수명 | 측정 | 변수형태 |
|--------|----------------|---|------|
| 종속변수 | 아동 물질적 결핍 잠재집단 | 물질적 결핍 14개 세부문항 응답값(세부문항별 결핍=1, 결핍없음=0)의 잠재집단 (잠재계층분석 결과) | 범주 |
| 개인특성 | 아동성별 | (리코딩) 0=여성, 1=남성 | 범주 |
| | 아동연령 | 아동의 만연령 | 연속 |
| | 주관적 건강 | 보호자가 보고한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 | 연속 |
| 부모특성 | 가구주학력 | (리코딩) 0=고등학교 졸업이하/1=전문대 재학 이상 | 범주 |
| | 가구주성별 | (리코딩) 0=남성, 1=여성 | 범주 |
| | 가구주 경제활동상태 | (리코딩) 0=경제활동 함, 1=경제활동하지 않음 | 범주 |
| | 사회적 지원 | (리코딩 0~3) 사회적 지원 4개 세부문항 응답값의 총점 | 연속 |
| 가구특성 | 가구유형 | (리코딩) 0=양부모, 1=한부모조손 | 범주 |
| | 가구소득수준 | 월평균 가구 가처분소득 | 연속 |
| | 국기초수급 | (리코딩) 0=일반가구, 1=수급가구 | 범주 |
| | 가구원 수 | 가구원 수 | 연속 |
| | 주택점유유형 | (리코딩) 전세, 자가, 월세및기타 | 범주 |
| 지역사회특성 | 지역규모 | (리코딩) 중소도시, 대도시, 농어촌 | 범주 |
| | 거주지역 생활환경 | 거주지역 생활환경 8개 세부문항 응답값의 총점 | 연속 |

2. 분석결과

가. 기술통계분석 결과

1)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을 수행하기에 앞서, 분석에 활용한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아동의 성별 분포는 여아가 51.4%로 남아(48.6%)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아동 연령의 평균값은 9.6세이었고, 주관적 건강상태는 보통 이하가 7.2%에 그쳤으며, 대다수(92.8%)가 좋음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학력은 대학 이상이 71.6%로 다수이었다. 가구주의 성별은 남자인 비율이 90.8%에 달하였으며, 부모가 사회적 지원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응답한 사회적 지원 총점은 3.6점이었다. 가구유형은 양부모가구가 90.9%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월평균 가구 가처분소득은 평균 388.9만원이었고, 분석대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수급하는 가구의 비율은 3.3%에 그쳤다. 평균 가구원 수는 4.0명으로 나타났다. 주택점유유형은 자가 65.4%, 전세가 21.7%, 월세 및 기타가 12.9%로 나타났다.

지역특성은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비율이 각각 47.0%, 47.5%로 나타났으며,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율은 5.6%에 그쳤다. 거주지역 생활환경 총점은 평균 6.5점으로 나타났다.

〈표 6-11〉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세, 점, %)

| 변수 | 값 | 빈도 | 비율(%) | 평균(SD) | 사례수 |
|-----------------|------------|------|-------|--------------------|------|
| 아동성별 | 남자 | 2795 | 48.6 | - | 5753 |
| | 여자 | 2958 | 51.4 | | |
| 아동연령 | - | - | - | 9.6(4.951) | 5753 |
| 아동 주관적 건강 | 매우 나쁨 | 3 | 0.1 | 4.3(0.617) | 5753 |
| | 나쁨 | 33 | 0.6 | | |
| | 보통 | 372 | 6.5 | | |
| | 좋음 | 3163 | 55.0 | | |
| 가구주 학력 | 매우 좋음 | 2182 | 37.9 | - | 5753 |
| | 고졸이하 | 1634 | 28.4 | | |
| 가구주 성별 | 전문대 재학 이상 | 4119 | 71.6 | - | 5753 |
| | 남자 | 5224 | 90.8 | | |
| 가구주 경제활동상태 | 여자 | 529 | 9.2 | - | 5753 |
| | 경제활동 함 | 5508 | 95.7 | | |
| 사회적 지원 | 경제활동 하지 않음 | 245 | 4.3 | - | 5753 |
| | - | - | - | | |
| 가구유형 | - | - | - | - | 5753 |
| | 양부모가구 | 5228 | 90.9 | | |
| 월평균 가구 가처분소득 | 한부모조손가구 | 525 | 9.1 | 388.9 (236.330) | 5714 |
| | - | - | - | |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여부 | 일반가구 | 5563 | 96.7 | - | 5753 |
| | 수급가구 | 190 | 3.3 | | |
| 가구원 수 | - | - | - | 4.0(0.838) | 5753 |
| 주택점유유형 | 자가 | 3762 | 65.4 | - | 5753 |
| | 전세 | 1248 | 21.7 | | |
| | 월세/기타 | 743 | 12.9 | | |
| 지역특성 | 대도시 | 2701 | 47.0 | - | 5753 |
| | 중소도시 | 2731 | 47.5 | | |
| | 농어촌 | 320 | 5.6 | | |
| 거주지역 생활환경 | - | - | - | 6.5(2.009) | 5753 |

2) 아동의 물질적 결핍 특성

이번에는 아동의 물질적 결핍수준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물질적 결핍지표를 구성하는 14개 세부항목별로 결핍하고 있다는 응답의 비율을 확인해보았다. 14개 세부항목 중 가장 높은 결핍비율을 나타낸 항목은 정기여가활동 항목으로 전체 아동 중 20.2%가 결핍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친구초대 기회 결핍(12.1%), 야외활동기구의 미보유(10.3%), 실내활동기구 및 게임의 미보유(5.6%), 생일파티나 가족행사의 결핍(4.8%), 아동의 연령에 맞는 책의 미보유(4.5%) 등으로 나타났다. 가장 결핍수준이 낮았던 항목으로는 인터넷 연결(0.7%), 신발 두 켤레(1.3%), 하루 세끼(1.7%) 등으로 나타났다.

〈표 6-12〉 아동의 물질적 결핍 세부항목별 결핍비율

(단위: %)

| 영역구분 | 아동의 물질적 결핍 세부항목(전체) | 세부항목(요약) | 결핍비율 |
|--------|--|----------|------|
| 음식과 영양 | 1) 원한다면 하루에 세 끼를 먹는다 | 하루세끼 | 1.7 |
| 음식과 영양 | 2) 하루 적어도 한 번은 육류 또는 생선을 섭취한다(채식인 경우, 콩류 및 두부류 포함) | 육류섭취 | 3.6 |
| 음식과 영양 | 3) 원한다면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매일 섭취할 수 있다 | 과일채소 | 2.5 |
| 교육자원 | 4) 아동의 연령과 발달수준에 맞는 책을 보유하고 있다(학교 교재 제외) | 아동책 | 4.5 |
| 여가 | 5)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다(자전거, 스쿠터, 롤러스케이트 등) | 야외활동기구 | 10.3 |
| 여가 | 6) 정기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수영, 악기, 태권도 등) | 정기여가활동 | 20.2 |
| 여가 | 7)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이나 기구들이 있다 (적어도 아동 한명 당 한 개씩이 있으며, 교육적인 유아용 장난감, 보드게임, 블록, 컴퓨터 게임 등을 포함) | 실내활동기구 | 5.6 |
| 사회관계참여 | 8) 학교나 보육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 또는 현장학습에 참가하기 위한 돈을 지불할 수 있다 | 학교행사 | 3.0 |
| 교육자원 | 9) 학교나 보육기관에서 내주는 과제나 책을 읽기 위해 충분한 면적과 적당한 채광이 되는 조용한 공간이 있다 | 숙제독서공간 | 4.1 |
| 교육자원 | 10)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 | 인터넷연결 | 0.7 |
| 의복과 신발 | 11) 다른 사람에게 물려받지 않은 새 옷이 있다 | 새옷 | 2.1 |
| 의복과 신발 | 12) 적어도 두 켤레의 신발을 가지고 있다 (그 중 한 켤레는 모든 계절에 신을 수 있다) | 신발두켤레 | 1.3 |
| 사회관계참여 | 13)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놀거나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있다 | 친구초대 | 12.1 |
| 사회관계참여 | 14) 생일파티나 가족행사 등을 할 기회가 있다 | 생파가족행사 | 4.8 |

물질적 결핍 수준을 결핍의 영역별로 살펴보면, 여가 영역에서의 결핍수준이 가장 높았다. 여가영역은 3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1개 이상 항목에서 결핍된 아동의 비율은 23.9%에 달하였고, 2개 이상 항목에서 결핍된 아동의 비율 10.5%, 전체 항목이 모두 결핍된 아동 또한 2.7%에 이르렀다.

그 다음으로 높은 결핍수준을 보인 영역은 사회관계참여 영역이었다. 사회관계참여 영역은 3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1개 이상 항목에서 결핍된 아동의 비율은 14.7%이었다. 전체 항목이 모두 결핍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0.9%로 나타났다.

다음은 교육자원 영역으로 이 영역을 구성하는 3개의 항목 중 1개 이상 결핍된 응답자의 비율은 7.4%이었다. 음식과 영양 영역(5.8%)과 의복과 신발 영역(2.8%)의 결핍 비율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표 6-13〉 영역별 아동의 물질적 결핍 수준

(단위: %)

| 물질적 결핍 영역 | 0개 결핍 | 1개 결핍 | 2개 결핍 | 3개 결핍 | 1개 이상 결핍 비율 |
|-----------|-------|-------|-------|-------|-------------|
| 음식과 영양 | 94.2 | 4.2 | 1.3 | 0.3 | 5.8 |
| 교육자원 | 92.6 | 5.7 | 1.3 | 0.3 | 7.4 |
| 여가 | 76.1 | 14.5 | 6.8 | 2.7 | 23.9 |
| 사회관계참여 | 85.3 | 10.3 | 3.4 | 0.9 | 14.7 |
| 의복과 신발 | 97.2 | 2.2 | 0.6 | | 2.8 |

이번에는 영역별로 아동의 물질적 결핍의 중첩성을 살펴보았다. 중첩성이 가장 크게 나타난 영역은 여가-사회관계참여 영역으로 8.9%가 중복 결핍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여가-교육자원 영역으로 중복 결핍을 경험한 아동의 비율이 5.5%이었다. 전반적으로 여가와 사회관계참여 영역의 중복 결핍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6-14〉 영역별 아동의 물질적 결핍 중복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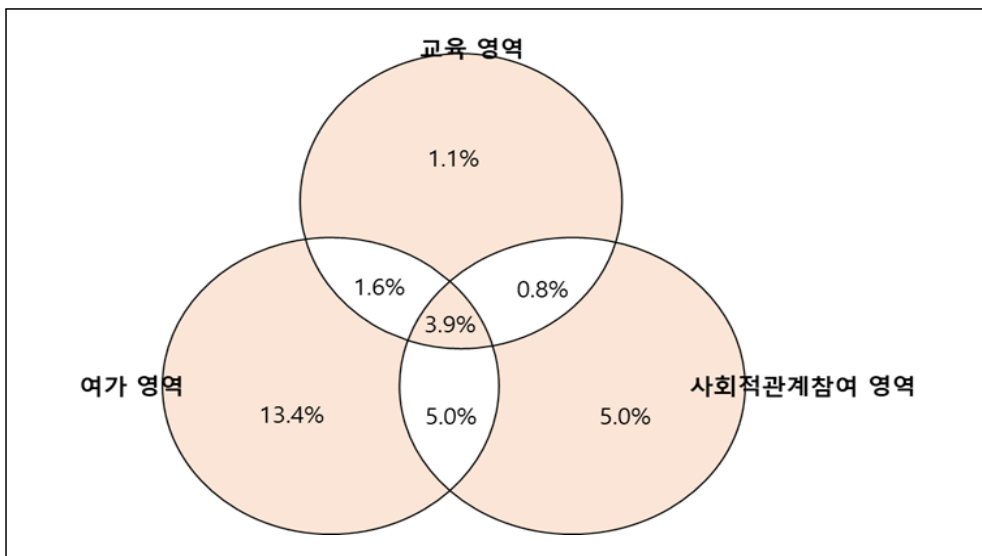
(단위: %)

| 물질적 결핍 영역 | 음식과 영양 | 교육자원 | 여가 | 사회관계참여 | 의복과 신발 |
|-----------|--------|------|------------|------------|--------|
| 음식과 영양 | - | 2.9 | 4.2 | 2.9 | 0.9 |
| 교육자원 | - | - | 5.5 | 4.7 | 1.4 |
| 여가 | - | - | - | 8.9 | 2.0 |
| 사회관계참여 | - | - | - | - | 1.9 |
| 의복과 신발 | - | - | - | - | - |

그렇다면 중복비율이 비교적 높은 교육자원-여가-사회적관계참여 영역 간의 중복성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았다. 여가영역의 단독 결핍이 있는 아동의 비율이 13.4%, 여가-교육 영역의 이중결핍은 1.6%, 여가-사회적관계참여 영역의 이중결핍은 5.0%이었고, 여가-교육-사회적관계참여 영역의 삼중결핍을 경험한 아동은 3.9%에 달하였다.

사회적관계참여 영역의 단독 결핍을 경험한 아동의 비율은 5.0%이었으며, 교육영역과의 이중결핍은 0.8%, 여가영역과의 이중결핍을 경험한 아동의 비율은 5.0%이었다. 교육영역의 경우, 세 개 영역의 결핍을 모두 경험한 비율이 3.9%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단독결핍비율은 세 영역 중 가장 낮았다(1.1%).

[그림 6-2] 아동의 물질적 결핍의 교육-여가-사회적관계참여 영역 간 중복비율



이번에는 아동의 물질적 결핍의 총점을 살펴보았다. 전체 응답자 평균 총점은 0.8점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특성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살펴보면, 12-17세 아동이 1.1점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가구의 물질적 결핍 평균은 2.6점으로 가장 두드러졌다. 소득수준별로는 중위소득 50% 미만과 무응답가구에서 아동의 물질적 결핍 총점이 각각 1.2점, 1.5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농어촌 지역(1.0점), 가구유형별로는 한부모조손 가구(1.7점), 맞벌이 여부에서는 기타(2.0점)의 유형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와 같은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6-15〉 응답자 특성에 따른 아동의 물질적 결핍 평균 총점

(단위: 점,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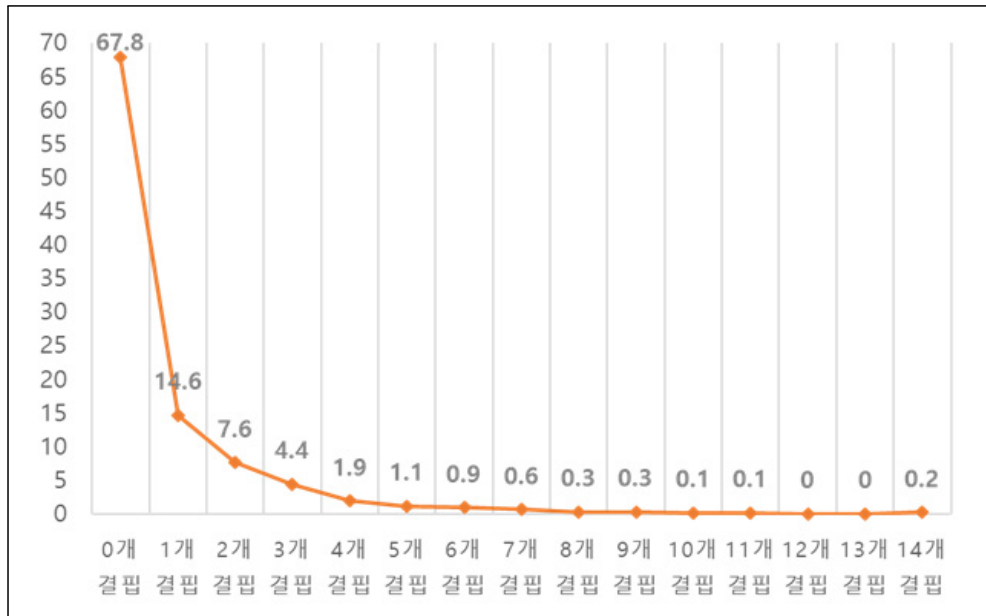
| 구분 | | 아동의 물질적 결핍 총점 | | 사례수 | F값 |
|-----------|------------------|---------------|------|------|------------|
| | | 평균 | 표준편차 | | |
| 2023 [전체] | | 0.8 | 1.6 | 5753 | |
| 아동 성별 | 남자 | 0.7 | 1.6 | 2958 | 3.954* |
| | 여자 | 0.8 | 1.6 | 2795 | |
| 아동 연령 | 0-2세 | 0.8 | 1.4 | 543 | 44.440*** |
| | 3-5세 | 0.5 | 1.1 | 830 | |
| | 6-8세 | 0.4 | 1.1 | 1046 | |
| | 9-11세 | 0.6 | 1.5 | 1034 | |
| | 12-17세 | 1.1 | 2.0 | 2300 | |
| 표본 | 일반 | 0.7 | 1.5 | 5563 | 252.598*** |
| | 수급 | 2.6 | 3.0 | 190 | |
| 소득 수준 | 중위소득 50% 미만 | 1.2 | 2.2 | 615 | 27.962*** |
| | 중위소득 50~100% 미만 | 0.9 | 1.6 | 1860 | |
| | 중위소득 100~150% 미만 | 0.8 | 1.7 | 1729 | |
| | 중위소득 150% 이상 | 0.5 | 1.1 | 1510 | |
| | 무응답 | 1.5 | 2.2 | 39 | |
| 지역 | 대도시 | 0.8 | 1.6 | 2701 | 6.621** |
| | 중소도시 | 0.7 | 1.6 | 2731 | |
| | 농어촌 | 1.0 | 2.0 | 320 | |
| 가구 유형 | 양부모 | 0.7 | 1.5 | 5228 | 192.563*** |
| | 한부모, 조손 | 1.7 | 2.6 | 525 | |
| 맞벌이 여부 | 맞벌이 | 0.7 | 1.5 | 2732 | 56.894*** |
| | 외벌이 | 0.8 | 1.5 | 2851 | |
| | 기타 | 2.0 | 2.9 | 170 | |

주: *** p<.001, ** p<.01, *p<.05

물질적 결핍 점수의 분포를 확인해보기 위하여, 물질적 결핍점수(0점~14점)별로 해당하는 아동의 비율을 살펴보았다. 물질적 결핍을 경험하지 않은 아동의 비율이 67.8%로 가장 높았으며, 1개 항목만이 결핍된 아동이 14.6%, 2개 항목 결핍 비율은 7.6%, 3개 항목 결핍 비율은 4.4%, 4개 항목 결핍은 1.9% 등으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개 이상 항목의 결핍 비율은 17.5%이었으며, 3개 이상은 9.9%, 4개 이상은 5.5%, 5개 이상은 3.6%, 6개 이상은 2.5%, 7개 이상은 1.6% 등으로 나타났다. 미미한 비율이기는 하지만, 14개 항목 모두 결핍된 아동도 0.2%로 나타났다.

[그림 6-3] 물질적 결핍수준별 해당 아동 비율

(단위: %)



나. 물질적 결핍의 잠재계층 유형화 결과

다음으로는 아동의 물질적 결핍을 세부항목별 결핍 양상에 따라 잠재집단으로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앞선 분석에서 전체 응답 중 과반 이상의 아동은 결핍을 전혀 경험하지 않았으나, 일부 아동은 여러 항목에서 중복적으로 결핍을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감안하여 분석결과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아동

의 이질적인 결핍 특성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소절에서는 아동의 물질적 결핍의 세부항목별 결핍 특성에 따른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하고, 이후 소절에서 유형화된 잠재집단별로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1) 세부항목별 결핍여부에 따른 잠재집단 수

아동의 물질적 결핍 세부항목별 결핍양상에 따라 몇 개의 잠재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보고자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집단의 수를 2개부터 6개까지 설정하여, 최적의 모형을 찾기 위하여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였다.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AIC, BIC, ABIC 지수, Adjusted LMR-LRT 유의도와 Entropy 값을 비교하여 적절한 잠재집단의 수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AIC, BIC, ABIC 지수 등 적합도 지수는 낮을수록 적절한 것으로 간주하는데(노언경 외, 2014), 잠재집단의 수가 증가할수록, 적합도 지수는 감소하였다.

〈표 6-16〉 물질적 결핍 세부항목에 따른 잠재집단 분류별 모형적합도

| 집단 수 | log likelihood | AIC | BIC | ABIC | 잠재집단별 구성원 수(비율) |
|------|----------------|-----------|-----------|-----------|---|
| 2 | -14713.428 | 29484.856 | 29677.923 | 29585.769 | 795(13.8), 4958(86.2) |
| 3 | -14229.108 | 28546.216 | 28839.145 | 28699.326 | 265(4.6), 1116(19.4), 4371(76.0) |
| 4 | -14122.71 | 28363.42 | 28756.211 | 28568.726 | 255(4.4), 297(5.1), 4358(75.8), 841(14.6) |
| 5 | -14019.872 | 28187.744 | 28680.397 | 28445.247 | 4502(78.3), 742(12.9), 181(3.1), 24(0.4), 304(5.3) |
| 6 | -13947.489 | 28072.979 | 28665.494 | 28382.678 | 22(0.4), 281(4.9), 233(4.1), 4413(76.7), 489(8.5), 312(5.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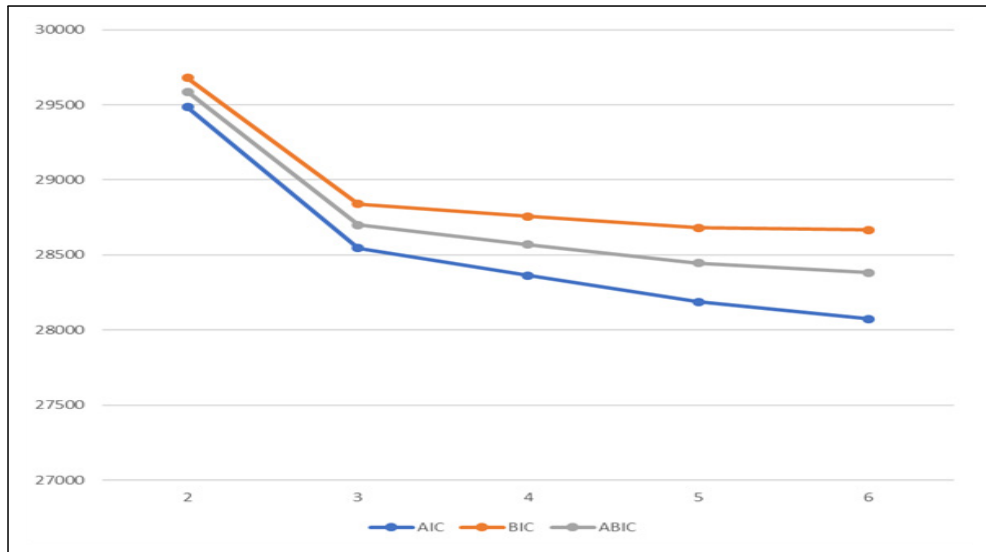
Entropy 값은 1에 가까울수록 잠재집단 분류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통상 0.8 이상일 때 적절한 집단 분류로 간주되는데, 2개집단부터 6개집단까지 모두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LRT-BLT 검증 유의도는 잠재집단의 수가 이전 개수에서 증가하는 것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값으로 유의도가 0.05 이상인 경우, 이전 분류 대비 유의한 분류로 판단한다. LRT-BLT 값은 2개집단, 3개집단, 5개집단에서 0.001 수준에서, 4개 집단의 경우 0.0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표 6-17〉 물질적 결핍 세부항목에 따른 잠재집단 분류를 위한 검증결과

| 집단수 | Entropy | LRT | BLT |
|-----|---------|----------|----------|
| 2 | 0.916 | p=0.0000 | p=0.0000 |
| 3 | 0.852 | p=0.0000 | p=0.0000 |
| 4 | 0.854 | p=0.0220 | p=0.0000 |
| 5 | 0.862 | p=0.0007 | p=0.0000 |
| 6 | 0.872 | p=0.2315 | p=0.0000 |

적절한 잠재집단의 모형을 선택하기 위하여 적합도 지수를 활용한 스크리도표를 확인해 보았다. 2개집단과 3개집단 사이에서 적합도 지수의 급격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 3개집단부터는 모형 간의 격차가 완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적합도 지수의 감소폭이 줄어드는 3개집단 모형은 LMR-LRT 값이 유의하며, Entropy 값도 적절한 수준이었고, 3개 집단별 구성원의 비율 또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3개 집단 모형을 채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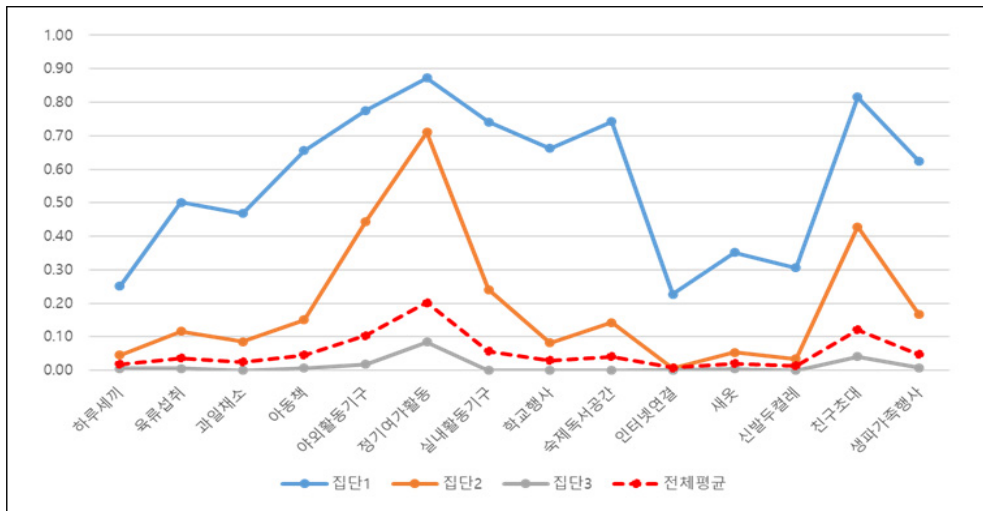
[그림 6-4] 잠재집단 수별 AIC, BIC, ABIC 값의 스크리도표



3개 집단별 아동의 세부항목별 결핍 양상은 다음 그림과 같다. 각 집단별로 물질적 결핍의 세부항목별 패턴을 살펴보면 집단1의 경우 모든 세부항목에서 결핍수준이 가장 높아 ‘결핍수준최고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이들은 정기여가활동, 친구초대, 아동책,

숙제독서공간 등이 0.60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결핍점수가 가장 낮은 인터넷 연결, 하루세끼의 항목에서도 집단2의 5배 이상, 집단 1의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집단2의 경우 정기여가활동(0.7점)이 높게 나타났고, 야외활동기구 및 친구초대 등의 항목에서 0.4점 이상으로 비교적 낮지 않은 점수를 보였다. 집단2의 세부항목별 점수는 전반적으로 전체 평균을 상회하였으나, 결핍수준최고집단(집단1) 보다는 낮은 특성을 보여, ‘여가-관계 중심 결핍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집단3의 경우 전반적으로 결핍경험이 거의 없는 아동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여가활동과 친구초대 항목에 한하여 평균 0.1점 미만의 결핍수준을 보여, ‘결핍수준최저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그림 6-5] 잠재집단별 아동의 물질적 결핍 양상



집단별 아동의 물질적 결핍 수준을 살펴보면, 결핍수준 최고집단(집단1)은 146명의 아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물질적 결핍 총점은 평균 8.0점에 달하였고, 이들의 전수(100.0%)가 14개 물질적 결핍 세부항목 중 2개 이상 결핍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관계중심 결핍집단(집단2)은 901명으로 구성되어, 물질적 결핍 평균은 2.7점이었으며, 2개 이상 결핍경험이 있는 비율은 96.0%에 달하였다. 결핍수준 최저집단(집단3)은 4,70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핍 총점은 평균 0.2점이었고, 2개 이상 결핍을 경험한 비율은 전무(0.0%)하였다.

〈표 6-18〉 잠재집단별 아동의 물질적 결핍 수준

(단위: %)

| 집단구분 | 평균 | 표준편차 | 2개 이상 결핍비율 | 사례수 |
|-------------------|-----|------|------------|------|
| 결핍수준 최고집단(집단1) | 8.0 | 2.4 | 100.0 | 146 |
| 여가-관계중심 결핍집단(집단2) | 2.7 | 1.0 | 96.2 | 901 |
| 결핍수준 최저집단(집단3) | 0.2 | 0.4 | 0.0 | 4706 |
| 전체 | 0.8 | 1.6 | 17.6 | 5753 |

2) 세부항목별 결핍여부에 따른 잠재집단별 특성

물질적 결핍의 잠재집단별로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았다. 결핍수준 최고집단(집단 1)은 남아의 비율이 여아보다 다소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12-17세 아동의 비율(67.6%)이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수급가구의 비율(22.6%), 가구소득수준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가구의 비중(26.2%)이 비교적 높은 경향을 보였다. 지역적으로는 중소도시(46.9%), 대도시(42.8%), 농어촌(10.3%)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집단과 비교할 때, 농어촌의 비중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가구유형의 경우 한부모조손가구가 양부모가구의 2분의 1 수준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맞벌이 여부에서 기타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중이 15.1%이었다.

여가-관계중심 결핍집단(집단2)의 경우,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아동의 연령별로는 12-17세(54.0%)가 가장 많았다. 국기초 수급가구의 비율은 7.0%이었으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은 13.2%로 나타나, 결핍수준 최고집단보다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구의 비중이 다소 낮으나 결핍수준 최저집단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대도시(53.8%)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한부모조손 가구는 양부모가구의 6분의 1 이하 수준이었다.

결핍수준 최저집단(집단3)에서는 남아의 비율이 여아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12-17세의 비율(36.5%)이 가장 높았으나, 6-8세(20.1%), 9-11세(18.6%), 3-5세(15.7%) 등 다른 연령대의 비율도 고르게 분포하였다. 다른 집단과 비교할 때, 수급가구의 비율(2.0%)이 매우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중위소득 50%미만인 가구의 비율(9.7%) 또한 가장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지역별로는 집단들 중 농어촌의 비율(5.2%)이 가장 낮았으며, 한부모조손가구의 비율은 7.2%에 그쳤다. 이와 같은 집단별 특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였다.

〈표 6-19〉 물질적 결핍 잠재집단별 특성

(단위: %, 명)

| 구분 | | 집단1 | 집단2 | 집단3 | 사례수 | X2 |
|-----------|------------------|-------|-------|-------|------|------------|
| 아동 성별 | 남자 | 50.7 | 47.1 | 52.3 | 2958 | 8.265* |
| | 여자 | 49.3 | 52.9 | 47.7 | 2795 | |
| | 소계 | 100.0 | 100.0 | 100.0 | 5753 | |
| 아동 연령 | 0-2세 | 7.6 | 10.9 | 9.2 | 543 | 176.540*** |
| | 3-5세 | 4.1 | 9.5 | 15.7 | 829 | |
| | 6-8세 | 8.3 | 10.0 | 20.1 | 1046 | |
| | 9-11세 | 12.4 | 15.6 | 18.6 | 1034 | |
| | 12-17세 | 67.6 | 54.0 | 36.5 | 2300 | |
| | 소계 | 100.0 | 100.0 | 100.0 | 5753 | |
| 표본 | 일반 | 77.4 | 93.0 | 98.0 | 5563 | 233.803*** |
| | 수급 | 22.6 | 7.0 | 2.0 | 190 | |
| | 소계 | 100.0 | 100.0 | 100.0 | 5753 | |
| 소득 수준 | 중위소득 50% 미만 | 26.2 | 13.2 | 9.7 | 614 | 109.409*** |
| | 중위소득 50~100% 미만 | 37.9 | 36.3 | 31.4 | 1859 | |
| | 중위소득 100~150% 미만 | 24.1 | 31.5 | 30.0 | 1729 | |
| | 중위소득 150% 이상 | 9.7 | 17.8 | 28.4 | 1510 | |
| | 무응답 | 2.1 | 1.2 | 0.5 | 39 | |
| | 소계 | 100.0 | 100.0 | 100.0 | 5753 | |
| 지역 | 대도시 | 42.8 | 53.8 | 45.8 | 2701 | 33.519*** |
| | 중소도시 | 46.9 | 39.6 | 49.0 | 2731 | |
| | 농어촌 | 10.3 | 6.5 | 5.2 | 320 | |
| | 소계 | 100.0 | 100.0 | 100.0 | 5753 | |
| 가구 유형 | 양부모 | 65.8 | 84.9 | 92.8 | 5229 | 170.624*** |
| | 한부모, 조손 | 34.2 | 15.1 | 7.2 | 525 | |
| | 소계 | 100.0 | 100.0 | 100.0 | 5753 | |
| 맞벌이 여부 | 맞벌이 | 40.4 | 45.2 | 48.2 | 2732 | 96.454*** |
| | 외벌이 | 44.5 | 49.9 | 49.6 | 2851 | |
| | 기타 | 15.1 | 4.9 | 2.2 | 170 | |
| | 소계 | 100.0 | 100.0 | 100.0 | 5753 | |

주: *** p<.001, ** p<.01, *p<.05

다. 물질적 결핍 잠재집단별 영향요인 분석 결과

아동의 물질적 결핍 잠재집단 중 결핍수준 최저집단을 기준으로 하여 결핍수준 최고 집단과 여가-관계 중심 결핍집단에 포함될 확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먼저, 결핍수준 최저집단을 기준으로 결핍수준 최고집단에 포함되는 데에 유의한 변수로는 아동연령, 아동의 주관적 건강, 부모의 사회적 지원, 가구주 학력, 가구원 수, 가구유형, 국기초 수급여부, 주택점유형태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연령이 1세 증가할수록 아동이 결핍수준 최고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약 8.4% 증가하며,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아동이 결핍수준 최고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약 43.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주 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 아동의 결핍수준 최고집단에 속할 위험이 2.2배 더 높게 나타났으며(OR=2.211, $p < .001$), 가구유형이 한부모조손가정인 경우 결핍위험은 약 2.3배 더 높았고(OR=0.428, $p < .01$), 수급가구의 아동은 일반가구 아동에 비해 결핍수준 최고집단에 속할 위험이 약 3.2배 높았다(OR=0.312, $p < .001$). 반면,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부모에게 사회적 지원이 많을수록, 거주지역 생활환경 총점이 높을수록, 아동이 결핍수준 최고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표 6-20〉 결핍수준 최고집단과 최저집단간 영향요인에 대한 다항 로지스틱 모형(기준집단=결핍수준 최저집단)

| Model | OR | Std. Err. | z | P>z |
|---------------------|-------|-----------|--------|------|
| 절편 | | .86 | .131 | .717 |
| 아동연령 | 1.084 | .022 | 13.935 | .000 |
| 아동주관적건강 | .759 | .133 | 4.342 | .037 |
| 사회적지원 | .894 | .032 | 11.926 | .001 |
| 가구가처분소득 | .999 | .001 | 2.477 | .116 |
| 거주지역생활환경총점 | .832 | .037 | 24.900 | .000 |
| 가구원수 | 1.433 | .090 | 15.813 | .000 |
| 아동성별(기준=남자) | 1.145 | .180 | .562 | .453 |
| 가구주 학력(기준=고졸이하) | 2.211 | .197 | 16.296 | .000 |
| 가구주 성별(기준=여성) | .733 | .321 | .938 | .333 |
| 가구주 경제활동상태 (기준=경활중) | .668 | .295 | 1.869 | .172 |
| 가구유형(기준=양부모가구) | .428 | .318 | 7.126 | .008 |
| 국기초수급여부(기준=일반) | .312 | .285 | 16.725 | .000 |
| 지역규모(기준=농어촌) | .671 | .315 | 1.606 | .205 |
| 지역규모(기준=중소도시) | .935 | .190 | .126 | .722 |
| 주택점유형태(기준=월세아님) | .533 | .232 | 7.398 | .007 |
| 주택점유형태(기준=전세아님) | 1.517 | .311 | 1.792 | .181 |

주: 최종모형의 Log likelihood = 5642.583, Nagelkerke R^2 = .146

다음으로는 결핍수준 최저집단을 기준으로 여가-관계중심 결핍집단에 속할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아동연령, 아동성별, 아동의 주관적 건강, 가구주 학력 및 성별, 가구원 수, 가구소득, 국기초 수급여부, 지역규모(중소도시), 주택점유형태 등이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연령이 1세 증가할수록 아동이 여가-관계중심 결핍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약 6.3% 증가하며, 남아일수록 여가-관계중심 결핍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약 25.8% 더 높았다.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가구주 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 아동의 여가-관계중심 결핍집단에 속할 위험이 각각 11.5%, 38.3% 더 높았다. 국기초 수급가구는 일반가구 대비 여가-관계중심 결핍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약 39.1%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OR=0.609, $p<.05$).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여가-관계중심 결핍집단에 속할 위험이 약 1.4배 높았으며(OR=1.431, $p<.001$), 주택점유형태가 전세 이상인 경우, 월세 이하에 비해, 그리고 자가인 경우, 전세 이하에 비해, 여가-관계중심 결핍집단에 속할 위험이 각각 약 39.9% (OR=0.601, $p<.001$), 33.9% (OR=0.661, $p<.001$) 낮게 나타났다.

반면,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거주지역 생활환경 총점이 높을수록, 가구주가 여성일수록, 여가-관계중심 결핍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표 6-21〉 여가-관계 중심 결핍집단과 결핍수준 최저집단 간 영향요인에 대한 다항 로지스틱 모형(기준 집단=결핍수준 최저집단)

| | OR | Std. Err. | z | P>z |
|--------------------|-------|-----------|--------|------|
| 절편 | | .432 | 3.895 | .048 |
| 아동연령 | 1.063 | .008 | 52.945 | .000 |
| 아동주관적건강 | .773 | .060 | 18.389 | .000 |
| 사회적지원 | .977 | .013 | 2.996 | .083 |
| 가구가처분소득 | .999 | .000 | 12.994 | .000 |
| 거주지역생활환경 총점 | .870 | .018 | 62.636 | .000 |
| 가구원수 | 1.115 | .047 | 5.427 | .020 |
| 아동성별(기준=남자) | 1.258 | .076 | 9.063 | .003 |
| 가구주 학력(기준=고졸이하) | 1.383 | .084 | 14.785 | .000 |
| 가구주 성별 | .712 | .165 | 4.229 | .040 |

| | OR | Std. Err. | z | P>z |
|------------------------|-------|-----------|--------|------|
| (기준=여성) | | | | |
| 가구주 경제활동상태 (기준=경활중) | .759 | .173 | 2.541 | .111 |
| 가구유형 (기준=양부모가구) | .999 | .175 | .000 | .997 |
| 국기초수급여부 (기준=일반) | .609 | .192 | 6.661 | .010 |
| 지역규모 (기준=농어촌) | 1.153 | .162 | .779 | .377 |
| 지역규모 (기준=중소도시) | 1.431 | .079 | 20.426 | .000 |
| 주택점유형태 (기준=월세아님) | .601 | .113 | 20.115 | .000 |
| 주택점유형태 (기준=전세아님) | .661 | .095 | 18.929 | .000 |

주: 최종모형의 Log likelihood = 5642.583, Nagelkerke R²=.146

제4절 소결(정책적 함의)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아동의 물질적 결핍지수 또한 개선되어 왔으나, 여전히 저소득 및 취약계층 아동의 결핍의 문제는 지적되고 있다. 아동의 물질적 결핍 특성 분석 결과는 한국의 경우, 여가 및 사회적 관계와 참여 영역에서의 결핍 수준이 가장 높았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점검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물질적 결핍의 잠재계층 분석 결과 대다수의 아동은 결핍경험이 거의 없는 집단에 속하나, 소수의 아동이 심각한 결핍을 경험하는 집단으로 분류되었다는 점은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되어 왔던 정책의 한계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앞서 수행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구주의 학력이 낮거나, 국기초 수급가구 및 저소득가구, 한부모조손가구, 월세 등 주거상황이 열악한 가구, 가구원수가 많거나,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물질적 결핍수준이 높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시사한다.

첫째, 아동의 연령과 건강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물질적 결핍의 수준이 증가한다는 결과는 아동가구에서 아동이 성장하면서 발생하는 욕구에 대해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만성질환이나 질병이 있는 아동과 더불어 중고등학교에 진입한 아동을 대상으로 여가영역과 사회적 관계 및 참여 영역에서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구 구성 특성에 따른 체계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한부모조손가구인 경우 결핍 수준 최고 집단에 속할 위험이 약 2.3배나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결핍 수준 최고집단에 속할 위험이 약 43.3% 증가하였다. 이는 국외의 연구 결과(Nelson, 2012)와도 일관된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정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아동양육비, 교육지원비 등의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을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가구원 수에 따른 지원이 보다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현행 저소득한부모가구 지원대상은 가구 내 거주하는 자녀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자녀의 수가 2인 이상인 경우 가장 어린 자녀의 결핍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녀의 연령 기준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정을 대상으로 양육과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가구 내 아동을 대상으로는 식사, 반찬 및 과일제공서비스, 여가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여, 결핍의 영역별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도 아동에게 필요한 자원이 개별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아동 개인중심으로 지급되는 여가, 사회적 관계 및 참여, 교육 영역의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앞선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분석대상변수 중 결핍수준 최고집단에 속할 위험을 가장 크게 높이는 변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여부(약 3.2배 위험)이었다. 이들은 이미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제공되고 있으나, 이러한 급여가 아동의 물질적 결핍에 얼마나 대응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들 가구의 복합적인 취약요인을 반영하되, 특히 여가 영역에서 아동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사회적 관계 및 참여 영역에서의 아동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가구주의 학력이 고졸이하이거나, 주택점유형태가 월세인 가구에 속한 아동이 물질적 결핍 위험이 높았다는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관된다(김은주, 2015; 류정희, 2020). 이들 가구에서는 가구

내 경제적 자원의 부족하기 쉽다. 국기초 수급가구와 저소득가구 중심의 지원을 넘어서, 이들 가구 내 아동의 결핍을 진단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부모의 사회적 지지체계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사회적 지원 수준이 낮은 경우 결핍 최고 집단에 속할 위험이 유의하게 높아졌다. 사회적 지지체계는 가구의 사적 이전을 통한 물질적 자원의 확충 뿐 아니라 정서적 지지체계로 작용할 수 있으며, 사회적 관계와 참여 영역에서의 아동의 결핍을 완화할 수 있다. 부모를 대상으로 지역 사회의 자조모임, 상담 및 지역사회 조직 프로그램 등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거주지역의 생활환경 특성은 지역사회 내에 문화체육, 사회복지, 의료 및 교육, 여가 등의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측정한 변수로, 이러한 시설의 접근성이 높을수록 아동의 물질적 결핍이 높은 집단에 속할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이 이와 같은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여가, 문화체육 및 복지 등의 시설을 확충하여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전반적으로 여가와 사회적 관계 및 참여 영역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결핍수준 최저집단에서도 여가영역과 사회적 관계참여 영역의 일부 항목에서는 결핍하는 비율이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만으로는 해소되기 어려운 결핍이 존재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교육, 여가, 사회적 관계참여 영역에서 결핍이 증척되는 아동에게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자원, 방과후 활동, 또래관계 형성을 위한 기회 지원, 여가 및 체육활동에 대한 기회 지원 등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일곱째, 지원대상아동의 물질적 결핍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일반 아동의 경우 물질적 결핍 총점은 0.7점, 수급가구 아동은 2.6점이었으나, 민소영 외(2023)의 분석 결과 아동보호통합패널의 지원대상아동의 결핍 총점은 평균 3.3점, 수급가구 아동은 4.2점으로 나타났다. 물론 아동보호통합패널의 물질적 결핍 척도에는 아동종합실태조사의 14개 세부문항 외에 ‘인스턴트 식품 섭취’ 문항이 추가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이들의 물질적 결핍 수준이 다소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이들의 물질적 결핍의 영역별 수준과 증척성 등을 검토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정교한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제7장

아동 권리와 참여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선행연구 분석

제3절 통계분석 방법 및 결과

제4절 소결(정책적 함의)

제 7 장 아동 권리와 참여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현대 사회에서 아동의 행복은 단순히 개인의 삶의 질을 넘어, 사회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지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 보장과 삶의 만족도 향상은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국제사회가 각국에 요구하는 기본 책무이기도 하다.

이를 뒷받침하는 국제 규범인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능동적 권리 주체로 규정하며, 국가가 이들의 권리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 제7조는 “놀이와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가질 권리”를, 제12조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와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그 의견에 적절한 비중을 부여받을 권리”를, 제31조는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 문화 및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은 이러한 권리들이 단순한 복지 영역이 아닌 보호(Protection), 참여(Participation), 제공(Provision)이라는 아동권리의 핵심 원칙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보며, 많은 선진국은 이를 국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Lester & Russell, 2010).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학업 중심의 교육 체계, 과도한 사교육, 디지털 미디어 과사용, 사회적으로 낮은 인식 등은 아동의 권리, 여가, 참여권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에 비해 아동이 주체적으로 행사해야 할 참여권은 가장 많이 배제되고 있으며(강미경, 곽지영, 2017),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실질적 참여 기회 부족은 아동의 권리 실현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한계는 국제적으로도 지적받고 있다. 제5·6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심의에서는 한국 정부에 대해 “아동 발달을 위한 핵심 요소로서 휴식, 여가 및 놀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모든 아동이 스포츠를 포함한 여가와 놀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시설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아직 이행 수준은 미흡한 상황이다(민소영 외, 2023).

아동의 권리 보장과 참여 경험이 아동의 행복과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다양한 국내외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험은 정서적 안정, 자기효능감, 주관적 웰빙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미경, 곽지영, 2017; 강혜영, 박재준, 정익중, 2022; 박재숙, 2011; 유영준, 2016; 황여정, 2021). 특히 아동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때, 전인적 발달로 이어진다는 점도 강조된다. Lundy(2007)는 아동의 견해는 ‘적절히 경청되고 반영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며, 그것이 권리 보장의 실질성을 결정짓는 기준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더불어 2000년대 이후 확산된 긍정심리학은 여가활동이 아동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Lyubomirsky, Sheldon & Schkade (2005)는 행복의 결정요인을 유전적 요인(50%), 환경적 요인(10%), 의도적 활동(40%)으로 구분하고, 이 중 ‘의도적 활동’을 “자신의 가치와 관심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놀이와 여가 활동이 아동의 주관적 행복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기제임을 의미한다. 국내 연구들 또한 이러한 경향을 지지하며, 청소년의 여가활동이 정서 안정과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소난영, 박성희, 2019; 김영한, 이유진, 2021; 이유진, 김보람, 2021; 이진혁, 송인한, 2021; 신성희, 이선우, 2024).

그런데도 아동 권리 보장과 여가활동, 참여 경험이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다차원적 실증 분석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동의 권리 보장, 여가 및 놀이 활동, 참여 경험이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아동의 주체적인 삶과 자율성이 정서적 웰빙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는지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구조적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아동의 권리와 행복을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국가 정책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아동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아동의 권리 보장 수준, 여가활동 및 참여경험이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행복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동이 스스로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구조적 환경 조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아동정책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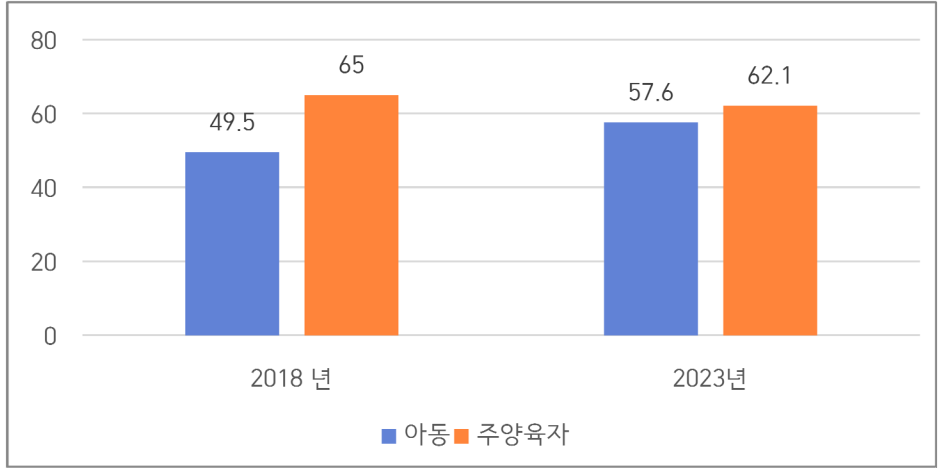
제2절 선행연구 분석

1. 아동권리, 참여경험 및 여가활동 실태

가. 아동종합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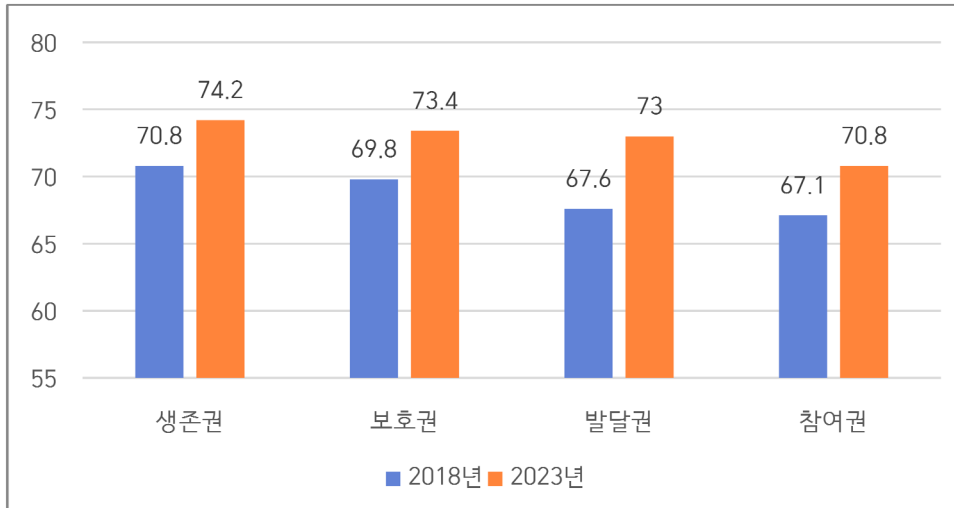
2023년도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아동(9-17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알고 있는 아동의 비율은 전체의 57.6%로 증가하였으며, 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4대 주요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 대한 인지도 역시 2018년에 비해 상승했다. 그러나 주양육자의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지도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주양육자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 교육 및 인식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림 7-1]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도



출처: “2023아동종합실태조사”, 이상정 외, 2023, p. 381(표 8-35) 재구성하여 작성함

[그림 7-2] 아동 4대 권리 인지도



출처: “2023아동종합실태조사”, 이상정 외, 2023, p. 384(표 8-36) 재구성하여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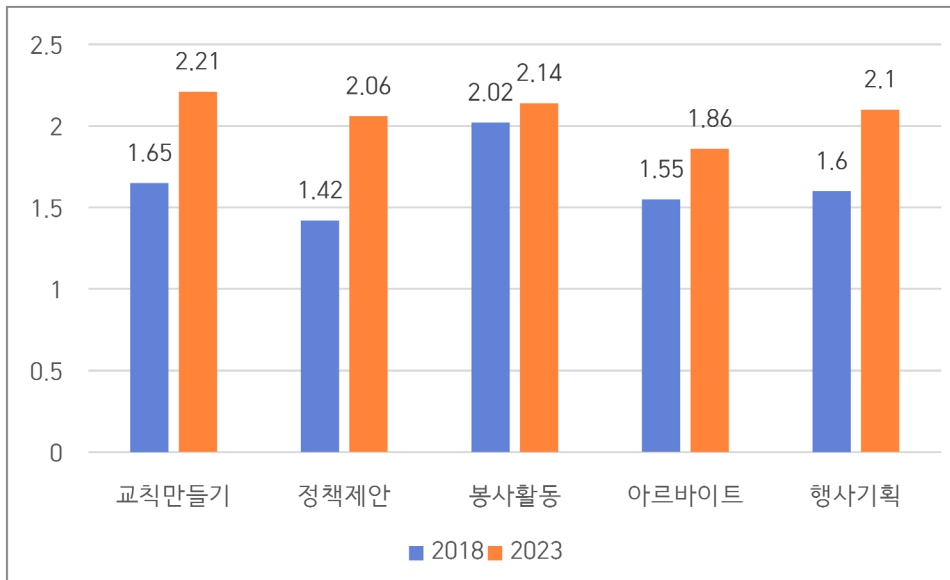
아동권리 보장 수준은 다음과 같다. 아동이 가정, 학교, 현재 살고있는 지역, 사회, 인터넷이나 사이버 공간에서 권리가 존중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가정에서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에서 96.1%, 지역에서 93.4%,

사회에서 87.4%, 인터넷이나 사이버 공간에서 72.2%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권리보장원의 2022년 ‘아동권리 인식조사’ 및 한국청소년연구원의 ‘202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 아동참여의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문제에 의견이나 소감 또는 견해를 밝히는 것에 참여한다’라는 응답이 3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아동·청소년의 능력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활동에 참여’(35.2%), ‘아동·청소년끼리 여가문화 행사를 직접 기획하거나 실행’(34.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 정책이나 수립과정에 참여 또는 의견을 제시’(28.8%),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 참여가 필요’(23.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 조사결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 정책이나 수립과정에 참여 또는 의견을 제시함이 2.06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의 1.42점에 비하면 상승하였으나 실제 아동이 참여하는 정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림 7-3] 아동의 참여경험 정도



출처: “2023아동종합실태조사”, 이상정 외, 2023, pp. 407<표 8-59> 재구성하여 작성함

마지막으로 아동의 여가활동 실태는 다음과 같다. 평일 학교에 있는 시간 외, 5시간 이상 보내는 활동으로는 학원 혹은 과외가 49.5%로 가장 많았으며, 혼자 공부하는 시간(44.7%), 식사 및 간식(41.9%), TV/동영상 보는 시간(4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말에 5시간 이상 시간을 보내는 활동으로는 TV/동영상 보는 시간이 28%로 가장 많았으며, 혼자 공부하는 시간(20%)과 집 밖에서 친구와 놀거나 보내는 시간(20%), 게임하는 시간(18.9%)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동은 여가시간 동안 스마트폰, 컴퓨터 등 새로운 전자기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 반면, 전통적인 매체인 TV 시청과 책 읽기는 감소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컴퓨터 등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모두 이용이 증가한 반면, TV 시청은 전 연령대에서 이용이 감소하였다.

또한, 아동(9-17세)의 방과 후 실제활동과 희망활동 응답률을 살펴본 결과, 방과 후 시간에 친구들과 놀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42.9%로 높지만, 실제로 친구들과 노는 비율은 18.6%에 불과하였다. 반면, 학원·과외(희망 25.2% vs 실제 54.0%)나 집에서 숙제하기(희망 18.4% vs 실제 35.2%)와 같이 원하지 않는 활동을 실제로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놀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7-1〉 방과 후 희망활동

(단위: %)

| 구분 | | 2018 | | | 2023 | | |
|-------------------------|-----------|------|------|-------|------|------|-------|
| | | 실제 | 희망 | 차이 | 실제 | 희망 | 차이 |
| 집에서 쉬기 | 스마트폰 사용하기 | 39.1 | 40.5 | △1.4 | 44.5 | 44.9 | △0.4 |
| | TV 시청 | 23.0 | 27.4 | △4.4 | 12.2 | 13.7 | △1.5 |
| | 컴퓨터 게임하기 | 17.0 | 22.9 | △5.9 | 12.8 | 22.7 | △9.9 |
| 집에서 숙제하기 | | 31.2 | 20.1 | 11.1 | 35.2 | 18.4 | 16.8 |
| 친구들과 놀기 (놀이터, PC방 등) | | 13.8 | 32.7 | △18.9 | 18.6 | 42.9 | △24.3 |
| 방과후 자율학습 또는 학교 참여 | | 13.1 | 11.6 | 1.5 | 9.5 | 6.7 | 2.8 |
| 학원이나 과외 | | 57.6 | 29.7 | 27.9 | 54.0 | 25.2 | 28.8 |
| 방과후 돌봄기관, 청소년시설 | | 1.6 | 2.5 | △0.9 | 3.8 | 2.2 | 1.6 |
| 신체활동 또는 운동하기 | | 2.6 | 11.5 | △8.9 | 7.5 | 19.7 | △12.2 |

출처: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이상정 외, 2023, p. 354(표 8-15) 재구성하여 작성함

나. 타 조사에서의 아동권리, 참여경험 및 여가활동

아동권리, 참여경험, 여가활동과 관련된 주요 조사로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종합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등이 있다.

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의 삶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되는 국가 단위 조사(국가승인통계, 제154013호)이다. 이 조사는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보장을 목표로 청소년의 성장환경, 행동양식, 인식 및 가치관 등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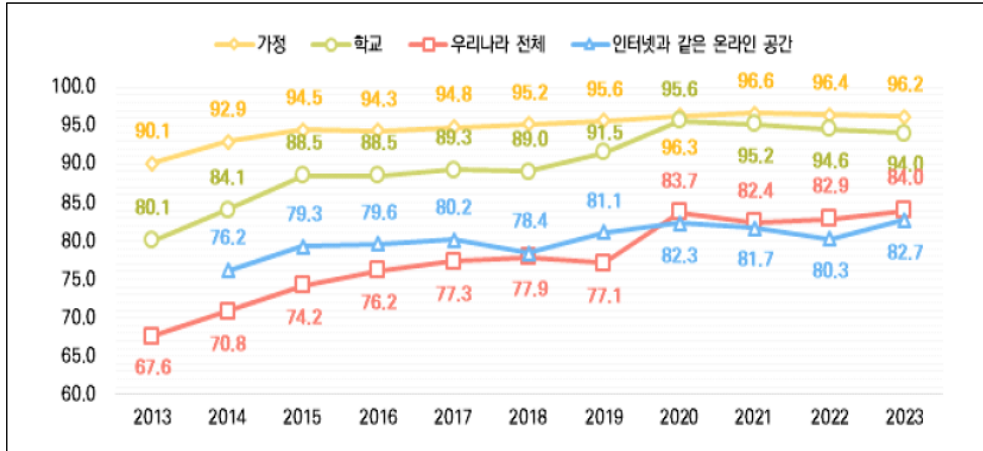
조사 결과 중 ‘청소년이 가족, 친구, 학교, 사회로부터 존중받는다고 인식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가족(96.3%), 친구(94.7%), 학교(83.2%), 사회(71.5%)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3년 조사에서는 2020년 대비 모든 항목에서 감소가 확인되었으며, 특히 사회로부터 존중받는다는 인식 비율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김지경 외, 2023).

2)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는 2006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조사(제402001호)이다. 아동·청소년의 인권 실태와 변화 추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사를 통해 아동들이 자신의 권리가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정도를 살펴본 결과, 가정(96.2%), 학교(94.0%), 우리나라 전체(84.0%), 온라인 공간(82.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7-4] 우리사회가 아동청소년 인권을 존중해주는 정도



출처: 유민상, 이경상(2023).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러한 경향은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와도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가정과 학교의 경우 아동들이 자신의 권리가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최근 미세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우리나라 전체와 온라인 공간의 경우 최근 감소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여성가족부의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는 일부 다른 경향을 나타낸다.

2. 아동권리 및 참여, 여가활동이 아동의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요인

아동의 권리, 참여 경험, 여가활동이 아동의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가. 아동권리 및 참여경험과 행복도와의 관계

아동의 4대 권리(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가 높을수록 아동의 긍정적 발달수준(신체 및 인지, 심리사회적 발달, 주관적 웰빙)은 증가하고 부정적 발달수준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봉주, 장희선, 2019).

아동의 참여 경험은 자기효능감과 자기표현능력을 향상시키며, 아동의 행복과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강혜영, 박재준, 정익중, 2022; 박재숙, 2011; 유영준, 2016; 황여정, 2021). 아동의 의사결정 참여유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아동의 성별, 학년, 성적, 거주지역 규모로 나타났다(안재진, 2022)

이처럼 다수 선행 연구에서 아동권리와 참여 경험의 수준을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의 차원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차원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가족(부모)으로부터 청소년이 존중받는다고 인식하는 경우, 높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보였다. 또한 긍정 정서는 높고 부정 정서는 낮게 나타났으며, 회복탄력성, 자존감, 대인관계 역량도 모두 높게 나타났다(김지경 외, 2023).

학교 내 참여경험이 아동과 청소년의 학교 적응, 행복감, 그리고 학교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김젤나, 이재연, 2007; 박재숙, 2010).

지역사회 내 봉사활동과 같은 사회적 참여를 통해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김지혜, 2012).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참여권 보장은 부모-자녀관계, 학교생활만족도, 삶의 만족도, 행복도 등 아동의 주관적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강미경, 광지영, 2017).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표 7-2>와 같다.

<표 7-2> 아동권리 및 참여경험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 구분 | 미치는 영향 | 선행연구 |
|----------|--|---|
| 4대 권리 보장 | • 신체 및 인지, 심리사회적 발달, 주관적 웰빙 | 이봉주, 장희선(2019) |
| - 가정에서 | • 회복탄력성, 자존감, 대인관계 역량 • 삶의 만족도, 행복도 | 김지경 외(2023) |
| - 학교에서 | • 학교 적응, 학교생활만족도 • 행복도 | 김젤나, 이재연(2007) |
| - 지역사회에서 | • 부모 자녀 관계 • 학교생활만족도 • 삶의 만족도, 행복도 | 강미경, 광지영(2017) |
| 참여 경험 | • 자기효능감, 자기표현능력 • 삶의 만족도, 행복도 | 강혜영 외(2022), 박재숙(2011), 유영준(2016), 황여정(2021), 안재진(2022) |

나. 아동 여가활동과 행복도와의 관계

아동·청소년의 여가활동이 행복감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는 사실이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입증되어 왔다(소난영, 박성희, 2019; 김영한, 이유진, 2021; 이유진, 김보람, 2021; 이진혁, 송인환, 2021; 신성희, 이선우, 2024). 이에 따라, 놀이와 여가활동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은 아동의 행복과 직결되며, 이를 위해 놀이 및 여가활동에 필요한 시간, 공간, 환경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아동의 행복 증진을 위한 주요 변수로 놀이와 여가 시간의 중요성을 다룬 연구에서, 정익중 외(2019)는 놀이와 여가 시간이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주관적 웰빙(행복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였다.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중학교 1학년 패널, 2,590명)를 대상으로 2018~2021년의 자료를 활용해 혼합모델로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서 시간, 친구와의 놀이 시간, 운동 및 신체 활동, 교외 동아리 활동은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교내 동아리 활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성희, 이선우, 2024).

또한 놀이와 여가활동은 적극적 활동과 소극적 활동으로 구분되며, 연구에 따르면 적극적 여가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더 높은 행복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운동, 악기 연주, 연극 및 영화 관람과 같은 적극적 여가활동은 높은 행복감을 제공하는 반면, TV 시청이나 독서와 같은 소극적 여가활동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행복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성희, 이선우, 2024).

독서 시간은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진혁, 송인환, 2021; 신성희, 이선우, 2024). 운동 및 신체활동은 주관적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서성익, 김근국, 2022; 신성희, 이선우, 2024). 친구와의 놀이 시간은 주관적 행복감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김영한, 이유진, 2021; 신성희, 이선우, 2024). 교외 동아리 활동 시간이 길수록 주관적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성희, 이선우, 2024).

놀이 및 여가활동 친화 환경 조성이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행복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조성 중인 놀이 친화적 환경이 아동의 실제 욕구와 괴리감을 보이고 있거나, 놀이 환경 자체가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

인이 아닐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놀 시간, 비용, 친구 부족 등의 이유로 놀이 환경에 대한 접근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었다(김영한, 이유진, 2021).

놀이 및 여가활동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경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놀이 및 여가활동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인 인식과 주변의 높은 지지도를 받는 집단일수록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행복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인식과 지지도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김영한, 이유진, 2021).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표 7-3>과 같다.

<표 7-3> 놀이 및 여가활동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 영향요인 | 미치는 영향 | 선행연구 |
|---------------------|----------------------------|--|
| 놀이 및 여가활동 | • 행복감 | 소난영, 박성희(2019). 김영한, 이유진(2021). 이유진, 김보람(2021) 등 |
| 활동시간 | • 정서적 안정 • 주관적 웰빙(행복감) | 정익중 외(2019) |
| 활동내용(독서) | • 삶의 만족도 • 주관적 행복감 | 이진혁, 송인환(2021) 신성희, 이선우(2024) |
| 활동내용 (운동 및 신체활동) | • 주관적 행복감 | 서성익, 김근국(2022) 신성희, 이선우(2024) |
| 활동내용 (친구와 놀이) | • 주관적 행복감 | 김영한, 이유진(2021) 신성희, 이선우(2024) |
| 친화환경 조성 | •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김영한, 이유진(2021) |

3. 선행연구 분석 결과

선행연구 분석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아동종합실태조사, 아동청소년인권 실태조사,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동의 권리 인식 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주요 권리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 수준에는 격차가 존재한다.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는 아동의 권리 인지도가 증가했으며, 특히 유엔 아동권리협약(UNCRC)에 대한 인지도는 2018년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양육자의 권리 인지도는 소폭 감소하여,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권리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아동의 참여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아동이 의견을 제시하는 비율이

28.8%에 불과하며, 이는 실제 정책 참여 수준이 매우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아동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의 여가시간 대부분이 학업(학원, 과외)과 혼자 하는 활동(공부, TV/동영상 시청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친구들과의 놀이 및 사회적 활동 참여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아동들은 방과 후 친구들과 놀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학원·과외 등 원하지 않는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아동의 놀이권 보장이 충분하지 않음을 시사하며, 보다 균형 잡힌 여가 활동을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아동권리 및 참여 경험이 아동의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아동권리 보장 수준과 참여 경험이 아동의 긍정적 발달 및 주관적 웰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 특히, 자기효능감과 자기표현능력은 아동의 행복과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며, 아동의 의사결정 참여 유형 역시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관계를 보였다. 가정에서는 부모로부터 존중받는다고 인식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고, 긍정 정서가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으며, 학교에서는 교사 및 친구들과의 긍정적 관계가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에서의 봉사활동 및 사회적 참여는 아동의 사회적 소속감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주로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참여 경험이 웰빙에 미치는 개별적 영향을 분석하는 데 집중했으며, 이들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아동 여가활동과 행복감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는 놀이와 여가활동이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주관적 웰빙(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 특히, 적극적 여가활동(운동, 악기 연주, 연극 및 영화 관람 등)이 아동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반면, 소극적 여가활동(TV 시청, 독서 등)의 행복감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여가활동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독서 시간, 운동 및 신체활동, 교외 동아리 활동은 행복감과 주관적 웰빙을 증진시키는 보호요인으로 확인된 반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의 증가와 교내 동아리 활동은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놀이 및 여가활동 친화 환경이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어, 여가활동의 질적 수준과 실질적인 접근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상의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아동권리 보장, 참여 경험, 여가활동이 아동의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적 개입 방안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제3절 통계분석 방법 및 결과

1. 연구방법

가. 연구모형과 분석 방법

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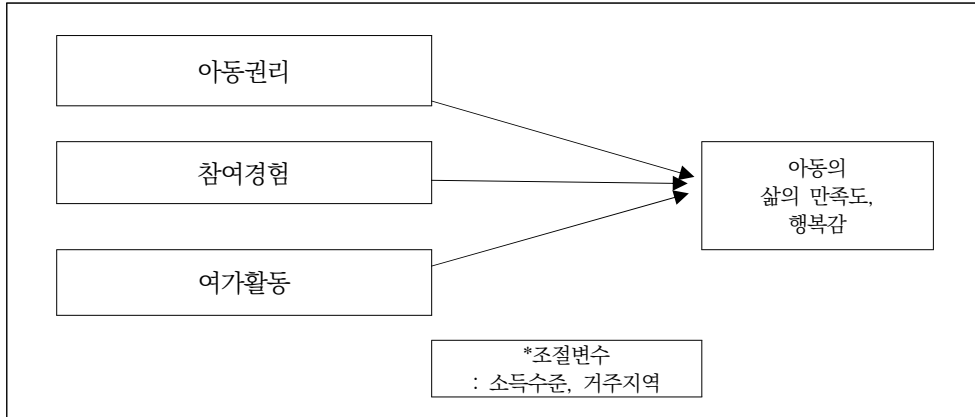
본 연구는 아동권리 보장, 여가활동 및 참여경험이 아동의 주관적 웰빙(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아동권리, 참여 경험, 여가활동을 제시하였으나, 사회경제적 요인(예: 소득수준, 거주지역)에 따라 이러한 영향이 어떻게 조절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이 이러한 관계를 조절하는지 검증하여 보다 정교한 정책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와 분석 모델은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아동의 권리 인식, 참여경험, 여가활동은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2.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이 이러한 관계를 조절하는가?

[그림 7-5] 분석 모델



2)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는 2023년도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아동권리 가치인식, 4대 기본권리 인지여부,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 참여경험 및 유형, 여가활동 시간 및 내용 등을 지표로 선정하여 심층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주요 변인의 구성 및 측정은 다음과 같다.

<표 7-4> 주요 변인의 구성 및 측정

| 구분 | 변인명 | 설명 | 측정 | 형태 |
|-------------|--------------|--|----------------------------------|------------------------------|
| 독립 변인 | 아동권리 가치인식 | 아동이 아동권리에 대해 가지는 가치관 및 태도 (3문항) |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4) | 연속 |
| | 기본권리 인지여부 | 아동이 4가지 기본권리에 대해 알고 있는지(4문항) | 들어본적 없다(1) ~ 내용을 잘 알고 있다(4) | 연속 |
| | 존중받는 정도 | 본인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5문항) |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1) ~ 매우 존중받는다(5) | 연속 |
| | 참여경험 정도 | 교칙만들기, 정책제안, 봉사활동, 아르바이트, 행사기획 및 실행에 참여정도(5문항) | 전혀 하고있지 않다(1) ~ 많이 하고 있다(4) | 연속 |
| | 참여경험 유형 | 교칙만들기, 정책제안, 봉사활동, 아르바이트, 행사기획(5문항) | 0=안 함, 1=함 | 범주 |
| | 여가활동 시간 | 소극적 여가활동 | | TV/동영상 시청, 게임, 독서시간(분 단위) |
| 적극적 여가활동 | | | 친구와 노는 시간, 취미 및 여가활동 시간(분 단위) | 연속 |

| 구분 | 변인명 | 설명 | 측정 | 형태 |
|----------|--------|--|----|----|
| 종속 변인 | 삶의 만족도 |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 | 연속 |
| | 행복감 |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의 정도 | | |
| 통제 변인 | 성별 | 0=여성, 1=남성 | | 범주 |
| | 거주지역 | 1=대도시, 2=중소도시, 3=농어촌 | | |
| | 가구특성 | 1=일반가구, 2=수급가구 | | 범주 |
| | 가구유형 | 1=양부모, 2=한부모, 조부모 | | 범주 |
| | 소득수준 | 1=중위소득 50% 미만 2=중위소득 50~100% 미만 3=중위소득 100~150% 미만 4=중위소득 150% 이상 | | 연속 |

3) 분석방법

우선으로 기초통계 분석을 통해 아동권리, 참여경험, 여가활동 등의 평균,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를 산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아동의 행복감과 관련된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것이다. 본격적으로 아동권리, 참여경험, 여가활동 시간에 따라 아동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지역,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분석방법은 조절회귀분석, t-검정, ANOVA 등을 활용하여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검토할 것이다. 통계 프로그램은 spss 26.0 버전을 활용하였다.

2. 통계분석 결과

가.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본 연구의 분석을 수행하기에 앞서,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데이터의 분포 특성을 파악하고,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였다. 아동권리 가치인식, 4대 기본권리 인지여부,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 참여경험 및 유형, 여가활동 시간 및 내용에 대한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표준화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그 결과는 <표 7-5>와 같다.

〈표 7-5〉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N=2,815)

| | 변인명 | 최솟값 | 최대값 | 평균 | 표준편차 |
|--------|-----------|------|--------|---------|----------|
| 아동권리 | 아동권리 가치인식 | 1.00 | 4.00 | 3.0128 | .53314 |
| | 기본권리 인지여부 | 1.00 | 4.00 | 2.3314 | .99278 |
| | 존중받는정도 | 1.00 | 4.00 | 3.1291 | .45258 |
| 참여경험 | 아동참여정도 | 1.00 | 4.00 | 2.0723 | .79520 |
| 여가활동 | 적극적 여가활동 | .00 | 200.00 | 7.3583 | 19.30676 |
| | 소극적 여가활동 | .00 | 230.00 | 15.9029 | 32.62072 |
| 주관적 웰빙 | 삶의 만족도 | 0 | 10 | 7.14 | 1.637 |
| | 행복감 | 0 | 10 | 7.30 | 1.756 |

주: N=2,815명(표준화 가중치 적용 후 사례 수=3,334)

나. 주요 변인 간의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는 아동권리 가치인식, 기본권리 인지여부, 존중받는 정도, 아동참여 정도, 여가활동 유형(적극적·소극적 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 및 행복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변인 간 관계의 방향성과 크기를 확인하였다.

〈표 7-6〉 주요 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

| 변인명 | | 1 | 2 | 3 | 4 | 5 | 6 | 7 | 8 |
|-----------|---|--------|--------|--------|--------|--------|--------|--------|--------|
| 아동권리 가치인식 | 1 | - | .252** | .163** | .128** | .011 | .042* | .106** | .126** |
| 기본권리 인지여부 | 2 | .252** | - | .179** | .225** | .031 | .043* | .010 | -.012 |
| 존중받는 정도 | 3 | .163** | .179** | - | .073** | -.015 | .013 | .271** | .290** |
| 아동참여 정도 | 4 | .128** | .225** | .073** | - | .087** | .066** | .044* | .007 |
| 적극적 여가활동 | 5 | .011 | .031 | -.015 | .087** | - | .511** | .024 | .079** |
| 소극적 여가활동 | 6 | .042* | .043* | .013 | .066** | .511** | - | .040* | .058** |
| 삶의 만족도 | 7 | .106** | .010 | .271** | .044* | .024 | .040* | - | .518** |
| 행복감 | 8 | .126** | -.012 | .290** | .007 | .079** | .058** | .518** | - |

주: ** p<.01, *p<.05

상관분석 결과, 삶의 만족도와 행복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아동권리 가치인식, 존중받는 정도, 소극적 여가활동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본권리 인지여부와 삶의 만족도 및 행복 간의 관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변인이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표 7-7〉 삶의 만족도 및 행복감과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 독립변수 | 삶의 만족도 | 행복감 |
|-----------|---------|---------|
| 아동권리 가치인식 | 0.106** | 0.126** |
| 기본권리 인지여부 | 0.010 | -0.012 |
| 존중받는 정도 | 0.271** | 0.290** |
| 아동참여 정도 | 0.044* | 0.007 |
| 적극적 여가활동 | -0.024 | 0.079** |
| 소극적 여가활동 | 0.040* | 0.058** |

주:** p<.01, *p<.0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는 삶의 만족도($r=0.271$, $p<.001$)와 행복($r=0.290$, $p<.001$)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권리 가치인식은 삶의 만족도($r=0.106$, $p<.001$)와 행복감($r=0.126$, $p<.001$)에 약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아동이 존중받는다고 인식할수록, 아동권리에 권리존중에 대한 가치관을 가질수록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본권리 인지 여부는 삶의 만족도와 행복 모두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권리에 대한 지식이 높다고 해서 주관적 웰빙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아동참여 정도는 삶의 만족도($r=0.044$, $p<.005$)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지만, 행복($r=0.007$, $p=.702$)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적극적 여가활동은 행복($r=0.079$, $p<.001$)과 유의미한 관계이나, 삶의 만족도와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소극적 여가활동은 삶의 만족도($r=0.042$, $p<.005$), 행복($r=0.058$, $p<.001$)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을 보였다. 즉, 적극적 여가활동($r=0.079$, $p<.001$)과 소극적 여가활동($r=0.058$, $p=.002$)은 행복과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여가활동의 유형에 따라 아동의 웰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상관관계 분석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이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적이며, 아동의 여가활동을 균형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 아동의 권리, 참여경험, 여가활동이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에 미치는 영향

1)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아동권리 가치인식, 기본권리 인지여부, 존중받는 정도, 아동참여 정도, 적극적 여가활동, 소극적 여가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F=42.501, p<.001$), 전체 변인들이 삶의 만족도를 약 14.3% ($R^2 = 0.14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선성 진단 결과, VIF 값이 모두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8〉 회귀분석 모형 적합도 및 공선성 진단

| 모형 | R | R ² | 수정된 R ² | F | p-value | 표준오차 | VIF 최대값 |
|------|------|----------------|--------------------|--------|---------|-------|---------|
| 전체모형 | .378 | .143 | .139 | 42.501 | .000 | 1.519 | 1.360 |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존중받는 정도, 아동권리 가치인식, 기본권리 인지여부, 아동참여 정도로 나타났다. 적극적 여가활동과 소극적 여가활동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9〉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다중회귀 분석 결과

| 변수 | B | SE | β | t | p-value | 95% CI | 공차 한계 | VIF |
|-----------|-------|------|--------------|--------|-------------|----------------|-------|-------|
| (상수) | 5.551 | .325 | | 17.105 | .000 | (4.915, 6.188) | | |
| 아동권리 가치인식 | .187 | .052 | .061 | 3.600 | .000 | (.085, .289) | .901 | 1.110 |
| 기본권리 인지여부 | -.088 | .029 | -.053 | -3.069 | .002 | (-.144, -.032) | .856 | 1.168 |
| 존중받는 정도 | .895 | .060 | .247 | 14.936 | .000 | (.777, 1.012) | .941 | 1.063 |
| 아동참여 정도 | .100 | .034 | .048 | 2.897 | .004 | (.032, .167) | .923 | 1.083 |
| 적극적 여가활동 | .002 | .002 | .021 | 1.108 | .268 | (-.001, .005) | .730 | 1.369 |
| 소극적 여가활동 | .000 | .001 | .003 | .177 | .859 | (-.002, .002) | .723 | 1.382 |

참고: $p < 0.05$, 유의한 변수는 굵게 표시됨.

독립변수 중에서 가장 강한 영향력을 미친 변수는 존중받는 정도($\beta = 0.247$, $p < .001$)로, 아동이 존중받는 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권리 가치인식($\beta = 0.061$, $p < .001$)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아동권리 가치인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기본권리 인지여부($\beta = -0.053$, $p < .005$)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기본권리를 많이 인지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아동참여 정도($\beta = 0.048$, $p < .005$)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적극적 여가활동, 소극적 여가활동은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2)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다음은 아동권리 가치인식, 기본권리 인지여부, 존중받는 정도, 아동참여 정도, 적극적 여가활동, 소극적 여가활동이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회귀분석 결과, 전체 변인들은 아동의 행복감을 약 13.3%($R^2 = 0.13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 = 39.304$, $p < .001$).

〈표 7-10〉 회귀분석 모형 적합도 및 공선성 진단

| 모형 | R | R ² | 수정된 R ² | F | p-value | 표준오차 | VIF 최대값 |
|------|------|----------------|--------------------|--------|---------|-------|------------|
| 전체모형 | .365 | .133 | .130 | 39.304 | .000 | 1.638 | 1.382 |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존중받는 정도, 아동권리 가치인식, 기본권리 인지여부, 적극적 여가활동으로 나타났다. 아동참여 경험과 소극적 여가활동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삶의 만족도와 동일하게 존중받는 정도($\beta = 0.276$, $p < .001$)는 가장 강한 영향력을 보였으며, 아동이 존중받는다 고 느낄수록 행복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1〉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다중회귀 분석 결과

| 변수 | B | SE | β | t | p-value | 95% CI | 공차 한계 | VIF |
|--------------|-------|------|--------------|--------|-------------|----------------|----------|-------|
| (상수) | 4.455 | .350 | | 12.727 | .000 | (3.769, 5.141) | | |
| 아동권리 가치인식 | .321 | .056 | .097 | 5.716 | .000 | (.211, .430) | .901 | 1.110 |
| 기본권리 인지여부 | -.134 | .031 | -.076 | -4.353 | .000 | (-.195, -.074) | .856 | 1.168 |
| 존중받는 정도 | 1.071 | .065 | .276 | 16.575 | .000 | (.944, 1.198) | .941 | 1.063 |
| 아동참여 정도 | .001 | .037 | .000 | .015 | .988 | (-.072, .073) | .923 | 1.083 |
| 적극적 여가활동 | .007 | .002 | .082 | 4.338 | .000 | (.004, .011) | .730 | 1.369 |
| 소극적 여가활동 | .000 | .001 | -0.009 | -4.471 | .638 | (-.002, .002) | .723 | 1.382 |

주: $p < 0.05$, 유의한 변수는 굵게 표시됨.

아동권리 가치인식($\beta = 0.097$, $p < .001$)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아동권리 가치인식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기본권리 인지여부($\beta = -0.076$, $p < .001$)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기본권리를 더 많이 인지할수록 행복감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기본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자신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더 민감하게 인식하게 되면서, 기대와 현실 간 차이를 느끼고 삶의 만족도, 행복감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동참여정도($\beta = 0.000$, $p = .988$)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단순한 참여경험 자체가 행복감을 높이는 직접적인 요인이 아닐 가능성을 시사한다. 적극적 여가활동($\beta = 0.082$, $p < .001$)이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극적 여가활동($\beta = -0.009$, $p = .638$)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참여경험 유형에 따른 삶의 만족도 및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참여경험 유형별로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참여유형에 따라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일부 활동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특

정 활동에서는 부정적인 경향도 확인되었다.

우선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교칙 만들기, 국가 및 지자체 정책제안, 봉사활동 참여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반면, 아르바이트 경험은 삶의 만족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행사기획 및 실행 경험은 오히려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경향이 확인되었다($p < .001$).

〈표 7-12〉 참여경험-유형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변수 | F | 등분산 검정 (Levene's Test) | P-value | 평균 차이 검정 (t-검정) |
|---------------|------|---------------------------|--------------|--------------------|
| 교칙 만들기 | .551 | -3066 | .002* | -.178 |
| 국가 및 지자체 정책제안 | .482 | -2.968 | .003* | -.186 |
| 봉사활동 | .095 | -2.637 | .008* | -.156 |
| 아르바이트 | .091 | -1.000 | .322 | -.067 |
| 행사기획 및 실행 | .299 | -3.817 | .000* | -.227 |

다음으로 행복감을 분석한 결과, 교칙 만들기와 봉사활동 참여가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반면, 국가 및 지자체 정책제안 및 아르바이트 경험은 행복감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행사기획 및 실행 참여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행복감을 보이는 경향을 보였다.

〈표 7-13〉 참여경험-유형별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 변수 | F | 등분산 검정 (Levene's Test) | P-value | 평균 차이 검정 (t-검정) |
|---------------|--------|---------------------------|--------------|--------------------|
| 교칙 만들기 | 8.691 | -3.835 | .001* | -.236 |
| 국가 및 지자체 정책제안 | 19.667 | -1.277 | .202 | -.083 |
| 봉사활동 | 17.244 | -2.780 | .005* | -.174 |
| 아르바이트 | 13.414 | .693 | .489 | .050 |
| 행사기획 및 실행 | 19.615 | -3.201 | .001* | -.200 |

참여경험 유형 중 ‘행사기획 및 실행 경험’의 경우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아동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참여 유형 및 성격에 따라 과도한 책임 및 스트레스 등 심리적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라.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의 조절효과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권리 인식, 참여 경험, 여가활동이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은 3단계로 수행되었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아동권리가치인식, 기본권리인지여부, 아동참여정도, 적극적 여가활동, 소극적 여가활동) 만 투입, 2단계에서는 조절변수(소득수준, 거주지역) 추가,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 추가하였다.

한편,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 가장 강력한 설명력을 보인 변수인 ‘아동이 존중받는 정도’는 조절효과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이는 해당 변수가 이미 독립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beta = .292, p < .001$)을 나타내며, 모형의 기본 설명력을 충분히 확보한 핵심 변수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조절효과 분석은 아동권리 인식, 여가활동, 참여경험이라는 주요 변수가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이라는 사회경제적 맥락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는 아동존중 변수를 함께 포함할 경우 분석 초점이 분산되거나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분석 설계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단계별 회귀모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조절효과의 유의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단계적으로 변인을 추가함에 따라 1단계에서 2.5%, 2단계에서 3.4%, 3단계에서 4.6%로 설명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4〉 조절효과 분석을 위한 회귀모형 요약

| 모형 | 설명력 (R ²) | 수정된 R ² | F 변량 | p-value |
|--------|-----------------------|--------------------|--------|---------|
| Stage1 | .025 | .023 | 16.740 | .000 |
| Stage2 | .034 | .032 | 16.836 | .000 |
| Stage3 | .046 | .041 | 9.299 | .000 |

이 중에서도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모형(모형 3)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2 = 0.046$), F 변량이 모든 단계에서 유의미($p < .001$)하여, 조절변수가 추가됨에 따라 모형의 설명력을 향상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검증되었다. 상호작용항

추가 후 R² 값이 증가하고, F 변량도 유의미한 값을 가지므로,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이 아동의 행복감에 조절효과를 가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즉,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7-15〉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조절효과 분석 결과

| 변수 | | B | SE | β | t | p-value |
|-----------------|------------------------|-------|------|--------------|--------|-------------|
| Stage1 | 아동권리가치인식 | .454 | .058 | .138 | 7.758 | .000 |
| | 기본권리인지여부 | -.084 | .032 | -.048 | -2.637 | .008 |
| | 아동참여정도 | -.019 | .039 | -.008 | -.475 | .635 |
| | 적극적 여가활동 | .006 | .002 | .070 | 3.519 | .000 |
| | 소극적 여가활동 | .001 | .001 | .019 | .934 | .350 |
| Stage2 | 소득수준 | .163 | .031 | .091 | 5.244 | .000 |
| | 거주지역 | -.131 | .050 | -.045 | -2.615 | .009 |
| Stage3 | 아동권리가치인식 × 소득수준 | -.143 | .063 | -.281 | -2.269 | .023 |
| | 기본권리인지여부 × 소득수준 | .057 | .033 | .126 | 1.754 | .080 |
| | 아동참여정도 × 소득수준 | -.157 | .040 | -.273 | -3.927 | .000 |
| | 적극적 여가활동 × 소득수준 | .004 | .002 | .119 | 2.152 | .031 |
| | 소극적 여가활동 × 소득수준 | .001 | .001 | .035 | .633 | .527 |
| | 아동권리가치인식 × 거주지역 | .085 | .096 | .094 | .880 | .379 |
| | 기본권리인지여부 × 거주지역 | .056 | .054 | .066 | 1.041 | .298 |
| | 아동참여정도 × 거주지역 | -.160 | .066 | -.164 | -2.428 | .015 |
| | 적극적 여가활동 × 거주지역 | -.003 | .003 | -.058 | -1.052 | .293 |
| 소극적 여가활동 × 거주지역 | .002 | .002 | .077 | 1.386 | .166 | |

1) 소득수준에 따른 조절효과

소득수준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 결과, 소득수준이 아동권리 가치인식, 아동참여 정도, 적극적 여가활동과 행복감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아동이 권리가 가치 있다고 인식할수록, 행복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아동권리 가치인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감소하였다($\beta = -0.281$, $p = .023$). 이는 저소득층 아동이 권리에 대한 가치 인식이 높을 때 더 큰 행복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아동은 아동과 관련된 일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동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두고

의견을 내는 등 세상에 돌아가는 일에 대해 참여할 필요가 있다', '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라고 인식할 때, 행복감을 더 크게 느낀다는 것이다. 저소득층 아동이 이러한 권리에 대한 가치 인식이 높아질수록 권리가 충분히 가치 있게 보장되지 않는 환경을 더 민감하게 인지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소득층 아동이 권리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주장하는 능력은 이들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병금과 유은선(2011)의 연구에서 청소년이 권리에 대해 인식할수록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뒷받침한다. 또한 이봉주와 장희선(2019)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 권리지수의 평균값이 높을수록 아동의 긍정적 발달수준이 증가하고 부정적 발달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권리를 존중받고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성장할 때 웰빙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큼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은 저소득층 아동의 권리 가치 인식이 행복감에 보다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가정에 아동의 경우 권리에 대한 가치인식보다 실질적인 여가활동이나 가족 지원과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해 행복감이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아동이 자신의 권리에 대한 가치인식을 높이는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저소득층 아동의 행복 증진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참여 정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였다($\beta = -0.273, p < .000$). 이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이 사회적 참여 경험이 많을수록 행복감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지만, 경제적 여건이 좋은 가정에서는 참여 경험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경제적 자원이 풍부한 가정의 아동일 경우 사회적 참여활동 외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더 많고, 개별적인 참여 경험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적극적 여가활동(운동, 문화예술활동 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증가하였다($\beta = 0.119, p = .031$). 즉,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적극적 여가활동의 긍정적인 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경제적 여건이 좋은 가정의 아동일수록 권리 인식이나 참여 경험보다는 여가활동이 행복감에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2) 거주지역에 따른 조절효과

다음으로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아동참여정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도 거주지역에 따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164$, $p = .015$). 농어촌 및 중소도시 아동의 경우 아동참여정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참여 기회 자체가 부족하고, 참여의 질이 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제4절 소결(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아동권리, 참여경험, 여가활동이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이 이러한 관계를 조절하는지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아동의 권리 인식과 여가활동이 개별적으로 삶의 질과 연관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요인(소득수준, 거주지역)에 따른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이 존중받는다 고 느끼는 정도는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권리 가치 인식은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기본권리 인지여부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적극적 여가활동(운동, 문화예술 활동 등)은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삶의 만족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이 아동의 삶의 만족도 및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적극적 여가활동이 행복감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증가하였으며, 아동참여 경험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도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 강하게 나타났다. 다섯째, 거주지역에 따른 조절효과도 일부 확인되는데, 농어촌 및 중소도시 지역에서는 아동참여 경험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낮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아동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아동이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정도는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아동의 존중받는 경험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결과와도 일치한다(McCabe et al., 2011). 이는 아동이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고, 가정과 학교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인식할수록 심리적 안정감이 높아지고, 이는 궁극적으로 주관적 웰빙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환경 조성이 그들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권리경험이 풍부한 아동일수록 긍정적인 발달 수준이 높고, 부정적인 발달 수준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봉주, 장희선, 2019). 특히, 권리보호가 부족한 아동은 심리 사회적 발달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아동 권리 보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고 참여를 장려하는 문화가 조성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아동의 권리 가치인식 또한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명확히 인식할수록 자기주장 능력이 향상되고, 사회적 관계에서도 보다 주체적인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한 기본권리에 대한 인지여부는 오히려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인지할수록 현실과의 괴리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대와 실제 환경 간의 차이가 심리적 불만족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권리교육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가활동과 참여경험은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활동의 유형과 아동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처럼 놀이와 여가는 단순한 여가활동이 아니라, 아동의 전반적인 웰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적극적 여가활동(운동, 문화예술 활동 등)은 행복감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으나, 소극적 여가활동(TV 시청, 인터넷 사용 등)의 영향은 미미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기존 연구(Holder, Coleman & Sehn, 2009; Shin & You, 201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신체적 활동이 포함된 여가가 더 높은 주관적 행복감을 유도한다는 결과와도 일맥

상통한다. 기존 연구(이미리, 2003)에서도 아동은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할 때 가장 높은 행복감을 경험하였으며, 소극적 여가활동보다 신체활동이 포함된 활동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 여가활동은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삶의 만족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적극적 여가활동이 단기적인 정서적 만족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삶의 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보다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활동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데, 적극적인 여가활동이 주관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여가활동을 통한 사회적 관계 강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단순히 여가 시간만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활동과 사회적 교류가 포함된 질 높은 여가활동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Wang & Wong, 2014).

반면, 소극적 여가활동은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극적 여가활동이 일시적인 스트레스 해소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정서적 효과를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독서도 소극적 여가활동에 포함되어 있어, 독서의 효과과 소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독서는 신성희와 이선우(2024)의 연구결과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인지적, 정서적 발달과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독서를 별도의 변수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여 경험의 경우, 봉사활동이나 교칙 만들기와 같은 활동은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행사기획 및 실행 경험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 활동의 성격에 따라 아동이 느끼는 부담감이나 책임감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으며, 과도한 책임이 부여된 경우 스트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아동이 참여 경험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의 목적과 방식이 적절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은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특히 일부 독립변수의 효과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효과 분석 결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아동권리 가치인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저소득층 아동이 권리에 대한 가치를 인식할수록 더 큰 삶의 만족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

는 기회에 대한 기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반면, 소득수준이 높은 가정에서는 권리에 대한 가치 인식보다는 여가활동이나 가정 내 지원이 행복감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적극적 여가활동이 행복감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 여가활동의 질적 수준이 높으며, 이러한 경험이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거주지역에 따른 조절효과도 일부 확인되었다. 농어촌 및 중소도시 지역에서는 아동 참여 정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해당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도시 지역에서는 참여 경험이 아동의 웰빙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다양한 사회적 활동과 자원이 제공되는 환경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농어촌 지역의 아동이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지역 간 참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제8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심층분석 결과 및 정책 제언

제2절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언

제 8 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심층분석 결과 및 정책 제언

1.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 제고 방안

2021년 기준, 자기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아동 비율의 OECD 국가 평균은 13.6%인 반면, 우리나라 26.7%로 가장 높았다. 이를 반영하듯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9~17세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평균 4.24점으로 2018년(4.45점)에 비해 0.21점 감소했다. 한편, 하루 식사 횟수, 수면시간, 비만율이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한 끼 이상 식사를 하는 것에 비해 세 끼 모두 식사를 할 때, 수면시간이 길수록, 과체중/비만에 비해 비만율이 표준일 때 아동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특히, 비만율의 영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세끼 식사를 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는 배프지 않거나 시간이 없어서로 학교 급식 운영의 내실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학교급식의 식품보장성 강화, 균형있는 식습관 교육과 함께, 학교에서 아동이 점심 외의 아침 또는 학교 후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아침 결식 아동이 많은데, 아동이 상시적으로 건강하고 균형있는 간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급식실이나 매점 등을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서 결식의 이유로도 밝혀진 우리나라 아동의 수면시간 부족의 주요한 원인은 학업이다. 아동의 충분한 수면시간 보장을 위해 학업 부담을 주일 필요가 있다. 과도한 경쟁과 초·중·고에 걸쳐 학업 스트레스를 주는 대학교 입학제도를 장기적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아동의 쉼 권리와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부모 교육, 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놀 권리는 초등학생, 저연령 아동에게만 해당된다는 인식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²⁰⁾ 학업 부담이 과중한 중·고등학교 아동의 쉼

권리, 놀 권리의 중요성, 보장 방법 등이 학부모를 중심으로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아동의 비만율이 증가하고 있어 주관적 건강상태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의 신체활동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놀권리 보장과 함께 학교내 스포츠 활동, 동아리 활동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고등학생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만 가능성이 높아지는데(박소연, 2019; 임희진 외, 2009), 사회정책적 관심은 부족하다. 아동 비만예방사업으로 운영되는 ‘건강한 돌봄놀이터’는 사업대상이 방과후 돌봄서비스 및 기타 아동복지시설 이용 초등학교 1~2학년이다. 십대 중·후반의 아동의 신체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관련 사업의 대상과 기관을 초, 중, 고 학교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2.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과 정신건강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신체 활동 감소, 수면 장애, 학업 성취도 저하, 불안 및 우울 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부정적인 결과와 관련성이 있는 가운데, 스마트폰 사용은 고립되어 발생하지 않고 가족 환경, 지역사회 환경, 사회 활동과 같은 더 광범위한 맥락적 요인과 깊이 얽혀 있다. 본 연구에서도 아동의 스마트폰 과다 의존은 가정, 학교, 지역 사회 환경 전반의 다양한 요인과 관련이 있으며, 정신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가 좋지 않고, 학업 부담이 크고, 교사와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면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아지고, 이는 스트레스, 우울, 불안,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 가정이나 보호자가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가구의 아동이 특히 정신건강 문제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 및 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같은 지역사회 요인도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취약 아동가구에 대한 사회적 보호 및 지원 서비스의 강화와 함께, 부모에게 디지털 리터러시와 균형 잡힌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긍정적인 가족 환경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아동가구에 지급되는 현금지원과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을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

20) 홍지유.(2024). “대한민국 아동들에게는 충분한 쉼이 필요합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301>(2025년 3월 25일 인출).

이다. 또한, 아동가구에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보호자 있는 경우, 아동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보호자 뿐 아니라 아동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적극적인 지역 사회 자원 연계가 필요하다.

학교에서 아동의 학업부담을 해소하고, 또래 혹은 선생님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관련한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다양한 참여와 활동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운동·스포츠 참여(안지훈, 김재운, 2024)와 동아리 활동(유혜영, 김민지, 2021)은 교사 및 교우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고, 청소년의 참여 활동은 학업성취를 높이며(전명순, 김태균, 2014), 여가활동은 학업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염미진, 정철상, 2022). 학교 내에서 아동의 참여 및 활동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줄이는 동시에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적절한 지침이 없으면 생산적인 디지털 참여와 과도한 디지털 참여를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Chun, 2017; Ting & Chen, 2020). 즉, 디지털 웰빙 정책이 약한 국가는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므로 학교나 기관이 체계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Buctot et al. 2020). 디지털 포용 접근과 함께 아동의 책임 있는 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아동, 부모, 교사,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및 정신건강 문제가 아동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환경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영역과 연계한 접근이 필요하다.

3.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 제고 방안

학교는 단순히 지식과 학습의 장이 아니라 아동의 인적, 사회적, 정서적, 도덕적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관이며, 우리나라 아동의 대부분이 집에서 보낸 시간 외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그러나 학교에 가는 것이 즐거운 아동의 비율은 과거보다 감소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를 높이는 보호요인은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교우 및 선생님과의 긍정적 관계, 교내 동아리 참여, 동네 만족도이며, 학교생활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위험요인은 가구소

득, 거주지역, 우울, 학업스트레스, 학교폭력피해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호요인을 강화하는 반면,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저소득 취약 아동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되,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 아동가구의 발굴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간의 연계·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아동 및 아동가구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진행중인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을 확대하되, 정부는 우수 운영 모델을 확산하고, 지역별 인력과 서비스를 편차 해소를 위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확인하였듯이 고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가 가장 낮고, 영향요인으로 파악된 학업스트레스,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 모두 초·중등학교 아동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아동의 전반적인 학교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 제고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교내 동아리 참여 경험이 학교생활만족도를 높이는 보호 요인으로 확인되었고, 선행연구들에서도 스포츠, 동아리 등 교내의 다양한 활동은 교우 및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고, 학업스트레스를 완화한다고 보고하고 있다(안지훈, 김재운, 202; 유혜영, 김민지, 2021; 전명순, 김태균, 2014; 염미진, 정철상, 2022). 학생부종합전형 등 고등학교 아동의 욕구에 부합하는 동아리, 스포츠 등의 참여와 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하고 강사, 예산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과 동네의 만족도 또한 학교생활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주변의 인프라, 학교 접근성, 교통 편의성 등이 높은 대도시에 살고 있는 아동의 동네 만족도가 높고 이러한 점이 학교생활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저출생으로 인한 폐교, 지역소멸 등의 사회문제가 아동의 학교생활 주변의 인프라, 학교 접근성 등을 악화시키고, 연쇄적으로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저출생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거시적 노력과 함께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의 학교 및 지역사회 환경을 아동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4. 아동 - 부모 관계와 아동학대

아동학대조사 업무의 공공화 이후 아동학대판단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 조사·판단의 공공화에 따른 판단의 보수성 강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서학대의 사례가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아동학대신고에 있어 아동 본인에 의한 신고 증가, 피해아동의 10-15세 연령 증가 특성도 두드러져 중고생 청소년이 심화된 부모와의 세대와의 갈등을 학대 신고를 통해 해결하려는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부모와의 관계와 학대경험에 있어 아동 연령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가족 건강성은 가족관계의 질적 측면을 반영하는 지표로, 가족건강성이 아동학대 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아동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했다.

연구 결과, 가족건강성과 아동학대 가해 경험률의 부적 관계에 대해 연령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가족건강성이 저연령 아동에게 더 강한 보호 효과를 제공하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효과가 감소하고, 가족건강성이 낮은 가정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전반적으로 가족건강성을 높일 수 있는 개입과 지원이 필요함 동시에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 정책에서 연령별 맞춤형 개입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십대 초·중반 아동 및 보호자 대상 의사소통 기술, 가족간 문제 및 갈등 대처 방법 등 긍정적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 코칭이 필요하다. 가족 내 갈등, 폭력 등을 조기에 발굴, 개입할 수 있도록 Wee클래스, 학생맞춤형서비스, 드림스타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학교 및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하며, 십대 초·중반 아동에 대한 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 정서학대, 자가 신고의 경우에 부모-아동간의 갈등 문제 해결을 우선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개입이 필요하다.

5. 아동의 다차원적 결핍 해소 방안

아동기에 경험하는 빈곤은 아동 개인의 인지발달, 신체발달, 행동문제와 연관되며, 학령기의 학업성취도와 청소년기 및 성인기의 성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Duncan, Brooks-Gunn, & Klebanov 1994; Duncan et al., 1998; Ratcliffe &

McKernan, 2010), 장기적으로 사회적 배제와 빈곤의 대물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Cantillon & Bosch, 2018).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정책적으로 아동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한편, 아동은 소득이 없고, 욕구가 성인과 다르며, 가구 내 자원분배에 있어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아동의 빈곤은 단순히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의 물질적 결핍을 단순한 경제적 결핍이 아니라, 물질적·사회적·정서적 자원에 접근하지 못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분석하고, 영향 요인을 분석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아동은 여가영역의 결핍수준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회관계참여 영역으로 파악되었다. 두 영역은 중복 결핍 경험 비율도 가장 높았다.

물질적 결핍의 잠재계층 분석 결과 대다수의 아동은 결핍 경험이 거의 없는 집단에 속했지만, 소수의 아동이 심각한 결핍을 경험하는 집단으로 분류되어 취약 아동가구 대상 서비스와 정책을 개선,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가구주의 학력, 수급 여부, 저소득, 한부모조손가구 여부, 가구원 수, 아동의 연령, 주관적 건강 수준, 거주지역 생활환경이 물질적 결핍의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어 이와 관련된 정책적 개입과 지원을 시사하였다.

한부모조손가구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아동은 결핍 수준 최고 집단에 속할 위험이 2, 3배 이상 높았고,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결핍 수준 최고집단에 속할 위험이 43% 이상 증가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제공되고 있으나, 이러한 급여가 아동의 물질적 결핍에 얼마나 대응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들 가구의 복합적인 취약요인을 반영하되, 특히 여가 영역에서 아동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사회적 관계 및 참여 영역에서의 아동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행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정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아동양육비, 교육지원비 등의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가구원 수에 따른 지원이 보다 세밀하게 디자인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정을 대상으로 양육과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가구 내 아동을 대상으로는 식사, 반찬 및 과일제공서비스, 여가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여, 결핍의 영역별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물질적 결핍의 수준이 증가했는데, 중·고등학생기 아동을 대상으로 여가영역과 사회적 관계 및 참여 영역에서의 지원을 강화하고, 부모 급여, 아동수당 등 아동초기에 집중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연령 확대를 고려할 필요성

이 있다. 또한, 부모의 사회적 지지 체계나 네트워크는 가구의 사적 이동을 통한 물질적 자원의 확충 뿐 아니라 정서적 지지체계를 확보하여, 사회적 관계와 참여 영역에서의 아동의 결핍을 완화할 수 있다. 저소득 가구의 부모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자조모임, 상담 및 지역사회 조직 프로그램 등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내에 문화체육, 사회복지, 의료 및 교육, 여가 등의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높을수록 아동의 물질적 결핍이 높은 집단에 속할 위험이 낮아졌다.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이 이와 같은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여가, 문화체육 및 복지 등의 시설을 확충하여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프라는 아동의 여가와 사회적 관계 및 참여 영역에 결핍 경험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결핍수준 최저집단에서도 여가영역과 사회적 관계참여 영역의 일부 항목에서는 결핍하는 비율이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만으로는 해소되기 어려운 결핍이 존재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교육, 여가, 사회적 관계참여 영역에서 결핍이 증폭되는 아동에게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자원, 방과후 활동, 또래관계 형성을 위한 기회 지원, 여가 및 체육활동에 대한 기회 지원 등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6. 아동 권리와 참여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 인식 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주요 권리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 수준에는 격차가 확인되었다. 아동의 권리 인지도는 증가했으나 주양육자의 권리 인지도는 소폭 감소하여,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권리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이상정 외, 2023). 또한, 아동의 정책수립 과정 참여 수준과 친구와의 놀이 및 사회적 활동 참여도 상대적으로 낮았다(이상정 외, 2023). 특히, 아동들은 방과 후 친구들과 놀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학원·과외 등 원하지 않는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아동의 놀이권 보장이 충분하지 않음을 시사하며, 보다 균형 잡힌 여가 활동을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본 연구에서 아동의 권리존중 인식, 아동권리가치 인식, 적극적 여가활동은 각각 삶의 만족도 또는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아동가구의 소득 수준과 거주지역이 그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적극적 여가활동이 행복감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증가하였으며, 아동참여 경험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도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 강하게 나타났다. 한편, 농어촌 및 중소도시 지역에서는 아동참여 경험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낮게 나타났다.

아동권리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실생활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 내 권리 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권리 민감성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을 정례화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아동권리 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여 아동, 교사, 보호자가 함께 권리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본 연구 결과에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아동권리 가치에 대한 인식이 더 긍정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저소득층 대상 권리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저소득층 아동이 자주 이용하는 생활 기반 기관(지역아동센터 등)을 중심으로 권리교육을 정례화하고 교육의 양과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가정과 학교에서 아동의 의견이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가정과 학교에서 아동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아동 참여권을 강화하고, 아동 친화적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Lundy, 2007). 부모 대상 교육을 통해 아동의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를 확산하고, 학교 내 학생참여기구 제도화를 통해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사회 전반의 권리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공공 캠페인이 필요하다. 아동 친화적 문화 형성을 위해 교사·부모 대상 인식 제고 교육, 권리 기반 교육자료 배포, 미디어 활용 대중 캠페인을 병행할 필요성이 있다.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여가활동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여가 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청소년문화예술패스, 문화바우처, 무료 프로그램 등 공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6세 이상 저소득 가구 아동부터 대상인 문화누리카드의 경우 지원금액, 사용처 다양화 및 접근성 향상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농어촌 및 중소도시 아동의 여가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이동형 놀이 프로그램, 순회 문화예술교육, 체육시설 확충 등 지역 맞춤형 여가활동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 및 지역사회 중심의 여가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방과 후나 주말 등 여가 시간대에 스포츠, 예술, 체험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공 놀이자원 정보 플랫폼 구축 등 정보 접근성도 개선해야 한다.

아동의 정책참여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 아동총회, 아동참여위원회 등 아동·청소년의 참여기구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내실화하고, 다양한 지역과 계층의 아동이 참여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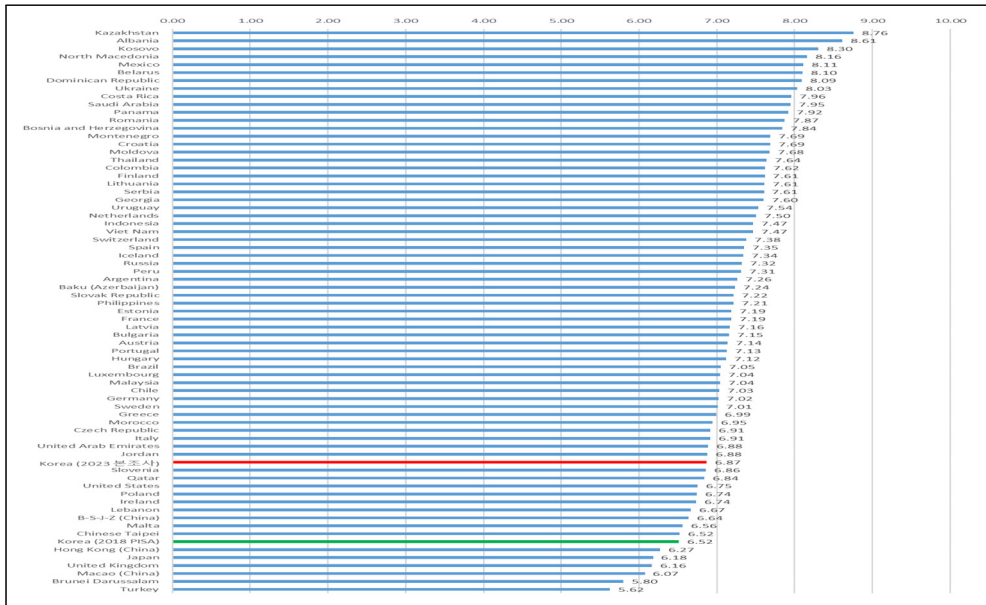
수 있도록 대표성과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지역 참여예산제’ 도입, 아동 참여활동에 따른 피드백 체계 마련, ‘아동정책영향평가’에 아동 참여 절차 강화 등 아동의 정책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 한국유니세프위원회의 ‘아동친화도시조성 사업’과 정책적 연계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언

1. 아동 행복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지난 10년 동안 2차례의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통해 우리나라는 아동의 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가 단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14-19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과 「20-24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모두 아동의 행복을 비전과 목표로 하여 정책과제를 수행했다. 그 결과 2023년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질 수준은 7.14점

[그림 8-1] OECD 국가 아동 행복도 비교



출처: OECD(2018). PISA 2018 Results (Volume III) : What School Life Means for Students' Lives의 Figure III.11.1. Students' Life Satisfaction 결과에 본 자료의 15세 평균 수치를 추가하여 제시함.

으로 10년 전에 비해(2013년 6.10점, 2018년 6.57점) 동안 점진적으로 1.04점 상승하여 국가적 정책 추진을 통한 아동 행복도 제고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OECD 국가 아동들의 행복도는 15세를 기준으로 삶의 만족도 점수를 산출하여 비교한다.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의 15세 아동의 삶의 만족도 점수, 6.87점을 적용해 보면 2018년도의 6.52점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여전히 OECD 국가들의 평균 점수, 7.04점에는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2025년부터 시행될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서도 아동의 행복도 수준을 보다 높이기 위한 정책 목표를 유지하고, 관련 과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2. 아동의 상대적 빈곤을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

아동의 상대빈곤율은 지속적으로 완화('18년 12.3% → '23년 9.9%)되고 있으며, 아동가구의 소득 수준, 박탈 점수, 아동 결핍지수 등도 2018년 대비 2023년에 개선 되었다(이상정 외, 2023). 그러나 수급가구, 한부모 및 조손가구에서 아동의 결핍지수는 여전히 높다(이상정 외, 2023). 무엇보다 아동 삶의 주요 지표와 각 지표에 대한 영향 요인을 분석한 본 연구에서 아동가구의 소득은 스마트폰 사용, 학교생활만족도, 결핍 경험, 여가활동 및 참여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아동가구의 소득이 아동의 성장·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촘촘한 구축과 아동 및 부모를 포함하는 아동가구에 대한 통합적 지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아동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가족-학교-지역사회가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아동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자원을 욕구에 맞게 제공해야 한다. 2024년 12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단절되었던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아직 사업의 초기 단계로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각 지역별로 서비스와 자원에 차이가 커 사업의 편차가 크다. 아동·가족, 학교,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효율적인 연계·협력 모델을 제시하여 아동이 어느 곳에 있든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취약 아동가구 대상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드림스타트의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아동의 연령이 높아

질수록 학대경험률이 증가하고, 학교생활만족도가 낮으며, 결핍경험도 증가했다. 즉, 연령 증가에 따른 아동과 그 가족의 취약성과 위기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 2025년 3월에 제정된 「가족돌봄 등 위기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실행을 위해서도 시·군·구 단위의 접근성 높은 아동·가족 사례관리체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드림스타트는 12세 이하의 아동과 그 가족으로 대상 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13-17세 후기 아동을 위한 공공 사례관리체계는 공백 상태이다. 이는 학생맞춤형통합지원 체계의 구축, 아동과 가족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등, 지역 기반의 위기예방 시스템을 구축을 어렵게 한다.

3. 아동의 참여 및 활동의 기회 확대

본 연구의 심층분석 결과는 아동의 참여 활동의 중요성을 여러 지표에서 확인하고 있다.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요 요인인 비만을 예방해야 하며, 비만은 신체활동을 통해 예방될 수 있다.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과 의존은 아동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명백한 위기 요인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업부담을 해소하고, 또래 및 선생님과 긍정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데, 운동 및 스포츠 활동, 여가활동 등이 효과적이다.

또한, 교내 동아리 참여 경험은 학교생활만족도를 높이는 보호 요인이며, 학업스트레스,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 또한 학교생활만족도의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분석되어 학업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학교내 긍정적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학교 내의 다양한 동아리, 스포츠 등의 참여와 활동 프로그램 제공의 중요성이 제기되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아동은 여가 영역, 사회적관계 참여 영역 순으로 결핍 수준이 높고, 두 영역의 중복 결핍 경험 비율도 높았으며, 궁극적으로 여가활동 및 참여 경험은 아동의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참여와 활동 경험은 건강, 발달, 심리정서 등 삶의 모든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참여와 활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문화체육, 사회복지, 의료 및 교육, 여가 등의 인프라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4. 아동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아동 개인 특성, 가족 및 학교 요인뿐만아니라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 환경 또한 아동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아졌고, 학교생활 주변 인프라, 학교접근성 및 교통편의성이 높은 대도시 거주 아동이 농어촌, 중소도시 아동보다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문화 및 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부분적으로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과 연관성이 있었으며, 지역사회 내 문화체육, 사회복지, 의료 및 교육, 여가 등의 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아동의 물질적 결핍이 높은 집단에 속할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대도시 지역에서 아동참여 경험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지역사회 환경을 아동친화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아동의 쉼 권리와 놀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 시설 인프라 구축 및 개선을 위한 중앙 정부의 예산 지원, 지방 정부의 지역 특성에 맞는 인프라 구축 사업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이 이용하는 학교, 아동·청소년 기관 등이 다양한 여가, 활동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아동친화도시 제도화 및 확산을 추진과제로 포함한 바 있다. 한국유니세프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인증 사업은 많은 시도, 시군구에서 참여하며 활발히 운영 중이다.²¹⁾ 아동친화적 공간 조성 및 아동참여 및 권리교육은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가 지향하는 주요 목표로 본 사업과 연계하여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유니세프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지자체는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의 성과를 인정하는 방식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1) 한국유니세프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지도.

https://childfriendlycities.kr/sub/intro_propel_map.html(2025년 3월 27일 인출.)



- 강미경, 광지영. (2017). 참여권에 대한 인식이 아동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참여를 중심으로. **법과인권교육연구**, 10(1), 81-106.
- 강지영. (2023). 신체·정서 중복학대의 학대행위 특성과 예측요인.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 5-28
- 강혜영, 박재준, 정익중. (2022). 아동의 참여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아동과 권리**, 26(4), 563-584.
- 강혜영, 정익중. (2022). 놀이 및 여가활동 만족도가 아동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학교급 차이 -. **한국아동복지학**, 71(3), 61-90.
- 관계부처합동. (2020).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107010100&bid=0040&act=view&list_no=374162&list_depth=1로부터 인출
- 구재선, 서은국. (2012). 행복은 4년 후 학업성취를 예측한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26(2), 35-50.
- 김미숙, 배화옥. (2007). 한국 아동빈곤율 수준과 아동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보건사회연구**, 27(1), 3-26.
- 김미숙, 전진아, 하태정, 김효진, 오미애, 정은희, 최은진, 이봉주, 김선숙(2013). **한국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유미, 황인순. (2022). 초기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결핍과 학교적응의 관계: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이용 만족의 조절효과. **지역정책연구**, 33(2), 83-104.
- 김윤태, 서재욱. (2015). 빈곤의 다차원성: 이론적 논쟁의 검토: 이론적 논쟁의 검토. **비판사회정책**, (48), 146-186.
- 김영한, 이유진. (2021). **아동·청소년의 놀이 실태 및 성장지원 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은지, 이상정, 유해미, 강민정, 최진희, 김수정, 박미진, 김나영, 유민상, 박미선, 김수진, 고제이, 이주연, 최선영, 최효미, 조숙인, 김영민, 오수미. (2023). **가족·아동 국제비교지표 산출방안 연구(II):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 지표 보완 및 한국 상황 점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젤나, 이재연. (2007). 학교에서 아동의 참여권 행사와 적응과의 관계. **아동과 권리**, 11(2), 167-185.
- 김지경, 송현주, 김균희, 윤현술. (2023).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세

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혜. (2012). 청소년 봉사활동이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공동체 의식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봉사활동 시간과 주관적 만족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1), 41-62.
- 김태환, 이철웅, 황선환. (2021). 행복 결정요인 추이 분석 : 2010-2020 국민여가활동조사를 바탕으로. **여가학연구**, 19(4), 31-47.
- 김현옥, 김경호. (2011). 아동방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요인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67(0), 219-243.
- 노은영, 권현용. (2019). 중년기 여성의 가족건강성 수준에 따른 가족건강성과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화연구**, 25(2), 399-414.
- 노연경, 정승, 홍세희. (2014).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아동·청소년 비행 유형 분류 및 영향요인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5(4), 211-240.
- 류정희, 이상정, 전진아, 박세경, 여유진, ... 이봉주. (2019). 아동종합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류정희. (2020). 우리나라 아동의 다차원적 빈곤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20(5), 8-21.
- 민소영, 장희선, 오세현, 강현아, 김세원, 김희진, 안재진, 이상균, 유한별, 이제영, 정영원, 주사랑. (2022). 아동보호통합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I: 총괄, 아동권리보장원.
- 민소영, 이정애, 김시아, 장희선, 김영지, 박선영, 서혜진, 이은주, 이혜진, 조소연 (2023).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상황 분석연구**. 서울: 아동권리보장원.
- 박병금, 유은선. (2011). 청소년의 권리인식과 자아존중감. **청소년학연구**, 18(8), 89-116.
- 박재숙. (2010). 학교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자원봉사활동, 자아존중감, 공동체 의식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4), 101-120.
- 박재숙. (2011). 초기 청소년의 온, 오프라인 참여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4), 47-69.
- 배화옥. (2008). 아동빈곤 결정요인 분석: 가족요인과 사회요인. **보건복지포럼**, 139, 23-32.
- 보건복지부(각년도). 아동학대 주요통계,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 서성익, 김근국. (2022). 한국청소년의 신체활동 유형 및 수행 빈도가 행복, 정신건강, 주관적 건강인지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13(2), 49-64.
- 소난영, 박성희. (2019). 청소년 여가활동, 여가만족, 또래애착, 삶의 질 간의 구조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8), 561-591.
- 신성희, 이선우. (2024). 청소년의 여가활동과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에 관한 중단연구. **보건사**

- 회연구**, 44(2), 381-402.
- 안유나. (2021). 양육스트레스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 양옥경, 김연수. (2007). 『축약형 가족관계척도』구성과 타당도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2), 103-129
- 안수빈, 은선민, 이강이. (2018). 초등학교 전이과정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행복감 변화유형: 취학 전 아동 및 부모 특성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 12(1), 151-173.
- 안재진. (2022). 아동들의 의사결정 참여경험 유형과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주관적 삶의 질과의 관계. **아동과 권리**, 26(4), 585-606.
- 여진주. (2010). 빈곤과 부부불화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한국아동복지학**, (32), 99-127.
- 염유식. (2021). **한국 아동·청소년 행복지수 조사, 2021: 중·고등학생**. 서울: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한국방정환재단.
- 유영준. (2016). 청소년의 참여권 수준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 현안과 담론**, 15, 71-89.
- 이봉주, 장희선. (2019). 한국 아동의 권리경험과 발달결과와의 관계: 아동권리지수의 영향 검증과 프로파일 분석을 중심으로. **아동과 권리**, 23(2), 339-361.
- 이유진, 김보람. (2021). 여가활동 참여 청소년의 가치성향과 삶의 균형에 따른 행복감. **여가학 연구**, 19(2), 51-66.
- 이진혁, 송인한. (2021). 여가시간과 아동·청소년 삶의 만족도 관계에 관한 종단 연구: 고정효과모형 분석. **청소년학연구**, 28(2), 323-351.
- 이병록, 정선희. (2019). 라이프케어를 위한 가족관계가 학부모의 아동학대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3(3), 279-290.
- 여유진. (2018). 아동빈곤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59, 25-39.
- 유조안, 이상균. (2015). 경제적 결핍 경험의 잠재계층과 부모가 보고한 아동 건강의 관계. **사회복지연구**, 46(1), 397-431.
- 윤홍식, 조막래(2006). 생계부양형태에 따른 가구특성과 빈곤실태. **한국사회복지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발표자료**, 315-320.
- 이상정, 이주연, 전진아, 김수진, 임성은, 신영규, 류정희, 하태정, 권영지, 김시아, 김지현, 유민상. (2023).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명순, & 김태균. (2014). 청소년활동이 학교생활적응, 학습습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38, 71-90.

- 정익중, 정선영, 이수진, 정수정. (2019). 아동생활행복지수. 서울: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 채황석, 오채민, 이래혁. (2024).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사회경제적 결핍이 공격성을 통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성별 비교. *GRI 연구논총*, 26(2), 1-26.
- 천수민. (2024). 가족 내 아동학대 위험요인의 영향에 대한 사회자본의 보호효과(Doctoral dissertation, 서울대학교 대학원).
- 통계청, 「사회조사」, 2024, 2025.01.22,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전반적인 학교생활, 중·고 재학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ED019R&conn_path=I2\[2025.01.22.인출\]](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ED019R&conn_path=I2[2025.01.22.인출])
- 함영난, 박분희. (2023). 청소년의 행복감과 협동의식 및 학업성취 간 인과관계 중단분석: 성별 간 다집단분석. *한국청소년연구*, 34(2), 5-32.
- 황여정. (2021). 청소년참여 경험이 자기표현능력 함양에 미치는 영향: 자치활동 및 사회참여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4), 719-748.
- Atkinson, A. B. (2019). *Measuring poverty around the world*.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ae, S.M.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Neglect, School Adjustment, and Smartphone Dependence in Korean Adolescents: Verification Using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ing. *Child Psychiatry Hum Dev* 55, 1250-1258 (2024). <https://doi.org/10.1007/s10578-022-01485-7>
- Bárcena-Martín, E., Lacomba, B., Moro-Egido, A. I., & Pérez-Moreno, S. (2014). Country differences in material deprivation in Europe. *Review of Income and Wealth*, 60(4), 802-820.
- Bárcena-Martín, E., Blázquez, M., Budría, S., & Moro-Egido, A. I. (2017). Child and household deprivation: A relationship beyond househol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32, 1079-1098.
- Blanden, J., & Gibbons, S. (2006). The persistence of poverty across generations: A view from two British cohorts. International Specialied Book Service Inc.
- Bradshaw, J., & Main, G. (2016). Child poverty and deprivation. In *The well-being of children in the UK* (pp. 31-70). Policy Press.
- Buctot DB, Kim N, Kim JJ. Factors associated with smartphone addiction prevalence and its predictive capacity for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Filipino adolescent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020;110:104758. <https://doi.org/10.1016/j.childyouth.2020.104758>.

- Byegon, I. K., Kabubo-Mariara, J., & Wambugu, A. (2021). The link between socio-economic factors and multiple child deprivations in Kenya. *Cogent Economics & Finance*, 9(1), 1938378.
- Cantillon, B., & Van den Bosch, K. (2018). Social policy strategies to combat income poverty of children and families in Europe. In *Combating Poverty in Europe* (pp. 317-330). Routledge.
- Chaibal S, Chaiyakul S. The association between smartphone and tablet usage and children development. *Acta Psychol (Amst)*. 2022 Aug;228:103646. doi: 10.1016/j.actpsy.2022.103646. Epub 2022 Jun 21. PMID: 35749821.
- Chang FC, Chiu CH, Chen PH, Chiang JT, Miao NF, Chuang HY, Huang WQ, Tseng CC. Smartphone addiction and victimization predicts sleep problems and depression among children. *J Pediatr Nurs*. 2022 May-Jun;64:e24-e31. doi: 10.1016/j.pedn.2022.01.009. Epub 2022 Jan 31. PMID: 35101352.
- Cho K. S., Lee J. M. (2017). Influence of smartphone addiction proneness of young children on problematic behaviors and emotional intelligence: mediating self-assessment effects of parents using smartphones. *Comput. Human Behav*. 66, 303-311. 10.1016/j.chb.2016.09.063
- Chzhen, Y., De Neubourg, C., Plavgo, I., & de Milliano, M. (2016). Child poverty in the European Union: The multiple overlapping deprivation analysis approach (EU-MODA). *Child Indicators Research*, 9, 335-356.
- De Neubourg, C., Bradshaw, J., Chzhen, Y., Main, G., Martorano, B., & Menchini, L. (2012). Child deprivation, multidimensional poverty and monetary poverty in Europe.
- Duncan, G. J., Brooks-Gunn, J., & Klebanov, P. K. (1994). Economic deprivation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5(2), 296-318.
- Duncan, G. J., Yeung, W. J., Brooks-Gunn, J., & Smith, J. R. (1998). How much does childhood poverty affect the life chances of childr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06-423.
- Eurostat(2023), Child specific material deprivation rate by age (children aged less than 16 years), https://ec.europa.eu/eurostat/databrowser/view/ilc_chmd01/default/table?lang=en&category=livcon.ilc.ilc_md.ilc_chmd로부터 인출
- Gong J, Zhou Y, Wang Y, Liang Z, Hao J, Su L, Wang T, Du X, Zhou Y, Wang Y.

- How parental smartphone addiction affects adolescent smartphone addiction: The effect of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parental bonding. *J Affect Disord.* 2022 Jun 15;307:271-277. doi: 10.1016/j.jad.2022.04.014. Epub 2022 Apr 6. PMID: 35398105.
- Guio, A. C., Marlier, E., Vandenbroucke, F., & Verbunt, P. (2020). Micro-and macro-drivers of child deprivation in 31 European countries.
- Guio, A. C., Marlier, E., Vandenbroucke, F., & Verbunt, P. (2021). National risk factors of child deprivation in Europe. Improving the understanding of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in Europe, 219.
- Gordon, D., Nandy, S., Pantazis, C., Pemberton, S., & Townsend, P. (2003). The distribution of child poverty in the developing world. Bristol: Centre for International Poverty Research.
- Holder, M. D., Coleman, B., & Sehn, Z. L. (2009). The contribution of active and passive leisure to children's well-being.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4(3), 378-386. <https://doi.org/10.1177/1359105308101676>
- Jo J, Bang KS. The effect of peer relationship enhancement programs on the prevention of smartphone addiction among late school-age children in South Korea. *J Pediatr Nurs.* 2022 Mar-Apr;63:e127-e135. doi: 10.1016/j.pedn.2021.09.025. Epub 2021 Oct 5. PMID: 34625302.
- Kim HJ, Min JY, Min KB, Lee TJ, Yoo S. Relationship among family environment, self-control, friendship quality, and adolescents' smartphone addiction in South Korea: Findings from nationwide data. *PLoS One.* 2018 Feb 5;13(2):e0190896. doi: 10.1371/journal.pone.0190896. PMID: 29401496; PMCID: PMC5798771.
- Lundy, L. (2007). Voice is not enough: Conceptualising Article 12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British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3(6), 927-942. <https://doi.org/10.1080/01411920701657033>
- Lyubomirsky, S., Sheldon, K. M., & Schkade, D. (2005), Pursuing happiness: the architecture of sustainable change,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9(2), 111-131.
- Martorano, B., Natali, L., De Neubourg, C., Bradshw, J. (2013). Child Well-being in Advanced Economies in the Late 2000s. UNICEF Office of Research.

- McCabe, K., Bray, M. A., Kehle, T. J., Theodore, L. A., & Gelbar, N. W. (2011). Promoting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in School Children. *Canadi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6(3), 177-192. <https://doi.org/10.1177/0829573511419089>
- Moore, A., & Lynch, H. (2017). Understanding a child's conceptualisation of well-being through an exploration of happiness: The centrality of play, people and place. *Journal of Occupational Science*, 25(1), 124-141. <https://doi.org/10.1080/14427591.2017.1377105>
- Nelson, K. (2012). Counteracting material deprivation: The role of social assistance in Europe.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2(2), 148-163.
- OECD(n.d.). Child Well-being, OECD Data Explorer. [https://data-explorer.oecd.org/vis?pg=0&snb=99&vw=tb&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CWB%40DF_CWB&df\[ag\]=OECD.WISE.CWB&df\[vs\]=1.0&dq=.B1_1.&to\[TIME_PERIOD\]=false&tm=education%20and%20care&pd=2013%2C2020](https://data-explorer.oecd.org/vis?pg=0&snb=99&vw=tb&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CWB%40DF_CWB&df[ag]=OECD.WISE.CWB&df[vs]=1.0&dq=.B1_1.&to[TIME_PERIOD]=false&tm=education%20and%20care&pd=2013%2C2020)로부터 인출
- Park, C., & Park, Y. R. (2014). The conceptual model on smart phone addiction among early childhood.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Science and Humanity*, 4(2), 147-150.
- Park JH, Park M. Smartphone use patterns and problematic smartphone use among preschool children. *PLoS One*. 2021 Mar 1;16(3):e0244276. doi: 10.1371/journal.pone.0244276. PMID: 33647038; PMCID: PMC7920339.
- Ratcliffe, C., & McKernan, S. M. (2010). *Childhood poverty persistence: Facts and consequences* (pp. 1-1). Washington, DC: Urban Institute.
- Shin, K-L, & You, S-K. (2013). Leisure type, leisure satisfaction and adolescents'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acific Rim Psychology*, 7(2), 53-62. <https://doi.org/10.1017/prp.2013.6>
- Tan, C. C., & Holub, S. C. (2018). The effects of happiness and sadness on Children's snack consumption. *Appetite*, 123, 169-174. <https://doi.org/10.1016/j.appet.2017.12.021>
- Townsend, P. (1987). Deprivation. *Journal of social policy*, 16(2), 125-146.
- Ting, C. H., and Chen, Y. Y. (2020). "Chapter 8 - Smartphone addiction," in *Practical Resources for the Mental Health Professional, Adolescent Addiction*, 2nd Edn, eds C. Essau and P. Delfabbro (San Diego, CA: Elsevier), 215-240.

doi: 10.1016/B978-0-12-818626-8.00008-6

- Tucker, M., & Rodriguez, C. (2014). Family Dysfunction and Social Isolation as Moderators Between Stress and Child Physical Abuse Risk. *Journal of Family Violence*, 29(2), 175-186.
- Uddin, H., Hasan, M. Family resilience and neighborhood factors affect the association between digital media use and mental health among children: does sleep mediate the association?. *Eur J Pediatr* 182, 2521-2534 (2023). <https://doi.org/10.1007/s00431-023-04898-1>
- UNICEF. (2020). Measuring and Monitoring Child Poverty, <https://data.unicef.org/resources/measuring-and-monitoring-child-poverty/> 로부터 인출
- White, H., Leavy, J., & Masters, A. (2003). Comparative perspectives on child poverty: A review of poverty measures.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4(3), 379-396.
- Wang, M., & Wong, M. S. (2014). Happiness and leisure across countries: Evidence from international survey data.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5(1), 1-31.



[부록 1]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표준오차_아동용

〈부표 1-1〉 아동이 평가한 주관적 건강상태

(단위: %(표준오차), 명)

| 구분 | | 매우 좋다 | 좋다 | 보통이다 | 나쁘다 | 매우 나쁘다 | 사례 수 | χ^2 |
|-----------|---------------------|--------------|-------------|-------------|------------|------------|-------|-------------------|
| 전체 | | 36.5(0.013) | 52.4(0.014) | 9.7(0.009) | 1.4(0.004) | 0.0(0.000) | 3,334 | - |
| 아동 성별 | 남자 | 39.4(0.018) | 50.6(0.019) | 8.7(0.011) | 1.3(0.005) | 0.0(0.000) | 1,735 | 15.984(4) ** |
| | 여자 | 33.3(0.018) | 54.3(0.020) | 10.8(0.013) | 1.6(0.006) | 0.1(0.001) | 1,599 | |
| 아동 연령 | 9-11세 | 33.4(0.021) | 59.6(0.022) | 6.6(0.010) | 0.4(0.002) | - | 1,034 | 46.504(4) *** |
| | 12-17세 | 37.8(0.016) | 49.1(0.017) | 11.1(0.012) | 1.9(0.006) | 0.1(0.001) | 2,300 | |
| 표본 | 일반 | 36.7(0.014) | 52.6(0.014) | 9.4(0.009) | 1.4(0.004) | 0.0(0.000) | 3,195 | 10.947(4) * |
| | 수급 | 32.1(0.021) | 48.2(0.022) | 16.7(0.017) | 2.9(0.007) | - | 139 | |
| 소득 수준 | 중위소득 50% 미만 | 29.7(0.036) | 57.1(0.040) | 11.2(0.030) | 2.0(0.009) | - | 367 | 49.631(16) *** |
| | 중위소득 50~100% 미만 | 35.2(0.024) | 50.5(0.024) | 12.2(0.017) | 2.0(0.009) | 0.1(0.001) | 989 | |
| | 중위소득 100~150% 미만 | 35.7(0.024) | 54.2(0.025) | 9.4(0.016) | 0.7(0.006) | - | 1,047 | |
| | 중위소득 150% 이상 | 41.0(0.026) | 50.8(0.026) | 6.7(0.013) | 1.5(0.008) | 0.0(0.000) | 925 | |
| | 무응답 | 100.0(0.000) | - | - | - | - | 6 | |
| 지역 | 대도시 | 36.9(0.019) | 50.9(0.020) | 10.4(0.013) | 1.7(0.006) | - | 1,548 | 11.367(8) |
| | 중소도시 | 35.2(0.019) | 54.2(0.021) | 9.3(0.013) | 1.2(0.006) | 0.1(0.001) | 1,581 | |
| | 농어촌 | 42.7(0.037) | 49.6(0.038) | 6.6(0.016) | 1.0(0.007) | - | 205 | |
| 가구 유형 | 양부모 | 37.5(0.014) | 51.3(0.015) | 10.0(0.010) | 1.1(0.004) | 0.0(0.000) | 2,907 | 30.193(4) *** |
| | 한부모·조손 | 29.3(0.030) | 59.7(0.032) | 7.4(0.012) | 3.6(0.015) | - | 427 | |
| 맞벌이 여부 | 맞벌이 | 38.6(0.019) | 52.1(0.019) | 8.3(0.011) | 1.0(0.004) | 0.0(0.000) | 1,710 | 50.757(8) *** |
| | 외벌이 | 34.8(0.019) | 52.6(0.021) | 10.9(0.014) | 1.7(0.008) | - | 1,499 | |
| | 기타 | 28.2(0.048) | 53.5(0.056) | 13.3(0.047) | 4.0(0.016) | 1.0(0.009) | 125 | |

주 :*** p<.001, ** p<.01, *p<.05

〈부표 1-2〉 9~17세 비만을

(단위: %(표준오차), 명)

| | | 저체중 | 정상 | 과체중 | 비만 | 사례수 | χ^2 |
|-----------|------------------|------------|--------------|-------------|-------------|-------|-------------------|
| 전체 | | 5.6(0.006) | 74.1(0.012) | 8.6(0.008) | 11.6(0.009) | 3,334 | - |
| 아동 성별 | 남자 | 4.7(0.008) | 70.4(0.018) | 10.1(0.011) | 14.7(0.014) | 1,735 | 52.357(3) *** |
| | 여자 | 6.6(0.010) | 78.2(0.016) | 7.0(0.010) | 8.2(0.011) | 1,599 | |
| 아동 연령 | 9~11세 | 6.4(0.010) | 72.0(0.020) | 9.7(0.013) | 11.9(0.015) | 1,034 | 4.652(3) |
| | 12~17세 | 5.3(0.008) | 75.1(0.015) | 8.2(0.009) | 11.5(0.012) | 2,300 | |
| 표본 | 일반 | 5.6(0.006) | 74.5(0.013) | 8.5(0.008) | 11.4(0.010) | 3,195 | 6.734(3) |
| | 수급 | 5.6(0.011) | 65.6(0.022) | 12.0(0.015) | 16.8(0.017) | 139 | |
| 소득 수준 | 중위소득 50% 미만 | 9.8(0.026) | 64.2(0.040) | 14.7(0.030) | 11.4(0.026) | 367 | 67.752(12) *** |
| | 중위소득 50~100% 미만 | 6.8(0.012) | 74.0(0.021) | 7.1(0.011) | 12.0(0.017) | 989 | |
| | 중위소득 100~150% 미만 | 5.3(0.010) | 71.8(0.023) | 9.1(0.014) | 13.8(0.019) | 1,047 | |
| | 중위소득 150% 이상 | 3.2(0.008) | 80.7(0.021) | 7.4(0.014) | 8.8(0.015) | 925 | |
| | 무응답 | - | 100.0(0.000) | - | - | 6 | |
| 지역 | 대도시 | 6.9(0.011) | 74.0(0.017) | 9.2(0.011) | 9.9(0.012) | 1,548 | 17.931(6) ** |
| | 중소도시 | 4.4(0.007) | 74.6(0.018) | 8.0(0.011) | 13.1(0.015) | 1,581 | |
| | 농어촌 | 5.9(0.019) | 71.8(0.036) | 9.4(0.023) | 12.8(0.029) | 205 | |
| 가구 유형 | 양부모 | 5.7(0.007) | 74.7(0.013) | 8.1(0.008) | 11.5(0.010) | 2,907 | 7.894(3) |
| | 한부모·조손 | 5.1(0.012) | 70.7(0.028) | 12.1(0.021) | 12.2(0.017) | 427 | * |
| 맞벌이 여부 | 맞벌이 | 4.4(0.007) | 75.2(0.017) | 8.2(0.010) | 12.2(0.014) | 1,710 | 18.064(6) ** |
| | 외벌이 | 7.0(0.011) | 73.6(0.018) | 9.0(0.012) | 10.4(0.013) | 1,499 | |
| | 기타 | 6.5(0.022) | 65.6(0.052) | 10.7(0.033) | 17.2(0.043) | 125 | |

주: *** p<.001, ** p<.01, *p<.05

〈부표 1-3〉 건강검진 수검 여부

(단위: %(표준오차), 명)

| | | 예 | 아니오 | 사례수 | χ^2 |
|-------|------------------|--------------|-------------|-------|--------------|
| 전체 | | 74.6(0.013) | 25.4(0.013) | 3,334 | - |
| 아동 성별 | 남자 | 72.7(0.018) | 27.3(0.018) | 1,735 | 7.017(1)** |
| | 여자 | 76.7(0.017) | 23.3(0.017) | 1,599 | |
| 아동 연령 | 9-11세 | 80.9(0.020) | 19.1(0.020) | 1,034 | 31.258(1)*** |
| | 12-17세 | 71.8(0.016) | 28.2(0.016) | 2,300 | |
| 표본 | 일반 | 74.7(0.013) | 25.3(0.013) | 3,195 | 0.183(1) |
| | 수급 | 73.1(0.020) | 26.9(0.020) | 139 | |
| 소득 수준 | 중위소득 50% 미만 | 77.6(0.036) | 22.4(0.036) | 367 | 11.904(4)* |
| | 중위소득 50~100% 미만 | 73.3(0.024) | 26.7(0.024) | 989 | |
| | 중위소득 100~150% 미만 | 72.2(0.024) | 27.8(0.024) | 1,047 | |
| | 중위소득 150% 이상 | 77.5(0.022) | 22.5(0.022) | 925 | |
| | 무응답 | 100.0(0.000) | - | 6 | |
| 지역 | 대도시 | 78.5(0.018) | 21.5(0.018) | 1,548 | 26.422(2)*** |
| | 중소도시 | 70.6(0.019) | 29.4(0.019) | 1,581 | |
| | 농어촌 | 76.5(0.031) | 23.5(0.031) | 205 | |
| 가구 유형 | 양부모 | 74.9(0.014) | 25.1(0.014) | 2,907 | 0.777(1) |
| | 한부모·조손 | 72.9(0.035) | 27.1(0.035) | 427 | |
| 맞벌이여부 | 맞벌이 | 77.3(0.016) | 22.7(0.016) | 1,710 | 14.431(2)** |
| | 외벌이 | 71.5(0.020) | 28.5(0.020) | 1,499 | |
| | 기타 | 74.9(0.052) | 25.1(0.052) | 125 | |

주: *** p<.001, ** p<.01, *p<.05

〈부표 1-4〉 학생 수면시간

(단위: %(표준오차), 명)

| 구분 | | 학기중 평균 | t, F | 방학 중 평균 | t, F | 사례수 |
|-----------|------------------|-------------|---------------------|-------------|--------------------|-------|
| 전체 | | 7.93(0.040) | - | 9.14(0.040) | - | 3,315 |
| 아동 성별 | 남자 | 8.02(0.051) | t=3.888 *** | 9.10(0.059) | t=-1.868 | 1,719 |
| | 여자 | 7.83(0.061) | | 9.19(0.053) | | 1,595 |
| 아동 연령 | 9-11세 | 9.02(0.044) | t=39.745 *** | 9.73(0.049) | t=19.273 *** | 1,034 |
| | 12-17세 | 7.44(0.045) | | 8.88(0.050) | | 2,280 |
| 표본 | 일반 | 7.94(0.041) | t=2.393 * | 9.15(0.041) | t=0.539 | 3,177 |
| | 수급 | 7.65(0.070) | | 9.08(0.075) | | 137 |
| 소득 수준 | 중위소득 50% 미만 | 7.72(0.128) | F=3.024 *(a) | 9.21(0.131) | F=4.149 ***(a) | 367 |
| | 중위소득 50~100% 미만 | 7.99(0.065) | | 9.27(0.076) | | 980 |
| | 중위소득 100~150% 미만 | 7.98(0.074) | | 9.07(0.073) | | 1,041 |
| | 중위소득 150% 이상 | 7.89(0.076) | | 9.06(0.065) | | 921 |
| | 무응답 | 7.79(0.675) | | 9.79(0.675) | | 6 |
| 지역 | 대도시 | 7.77(0.058) | F=21.634 ****(a) | 9.08(0.062) | F=3.622 *(a) | 1,546 |
| | 중소도시 | 8.05(0.060) | | 9.21(0.056) | | 1,569 |
| | 농어촌 | 8.23(0.084) | | 9.15(0.081) | | 200 |
| 가구 유형 | 양부모 | 7.97(0.043) | t=3.633 *** | 9.15(0.042) | t=1.027 | 2,897 |
| | 한부모·조손 | 7.68(0.103) | | 9.07(0.117) | | 417 |
| 맞벌이 여부 | 맞벌이 | 7.92(0.054) | F=0.723 (a) | 9.05(0.056) | F=8.036 ****(a) | 1,703 |
| | 외벌이 | 7.95(0.061) | | 9.25(0.059) | | 1,489 |
| | 기타 | 7.81(0.163) | | 9.16(0.185) | | 122 |

주: 1) *** p<.001, ** p<.01, *p<.05
 2) (a) 분산분석을 위한 기본가정을 충족하지 못함

〈부표 1-5〉 비학생 수면시간

(단위: %(표준오차), 명)

| 구분 | | 평상시 | 사례수 | t, F |
|-------|------------------|--------------|-----|------------|
| 전체 | | 8.56(0.455) | 20 | - |
| 아동 성별 | 남자 | 8.10(0.516) | 15 | t=-2.855* |
| | 여자 | 10.19(0.488) | 4 | |
| 아동 연령 | 9-11세 | - | 0 | - |
| | 12-17세 | 8.56(0.543) | 20 | |
| 표본 | 일반 | 8.54(0.492) | 18 | t=-0.183 |
| | 수급 | 8.79(0.578) | 2 | |
| 소득 수준 | 중위소득 50% 미만 | 9.00(0.000) | 1 | F=0.518(a) |
| | 중위소득 50~100% 미만 | 8.50(0.390) | 9 | |
| | 중위소득 100~150% 미만 | 8.04(1.328) | 6 | |
| | 중위소득 150% 이상 | 9.38(1.267) | 4 | |
| | 무응답 | - | 0 | |
| 지역 | 대도시 | 9.82(0.058) | 2 | F=0.846(a) |
| | 중소도시 | 8.62(0.570) | 13 | |
| | 농어촌 | 8.00(1.437) | 5 | |
| 가구 유형 | 양부모 | 8.71(0.840) | 10 | t=0.433 |
| | 한부모·조손 | 8.40(0.324) | 10 | |
| 맞벌이여부 | 맞벌이 | 8.06(1.402) | 6 | F=0.710(a) |
| | 외벌이 | 8.63(0.520) | 10 | |
| | 기타 | 9.43(0.265) | 3 | |

주: 1) *** p<.001, ** p<.01, *p<.05

2) 비학생은 현재 휴학중이거나 중퇴한 아동을 의미함.

3) (a) 분산분석을 위한 기본가정을 충족하지 못함

〈부표 1-6〉 아침, 점심, 저녁 식습관

(단위: %(표준오차), 명)

| 구분 | | 2023 | | | | |
|--------|--------|-------------|-------------|-------------|------------|-------|
| | | 거의 먹지 않는다 | 먹는 편이다 | 항상 먹는다 | 모른다 | 사례수 |
| 현재 학생 | 학기중 아침 | 24.9(0.012) | 28.1(0.012) | 46.8(0.014) | 0.2(0.001) | 3,315 |
| | 학기중 점심 | 1.0(0.003) | 15.1(0.010) | 83.8(0.010) | 0.1(0.001) | 3,315 |
| | 학기중 저녁 | 0.2(0.001) | 16.6(0.011) | 82.8(0.011) | 0.4(0.002) | 3,315 |
| | 방학중 아침 | 25.1(0.012) | 28.8(0.012) | 45.9(0.014) | 0.2(0.001) | 3,315 |
| | 방학중 점심 | 0.9(0.003) | 16.7(0.010) | 82.2(0.011) | 0.3(0.001) | 3,315 |
| | 방학중 저녁 | 0.6(0.003) | 15.2(0.010) | 84.0(0.010) | 0.2(0.001) | 3,315 |
| 현재 비학생 | 평상시 아침 | 57.2(0.086) | 7.0(0.050) | 35.7(0.049) | - | 20 |
| | 평상시 점심 | 1.3(0.013) | 7.6(0.050) | 91.1(0.047) | - | 20 |
| | 평상시 저녁 | - | 8.3(0.048) | 91.7(0.048) | - | 20 |

주: 1) *** p<.001, ** p<.01, *p<.05

2) 비학생은 현재 휴학중이거나 중퇴한 아동을 의미함.

〈부표 1-7〉 중등도 운동실천율

(단위: %(표준오차), 명)

| 구분 | | 0일 (없음) | 1일 | 2일 | 3일 | 4일 | 5일 이상 | 사례 수 | χ^2 |
|---------------|---------------------|--------------|-------------|-------------|-------------|------------|-------------|---------|-------------------|
| 전체 | | 48.9(0.014) | 7.3(0.007) | 12.3(0.009) | 10.3(0.008) | 4.0(0.006) | 17.2(0.010) | 3,334 | - |
| 아동 성별 | 남자 | 38.3(0.018) | 7.8(0.011) | 12.5(0.013) | 12.6(0.012) | 5.1(0.009) | 23.7(0.017) | 1,735 | 200.585(5) *** |
| | 여자 | 60.3(0.019) | 6.8(0.009) | 12.0(0.014) | 7.9(0.011) | 2.8(0.007) | 10.2(0.011) | 1,599 | |
| 아동 연령 | 9-11세 | 42.0(0.023) | 7.1(0.012) | 13.4(0.017) | 9.5(0.012) | 5.1(0.009) | 23.0(0.019) | 1,034 | 50.439(5) *** |
| | 12-17세 | 52.0(0.017) | 7.4(0.009) | 11.8(0.011) | 10.7(0.011) | 3.5(0.007) | 14.6(0.012) | 2,300 | |
| 표본 | 일반 | 48.8(0.014) | 7.4(0.008) | 12.3(0.010) | 10.3(0.009) | 4.0(0.006) | 17.2(0.011) | 3,195 | 0.857(5) |
| | 수급 | 50.3(0.022) | 5.5(0.009) | 11.7(0.014) | 10.6(0.015) | 4.4(0.008) | 17.6(0.016) | 139 | |
| 소득 수준 | 중위소득 50% 미만 | 54.8(0.040) | 10.2(0.026) | 8.5(0.022) | 9.2(0.024) | 3.0(0.013) | 14.3(0.031) | 367 | 70.512(20) *** |
| | 중위소득 50~100% 미만 | 52.1(0.024) | 6.5(0.011) | 10.2(0.016) | 11.4(0.015) | 4.5(0.011) | 15.3(0.017) | 989 | |
| | 중위소득 100~150% 미만 | 51.0(0.025) | 5.5(0.010) | 12.2(0.017) | 9.6(0.014) | 3.5(0.009) | 18.2(0.020) | 1,047 | |
| | 중위소득 150% 이상 | 40.3(0.025) | 9.2(0.017) | 16.1(0.020) | 10.4(0.017) | 4.6(0.012) | 19.4(0.020) | 925 | |
| | 무응답 | 100.0(0.000) | - | - | - | - | - | 6 | |
| 지역 | 대도시 | 49.1(0.020) | 10.3(0.013) | 12.7(0.014) | 10.0(0.012) | 3.4(0.007) | 14.6(0.013) | 1,548 | 57.281(10) *** |
| | 중소도시 | 49.4(0.021) | 4.9(0.008) | 12.2(0.014) | 10.1(0.012) | 4.5(0.010) | 19.0(0.017) | 1,581 | |
| | 농어촌 | 43.2(0.036) | 4.0(0.014) | 9.9(0.026) | 14.3(0.026) | 5.1(0.017) | 23.5(0.034) | 205 | |
| 가구 유형 | 양부모 | 47.8(0.015) | 7.4(0.008) | 12.6(0.010) | 10.1(0.009) | 4.4(0.006) | 17.6(0.011) | 2,907 | 19.001(5) ** |
| | 한부모·조손 | 56.1(0.033) | 6.4(0.014) | 10.0(0.024) | 11.7(0.022) | 1.5(0.004) | 14.3(0.022) | 427 | |
| 맞벌 이 여부 | 맞벌이 | 47.0(0.019) | 8.2(0.011) | 12.5(0.013) | 10.0(0.012) | 4.1(0.008) | 18.3(0.015) | 1,710 | 14.817(10) |
| | 외벌이 | 50.2(0.021) | 6.4(0.010) | 12.4(0.014) | 10.6(0.012) | 3.9(0.008) | 16.5(0.015) | 1,499 | |
| | 기타 | 59.1(0.052) | 6.5(0.024) | 8.3(0.024) | 10.2(0.027) | 5.0(0.025) | 10.9(0.028) | 125 | |

주: *** p<.001, ** p<.01, *p<.05

〈부표 1-8〉 고강도 운동실천율

(단위: %(표준오차), 명)

| 구분 | 0일 | 주 1일 | 주 2일 | 주 3일 | 주 4일 | 주 5일 | 주 6일 | 주 7일 | 사례 수 | χ^2 |
|-----------|------------------------|--------------|-------------|-------------|-------------|------------|-------------|------------|------------|-------------------|
| 전체 | 51.9(0.014) | 10.3(0.009) | 12.1(0.009) | 8.9(0.007) | 4.1(0.006) | 9.1(0.008) | 1.2(0.004) | 2.4(0.004) | 3,334 | - |
| 아동 성별 | 남자 | 40.2(0.019) | 10.7(0.012) | 13.7(0.013) | 12.5(0.012) | 5.2(0.010) | 12.2(0.013) | 1.7(0.006) | 3.8(0.007) | 243,759 (7)*** |
| | 여자 | 64.6(0.019) | 9.9(0.012) | 10.4(0.012) | 5.0(0.008) | 2.9(0.008) | 5.9(0.008) | 0.6(0.004) | 0.8(0.005) | |
| 아동 연령 | 9-11세 | 43.3(0.023) | 9.4(0.012) | 14.5(0.017) | 11.5(0.014) | 3.8(0.009) | 13.8(0.015) | 1.2(0.006) | 2.4(0.008) | 77,619 (7)*** |
| | 12-17세 | 55.7(0.017) | 10.7(0.011) | 11.0(0.010) | 7.7(0.008) | 4.3(0.008) | 7.0(0.009) | 1.2(0.004) | 2.3(0.005) | |
| 표본 | 일반 | 51.8(0.014) | 10.3(0.009) | 12.1(0.009) | 8.8(0.008) | 4.2(0.006) | 9.3(0.008) | 1.2(0.004) | 2.3(0.005) | 3,765 (7) |
| | 수급 | 53.0(0.022) | 11.2(0.014) | 11.7(0.014) | 10.7(0.014) | 2.4(0.006) | 6.2(0.011) | 1.5(0.006) | 3.3(0.008) | |
| 소득 수준 | 중위소득 50% 미만 | 53.1(0.040) | 10.0(0.025) | 13.6(0.029) | 7.3(0.020) | 4.6(0.023) | 8.8(0.022) | 1.8(0.016) | 0.9(0.005) | 73,498 (28)*** |
| | 중위소득 50~100% 미만 | 56.4(0.024) | 9.6(0.015) | 10.2(0.015) | 9.8(0.014) | 2.4(0.008) | 9.4(0.013) | 0.8(0.004) | 1.3(0.005) | |
| | 중위소득 100~150% 미만 | 53.3(0.025) | 8.8(0.014) | 11.5(0.016) | 8.9(0.014) | 4.4(0.011) | 9.6(0.017) | 1.2(0.006) | 2.3(0.008) | |
| | 중위소득 150% 이상 | 44.6(0.026) | 12.9(0.020) | 14.4(0.018) | 8.6(0.013) | 5.4(0.013) | 8.5(0.013) | 1.4(0.008) | 4.2(0.011) | |
| | 무응답 | 100.0(0.000) | - | - | - | - | - | - | - | |
| 지역 | 대도시 | 53.2(0.020) | 12.1(0.014) | 13.9(0.014) | 8.5(0.011) | 2.6(0.006) | 7.2(0.010) | 0.8(0.003) | 1.7(0.004) | 63,417 (14)*** |
| | 중소도시 | 51.2(0.021) | 8.4(0.013) | 10.4(0.013) | 8.9(0.011) | 5.7(0.012) | 10.6(0.013) | 1.6(0.007) | 3.1(0.008) | |
| | 농어촌 | 47.4(0.037) | 11.6(0.026) | 11.4(0.030) | 11.6(0.024) | 3.3(0.013) | 11.7(0.023) | 0.5(0.005) | 2.4(0.014) | |
| 가구 유형 | 양부모 | 50.8(0.015) | 10.6(0.010) | 12.4(0.010) | 8.7(0.008) | 4.3(0.007) | 9.3(0.009) | 1.3(0.004) | 2.5(0.005) | 15,786 (7)* |
| | 한부모·조손 | 59.0(0.033) | 8.4(0.023) | 10.0(0.017) | 9.8(0.020) | 2.6(0.015) | 8.3(0.016) | 0.5(0.002) | 1.5(0.005) | |
| 맞벌이 여부 | 맞벌이 | 49.8(0.019) | 11.6(0.013) | 12.4(0.013) | 8.5(0.010) | 3.7(0.008) | 9.4(0.011) | 1.2(0.005) | 3.4(0.008) | 32,815 (14)** |
| | 외벌이 | 53.4(0.021) | 9.0(0.013) | 11.9(0.013) | 9.4(0.011) | 4.6(0.010) | 9.2(0.011) | 1.3(0.006) | 1.3(0.003) | |
| | 기타 | 61.9(0.051) | 8.3(0.024) | 10.4(0.029) | 8.7(0.024) | 4.3(0.025) | 5.6(0.020) | 0.4(0.003) | 0.5(0.002) | |

주: *** p<.001, ** p<.01, *p<.05

〈부표 1-9〉 중강도 운동실천율

(단위: %(표준오차), 명)

| 구분 | 0일 | 주 1일 | 주 2일 | 주 3일 | 주 4일 | 주 5일 | 주 6일 | 주 7일 | 사례수 | χ^2 | |
|---------------|----------------------------|--------------|-------------|-------------|-------------|------------|-------------|------------|------------|----------|-------------------------------|
| 2023 [전체] | 53.3(0.014) | 10.3(0.008) | 12.7(0.009) | 10.3(0.009) | 2.6(0.005) | 7.5(0.007) | 1.3(0.004) | 1.9(0.003) | 3,334 | - | |
| 아동 성별 | 남자 | 44.2(0.019) | 11.1(0.012) | 13.7(0.013) | 13.0(0.014) | 3.6(0.007) | 9.8(0.011) | 1.8(0.005) | 2.8(0.006) | 1,735 | 149.958 (7) ^{***} |
| | 여자 | 63.3(0.019) | 9.4(0.012) | 11.7(0.013) | 7.4(0.011) | 1.6(0.005) | 5.1(0.008) | 0.7(0.005) | 0.8(0.003) | 1,599 | |
| 아동 연령 | 9-11세 | 45.8(0.023) | 10.6(0.014) | 14.2(0.017) | 10.9(0.014) | 3.4(0.008) | 10.9(0.012) | 2.0(0.008) | 2.3(0.006) | 1,034 | 52.017 (7) ^{***} |
| | 12-17세 | 56.7(0.017) | 10.2(0.010) | 12.1(0.011) | 10.0(0.011) | 2.3(0.006) | 6.0(0.008) | 1.0(0.004) | 1.7(0.004) | 2,300 | |
| 표본 | 일반 | 53.4(0.014) | 10.2(0.009) | 12.8(0.010) | 10.3(0.009) | 2.6(0.005) | 7.6(0.007) | 1.3(0.004) | 1.9(0.004) | 3,195 | 1.025 (7) |
| | 수급 | 52.7(0.022) | 12.4(0.014) | 11.8(0.015) | 10.2(0.014) | 2.5(0.007) | 6.9(0.012) | 1.3(0.005) | 2.3(0.006) | 139 | |
| 소득 수준 | 중위소득 50% 미만 | 54.8(0.040) | 7.8(0.021) | 12.3(0.028) | 12.1(0.031) | 3.0(0.017) | 9.0(0.019) | 0.5(0.004) | 0.4(0.002) | 367 | 75.644 (28) ^{***} |
| | 중위소득 50~100% 미만 | 56.5(0.024) | 8.7(0.012) | 10.5(0.014) | 12.6(0.019) | 2.5(0.006) | 7.3(0.011) | 1.0(0.005) | 1.0(0.004) | 989 | |
| | 중위소득 100~150 % 미만 | 54.8(0.025) | 10.6(0.016) | 11.7(0.016) | 9.5(0.015) | 2.9(0.008) | 7.2(0.013) | 1.1(0.007) | 2.2(0.007) | 1,047 | |
| | 중위소득 150% 이상 | 47.5(0.026) | 12.7(0.019) | 16.5(0.020) | 8.2(0.012) | 2.3(0.010) | 7.6(0.013) | 2.2(0.009) | 3.0(0.008) | 925 | |
| | 무응답 | 100.0(0.000) | - | - | - | - | - | - | - | 6 | |
| 지역 | 대도시 | 54.1(0.020) | 11.1(0.013) | 13.3(0.013) | 10.7(0.014) | 1.9(0.004) | 6.6(0.008) | 0.9(0.003) | 1.5(0.004) | 1,548 | 35.449 (14) ^{**} |
| | 중소도시 | 53.8(0.021) | 9.3(0.012) | 11.4(0.014) | 10.2(0.013) | 3.4(0.009) | 8.1(0.011) | 1.7(0.007) | 2.1(0.006) | 1,581 | |
| | 농어촌 | 44.4(0.036) | 12.0(0.025) | 18.1(0.034) | 7.6(0.018) | 2.4(0.011) | 10.9(0.025) | 1.3(0.008) | 3.3(0.015) | 205 | |
| 가구 유형 | 양부모 | 52.6(0.015) | 10.4(0.009) | 13.1(0.010) | 10.0(0.010) | 2.8(0.005) | 7.7(0.007) | 1.4(0.004) | 2.0(0.004) | 2,907 | 16.152 (7) [*] |
| | 한부모·조손 | 58.7(0.033) | 9.7(0.019) | 10.0(0.021) | 12.5(0.027) | 1.5(0.005) | 6.2(0.012) | 0.5(0.002) | 1.0(0.004) | 427 | |
| 맞벌 이여 부 | 맞벌이 | 52.2(0.019) | 10.7(0.012) | 13.6(0.013) | 8.7(0.011) | 3.1(0.008) | 8.2(0.010) | 1.7(0.006) | 1.7(0.005) | 1,710 | 34.381 (14) ^{**} |
| | 외벌이 | 53.7(0.021) | 9.6(0.012) | 12.2(0.014) | 12.2(0.015) | 2.1(0.005) | 7.1(0.009) | 0.9(0.003) | 2.2(0.006) | 1,499 | |
| | 기타 | 64.7(0.049) | 12.6(0.033) | 6.9(0.023) | 8.5(0.023) | 3.2(0.024) | 3.7(0.011) | 0.3(0.002) | 0.1(0.001) | 125 | |

주: *** p<.001, ** p<.01, *p<.05

<부표 1-10> 9-17세 아동의 평상시 스트레스 인지도(빈도)

(단위: %(표준오차), 명)

| 구분 | | 대단히 많이 느낀다 | 많이 느낀다 | 조금 느낀다 | 별로 느끼지 않는다 | 전혀 느끼지 않는다 | 사례수 | χ^2 |
|-----------------------|------------------|------------------|-------------|-------------|------------------|------------------|-------|-------------------|
| 전체 | | 1.2(0.002) | 12.0(0.009) | 43.5(0.014) | 38.0(0.013) | 5.2(0.006) | 3,334 | - |
| 아 동 성 별 | 남자 | 1.0(0.002) | 12.3(0.013) | 41.7(0.019) | 38.9(0.019) | 6.1(0.009) | 1,735 | 10.551(4)* |
| | 여자 | 1.5(0.004) | 11.7(0.014) | 45.4(0.019) | 37.1(0.019) | 4.3(0.007) | 1,599 | |
| 아 동 연 령 | 9-11세 | 1.0(0.003) | 7.0(0.013) | 37.1(0.022) | 47.2(0.023) | 7.6(0.013) | 1,034 | 95.470(4) *** |
| | 12-17세 | 1.3(0.003) | 14.3(0.012) | 46.4(0.017) | 33.9(0.016) | 4.2(0.006) | 2,300 | |
| 표 본 | 일반 | 1.2(0.003) | 12.0(0.010) | 43.5(0.014) | 38.3(0.014) | 5.1(0.006) | 3,195 | 6.096(4) |
| | 수급 | 2.5(0.007) | 13.2(0.015) | 43.2(0.023) | 32.7(0.021) | 8.4(0.013) | 139 | |
| 소 득 수 준 | 중위소득 50% 미만 | 1.9(0.013) | 17.8(0.034) | 40.5(0.039) | 34.3(0.038) | 5.4(0.015) | 367 | 46.773(16) *** |
| | 중위소득 50~100% 미만 | 1.3(0.003) | 10.2(0.016) | 45.7(0.024) | 37.4(0.023) | 5.4(0.012) | 989 | |
| | 중위소득 100~150% 미만 | 1.7(0.005) | 10.0(0.015) | 44.5(0.025) | 39.5(0.025) | 4.4(0.010) | 1,047 | |
| | 중위소득 150% 이상 | 0.3(0.002) | 14.1(0.020) | 41.5(0.026) | 38.1(0.026) | 6.0(0.011) | 925 | |
| | 무응답 | - | - | - | 100.0(0.000) | - | 6 | |
| 지 역 | 대도시 | 0.9(0.003) | 10.9(0.013) | 43.8(0.020) | 38.3(0.019) | 6.1(0.009) | 1,548 | 15.110(8) |
| | 중소도시 | 1.3(0.004) | 13.5(0.015) | 42.7(0.020) | 38.1(0.021) | 4.4(0.008) | 1,581 | |
| | 농어촌 | 2.5(0.011) | 9.8(0.022) | 47.9(0.037) | 35.3(0.037) | 4.5(0.019) | 205 | |
| 가 구 유 형 | 양부모 | 1.2(0.003) | 11.5(0.010) | 43.4(0.015) | 38.7(0.015) | 5.2(0.007) | 2,907 | 9.751(4)* |
| | 한부모·조손 | 1.6(0.004) | 15.9(0.027) | 43.9(0.033) | 33.2(0.031) | 5.4(0.011) | 427 | |
| 맞 벌 이 여 부 | 맞벌이 | 1.4(0.004) | 12.6(0.013) | 42.6(0.019) | 37.8(0.019) | 5.8(0.009) | 1,710 | 17.610(8)* |
| | 외벌이 | 0.9(0.002) | 11.0(0.014) | 44.8(0.020) | 38.9(0.020) | 4.4(0.008) | 1,499 | |
| | 기타 | 2.9(0.012) | 17.4(0.046) | 40.7(0.055) | 30.8(0.053) | 8.3(0.024) | 125 | |

주: *** p<.001, ** p<.01, *p<.05

〈부표 1-11〉 9-17세 아동의 우울감

(단위: %(표준오차), 명)

| 구분 | | 없음 | 있음 | 사례수 | χ^2 |
|-------|------------------|--------------|-------------|-------|--------------|
| 전체 | | 95.1(0.006) | 4.9(0.006) | 3,334 | - |
| 아동 성별 | 남자 | 96.6(0.006) | 3.4(0.006) | 1,735 | 15.720(1)*** |
| | 여자 | 93.6(0.011) | 6.4(0.011) | 1,599 | |
| 아동 연령 | 9-11세 | 95.5(0.008) | 4.5(0.008) | 1,034 | 0.370(1) |
| | 12-17세 | 95.0(0.008) | 5.0(0.008) | 2,300 | |
| 표본 | 일반 | 95.4(0.006) | 4.6(0.006) | 3,195 | 14.736(1)*** |
| | 수급 | 88.3(0.014) | 11.7(0.014) | 139 | |
| 소득 수준 | 중위소득 50% 미만 | 92.7(0.026) | 7.3(0.026) | 367 | 5.699(4) |
| | 중위소득 50~100% 미만 | 95.2(0.008) | 4.8(0.008) | 989 | |
| | 중위소득 100~150% 미만 | 95.5(0.011) | 4.5(0.011) | 1,047 | |
| | 중위소득 150% 이상 | 95.6(0.012) | 4.4(0.012) | 925 | |
| | 무응답 | 100.0(0.000) | - | 6 | |
| 지역 | 대도시 | 94.7(0.009) | 5.3(0.009) | 1,548 | 1.293(2) |
| | 중소도시 | 95.6(0.009) | 4.4(0.009) | 1,581 | |
| | 농어촌 | 95.4(0.014) | 4.6(0.014) | 205 | |
| 가구 유형 | 양부모 | 95.5(0.007) | 4.5(0.007) | 2,907 | 4.752(1)* |
| | 한부모·조손 | 93.0(0.014) | 7.0(0.014) | 427 | |
| 맞벌이여부 | 맞벌이 | 96.4(0.007) | 3.6(0.007) | 1,710 | 13.953(2)** |
| | 외벌이 | 94.1(0.011) | 5.9(0.011) | 1,499 | |
| | 기타 | 90.9(0.024) | 9.1(0.024) | 125 | |

주: *** p<.001, ** p<.01, *p<.05

〈부표 1-12〉 9-17세 아동의 불안감

(단위: %(표준오차), 명)

| 구분 | | 불안감 없음 | 경미 | 중간 | 심각 | 사례수 | χ^2 |
|-----------|------------------|--------------|------------|------------|------------|-------|-------------------|
| 전체 | | 93.4(0.007) | 4.7(0.006) | 1.3(0.003) | 0.7(0.002) | 3,334 | - |
| 아동 성별 | 남자 | 94.6(0.009) | 3.9(0.008) | 1.0(0.004) | 0.4(0.002) | 1,735 | 11.003(3) |
| | 여자 | 91.9(0.012) | 5.5(0.010) | 1.5(0.006) | 1.0(0.004) | 1,599 | * |
| 아동 연령 | 9-11세 | 95.5(0.009) | 3.4(0.008) | 0.6(0.003) | 0.6(0.003) | 1,034 | 12.136(3) |
| | 12-17세 | 92.4(0.010) | 5.3(0.009) | 1.6(0.005) | 0.7(0.003) | 2,300 | ** |
| 표본 | 일반 | 93.5(0.008) | 4.5(0.007) | 1.3(0.004) | 0.7(0.002) | 3,195 | 4.393(3) |
| | 수급 | 89.1(0.014) | 7.9(0.012) | 1.8(0.006) | 1.2(0.004) | 139 | |
| 소득 수준 | 중위소득 50% 미만 | 89.6(0.028) | 5.4(0.018) | 2.5(0.016) | 2.5(0.017) | 367 | 42.944(12) *** |
| | 중위소득 50~100% 미만 | 91.5(0.015) | 6.6(0.015) | 1.1(0.004) | 0.8(0.003) | 989 | |
| | 중위소득 100~150% 미만 | 94.7(0.012) | 4.0(0.011) | 0.9(0.005) | 0.3(0.002) | 1,047 | |
| | 중위소득 150% 이상 | 95.2(0.013) | 3.1(0.010) | 1.4(0.008) | 0.3(0.002) | 925 | |
| | 무응답 | 100.0(0.000) | - | - | - | 6 | |
| 지역 | 대도시 | 92.5(0.011) | 5.7(0.010) | 1.4(0.005) | 0.4(0.002) | 1,548 | 11.572(6) |
| | 중소도시 | 93.8(0.011) | 4.0(0.009) | 1.2(0.005) | 1.0(0.004) | 1,581 | |
| | 농어촌 | 96.0(0.016) | 2.3(0.014) | 1.1(0.007) | 0.5(0.005) | 205 | |
| 가구 유형 | 양부모 | 93.7(0.008) | 4.5(0.007) | 1.1(0.004) | 0.6(0.002) | 2,907 | 7.078(3) |
| | 한부모·조손 | 90.7(0.018) | 6.0(0.015) | 2.3(0.010) | 1.1(0.005) | 427 | |
| 맞벌이 여부 | 맞벌이 | 94.1(0.010) | 4.3(0.009) | 1.2(0.004) | 0.4(0.002) | 1,710 | 10.286(6) |
| | 외벌이 | 92.8(0.012) | 4.8(0.010) | 1.4(0.006) | 1.0(0.005) | 1,499 | |
| | 기타 | 88.9(0.029) | 8.3(0.026) | 1.3(0.008) | 1.5(0.011) | 125 | |

주: 1) *** p<.001, ** p<.01, *p<.05

2) 범불안장애 선별도구(GAD-7)의 총합계로 “불안감 없음(0~4점)”, “경미(5~9점)”, “중간(10~14점)”, “심각(15~32점)”으로 분류

3) 각 문항은 1~4점의 값을 갖도록 되어 있으나 0~3점의 값으로 재코딩

〈부표 1-13〉 9-17세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

(단위: %(표준오차), 명)

| 구분 | | 고위험군 | 잠재적 위험군 | 일반 사용자군 | 사례 수 | χ^2 |
|-----------|------------------|------------|-------------|-------------|-------|------------------|
| 전체 | | 2.0(0.004) | 21.8(0.012) | 76.2(0.012) | 3,334 | - |
| 아동 성별 | 남자 | 2.3(0.006) | 22.5(0.016) | 75.1(0.017) | 1,735 | 3.158(2) |
| | 여자 | 1.7(0.006) | 21.0(0.017) | 77.3(0.017) | 1,599 | |
| 아동 연령 | 9-11세 | 1.3(0.004) | 19.9(0.019) | 78.8(0.019) | 1,034 | 7.605(2)* |
| | 12-17세 | 2.4(0.006) | 22.6(0.015) | 75.0(0.015) | 2,300 | |
| 표본 | 일반 | 1.9(0.004) | 21.8(0.012) | 76.2(0.013) | 3,195 | 3.904(2) |
| | 수급 | 4.3(0.011) | 20.6(0.018) | 75.1(0.020) | 139 | |
| 소득 수준 | 중위소득 50% 미만 | 2.3(0.011) | 20.7(0.030) | 77.0(0.031) | 367 | 34.832(8) *** |
| | 중위소득 50~100% 미만 | 2.2(0.008) | 21.4(0.021) | 76.4(0.021) | 989 | |
| | 중위소득 100~150% 미만 | 0.7(0.003) | 25.5(0.023) | 73.8(0.023) | 1,047 | |
| | 중위소득 150% 이상 | 3.2(0.011) | 18.2(0.022) | 78.6(0.023) | 925 | |
| | 무응답 | - | 60.7(0.337) | 39.3(0.337) | 6 | |
| 지역 | 대도시 | 2.3(0.006) | 23.7(0.018) | 74.0(0.018) | 1,548 | 11.809(4)* |
| | 중소도시 | 2.0(0.007) | 20.0(0.017) | 78.0(0.018) | 1,581 | |
| | 농어촌 | - | 20.7(0.030) | 79.3(0.030) | 205 | |
| 가구 유형 | 양부모 | 2.0(0.005) | 22.3(0.013) | 75.7(0.013) | 2,907 | 3.984(2) |
| | 한부모·조손 | 2.5(0.010) | 18.2(0.021) | 79.3(0.023) | 427 | |
| 맞벌이 여부 | 맞벌이 | 2.2(0.006) | 22.9(0.017) | 75.0(0.018) | 1,710 | 6.690(4) |
| | 외벌이 | 1.7(0.006) | 21.0(0.017) | 77.3(0.017) | 1,499 | |
| | 기타 | 3.9(0.018) | 16.4(0.032) | 79.8(0.036) | 125 | |

주: 1) *** p<.001, ** p<.01, *p<.05

2)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의 총합계로 “일반사용자군(23점 미만)”, “잠재적 위험군(23~30점)”, “고위험군(31점이상)”으로 분류

〈부표 1-14〉 학교생활 만족도

(단위: 점, 명)

| 구분 | | 평균 | 사례수 | t, F |
|-----------|------------------|-------------|-------|---------------|
| 전체 | | 7.33(0.047) | 3,334 | - |
| 아동 성별 | 남자 | 7.40(0.064) | 1,735 | t=2.646** |
| | 여자 | 7.25(0.071) | 1,599 | |
| 아동 연령 | 9-11세 | 7.67(0.062) | 1,034 | t=8.508*** |
| | 12-17세 | 7.17(0.062) | 2,300 | |
| 표본 | 일반 | 7.34(0.049) | 3,195 | t=1.722 |
| | 수급 | 7.03(0.095) | 139 | |
| 소득 수준 | 중위소득 50% 미만 | 6.84(0.168) | 367 | F=17.459*** |
| | 중위소득 50~100% 미만 | 7.19(0.080) | 989 | |
| | 중위소득 100~150% 미만 | 7.35(0.081) | 1,047 | |
| | 중위소득 150% 이상 | 7.63(0.091) | 925 | |
| | 무응답 | 8.21(0.675) | 6 | |
| 지역 | 대도시 | 7.46(0.065) | 1,548 | F=8.461***(a) |
| | 중소도시 | 7.22(0.074) | 1,581 | |
| | 농어촌 | 7.20(0.156) | 205 | |
| 가구 유형 | 양부모 | 7.38(0.052) | 2,907 | t=4.579*** |
| | 한부모·조손 | 6.97(0.101) | 427 | |
| 맞벌이 여부 | 맞벌이 | 7.43(0.064) | 1,710 | F=7.943***(a) |
| | 외벌이 | 7.25(0.075) | 1,499 | |
| | 기타 | 6.93(0.210) | 125 | |

주: 1) *** p<.001, ** p<.01, *p<.05

2) (a) 분산분석을 위한 기본가정을 충족하지 못함

〈부표 1-15〉 공부부담(평균)

(단위: %(표준오차), 명)

| 구분 | | 전혀 느끼지 않는다 | 약간 느낀다 | 꽤 느낀다 | 많이 느낀다 | 사례수 | χ^2 |
|-----------|------------------|-------------|--------------|-------------|------------|-------|-------------------|
| 전체 | | 26.0(0.012) | 57.0(0.014) | 13.8(0.010) | 3.2(0.006) | 3,334 | - |
| 아동 성별 | 남자 | 27.5(0.017) | 56.8(0.019) | 13.2(0.014) | 2.6(0.007) | 1,735 | 8.705(3) * |
| | 여자 | 24.4(0.016) | 57.2(0.020) | 14.5(0.015) | 3.9(0.009) | 1,599 | |
| 아동 연령 | 9-11세 | 40.9(0.022) | 51.6(0.023) | 6.8(0.011) | 0.7(0.003) | 1,034 | 219.866(3) *** |
| | 12-17세 | 19.2(0.013) | 59.4(0.017) | 17.0(0.013) | 4.4(0.008) | 2,300 | |
| 표본 | 일반 | 25.9(0.012) | 57.2(0.014) | 13.7(0.010) | 3.2(0.006) | 3,195 | 2.601(3) |
| | 수급 | 28.0(0.020) | 51.5(0.023) | 15.5(0.017) | 5.0(0.010) | 139 | |
| 소득 수준 | 중위소득 50% 미만 | 26.5(0.034) | 56.3(0.040) | 12.0(0.030) | 5.2(0.023) | 367 | 20.593(12) |
| | 중위소득 50~100% 미만 | 28.6(0.022) | 54.1(0.024) | 14.2(0.018) | 3.1(0.010) | 989 | |
| | 중위소득 100~150% 미만 | 23.1(0.021) | 58.9(0.025) | 14.6(0.018) | 3.4(0.011) | 1,047 | |
| | 중위소득 150% 이상 | 26.3(0.022) | 57.9(0.026) | 13.3(0.019) | 2.4(0.008) | 925 | |
| | 무응답 | - | 100.0(0.000) | - | - | 6 | |
| 지역 | 대도시 | 25.1(0.016) | 56.4(0.020) | 15.0(0.015) | 3.5(0.009) | 1,548 | 7.186(6) |
| | 중소도시 | 26.9(0.018) | 57.3(0.021) | 13.0(0.015) | 2.8(0.008) | 1,581 | |
| | 농어촌 | 25.9(0.032) | 58.9(0.037) | 10.8(0.022) | 4.5(0.020) | 205 | |
| 가구 유형 | 양부모 | 26.2(0.013) | 56.9(0.015) | 13.8(0.011) | 3.1(0.006) | 2,907 | 1.782(3) |
| | 한부모·조손 | 24.2(0.026) | 57.4(0.033) | 14.3(0.024) | 4.1(0.013) | 427 | |
| 맞벌이 여부 | 맞벌이 | 23.6(0.016) | 60.0(0.019) | 13.3(0.014) | 3.1(0.007) | 1,710 | 17.044(6) ** |
| | 외벌이 | 28.3(0.018) | 54.3(0.021) | 14.0(0.015) | 3.4(0.009) | 1,499 | |
| | 기타 | 31.1(0.060) | 48.1(0.056) | 18.4(0.044) | 2.4(0.010) | 125 | |

주: *** p<.001, ** p<.01, *p<.05

〈부표 1-16〉 친구관계

(단위: %(표준오차), 명)

| 구분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사례수 |
|----------------------------|----------------|----------------|-----------------|-----------------|-----------------|-------|
| 우리반 친구들은 함께 어울리기 좋아한다 | 1.0 (0.003) | 2.2 (0.004) | 13.1 (0.009) | 60.6 (0.013) | 23.1 (0.011) | 3,318 |
| 대부분의 우리 반 친구들은 친절하며 도움이 된다 | 1.3 (0.004) | 2.3 (0.004) | 17.8 (0.011) | 56.0 (0.014) | 22.6 (0.011) | 3,318 |
| 다른 친구들은 나를 나로서 받아들인다 | 0.9 (0.003) | 1.3 (0.003) | 16.3 (0.010) | 59.2 (0.013) | 22.4 (0.011) | 3,318 |

주: *** p<.001, ** p<.01, *p<.05

〈부표 1-17〉 선생님과의 관계

(단위: %(표준오차), 명)

| 구분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사례수 |
|----------------------------------|----------------|----------------|-----------------|-----------------|-----------------|-------|
| 선생님들이 나를 나로서 인정한다고 느낀다 | 0.5 (0.001) | 2.2 (0.005) | 18.7 (0.011) | 58.0 (0.013) | 20.7 (0.011) | 3,318 |
| 나는 선생님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쓴다고 느낀다 | 1.1 (0.003) | 2.2 (0.004) | 23.5 (0.012) | 52.9 (0.014) | 20.3 (0.011) | 3,318 |
| 선생님들께 강한 신뢰를 느낀다 | 1.2 (0.004) | 2.8 (0.005) | 23.4 (0.012) | 53.9 (0.014) | 18.6 (0.010) | 3,318 |

주: *** p<.001, ** p<.01, *p<.05

〈부표 1-18〉 가족관계(주양육자와의 관계) 합산점수

(단위: 점, 명)

| 구분 | | 합산점수 | 사례수 | t, F |
|--------|------------------|--------------|-------|----------------|
| 전체 | | 26.42(0.101) | 3,334 | - |
| 아동 성별 | 남자 | 26.34(0.142) | 1,735 | t=-1.272 |
| | 여자 | 26.50(0.144) | 1,599 | |
| 아동 연령 | 9-11세 | 27.09(0.143) | 1,034 | t=7.260*** |
| | 12-17세 | 26.11(0.131) | 2,300 | |
| 표본 | 일반 | 26.45(0.105) | 3,195 | t=1.843 |
| | 수급 | 25.74(0.205) | 139 | |
| 소득 수준 | 중위소득 50% 미만 | 25.57(0.341) | 367 | F=13.608***(a) |
| | 중위소득 50~100% 미만 | 26.12(0.183) | 989 | |
| | 중위소득 100~150% 미만 | 26.40(0.174) | 1,047 | |
| | 중위소득 150% 이상 | 27.09(0.189) | 925 | |
| | 무응답 | 27.82(1.012) | 6 | |
| 지역 | 대도시 | 26.56(0.148) | 1,548 | F=2.024 |
| | 중소도시 | 26.28(0.150) | 1,581 | |
| | 농어촌 | 26.39(0.300) | 205 | |
| 가구 유형 | 양부모 | 26.59(0.108) | 2,907 | t=5.939*** |
| | 한부모·조손 | 25.23(0.279) | 427 | |
| 맞벌이 여부 | 맞벌이 | 26.69(0.138) | 1,710 | F=19.049***(a) |
| | 외벌이 | 26.25(0.151) | 1,499 | |
| | 기타 | 24.69(0.618) | 125 | |

주: 1) *** p<.001, ** p<.01, *p<.05

2) 가족관계(주양육자와의 관계) 변수는 4점 척도 8문항의 합산 값으로 점수 범위는 최저 8점, 최대 32점임.

3) (a) 분산분석을 위한 기본가정을 충족하지 못함

〈부표 1-19〉 긍정적·부정적 또래 관계(아동의 친구애착 및 친구일탈 정도)

(단위: %(표준오차), 명)

| 구분 | | 전혀 그렇지 않다 | 거의 그렇지 않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사례수 |
|-----------------|----------------------------------|-------------|-------------|-------------|-------------|-------|
| 긍정적 또래 관계 | 내 친구들은 내가 외롭거나 힘들 때 나와 함께 있어준다* | 2.1(0.004) | 5.9(0.006) | 72.9(0.012) | 19.2(0.010) | 3,334 |
| | 내 친구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준다* | 1.5(0.004) | 5.0(0.006) | 63.7(0.013) | 29.8(0.012) | 3,334 |
| | 내 친구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 | 2.3(0.004) | 9.7(0.007) | 67.8(0.013) | 20.2(0.011) | 3,334 |
| | 내 친구들은 나를 좋아한다* | 2.1(0.003) | 4.4(0.005) | 69.9(0.012) | 23.6(0.011) | 3,334 |
| | 내 친구들은 나와 사이좋게 지낸다* | 1.7(0.003) | 3.7(0.005) | 65.1(0.013) | 29.5(0.012) | 3,334 |
| 부정적 또래 관계 | 내 친구들은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신다 | 73.5(0.013) | 14.4(0.011) | 10.4(0.009) | 1.7(0.004) | 3,334 |
| | 내 친구들은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 | 79.3(0.012) | 10.8(0.009) | 8.2(0.008) | 1.6(0.003) | 3,334 |
| | 내 친구들은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 79.0(0.012) | 11.1(0.009) | 8.7(0.009) | 1.2(0.003) | 3,334 |
| | 내 친구들은 학교에 무단으로 결석한 적이 있다 | 75.2(0.012) | 13.5(0.010) | 9.7(0.009) | 1.6(0.003) | 3,334 |
| | 내 친구들은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빙 뜯은) 적이 있다 | 80.5(0.011) | 10.5(0.009) | 7.5(0.008) | 1.5(0.003) | 3,334 |

주: 1) 긍정적·부정적 또래 관계 변수는 4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응답 범주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4점(매우 그렇다)까지임.

2) 부정적 또래 관계의 평균 점수는 보기(1점=전혀 그렇지 않다~4점=매우 그렇다)를 역코딩하여 산출한 값임. 이에 따라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또래 관계가 약하다는 의미 즉, 친구 일탈 수준이 낮다고 해석할 수 있음.

〈부표 1-20〉 사회활동 참여 비율(9-17세)

| 구분 | | 문화/예술 관련 활동 (공연 감상 등) | | 과학/정보 관련 활동 (경진대회, 과학실험 등) | | 모험/개척 관련 활동 (탐사 등반, 야영 등) | | 자원봉사 활동 (일손 돕기, 자선 구호 등) | | 시례수 |
|----------|-------------------|--------------------------|-----------------|-------------------------------|-----------------|------------------------------|------------------|-----------------------------|------------------|-------|
| | | 있다 | 없다 | 있다 | 없다 | 있다 | 없다 | 있다 | 없다 | |
| 이동 성별 | 전체 | 57.1 (0.014) | 42.9 (0.014) | 22.2 (0.011) | 77.8 (0.011) | 23.0 (0.011) | 77.0 (0.011) | 17.0 (0.010) | 83.0 (0.010) | 3,334 |
| | 남자 | 53.6 (0.019) | 46.4 (0.019) | 20.6 (0.015) | 79.4 (0.015) | 22.8 (0.016) | 77.2 (0.016) | 16.9 (0.014) | 83.1 (0.014) | 1,735 |
| | 여자 | 60.8 (0.019) | 39.2 (0.019) | 24.0 (0.017) | 76.0 (0.017) | 23.2 (0.016) | 76.8 (0.016) | 17.2 (0.015) | 82.8 (0.015) | 1,599 |
| 이동 연령 | 9-11세 | 59.2 (0.022) | 40.8 (0.022) | 28.5 (0.020) | 71.5 (0.020) | 36.2 (0.022) | 63.8 (0.022) | 16.5 (0.016) | 83.5 (0.016) | 1,034 |
| | 12-17세 | 56.1 (0.017) | 43.9 (0.017) | 19.4 (0.013) | 80.6 (0.013) | 17.1 (0.013) | 82.9 (0.013) | 17.3 (0.013) | 82.7 (0.013) | 2,300 |
| 표본 | 일반 | 57.4 (0.014) | 42.6 (0.014) | 22.4 (0.012) | 77.6 (0.012) | 23.2 (0.012) | 76.8 (0.012) | 16.9 (0.011) | 83.1 (0.011) | 3,195 |
| | 수급 | 50.4 (0.023) | 49.6 (0.023) | 18.1 (0.017) | 81.9 (0.017) | 18.2 (0.017) | 81.8 (0.017) | 20.8 (0.019) | 79.2 (0.019) | 139 |
| 소득 수준 | 중위소득 50% 미만 | 47.6 (0.040) | 52.4 (0.040) | 19.9 (0.029) | 80.1 (0.029) | 22.4 (0.030) | 77.6 (0.030) | 12.8 (0.021) | 87.2 (0.021) | 367 |
| | 중위소득 50%~100% 미만 | 54.0 (0.024) | 46.0 (0.024) | 20.7 (0.020) | 79.3 (0.020) | 22.7 (0.021) | 77.3 (0.021) | 17.6 (0.019) | 82.4 (0.019) | 989 |
| | 중위소득 100%~150% 미만 | 58.1 (0.025) | 41.9 (0.025) | 23.3 (0.021) | 76.7 (0.021) | 22.9 (0.020) | 77.1 (0.020) | 16.8 (0.019) | 83.2 (0.019) | 1,047 |
| 소득 수준 | 중위소득 150% 이상 | 63.0 (0.025) | 37.0 (0.025) | 23.4 (0.022) | 76.6 (0.022) | 23.9 (0.021) | 76.1 (0.021) | 18.4 (0.020) | 81.6 (0.020) | 925 |
| | 무응답 | 60.7 (0.337) | 39.3 (0.337) | 60.7 (0.337) | 39.3 (0.337) | - | 100.0 (0.000) | - | 100.0 (0.000) | 6 |

(단위: %(표준오차), 명)

| 구분 | 문화/예술 관련 활동 (공연 감상 등) | | 과학/정보 관련 활동 (경진대회, 과학실험 등) | | 모험/개척 관련 활동 (탐사 등반, 야영 등) | | 자원봉사 활동 (일손 돕기, 자선 구호 등) | | 시례수 | |
|----------------|--------------------------|-----------------|-------------------------------|-----------------|------------------------------|-----------------|-----------------------------|-----------------|-----------------|-------|
| | 있다 | 없다 | 있다 | 없다 | 있다 | 없다 | 있다 | 없다 | | |
| 지역 | 대도시 | 55.8 (0.020) | 44.2 (0.020) | 23.6 (0.016) | 76.4 (0.016) | 22.5 (0.016) | 77.5 (0.016) | 17.8 (0.015) | 82.2 (0.015) | 1,548 |
| | 중소도시 | 59.3 (0.020) | 40.7 (0.020) | 21.0 (0.017) | 79.0 (0.017) | 22.7 (0.017) | 77.3 (0.017) | 15.6 (0.015) | 84.4 (0.015) | 1,581 |
| | 농어촌 | 48.7 (0.038) | 51.3 (0.038) | 21.1 (0.032) | 78.9 (0.032) | 29.7 (0.034) | 70.3 (0.034) | 22.2 (0.032) | 77.8 (0.032) | 205 |
| 가구 유형 | 양부모 | 58.0 (0.015) | 42.0 (0.015) | 23.0 (0.012) | 77.0 (0.012) | 23.5 (0.012) | 76.5 (0.012) | 17.0 (0.011) | 83.0 (0.011) | 2,907 |
| | 한부모·조손 | 50.7 (0.033) | 49.3 (0.033) | 16.8 (0.025) | 83.2 (0.025) | 19.9 (0.027) | 80.1 (0.027) | 17.4 (0.025) | 82.6 (0.025) | 427 |
| 맞벌이 이 여부 | 맞벌이 | 55.9 (0.019) | 44.1 (0.019) | 21.5 (0.015) | 78.5 (0.015) | 21.0 (0.015) | 79.0 (0.015) | 17.8 (0.015) | 82.2 (0.015) | 1,710 |
| | 외벌이 | 60.1 (0.020) | 39.9 (0.020) | 24.3 (0.017) | 75.7 (0.017) | 26.6 (0.018) | 73.4 (0.018) | 16.8 (0.015) | 83.2 (0.015) | 1,499 |
| | 기타 | 36.8 (0.051) | 63.2 (0.051) | 6.7 (0.016) | 93.3 (0.016) | 7.6 (0.020) | 92.4 (0.020) | 8.7 (0.021) | 91.3 (0.021) | 125 |

주: *** p<.001, ** p<.01, *p<.05

<부표 1-20> 사회활동 참여 비율(9-17세)

| 구분 | 직업/진로 관련 활동 (직업 체험, 진로 탐색 등) | | 국제교류 활동 | | 건강/보건 관련 활동 (신체단련, 안전교육, 응급처치 교육 등) | | 환경보존 관련 활동 (생태, 숲, 체험, 환경 살리기 등) | | 사례수 |
|----------|---------------------------------|------------------|----------------|------------------|--|-----------------|-------------------------------------|-----------------|-------|
| | 있다 | 없다 | 있다 | 없다 | 있다 | 없다 | 있다 | 없다 | |
| 전체 | 31.7 (0.013) | 68.3 (0.013) | 5.8 (0.007) | 94.2 (0.007) | - | 36.0 (0.013) | 26.3 (0.012) | 73.7 (0.012) | 3,334 |
| | 30.6 (0.018) | 69.4 (0.018) | 5.3 (0.009) | 94.7 (0.009) | 1.633(1) | 34.1 (0.018) | 24.7 (0.016) | 75.3 (0.016) | 1,735 |
| 아동 성별 | 32.8 (0.018) | 67.2 (0.018) | 6.3 (0.010) | 93.7 (0.010) | | 38.0 (0.019) | 28.1 (0.017) | 71.9 (0.017) | 1,599 |
| | 26.1 (0.019) | 73.9 (0.019) | 7.6 (0.012) | 92.4 (0.012) | | 44.5 (0.023) | 33.5 (0.021) | 66.5 (0.021) | 1,034 |
| 아동 연령 | 34.1 (0.016) | 65.9 (0.016) | 4.9 (0.008) | 95.1 (0.008) | 9.515(1)** | 32.2 (0.016) | 23.1 (0.014) | 76.9 (0.014) | 2,300 |
| | 31.6 (0.013) | 68.4 (0.013) | 5.8 (0.007) | 94.2 (0.007) | | 35.9 (0.013) | 26.4 (0.012) | 73.6 (0.012) | 3,195 |
| 표본 | 32.3 (0.021) | 67.7 (0.021) | 4.9 (0.010) | 95.1 (0.010) | 0.190(1) | 38.3 (0.022) | 23.7 (0.019) | 76.3 (0.019) | 139 |
| | 25.0 (0.033) | 75.0 (0.033) | 4.3 (0.015) | 95.7 (0.015) | | 24.9 (0.034) | 19.9 (0.031) | 80.1 (0.031) | 367 |
| 소득 수준 | 28.8 (0.023) | 71.2 (0.023) | 5.9 (0.012) | 94.1 (0.012) | | 33.3 (0.023) | 27.2 (0.022) | 72.8 (0.022) | 989 |
| | 32.4 (0.023) | 67.6 (0.023) | 6.0 (0.012) | 94.0 (0.012) | 2.060(4) | 37.0 (0.024) | 28.5 (0.022) | 71.5 (0.022) | 1,047 |
| 소득 수준 | 36.8 (0.025) | 63.2 (0.025) | 5.9 (0.014) | 94.1 (0.014) | | 42.4 (0.026) | 25.1 (0.022) | 74.9 (0.022) | 925 |
| | - | 100.0 (0.000) | - | 100.0 (0.000) | | - | 60.7 (0.337) | 39.3 (0.337) | 6 |

(단위: %(표준오차), 명)

χ^2

χ^2

χ^2

χ^2

χ^2

χ^2

χ^2

| 구분 | 직업/진로 관련 활동 (직업 체험, 진로 탐색 등) | | 국제교류 활동 | | 건강/보건 관련 활동 (신체단련, 안전교육, 응급처치 교육 등) | | 환경보존 관련 활동 (생태, 숲, 체험, 환경 실리기 등) | | 사례수 | |
|--------|---------------------------------|-----------------|-----------------|----------------|--|-----------------|-------------------------------------|-----------------|-----------------|-------|
| | 있다 | 없다 | 있다 | 없다 | 있다 | 없다 | 있다 | 없다 | | |
| 지역 | 대도시 | 33.1 (0.018) | 66.9 (0.018) | 4.6 (0.008) | 95.4 (0.008) | 33.8 (0.019) | 66.2 (0.019) | 28.0 (0.018) | 72.0 (0.018) | 1,548 |
| | | 30.7 (0.019) | 69.3 (0.019) | 7.2 (0.011) | 92.8 (0.011) | 37.7 (0.020) | 62.3 (0.020) | 24.6 (0.018) | 75.4 (0.018) | |
| 가구 유형 | 농어촌 | 27.7 (0.036) | 72.3 (0.036) | 3.6 (0.016) | 96.4 (0.016) | 39.4 (0.036) | 60.6 (0.036) | 27.0 (0.033) | 73.0 (0.033) | 205 |
| | | 31.9 (0.014) | 68.1 (0.014) | 5.7 (0.007) | 94.3 (0.007) | 36.4 (0.014) | 63.6 (0.014) | 26.3 (0.013) | 73.7 (0.013) | |
| 맞벌이 여부 | 맞벌이 | 29.9 (0.030) | 70.1 (0.030) | 5.9 (0.018) | 94.1 (0.018) | 33.5 (0.030) | 66.5 (0.030) | 26.3 (0.029) | 73.7 (0.029) | 427 |
| | | 32.6 (0.018) | 67.4 (0.018) | 7.0 (0.010) | 93.0 (0.010) | 36.3 (0.018) | 63.7 (0.018) | 25.5 (0.017) | 74.5 (0.017) | |
| 맞벌이 여부 | 외벌이 | 31.4 (0.019) | 68.6 (0.019) | 4.8 (0.009) | 95.2 (0.009) | 36.5 (0.019) | 63.5 (0.019) | 28.0 (0.018) | 72.0 (0.018) | 1,499 |
| | | 21.9 (0.047) | 78.1 (0.047) | 0.8 (0.005) | 99.2 (0.005) | 26.6 (0.050) | 73.4 (0.050) | 16.3 (0.047) | 83.7 (0.047) | |
| | | | | | | | | | | 125 |

주: *** p<.001, ** p<.01, * p<.05

〈부표 1-21〉 학교폭력 피해

(단위: %(표준오차), 명)

| 구분 | 전혀 없다 | 1번 | 2-3번 | 4번 이상 | 사례수 |
|---|-----------------|----------------|----------------|----------------|-------|
| 다른 아이가 듣기 싫은 별명을 부르며 나를 놀리거나 조롱한 적이 있다 | 83.8 (0.010) | 7.0 (0.006) | 6.2 (0.007) | 3.0 (0.005) | 3,334 |
| 다른 아이가 나를 고의로 어떤 일에 끼워주지 않거나 따돌리고 무시한 적이 있다 | 89.8 (0.009) | 6.2 (0.007) | 2.6 (0.004) | 1.4 (0.004) | 3,334 |
| 다른 아이가 나에게 대한 나쁜 혹은 잘못된 소문을 퍼트리거나 뒤에서 그 소문을 수군거린 적이 있다 | 91.1 (0.008) | 5.8 (0.006) | 1.7 (0.003) | 1.4 (0.004) | 3,334 |
| 다른 아이로부터 시키는 대로하지 않으면 나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협박이나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 | 96.1 (0.006) | 2.4 (0.005) | 1.0 (0.003) | 0.5 (0.002) | 3,334 |
| 다른 아이가 나에게 겁을 주거나 때려서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적이 있다 | 98.2 (0.004) | 1.0 (0.003) | 0.6 (0.002) | 0.2 (0.002) | 3,334 |
| 다른 아이가 나를 손이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찬 적이 있다 | 95.9 (0.006) | 2.9 (0.005) | 0.9 (0.002) | 0.3 (0.002) | 3,334 |
| 다른 아이가 나에게 성적인 부끄러움을 갖게 하는 말을 하거나 강제로 몸을 만진 적이 있다 | 98.1 (0.004) | 1.2 (0.003) | 0.4 (0.002) | 0.3 (0.002) | 3,334 |

〈부표 1-22〉 학교폭력 가해

(단위: %(표준오차), 명)

| 구분 | 전혀 없다 | 1번 | 2-3번 | 4번 이상 | 사례수 |
|---|-----------------|----------------|----------------|----------------|-------|
| 나는 듣기 싫은 별명을 부르며 다른 아이를 놀리거나 조롱한 적이 있다 | 89.0 (0.008) | 6.4 (0.006) | 3.5 (0.005) | 1.1 (0.003) | 3,334 |
| 나는 다른 아이를 고의로 어떤 일에 끼워주지 않거나 따돌리고 무시한 적이 있다 | 95.5 (0.005) | 3.4 (0.005) | 0.9 (0.002) | 0.1 (0.001) | 3,334 |
| 나는 다른 아이에 대한 나쁜 혹은 잘못된 소문을 퍼트리거나 뒤에서 그 소문을 수군거린 적이 있다 | 96.6 (0.005) | 2.7 (0.005) | 0.6 (0.002) | 0.1 (0.000) | 3,334 |
| 내가 시키는 대로하지 않으면 다른 아이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협박이나 위협을 한 적이 있다 | 98.7 (0.003) | 0.9 (0.003) | 0.3 (0.002) | 0.1 (0.000) | 3,334 |
| 나는 다른 아이에게 겁을 주거나 때려서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적이 있다 | 98.8 (0.004) | 1.0 (0.003) | 0.2 (0.002) | 0.0 (0.000) | 3,334 |
| 나는 다른 아이를 손이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찬 적이 있다 | 97.9 (0.004) | 1.4 (0.003) | 0.7 (0.002) | 0.0 (0.000) | 3,334 |
| 나는 다른 아이에게 성적인 부끄러움을 갖게 하는 말을 하거나 강제로 몸을 만진 적이 있다 | 99.1 (0.003) | 0.4 (0.001) | 0.5 (0.002) | 0.0 (0.000) | 3,334 |

<부표 1-23> 아동방임(문항별)

(단위: %(표준오차), 명)

| 구분 | 일주일 한번 이상 | 한달 두세번 | 한달 한번 | 일년 3~5번 | 일년 한두번 | 일년간 없음. 이전에 있었음 | 평생 경험한 적없음 | 사례수 | |
|--------|--------------------------------|----------------|----------------|----------------|----------------|--------------------------|------------------|-----------------|-------|
| 아 동 | 혼자두면 안되는 경 우에도 혼자 있게 함 | 4.8 (0.006) | 2.6 (0.004) | 3.0 (0.005) | 3.6 (0.005) | 7.1 (0.007) | 9.6 (0.008) | 69.4 (0.013) | 3,334 |
| | 제대로 끼니를 챙겨 주지 못함 | 1.7 (0.004) | 1.9 (0.004) | 1.7 (0.004) | 2.5 (0.005) | 5.0 (0.006) | 6.1 (0.007) | 81.1 (0.011) | 3,334 |
| | 아플 때 병원에 데려 가지 못함 | 0.5 (0.002) | 0.3 (0.001) | 0.3 (0.002) | 1.3 (0.004) | 2.3 (0.004) | 6.2 (0.007) | 89.2 (0.009) | 3,334 |
| | 술이나 약물에 취해 아이 돌봄에 문제 | 0.6 (0.003) | 0.5 (0.003) | 0.4 (0.002) | 0.8 (0.003) | 0.8 (0.003) | 4.4 (0.006) | 92.4 (0.008) | 3,334 |
| | 더럽거나 해지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입힘 | 0.4 (0.002) | 0.4 (0.002) | 0.1 (0.000) | 0.6 (0.003) | 1.3 (0.004) | 3.2 (0.005) | 93.9 (0.008) | 3,334 |
| | 애정표현이나 사랑한 다는 말을 해주지 않 음 | 1.6 (0.004) | 0.8 (0.003) | 0.9 (0.003) | 1.4 (0.003) | 2.0 (0.005) | 4.0 (0.006) | 89.3 (0.009) | 3,334 |

주: 아동은 9-17세만 응답하였음.

<부표 1-24> 신체적 학대(문항별)

(단위: %(표준오차), 명)

| 구분 | 일주일 한번 이상 | 한달 두세번 | 한달 한번 | 일년 3~5번 | 일년 한두번 | 일년간 없음. 이전에 있었음 | 평생 경험한 적없음 | 사례수 |
|---|-----------------|----------------|----------------|----------------|----------------|--------------------------|------------------|-------|
| 화초리, 머리빗, 벨트와 같은 단단한 물건으로 엉 덩이를 때림 | 0.5 (0.002) | 0.4 (0.002) | 0.6 (0.002) | 1.3 (0.004) | 2.6 (0.004) | 11.1 (0.009) | 83.5 (0.010) | 3,334 |
| 화초리, 머리빗, 벨트와 같은 단단한 물건으로 엉 덩이 외의 다른 신체부위 를 때림 | 0.5 (0.002) | 0.4 (0.002) | 0.5 (0.002) | 0.4 (0.001) | 2.2 (0.004) | 9.9 (0.008) | 85.9 (0.010) | 3,334 |
| 맨손으로 아이의 머리, 얼굴, 귀 부위를 때림 | 0.4 (0.002) | 0.3 (0.002) | 0.2 (0.002) | 0.3 (0.001) | 1.4 (0.003) | 5.2 (0.006) | 92.2 (0.008) | 3,334 |
| 맨손으로 아이의 (머리, 얼굴, 귀 이외의) 다른 신체부위를 때림 | 0.6 (0.003) | 0.4 (0.002) | 0.6 (0.002) | 1.3 (0.003) | 2.8 (0.005) | 7.4 (0.007) | 86.8 (0.009) | 3,334 |
| 내동맹이 치거나 밀쳐 넘 어뜨림 | 0.3 (0.001) | 0.2 (0.001) | 0.3 (0.002) | 0.0 (0.000) | 0.7 (0.003) | 3.7 (0.005) | 94.8 (0.007) | 3,334 |

주: 아동은 9-17세만 응답하였음.

〈부표 1-25〉 정서학대(문항별)

(단위: %(표준오차), 명)

| 구분 | 일주일 한번 이상 | 한달 두세번 | 한달 한번 | 일년 3~5번 | 일년 한두번 | 일년간 없음. 이전에 있었음 | 평생 경험한 적 없음 | 사례수 | |
|--------|--|----------------|----------------|----------------|----------------|--------------------------|-------------------|-----------------|-------|
| 아 동 | 큰소리로 비난하거나 꾸짖음 | 1.3 (0.003) | 3.8 (0.005) | 3.5 (0.005) | 6.0 (0.007) | 12.9 (0.010) | 9.9 (0.008) | 62.7 (0.013) | 3,334 |
| | 멀리 보내버리거나 집에서 쫓아내겠다고 위협(집 밖 공간에서 버리고 가겠다고 위 협한 경우도 포함) | 0.4 (0.001) | 0.5 (0.002) | 1.0 (0.003) | 1.0 (0.003) | 2.2 (0.004) | 7.7 (0.007) | 87.3 (0.009) | 3,334 |
| | 때리겠다고 위협한 적이 있지만 실제로 때리지는 않음 | 0.6 (0.002) | 0.9 (0.003) | 1.3 (0.003) | 3.2 (0.006) | 3.8 (0.005) | 7.7 (0.008) | 82.4 (0.011) | 3,334 |
| | 욕을 하거나 저주의 말을 퍼부음 | 1.0 (0.003) | 0.4 (0.002) | 0.2 (0.001) | 1.0 (0.004) | 1.9 (0.004) | 3.9 (0.006) | 91.5 (0.008) | 3,334 |

주: 아동은 9-17세만 응답하였음.

〈부표 1-26〉 아동의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수준의 평균 비교

(단위: 점, 명)

| 구분 | 평균 | 사례수 | t, F | |
|-----------|-------------------|-------------|--------------|-------|
| 전체 | 6.21(0.065) | 3,334 | - | |
| 아동 성별 | 남자 | 6.16(0.095) | t=-1.328 | |
| | 여자 | 6.27(0.091) | | 1,599 |
| 아동 연령 | 9-11세 | 6.71(0.101) | t=8.334*** | |
| | 12-17세 | 5.99(0.082) | | 2,300 |
| 표본 | 일반 | 6.23(0.068) | t=2.029* | |
| | 수급 | 5.82(0.105) | | 139 |
| 소득 수준 | 중위소득 50% 미만 | 6.12(0.198) | F=4.312**(a) | |
| | 중위소득 50%~100% 미만 | 5.99(0.123) | | 989 |
| | 중위소득 100%~150% 미만 | 6.34(0.116) | | 1,047 |
| | 중위소득 150% 이상 | 6.33(0.126) | | 925 |
| | 무응답 | 7.82(1.012) | | 6 |
| 지역 | 대도시 | 6.27(0.085) | F=1.065(a) | |
| | 중소도시 | 6.17(0.107) | | 1,581 |
| | 농어촌 | 6.07(0.188) | | 205 |
| 가구 유형 | 양부모 | 6.27(0.071) | t=3.719*** | |
| | 한부모·조손 | 5.80(0.173) | | 427 |
| 맞벌이 여부 | 맞벌이 | 6.15(0.092) | F=3.979* | |
| | 외벌이 | 6.32(0.099) | | 1,499 |
| | 기타 | 5.80(0.278) | | 125 |

주: 1) *** p<.001, ** p<.01, *p<.05

2) (a) 분산분석을 위한 기본가정을 충족하지 못함

〈부표 1-27〉 아동의 빈곤에 대한 걱정도

(단위: %(표준오차), 점)

| 구분 | |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 가끔 걱정한다 | 자주 걱정한다 | 항상 걱정한다 | 사례수 | χ^2 |
|-----------|------------------|--------------|-------------|-------------|------------|-------|--------------------|
| 전체 | | 49.4(0.014) | 43.6(0.014) | 5.1(0.006) | 2.0(0.004) | 3,334 | - |
| 아동 성별 | 남자 | 52.1(0.019) | 41.2(0.019) | 4.8(0.008) | 1.9(0.005) | 1,735 | 11.257(3) * |
| | 여자 | 46.3(0.019) | 46.2(0.020) | 5.3(0.008) | 2.2(0.007) | 1,599 | |
| 아동 연령 | 9-11세 | 59.4(0.022) | 36.0(0.022) | 3.8(0.007) | 0.8(0.004) | 1,034 | 66.448(3) *** |
| | 12-17세 | 44.8(0.017) | 46.9(0.017) | 5.6(0.008) | 2.6(0.006) | 2,300 | |
| 표본 | 일반 | 50.4(0.014) | 43.3(0.014) | 4.5(0.006) | 1.8(0.004) | 3,195 | 96.259(3) *** |
| | 수급 | 24.6(0.019) | 48.9(0.023) | 18.5(0.017) | 8.0(0.013) | 139 | |
| 소득 수준 | 중위소득 50% 미만 | 37.8(0.038) | 52.3(0.040) | 5.5(0.015) | 4.4(0.012) | 367 | 104.236(12) *** |
| | 중위소득 50~100% 미만 | 44.6(0.024) | 45.0(0.024) | 8.5(0.014) | 1.9(0.006) | 989 | |
| | 중위소득 100~150% 미만 | 50.1(0.025) | 43.1(0.025) | 4.9(0.011) | 1.8(0.008) | 1,047 | |
| | 중위소득 150% 이상 | 57.9(0.026) | 39.3(0.026) | 1.4(0.005) | 1.5(0.008) | 925 | |
| | 무응답 | 100.0(0.000) | - | - | - | 6 | |
| 지역 | 대도시 | 48.8(0.020) | 44.7(0.020) | 5.2(0.009) | 1.4(0.004) | 1,548 | 13.652(6) * |
| | 중소도시 | 49.3(0.021) | 43.2(0.021) | 4.7(0.008) | 2.8(0.008) | 1,581 | |
| | 농어촌 | 53.9(0.037) | 37.8(0.037) | 7.0(0.017) | 1.3(0.006) | 205 | |
| 가구 유형 | 양부모 | 52.0(0.015) | 42.1(0.015) | 4.4(0.006) | 1.5(0.004) | 2,907 | 87.384(3) *** |
| | 한부모/조손 | 31.6(0.028) | 53.6(0.032) | 9.4(0.013) | 5.3(0.015) | 427 | |
| 맞벌이 여부 | 맞벌이 | 50.0(0.019) | 44.7(0.019) | 4.2(0.008) | 1.1(0.004) | 1,710 | 82.847(6) *** |
| | 외벌이 | 50.1(0.021) | 42.3(0.021) | 5.1(0.008) | 2.5(0.007) | 1,499 | |
| | 기타 | 31.0(0.054) | 43.8(0.055) | 16.2(0.045) | 9.1(0.022) | 125 | |

주: *** p<.001, ** p<.01, *p<.05

[부록 2]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표준오차_보호자용

〈부표 2-1〉 건강검진 수검 여부

(단위: %(표준오차), 명)

| | | 예 | 아니오 | 사례수 | χ^2 |
|-------|------------------|-------------|-------------|-------|--------------|
| 전체 | | 79.4(0.008) | 20.6(0.008) | 5,753 | - |
| 아동 성별 | 남자 | 79.4(0.011) | 20.6(0.011) | 2,958 | 0.002(1) |
| | 여자 | 79.4(0.011) | 20.6(0.011) | 2,795 | |
| 아동 연령 | 0~2세 | 85.7(0.015) | 14.3(0.015) | 543 | 81.872(4)*** |
| | 3~5세 | 85.5(0.013) | 14.5(0.013) | 830 | |
| | 6~8세 | 82.3(0.014) | 17.8(0.014) | 1,046 | |
| | 9~11세 | 80.8(0.019) | 19.2(0.019) | 1,034 | |
| | 12~17세 | 73.9(0.015) | 26.2(0.015) | 2,300 | |
| 표본 | 일반 | 79.6(0.008) | 20.4(0.008) | 5,563 | 2.312(1) |
| | 수급 | 75.0(0.016) | 25.0(0.016) | 190 | |
| 소득 수준 | 중위소득 50% 미만 | 78.1(0.025) | 21.9(0.025) | 615 | 9.077(4) |
| | 중위소득 50~100% 미만 | 78.5(0.014) | 21.5(0.014) | 1,860 | |
| | 중위소득 100~150% 미만 | 78.6(0.015) | 21.4(0.015) | 1,730 | |
| | 중위소득 150% 이상 | 81.9(0.013) | 18.1(0.013) | 1,509 | |
| | 무응답 | 85.7(0.070) | 14.3(0.070) | 39 | |
| 지역 | 대도시 | 80.8(0.011) | 19.2(0.011) | 2,701 | 7.457(2)* |
| | 중소도시 | 77.9(0.012) | 22.1(0.012) | 2,731 | |
| | 농어촌 | 81.1(0.021) | 18.9(0.021) | 320 | |
| 가구 유형 | 양부모 | 79.8(0.008) | 20.2(0.008) | 5,228 | 5.438(1)* |
| | 한부모·조손 | 75.5(0.028) | 24.5(0.028) | 525 | |
| 맞벌이여부 | 맞벌이 | 79.9(0.011) | 20.1(0.011) | 2,732 | 3.646(2) |
| | 외벌이 | 79.4(0.012) | 20.6(0.012) | 2,851 | |
| | 기타 | 73.8(0.043) | 26.2(0.043) | 170 | |

주: *** p<.001, ** p<.01, *p<.05

〈부표 2-2〉 가족건강성(평균점수)

(단위: 점(표준오차), 명)

| 구분 | | 평균 | 사례수 | t, F |
|-----------|------------------|-------------|-------|----------------|
| 전체 | | 3.98(0.011) | 5,726 | - |
| 아동 성별 | 남자 | 3.98(0.015) | 2,948 | t=-0.148 |
| | 여자 | 3.98(0.017) | 2,778 | |
| 아동 연령 | 0-2세 | 4.08(0.027) | 537 | F=15.247*** |
| | 3-5세 | 4.00(0.024) | 821 | |
| | 6-8세 | 4.01(0.021) | 1,034 | |
| | 9-11세 | 4.03(0.028) | 1,034 | |
| | 12-17세 | 3.90(0.021) | 2,300 | |
| 표본 | 일반 | 3.99(0.012) | 5,541 | t=4.739*** |
| | 수급 | 3.74(0.025) | 185 | |
| 소득 수준 | 중위소득 50% 미만 | 3.86(0.034) | 611 | F=33.483***(a) |
| | 중위소득 50~100% 미만 | 3.91(0.020) | 1,845 | |
| | 중위소득 100~150% 미만 | 3.97(0.021) | 1,724 | |
| | 중위소득 150% 이상 | 4.12(0.021) | 1,507 | |
| | 무응답 | 3.84(0.161) | 39 | |
| 지역 | 대도시 | 4.01(0.015) | 2,692 | F=9.429*** |
| | 중소도시 | 3.96(0.018) | 2,717 | |
| | 농어촌 | 3.86(0.036) | 318 | |
| 가구 유형 | 양부모 | 4.00(0.012) | 5,228 | t=6.419*** |
| | 한부모-조손 | 3.79(0.036) | 498 | |
| 맞벌이 여부 | 맞벌이 | 4.01(0.017) | 2,732 | F=22.381***(a) |
| | 외벌이 | 3.97(0.015) | 2,831 | |
| | 기타 | 3.68(0.082) | 163 | |

주: 1) *** p<.001, ** p<.01, *p<.05
 2) (a) 분산분석을 위한 기본가정을 충족하지 못함

〈부표 2-3〉 매체 이용/시청시간 제한(1, 2)

(단위: %(표준오차), 명)

| 구분 | | 자녀 TV 시청시간 제한 | | 자녀 TV 프로그램의 종류 제한 | | 사례수 |
|-----------|------------------|---------------|-------------------|-------------------|-------------------|-------|
| | | %(표준오차) | χ^2 | %(표준오차) | χ^2 | |
| 전체 | | 58.8(0.914) | - | 64.0(0.904) | - | 5,753 |
| 아동 성별 | 남자 | 60.5(1.293) | 7.413(1) ** | 64.1(1.290) | 0.059(1) | 2,958 |
| | 여자 | 56.9(1.308) | | 63.8(1.286) | | 2,795 |
| 아동 연령 | 0-2세 | 72.8(2.020) | 915.839(4) *** | 75.1(1.958) | 979.100(4) *** | 543 |
| | 3-5세 | 79.3(1.538) | | 86.0(1.292) | | 830 |
| | 6-8세 | 77.1(1.415) | | 83.5(1.226) | | 1,046 |
| | 9-11세 | 69.2(1.986) | | 73.5(1.933) | | 1,034 |
| | 12-17세 | 35.0(1.638) | | 40.3(1.672) | | 2,300 |
| 표본 | 일반 | 59.3(0.944) | 21.542(1) *** | 64.5(0.933) | 18.900(1) *** | 5,563 |
| | 수급 | 42.4(1.762) | | 49.1(1.813) | | 190 |
| 소득 수준 | 중위소득 50% 미만 | 50.2(2.779) | 29.699(4) *** | 58.8(2.783) | 20.637(4) *** | 615 |
| | 중위소득 50~100% 미만 | 57.1(1.564) | | 62.6(1.540) | | 1,860 |
| | 중위소득 100~150% 미만 | 61.6(1.713) | | 63.9(1.726) | | 1,730 |
| | 중위소득 150% 이상 | 61.0(1.829) | | 67.7(1.790) | | 1,509 |
| | 무응답 | 62.0(10.539) | | 76.5(9.455) | | 39 |
| 지역 | 대도시 | 59.1(1.309) | 3.526(2) | 64.3(1.314) | 8.472(2) * | 2,701 |
| | 중소도시 | 59.0(1.386) | | 64.6(1.350) | | 2,731 |
| | 농어촌 | 53.8(2.916) | | 56.4(2.899) | | 320 |
| 가구 유형 | 양부모 | 60.8(0.967) | 100.435(1) *** | 66.0(0.953) | 97.324(1) *** | 5,228 |
| | 한부모·조손 | 38.2(2.762) | | 44.3(2.805) | | 525 |
| 맞벌이여 부 | 맞벌이 | 56.2(1.378) | 66.606(2) *** | 62.2(1.368) | 69.537(2) *** | 2,732 |
| | 외벌이 | 62.7(1.264) | | 67.3(1.248) | | 2,851 |
| | 기타 | 34.5(4.019) | | 37.4(4.113) | | 170 |

주: *** p<.001, ** p<.01, *p<.05

〈부표 2-4〉 매체 이용/시청시간 제한(3, 4)

(단위: %(표준오차), 명)

| 구분 | | 스마트폰 사용시간 제한 | | 스마트폰 앱의 종류/내용 제한 | | 사례수 |
|-----------|------------------|--------------|-------------------|------------------|-------------------|-------|
| | | %(표준오차) | χ^2 | %(표준오차) | χ^2 | |
| 전체 | | 61.0(1.100) | - | 62.2(1.111) | - | 4,381 |
| 아동 성별 | 남자 | 63.3(1.549) | 10.753(1) ** | 63.7(1.567) | 4.800(1) * | 2,272 |
| | 여자 | 58.5(1.585) | | 60.5(1.600) | | 2,109 |
| 아동 연령 | 0-2세 | - | 665.209(2) *** | - | 725.650(2) *** | - |
| | 3-5세 | - | | - | | - |
| | 6-8세 | 85.1(1.227) | | 88.1(1.083) | | 1,046 |
| | 9-11세 | 76.3(1.812) | | 76.9(1.924) | | 1,034 |
| | 12-17세 | 43.1(1.691) | | 43.7(1.686) | | 2,300 |
| 표본 | 일반 | 61.4(1.141) | 6.531(1) * | 62.5(1.153) | 5.734(1) * | 4,214 |
| | 수급 | 51.5(1.992) | | 53.3(1.991) | | 166 |
| 소득 수준 | 중위소득 50% 미만 | 50.7(3.327) | 31.361(4) *** | 55.2(3.380) | 28.366(4) *** | 474 |
| | 중위소득 50~100% 미만 | 59.4(1.957) | | 59.4(1.966) | | 1,341 |
| | 중위소득 100~150% 미만 | 64.4(2.045) | | 63.9(2.066) | | 1,335 |
| | 중위소득 150% 이상 | 63.0(2.117) | | 65.5(2.158) | | 1,199 |
| | 무응답 | 59.2(12.794) | | 84.6(8.660) | | 30 |
| 지역 | 대도시 | 60.9(1.611) | 4.203(2) | 61.8(1.617) | 1.205(2) | 2,061 |
| | 중소도시 | 61.8(1.646) | | 62.8(1.669) | | 2,064 |
| | 농어촌 | 55.2(3.289) | | 59.6(3.273) | | 256 |
| 가구 유형 | 양부모 | 63.4(1.179) | 87.896(1) *** | 64.4(1.194) | 73.257(1) *** | 3,901 |
| | 한부모·조손 | 41.3(2.943) | | 44.3(2.982) | | 480 |
| 맞벌이 여부 | 맞벌이 | 60.0(1.596) | 46.682(2) *** | 62.3(1.607) | 47.396(2) *** | 2,197 |
| | 외벌이 | 63.9(1.594) | | 63.9(1.620) | | 2,042 |
| | 기타 | 35.5(4.391) | | 34.9(4.347) | | 142 |

주: *** p<.001, ** p<.01, *p<.05

〈부표 2-5〉 아동방임

(단위: %(표준오차), 명)

| 구분 | 일주일에 한번 이상 | 한 달에 두세번 | 한 달에 한번 | 일 년에 3~5번 | 일 년에 한두번 | 지난 일 년간은 없었지만 그 이전에는 있었음 | 평생 경험한 적 없음 | 사례수 |
|---|---------------|-------------|------------|--------------|-------------|--------------------------------------|----------------|-------|
| (아동 전체) 지난 1년동안 아동 방임 경험 (1) △△(이)가 어른과 함께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든 때에도 △△(들)을 혼자 집에 있게 했다 | 4.2(0.004) | 2.3(0.003) | 2.5(0.003) | 3.0(0.003) | 8.4(0.006) | 8.0(0.005) | 71.6(0.009) | 5,753 |
| (아동 전체) 지난 1년동안 아동 방임 경험 (2) △△(이)에게 제대로 끼니를 챙겨주지 못했다(챙겨주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 1.8(0.002) | 2.0(0.003) | 2.0(0.003) | 2.3(0.003) | 6.6(0.005) | 4.2(0.004) | 81.1(0.008) | 5,753 |
| (아동 전체) 지난 1년동안 아동 방임 경험 (3) △△(이)가 아를 때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다(데려가지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 0.8(0.002) | 0.4(0.002) | 0.6(0.002) | 0.7(0.002) | 3.5(0.004) | 3.7(0.004) | 90.2(0.006) | 5,753 |
| (아동 전체) 지난 1년동안 아동 방임 경험 (4) 술이나 약물에 취해 아이를 돌보는 데 문제가 있었다 | 0.7(0.002) | 0.2(0.001) | 0.3(0.001) | 0.2(0.001) | 1.6(0.003) | 2.4(0.003) | 94.6(0.005) | 5,753 |
| (아동 전체) 지난 1년동안 아동 방임 경험 (5) 아동에게 더럽거나 해지거나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을 입혔다 | 0.5(0.001) | 0.3(0.001) | 0.4(0.002) | 0.3(0.001) | 1.7(0.003) | 2.1(0.003) | 94.7(0.005) | 5,753 |
| (아동 전체) 지난 1년동안 아동 방임 경험 (6) 내 문제에 사로잡혀서 △△(이)에게 애정을 표현하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해줄 수 없었다. | 0.6(0.001) | 0.8(0.002) | 1.1(0.003) | 1.4(0.002) | 3.9(0.004) | 3.9(0.004) | 88.3(0.007) | 5,753 |

〈부표 2-6〉 신체학대

| 구분 | (단위: %(표준오차), 평) | | | | | | | | | |
|---|------------------|-------------|------------|--------------|-------------|--------------------------------------|----------------|-------|--|--|
| | 일주일에 한번 이상 | 한 달에 두세번 | 한 달에 한번 | 일 년에 3~5번 | 일 년에 한두번 | 지난 일 년간은 없었지만 그 이전에는 있었음 | 평생 경험한 적 없음 | 사례수 | | |
| 화초리, 머리빗, 벨트와 같은 단단한 물건으로 영양이를 때림 | 1.0(0.002) | 0.3(0.001) | 0.6(0.001) | 1.1(0.002) | 4.0(0.004) | 10.1(0.006) | 82.9(0.007) | 5,753 | | |
| 화초리, 머리빗, 벨트와 같은 단단한 물건으로 영양이 외의 다른 신체부위를 때림 | 1.1(0.002) | 0.2(0.001) | 0.3(0.001) | 0.7(0.002) | 2.9(0.003) | 6.4(0.005) | 88.3(0.006) | 5,753 | | |
| 맨손으로 아이의 머리, 얼굴, 귀 부위를 때림 | 1.0(0.002) | 0.2(0.001) | 0.3(0.001) | 0.5(0.001) | 2.3(0.003) | 4.7(0.004) | 91.0(0.006) | 5,753 | | |
| 맨손으로 아이의 (머리, 얼굴, 귀 이외의) 다른 신체부위를 때림 | 1.1(0.002) | 0.6(0.002) | 0.8(0.001) | 1.8(0.003) | 5.9(0.005) | 7.8(0.005) | 81.9(0.007) | 5,753 | | |
| 내용당이 차거나 밀쳐 넘어뜨림 | 0.9(0.002) | 0.1(0.001) | 0.1(0.001) | 0.4(0.002) | 1.0(0.002) | 2.9(0.003) | 94.5(0.005) | 5,753 | | |

〈부표 2-7〉 정서학대

| 구분 | (단위: %(표준오차), 명) | | | | | | | | | |
|---|------------------|-------------|------------|--------------|-------------|--------------------------------------|----------------|-------|--|--|
| | 일주일에 한번 이상 | 한 달에 두세번 | 한 달에 한번 | 일 년에 3~5번 | 일 년에 한두번 | 지난 일 년간은 없었지만 그 이전에는 있었음 | 평생 경험한 적 없음 | 사례수 | | |
| (아동 전체) 지난 1년동안 아동 정서학대 경험 (1) 큰 소리로 비난하거나 꾸짖었다. | 2.4(0.003) | 5.0(0.004) | 6.2(0.005) | 6.3(0.005) | 14.1(0.007) | 10.3(0.006) | 55.7(0.009) | 5,753 | | |
| (아동 전체) 지난 1년동안 아동 정서학대 경험 (2) 멀리 보내버리거나 집에서 쫓아내겠다고 위협했다 | 1.0(0.002) | 0.6(0.002) | 1.2(0.002) | 1.5(0.002) | 3.8(0.004) | 7.0(0.005) | 84.9(0.007) | 5,753 | | |
| (아동 전체) 지난 1년동안 아동 정서학대 경험 (3) 아이에게 때리겠다고 위협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때리지는 않았다. | 1.2(0.002) | 1.2(0.002) | 1.9(0.002) | 3.1(0.003) | 6.2(0.005) | 8.0(0.005) | 78.4(0.008) | 5,753 | | |
| (아동 전체) 지난 1년동안 아동 정서학대 경험 (4) 욕을 하거나 저주의 말을 퍼부었다. | 0.9(0.002) | 0.4(0.002) | 0.5(0.002) | 0.5(0.002) | 2.2(0.003) | 3.4(0.003) | 92.1(0.005) | 5,753 | | |

〈부표 2-8〉 가구처분가능소득

(단위: 만원(표준오차), 명)

| 구분 | | 가구 처분가능 소득 (만원) | | |
|-------|------------------|-----------------|-------|-------------------|
| | | 평균 | 사례수 | t, F |
| 전체 | | 388.87(4.279) | 5,753 | - |
| 아동 성별 | 남자 | 388.70(5.302) | 2,958 | t=-0.057 |
| | 여자 | 389.06(6.902) | 2,795 | |
| 아동 연령 | 0-2세 | 350.01(9.575) | 543 | F=9.004***(a) |
| | 3-5세 | 361.22(7.421) | 830 | |
| | 6-8세 | 398.74(10.803) | 1,046 | |
| | 9-11세 | 390.15(8.754) | 1,034 | |
| | 12-17세 | 402.95(8.013) | 2,300 | |
| 표본 | 일반 | 394.54(4.417) | 5,563 | t=18.105*** |
| | 수급 | 223.59(4.536) | 190 | |
| 소득수준 | 중위소득 50% 미만 | 112.12(2.442) | 615 | F=3,076.765***(a) |
| | 중위소득 50~100% 미만 | 250.86(1.699) | 1,860 | |
| | 중위소득 100~150% 미만 | 395.18(2.172) | 1,730 | |
| | 중위소득 150% 이상 | 664.39(9.246) | 1,509 | |
| 지역 | 대도시 | 391.00(6.636) | 2,701 | F=5.077**(a) |
| | 중소도시 | 391.59(6.076) | 2,731 | |
| | 농어촌 | 348.02(10.212) | 320 | |
| 가구유형 | 양부모 | 405.26(4.572) | 5,228 | t=29.533*** |
| | 한부모·조손 | 226.01(5.921) | 525 | |
| 맞벌이여부 | 맞벌이 | 445.32(6.626) | 2,732 | F=187.382***(a) |
| | 외벌이 | 345.93(5.536) | 2,851 | |
| | 기타 | 203.09(7.257) | 170 | |

주: 1) *** p<.001, ** p<.01, *p<.05
 2) (a) 분산분석을 위한 기본가정을 충족하지 못함

〈부표 2-9〉 박탈지수

(단위: 점(표준오차), 명)

| | | 평균 | 사례수 | t, F |
|-------|------------------|-------------|-------|-----------------|
| 전체 | | 1.15(0.046) | 5,753 | - |
| 표본 | 일반 | 1.02(0.048) | 5,563 | t=-10.238*** |
| | 수급 | 4.94(0.196) | 190 | |
| 소득수준 | 중위소득 50% 미만 | 2.09(0.173) | 615 | F=84.503***(a) |
| | 중위소득 50~100% 미만 | 1.73(0.102) | 1,860 | |
| | 중위소득 100~150% 미만 | 0.67(0.057) | 1,730 | |
| | 중위소득 150% 이상 | 0.56(0.069) | 1,509 | |
| | 무응답 | 2.63(0.611) | 39 | |
| 지역 | 대도시 | 1.17(0.066) | 2,701 | F=3.365*(a) |
| | 중소도시 | 1.09(0.071) | 2,731 | |
| | 농어촌 | 1.48(0.142) | 320 | |
| 가구유형 | 양부모 | 0.93(0.046) | 5,228 | t=-12.508*** |
| | 한부모·조손 | 3.32(0.215) | 525 | |
| 맞벌이여부 | 맞벌이 | 0.91(0.068) | 2,732 | F=209.355***(a) |
| | 외벌이 | 1.15(0.061) | 2,851 | |
| | 기타 | 5.00(0.401) | 170 | |

주: 1) *** p<.001, ** p<.01, *p<.05

2) 31개 문항 중 박탈된 문항(가지고 있지 않거나, 하고 있지 않거나, 박탈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을 합산한 점수임.

3) (a) 분산분석을 위한 기본가정을 충족하지 못함

〈부표 2-10〉 아동의 결핍지수

(단위: %(표준오차), 명)

| | | 결핍 아님 | 결핍 상태 (결핍 문항 14개 중 2개 이상 결핍) | 사례수 | χ^2 |
|-----------|------------------|--------------|---------------------------------------|-------|---------------|
| 전체 | | 82.40(0.007) | 17.61(0.007) | 5,753 | - |
| 아동 성별 | 남자 | 83.60(0.010) | 16.40(0.010) | 2,958 | 6.127(1)* |
| | 여자 | 81.12(0.010) | 18.88(0.010) | 2,795 | |
| 아동 연령 | 0-2세 | 80.54(0.017) | 19.46(0.017) | 543 | 166.437(4)*** |
| | 3-5세 | 89.18(0.012) | 10.82(0.012) | 830 | |
| | 6-8세 | 90.89(0.010) | 9.11(0.010) | 1,046 | |
| | 9-11세 | 85.22(0.015) | 14.78(0.015) | 1,034 | |
| | 12-17세 | 75.25(0.015) | 24.75(0.015) | 2,300 | |
| 표본 | 일반 | 83.48(0.007) | 16.52(0.007) | 5,563 | 137.750(1)*** |
| | 수급 | 50.47(0.018) | 49.54(0.018) | 190 | |
| 소득 수준 | 중위소득 50% 미만 | 75.03(0.024) | 24.97(0.024) | 615 | 79.995(4)*** |
| | 중위소득 50~100% 미만 | 79.99(0.012) | 20.01(0.012) | 1,860 | |
| | 중위소득 100~150% 미만 | 82.59(0.014) | 17.41(0.014) | 1,730 | |
| | 중위소득 150% 이상 | 88.61(0.013) | 11.39(0.013) | 1,509 | |
| | 무응답 | 63.72(0.104) | 36.28(0.104) | 39 | |
| 지역 | 대도시 | 80.61(0.011) | 19.40(0.011) | 2,701 | 19.417(2)*** |
| | 중소도시 | 84.65(0.010) | 15.35(0.010) | 2,731 | |
| | 농어촌 | 78.22(0.025) | 21.78(0.025) | 320 | |
| 가구유 형 | 양부모 | 84.13(0.007) | 15.87(0.007) | 5,228 | 119.061(1)*** |
| | 한부모, 조손 | 65.10(0.026) | 34.90(0.026) | 525 | |
| 맞벌이 여부 | 맞벌이 | 83.44(0.011) | 16.56(0.011) | 2,732 | 52.816(2)*** |
| | 외벌이 | 82.64(0.010) | 17.36(0.010) | 2,851 | |
| | 기타 | 61.60(0.040) | 38.40(0.040) | 170 | |

주: 1) *** p<.001, ** p<.01, *p<.05

2) 결핍지수는 14개의 결핍 문항(17-1~17-14) 중 적어도 2개 이상 결핍(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으로 응답한 비율을 의미함.

3) 0~8세는 보호자의 응답값을, 9~17세는 아동의 응답값을 활용하였음.

〈부표 2-11〉 거주 주택의 점유형태

| 구분 | | 자가 | 전세 | 보증부월세 | 월세(사글세, 연세, 일세) | 기타(무상포함) | 사례수 | χ^2 |
|-------|------------------|-------------|-------------|-------------|-----------------|------------|-------|--------------------|
| 아동 성별 | 전체 | | | | | | 5,753 | - |
| | 남자 | 65.4(0.008) | 21.7(0.007) | 8.3(0.004) | 1.5(0.002) | 3.0(0.003) | 2,958 | 9.961(4) * |
| 아동 연령 | 여자 | 66.3(0.012) | 20.5(0.010) | 8.7(0.007) | 1.2(0.002) | 3.2(0.005) | 2,795 | |
| | 0-2세 | 64.4(0.012) | 23.0(0.011) | 7.9(0.006) | 1.8(0.004) | 2.8(0.004) | 543 | |
| | 3-5세 | 48.7(0.022) | 38.6(0.021) | 7.0(0.011) | 1.8(0.006) | 3.8(0.009) | 830 | |
| | 6-8세 | 59.4(0.019) | 28.7(0.018) | 7.6(0.010) | 1.4(0.004) | 2.8(0.006) | 1,046 | 176.553(16) *** |
| | 9-11세 | 64.3(0.017) | 21.6(0.015) | 8.3(0.009) | 1.9(0.005) | 3.9(0.007) | 2,300 | |
| 표본 | 12-17세 | 67.2(0.022) | 19.5(0.019) | 8.4(0.011) | 1.9(0.007) | 3.1(0.008) | 5,563 | 640.531(4) *** |
| | 일반 | 71.1(0.015) | 16.2(0.013) | 8.9(0.008) | 1.2(0.003) | 2.6(0.006) | 190 | |
| 소득 수준 | 수급 | 67.1(0.009) | 21.9(0.008) | 6.8(0.005) | 1.3(0.002) | 2.9(0.003) | 615 | |
| | 중위소득 50% 미만 | 13.8(0.013) | 17.0(0.013) | 54.4(0.018) | 7.8(0.010) | 7.0(0.010) | 1,860 | |
| | 중위소득 50~100% 미만 | 64.1(0.025) | 20.3(0.021) | 10.1(0.012) | 1.6(0.003) | 3.9(0.010) | 1,730 | 151.631(16) *** |
| | 중위소득 100~150% 미만 | 59.4(0.015) | 21.7(0.013) | 13.4(0.010) | 1.7(0.003) | 3.8(0.006) | 1,509 | |
| | 중위소득 150% 이상 | 67.3(0.016) | 22.9(0.014) | 6.4(0.008) | 1.2(0.005) | 2.1(0.005) | 39 | |
| 지역 | 무응답 | 71.5(0.016) | 20.4(0.014) | 3.7(0.006) | 1.5(0.004) | 2.9(0.007) | 2,701 | 59.492(8) *** |
| | 대도시 | 49.6(0.104) | 38.7(0.109) | 3.6(0.026) | 5.1(0.027) | 3.0(0.029) | 2,731 | |
| 가구 유형 | 중소도시 | 62.0(0.012) | 24.0(0.011) | 8.4(0.006) | 2.2(0.003) | 3.5(0.005) | 320 | |
| | 농어촌 | 68.2(0.013) | 20.5(0.011) | 7.7(0.007) | 1.1(0.003) | 2.5(0.004) | 5,228 | 325.517(4) *** |
| 맛별이여부 | 양부모 | 70.3(0.027) | 12.8(0.019) | 13.3(0.021) | 0.2(0.001) | 3.5(0.010) | 525 | |
| | 한부모·조손 | 67.4(0.009) | 22.1(0.008) | 6.4(0.004) | 1.3(0.002) | 2.8(0.003) | 2,732 | 239.260(8) *** |
| 기타 | 맛별이 | 45.7(0.029) | 17.6(0.022) | 27.8(0.023) | 3.4(0.007) | 5.4(0.011) | 2,851 | |
| | 외벌이 | 69.6(0.012) | 20.3(0.011) | 6.0(0.006) | 1.5(0.004) | 2.6(0.005) | 170 | |
| | 기타 | 63.1(0.012) | 23.2(0.011) | 8.9(0.006) | 1.3(0.002) | 3.5(0.005) | | |
| | 기타 | 36.0(0.045) | 19.0(0.044) | 36.7(0.040) | 5.2(0.014) | 3.1(0.012) | | |

주: *** p < .001, ** p < .01, * p < .05